장편소설

대지의 딸

김 삼 복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

차 례

무겁게 고개숙인 벼이삭들이 물결치듯 설레이는 넓은 전야에 머리가 희슥한 녀인이 서있었다. 높아진 푸른 하늘아래로 아득히 펼쳐진 금빛대지의 거창한 숨결을 느끼며 희열과 행복감으로 가슴이 뿌듯해지고 지어 엄숙한 감정에 잠긴듯 낟알향기 풍기는 구수한 대기를 깊숙이 들이킨다.

가을날의 기쁨을 억누르지 못한듯 벼이삭들이 솨—솨— 설레이는 들은 얼마나 풍만하고 장엄한가. 그 들판에서 녀인은 하나의 점과도 같았다. 너무도 작은 존재로 보였다.

하지만 한생을 땅을 길들이고 곡식을 가꾸어온 녀인은 이 전야와 전야에 차고넘치는 창조물의 주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감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힘에 대한 격앙된 심정으로 대지를 굽어보고있는것이였다.

문득 땅이 진동하며 우릉우릉하는 소리를 내는듯 하였다. 입이 무거운 대지의 속삭임일가. 오직 진심만을 받아들이는 땅에 자기의 넋, 자기의 충정과 열정, 자기의 신념을 다 바쳐온 인간에 대한 그 어떤 감사의 정을 나타내려는것은 아닌지…

과연 녀인은 한평생을 땅에 씨앗만을 심고 가꾸었으며 낟알만을 걷어들이였던가.

처녀관리위원장

하루해가 지평선너머로 떨어지고 서늘한 바람이 바다쪽에서 불어오고있었지만 낮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대지는 아직 따뜻했다. 허명숙은 들바람에 파란 머리수건을 날리며 수로뚝우를 걸어 마을로 들어가고있었다. 종일 넓디넓은 들에서 일을 했으나 처녀의 늘씬하고 튼튼한 몸에는 아직 정력이 넘치고있는듯 걸음걸이가 힘찼다.

수건밑으로 보이는 둥그스름하고 볕에 익어 발그레한 얼굴에 저녁노을이 곱게 물들었다. 올해 22살, 관리위원장이 된지 반년도 채 안된다. 논배미들에서 벼이삭들이 바람에 설렁이는 들에서는 익어가는 낟알향기가 벌써부터 풍기는듯 명숙의 가슴은 부풀어올랐다.

어느덧 하늘의 구름에 비꼈던 노을빛도 꺼지고 대지에 어둠이 찾아들었다. 관리위원장방에 들어선 명숙은 머리수건을 벗어 걸고 앉은뱅이책상에 마주앉았다. 그 순간 전화종이 울리였다.

군당위원장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려왔다.

《관리위원장동무요?》

《예, 허명숙입니다.》

처녀관리위원장은 쟁쟁한 목소리로 반갑게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이마와 코등에 송글송글 내돋은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씻었다.

《마침 있구만. 앓지는 않소?》

이 물음은 명숙의 웃음을 자아내였다. 산골마을에서 태여나 가파롭고 숲이 우거진 산속을 쫴질러다니고 성미급한 산촌의 개울물에 뛰여들고 맨발로 걸어다니며 땅과 함께 성장한 명숙은 아직 병이라고 할만 한 병을 앓아보지 못했다. 이곳 관리위원장으로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만일 감기에 걸린다 해도 누워 앓을 짬이 없는 명숙이였다.

《아이참, 위원장동지도! 제가 왜 앓겠습니까?》

《그래? 허허…》

사람좋은 군당위원장은 웃고나서 이렇게 또 물었다.
《나들이옷이 있소?》
이건 또 무슨 소릴가?
《있습니다. 치마저고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처녀는 의혹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그저. 신발은 있소?》
명숙은 더 참을수 없어 《아이참, 그러면 맨발로 다니겠습니까?》 하고 어리광스럽게 반발했다.
《아니, 외출할 때 신는 구두같은거 말이요.》
《구두는 없습니다. 편리화를 신고다닙니다.》
《몇문을 신소?》
《37문을 신습니다.》
《발이 크구만. 키가 크니 발도 크겠지. 알겠소. 래일 아침에 나들이옷을 입고나와서 사무실에서 대기하고있소, 들에 나가지 말고. 알겠지?》
《네. …》
명숙은 《군당위원장동지, 왜 그러십니까? 회의가 있습니까?》 하고 묻고싶었으나 아무래도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 공손히 대답했다. 그러한 물음이 경솔한것일수 있다고 생각했던것이다.
(무슨 일때문일가?)
허명숙은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이마를 고이고앉아 군당위원장의 전화내용을 어떻게 리해할것인가 한동안 고심하였다. 도에서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아니라 해도 어떻든 그러루한 무슨 일이 있는것 같다. 하지만 내가 그런데 참가할 자격이 있을가. 아무튼 나들이옷을 물었는데 새 치마저고리가 없지, 신발도 편리화를 신고 어딜 가? 명숙은 금시 울상이 되였다.
좋은 천으로 지은 새옷을 입고 구두를 신어야 할 기회가 자기에게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었다. 농사일밖에 몰랐었다.
명숙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원래 굵게 땋은 외태머리가 허리까지 치렁치렁 늘어졌었는데 관리위원장이 된 후 들일에 방해가 되여 잘라버렸다. 그래 지금은 중발머리인데 거울속의 그 중발머리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명숙은 치마저고리를 입고나오기가 어색하여 여느날처럼 작업복차림으로 출근했다. 아침모임을 끝내고 좀 기다려보다가 군당위원장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으면 작업반으로 나가기로 작정하고있는데 밖에서 빵빵 경적소리가 울리였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군당위원장의 승용차가 들어서고 거기서는 명숙이도 알고있는 군당지도원(당시)이 내려서고있었다.

순간 명숙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속이 활랑거리였다. 군당위원장이 차까지 보낼줄이야 어떻게 알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정말이지 낡은 치마저고리를 입고 편리화를 신고서 어떻게 저 차에 올라타랴. 명숙은 속이 타들었다.

관리위원장사무실에 들어온 군당지도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군당위원장동지가 직접 통지를 했다던데, 왜 작업복차림이요? 빨리 서두르시오.》

《…》

《왜 그러오?》

《저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뭐요? 이건 무슨 통인가 하오?》

군당지도원이 펄쩍 뛰였다.

《못 갑니다.》

《왜 못 가오?》

《…》

《자, 이런! 이 동무 이제 보니 별난 고집이 있구만, 응?》

《…》

《허참, 중학생같이 떼를 쓰는구만.》

그는 두덜거리며 나가더니 리당위원장을 데리고왔다.

리당위원장은 체소하고 생김새도 별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였다. 그가 관리위원장방에 들어서자 명숙은 앉은자리에서 급히 일어섰다. 리당위원장이 처녀관리위원장보다 나이가 두곱이 넘는 아버지같은 사람이기때문일가?

리당위원장은 낮으나 굵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군당위원장이 부르는데 고집을 쓰면 되겠소? 어서 떠날 준비를 하오.》

《예, 알았습니다.》

처녀관리위원장은 두말없이 공손히 복종했다. 그 모양을 보는 군당지도원의 입가에 가벼운 웃음이 실리였다.

명숙은 집에 들어가 차비를 하고 군당지도원과 함께 읍으로 향했다. …

명숙이가 리당위원장 라순돌이 사무실에 들어섰을적에 바삐 일어섰고 그의 타이름에 순응한것은 그가 나이 많거나 리당위원장이기때문만은 아니였다. 명숙은 라순돌을 지극히 따르며 존경하고있었다.

올봄에 이 농장에 관리위원장으로 부임되여온 허명숙은 그 책임적인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기도 했고 애젊은 나이에 협동조합에 들어 오늘까지 들에서 일하는데 익숙된 몸이 사무실에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있자니 불편하고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였다. 그래 들에 나가 어느 분조의 모판에서 종일 락종을 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로 모판에 나가 일했다.

《래일은 나하고 같이 농장을 돌아봅시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라순돌이 합숙으로 찾아와 말했다.

《저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관리위원장이 할 일은 따로 있소. 우선 관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소?》

《그건 기사장동지가 다 합니다. 저는 모판에 나가 일하는것이 재미나고 좋습니다.》

천진하다 할지 고집스럽다고 할지 라순돌은 어떻게 설복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는 화를 냈다.

《그럼 나도 리당위원장사업을 걷어치우고 락종이나 할가? 그러면 머리도 아프지 않고 편안하지. 그래 편안하게 지내자는거요? 어렵고 중요한 직책을 피하고 쉽고 편안히 지내자는거요? 동무를 공부시키고 당원으로 키워주고 관리위원장으로 내세워준 당의 혜택에 그렇게 보답하려는거요?》

그에게서 처음 당하는 추궁이 명숙을 숨가쁘게 했지만 왜 그런지 아프지는 않았다.

《명심해두오. 내 이름은 순돌이지만 사업과 원칙앞에서는 순돌이가 아니요.》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던 라순돌은 처녀가 머리숙이는것

을 보고 지내 혹독하게 말한것 같아 어성을 낮추었다. 《미안하오, 관리위원장동무에게 큰소리를 쳐서! 저녁식사전이요?》

《…》

명숙은 입이 열리지 않았다.

《식사를 하고 푹 쉬시오. 래일 아침에 내가 올테니 같이 농장을 돌아봅시다.》

라순돌은 명숙이가 공연히 고집을 부리며 제멋대로 하려 하면 눈물이 나오도록 호되고 날카로운 비판을 주군 했으나 인정이 많고 대범하고 다심하며 성실한 인간이였다. 그는 당원으로나 일군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직 미숙한 처녀관리위원장을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여 꾸준하게 일을 배워주고 이끌어주어 명숙이가 자기 직책에 익숙되고 자리잡도록 해주었다. 명숙을 뒤받침해주느라 애도 태웠다.

명숙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훌륭한 당일군을 만났다는것을 알게 되였으며 첫인상에 볼품이 없는 남자로 보았던 라순돌에게서 인간적 매력을 느꼈다. 명숙은 그를 존경하고 어려워했으며 아버지처럼 대하게 되였다.

군당지도원은 이런 내막을 깊이 알수 없었다.

군당청사에 도착한 명숙은 지도원의 안내를 받으며 군당위원장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아, 왔소?》

군당위원장은 반기면서도 앉으라는 말은 하지 않고 처녀관리위원장의 옷차림을 살펴보았다. 흰 저고리와 검정치마, 농촌녀성들이 나들이를 갈 때면 차려입고 나서는 수수한 옷이였다. 명숙이에게 잘 어울리였다. 하지만 옷이 낡았다. 신은?… 군당위원장은 눈길을 얼른 돌리였다.

《형국동무.》 군당위원장은 지도원에게 말했다. 《지시한대로 하오. 명숙동무, 지도원동무를 따라가오.》

명숙은 지도원을 따라나가면서 얼굴이 화끈해났다. 군당위원장에게서 본 어두운 눈빛때문이였다.

(공연히 왔어. 오지 말았어야 할걸.)

하고 후회하며 명숙은 지도원을 흥심없이 따라갔다. 그런데 지도원은 그를 조선옷을 전문하는 옷점으로 데리고갔다. 거기서 명숙은 몸

을 잿다. 아마 새옷을 지어주려는가봐 하는 생각에 명숙은 속이 뜨거워났다.

그다음은 상점으로 갔다. 거기서 발에 꼭 맞는 가죽구두를 샀다. 어찌나 그 구두가 멋있었던지 명숙은 당장 신고싶었는데 지도원은 포장곽채로 승용차안에 실었다. 그리고 지도원은 명숙을 군려관으로 데리고갔다. 미리 이야기가 있었는지 관리원이 열쇠를 선뜻 주었다.

지도원은 2층 1호실의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당분간 여기에 거처하게 되오. 좀 쉬고나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미용원에 가서 머리를 좀 다듬으시오.》

《전 돈도 가져온것이 없고…》 군에 온 이후 어리뻥뻥해져 지도원이 안내하는대로 그저 따라다니고만 있는 명숙은 얼굴을 붉히며 소곤거리듯 말했다. 지도원이 없으면 어디도 갈수 없을것 같아 당황해졌다. 목욕탕이나 미용원에 남자지도원과 같이 갈수 없으니 혼자 가는수밖에 없지 않는가.

《아, 그건 걱정마오. 이야기가 다 되여있으니 가기만 하면 되오.》

목욕을 끝내자 레스가 달린 하얗고 매끈매끈한 명주속치마를 주었다. 아, 꿈엔들 이런 속치마를 바라볼수 있었으랴. 이어 미용원에 가서 머리를 다스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 보는것 같아 머리를 숙이고 려관으로 돌아오니 점심시간이였다. 그는 성의껏 차려준 식사를 하고 호실에 들어가앉았다. 그리고 꼼짝하지 않고 이 모든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해보려고 깊은 상념에 빠졌다.

군당위원장동지가 관리위원장으로 사업을 시작한 자기 명숙을 생각해서 앞으로 군이나 도에 회의도 다녀야 하니까 보살펴주는것일가. 피살자유가족이라고 리당위원장 라순돌이도 명숙이네 집일에 관심을 많이 돌려주었다. 군당위원장동지도 그래서일가. 군당지도원은 오후 네댓시경에 자기가 데리러 오겠다고 하였다. 그때 가면 옷이 다 만들어질테니까 같이 가서 입어보려는것이겠지. …

육체를 놀려 일하던 사람이 빈방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있다는것은 참으로 맹랑한노릇이여서 명숙은 려관앞거리로 나가 산보를 하였다. 그러던중 안면이 있는 군인민위원회 과장을 만났는데 그는 저으기 흥분된 어조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읍협동농장과 천태협동농장을 현지

지도하시고 떠나가셨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명숙은 깜짝 놀라 가슴이 후두둑 뛰였다. 수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싶어 캐물었으나 과장은 그 이상 더 아는것이 없었다.

(아, 언제면 농사를 잘 지어 우리 농장에도 수령님을 모실수 있을가.)

아직 아무것도 해놓은 일이 없는 애숭이관리위원장으로서 명숙은 이렇게 념원하면서 려관으로 돌아왔다.

오후 늦어 군당지도원이 약속한대로 찾아왔다.

《갑시다.》

그는 이렇게 간단히 실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려관앞에 서있는 승용차를 타고 조선옷을 전문하는 옷점으로 가는 명숙은 많은것을 묻고싶었으나 지도원의 표정이 여전히 실무적이여서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옷점에서는 조선옷을 이미 다 지어놓았다. 눈처럼 하얀 옥당목저고리와 까만 치마! 명숙은 황홀해서 옷을 만져보며 어쩔줄 몰라했다.

《어서 입어보오.》

《예.》

잠시후 명숙이 옷을 갈아입고 나타났다.

《편안하오?》

《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옷점책임자가 《꼭 맞습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렸다.

체경속에 비낀 자기의 모습을 신비하게 들여다보며 기쁨을 금치 못하는 처녀에게 지도원이 들고온 포장함을 열고 까만 가죽구두를 내주었다.

《신으시오.》

명숙은 여태 신고있던 편리화를 벗고 번쩍이는 새 구두를 신었다. 그리고 자기도 어쩔수 없는 호기심에 끌려 다시 체경을 들여다보았다. 앞머리를 약간 지져 굽실굽실하게 만든 미용사의 솜씨는 처녀의 얼굴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다. 눈에 가득 실린 황홀감에 환해진 얼굴이 과연 자기 명숙이란 말인가? 옥당목치마저고리는 얼마나 눈부신가. 까만 가죽구두는 처녀의 다리를 더 미끈하고 탄력있게 보이게 했고 키를 더 늘씬해지게 했다.

명숙은 지도원과 책임자를 향해 돌아섰다.

《멋있소.》

지도원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

명숙은 활짝 웃으며 수태를 머금고 얼굴을 붉혔다.

《갑시다.》

명숙은 입던 옷과 신이 들어있는 보자기를 들고 뒤따라 승용차에 올랐다. 차가 움직였다.

《지도원동지…》

《뭐요?》

《전 도무지 꿈을 꾸는것만 같아서… 무슨 일인지?》

《군당위원장동지가 기다리오.》

그는 딴 대답을 하였다.

군당위원장이 자기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인사를 하는 명숙이에게 말했다.

《음. 여기, 여기루 가까이 걸어와보라구… 음, 됐어, 됐어!》

수집음을 머금고있는 처녀의 얼굴을 보며 군당위원장은 웬일인지 눈을 슴뻑이였다.

(일밖에 모르는 순박한 농촌처녀, 우리 처녀들도 이렇게 차려입히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는 손을 내저으며 목메여 겨우 말했다.

《나가 기다리오.》

명숙은 영문을 모르고 지도원을 따라나갔다.

군의 책임일군들과 허명숙이 먼저 두대의 승용차로 떠나고 뒤따라 군내 관리위원장들이 뻐스를 타고 떠났다.

해가 기울어질무렵 명숙은 꽃들이 피고 나무들이 우거진 정원속의 아담한 건물에 도착하여 어느 한 방으로 들어갔다. 대여섯명정도의 관리위원장들이 이미 와있었다.

이슥하여 겉모양이 끼끗한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동무들은 곧 수령님의 접견을 받게 된다고 알려주면서 몇가지 사항을 언급하였다.

그 순간 허명숙은 온몸이 둥둥 뜨는것 같았다.

여기까지 오면서 군에서 새옷을 입혀주고 새 구두를 신겨준것이 단순히 군당위원장의 성의에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회의때문일것이라고 고쳐 생각했지만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게 될줄 어찌 알수 있었으

랴. 처녀관리위원장으로서 감히 바랄수 없었던 념원이 이렇듯 이루어질줄 어떻게 생각이나 할수 있었으랴. 꿈 아닌 현실이였다.

심장은 세차게 뛰였다. 명숙은 가슴을 부둥켜안았다. 처녀가 지금 제일 자신을 속박하는 생각은 다른 관리위원장들은 남자건 녀자건 다 나이도 있고 공로도 있으며 경험도 풍부한 사람들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해놓지 못했으며 겨우 출발선에 서있는 상태라는것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였을가. 혹시 수령님께서 무엇인가 물으시면 무슨 대답을 드릴수 있을가. 정말 명숙은 드릴 말씀이 없었다. 그저 속이 떨리기만 했다.

이윽하여 그들이 들어왔던 문과 반대되는 곳의 문밖에서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식사를 준비시켰소?》

준비시켰다고 대답하는것 같았다.

문이 열리였다. 환한 웃음을 만면에 담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들어오시였다. 명숙의 첫 느낌은 문이 꽉 차고 방안에 신비로운 빛이 비쳐드는듯 밝아지는것이였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몇몇 간부들이 뒤따라 들어왔다.

맞은편 창문들이 있는 벽의 걸상에로 가시여 수령님께서 손을 흔드시였다.

《앉으시오, 앉으시오. 박수는 무슨 박수요.》

그이께서 앉으시며 관리위원장들을 쭉 둘러보시는데 그이와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명숙은 온넋이 하늘로 뜨는듯 하였다. 그이의 안광은 강렬하고 신비롭게 번쩍이였다.

금시 자기에게 누구냐고 물으실것 같아 명숙은 속이 한줌만 해졌다. 엄엄한 분위기에 눌려 처녀는 자기를 잃고있었다.

《래일 황해남도 농사를 가지고 협의회를 하는데 동무들과 먼저 좀 이야기해봅시다.》

그이의 목소리가 어찌도 우렁우렁한지 방안의 대기가 울리고 그 파동이 가슴에까지 미쳐왔다.

그이께서 한 남자관리위원장의 이름을 부르시였다. 50대의 건장하고 오랜 농사일에 꽛꽛해진 손등에 힘줄들이 툭 불거진 농민이 일어섰다. 수령님께서는 그와 잘 아는 사이인지 건강상태며 가정형편, 올

해 작황에 대해서와 경험은 무엇인가 등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다음은 역시 나이 들어보이는 녀성관리위원장과 담화를 하시였다. 명숙은 시간이 감에 따라 엄엄한것 같던 분위기가 집안사람끼리 모인것처럼 허물없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는것을 느끼였다. 속도 떨리지 않았다. 언제면 자기도 공로있는 관리위원장이 될가 하는 부러움이 질어갔다. 그들은 수령님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한 일이 있고 따라서 할 이야기가 있기때문일것이다.

수령님께서 한 중년의 관리위원장녀성과 담화를 끝내고 도당위원장에게 물으시였다.

《여기 처녀관리위원장도 참가했소?》

《예, 허명숙동무.》 하고 도당위원장이 명숙을 불렀다.

명숙은 어떻게 일어섰는지 알수 없었다. 그렇지만 마음을 다잡고 쟁쟁하게 울리는 맑은 목소리로 크게 《현촌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허명숙이 인사드립니다.》 하며 머리를 깊이 숙이였다. 일단 일어서자 시원시원하고 대담한 성미가 본색을 나타냈다. 그의 씩씩한 대답을 들으시면서 수령님께서는 대견해하시였다.

《몇살이요?》

《스물두살입니다.》

《나이가 좋아! 언제부터 관리위원장을 하나?》

《올해 3월부터입니다.》

《몇달이 안되였구만. 그래, 관리위원장을 해보니 어떻소?》

마치도 아버지처럼 부드럽고 다정하게 물어주시니 명숙은 긴장감이 얼음녹듯 했으나 이 물으심에는 쉽게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해보니 해볼만 합니다.》 혹은 반대로 《힘에 부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경솔하게 또는 지내 천진스럽게 말씀드릴수 없지 않는가.

사실 처녀들에게 관리위원장사업을 시켜보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의도를 내놓으실 때 수령님께서는 조선처녀들의 성격적특질에 대한 깊은 파악에서 출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전쟁시기에 우리 녀성들이 전선과 후방에서 발휘한 영웅주의에서 깊은 감명을 받으시였다. 실례로 개천군의 처녀보잡이를 들수 있다. 그는 10대의 처녀시절에 남정들을 대신하여 보탑을 잡았고 전후에는 맨먼저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첫 처녀관리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키가 작으나 오돌차고 말

이 적으나 실천력이 강하고 유순해보이나 속대가 센 외유내강한 처녀였다. 이처럼 마음이 곱고 고지식하며 부지런하고 이악한 대바른 녀성들을 처녀시절부터 관리일군으로 내세워 풍부한 경험을 쌓게 하고 단련시켜 농업전선의 믿음직한 간부로 키우는것이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인 견지에서나 녀성들이 많은 농촌의 현실적요구에서나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천리마동상에 태운 근로자들의 형상에서 벼단을 안은 녀성의 모습이 상징적이라 할수 있다.

수령님께서 오늘 관록있는 오랜 실농군관리위원장들과 함께 처녀관리위원장을 만나보시는것이 의미가 깊었다. 그러므로 그이의 물으심에 명숙이 어떻게 대답을 드리는가 하는것이 주목되였다. 도당위원장이 가슴을 조이였다.

수령님께서 서글서글 웃으시며 처녀에게 용기를 주듯 재차 말씀하시였다.

《힘들지 않소? 솔직히 말해보오. 내앞에서는 솔직히 말해야 해.》

《일이 힘듭니다.》

명숙이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였다.

솔직히 말하라니 너무 고지식하게 대답올리는것이 아닌가? 도당위원장은 얼굴빛이 컴컴해졌다.

《음, 힘들테지. 왜 힘들지 않겠나? 힘들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야. 일을 쉽게 하자는 사람에게는 힘들지 않을수 있어. 그러나 진짜 일을 잘해보려는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이 쉽지 않지. 힘은 들지만 해내고야말겠다는 각오와 열정이 있으면 해내는거야.》

얼굴빛이 밝아진 도당위원장이 허명숙이가 관리위원장으로 임명받고 못하겠다고 내빼던 일과 리당위원장이 데리고다니며 걸음마다 일깨워주고 이끌어주던 일, 당조직의 지도방조를 받으며 아직 경험은 없지만 열성을 다해 들에 나가살다싶이 하며 농사를 짓고있는 사실들을 말씀드리였다.

수령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처녀가 대견하였다.

《명숙이, 아버지는 뭘 하오?》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그 순간 명숙은 설음이 북받쳐올랐다. 그러나 설음을 누르고 대답을 드리는데 어쩔수없이 목소리가 떨리였다.

《전쟁시기 원쑤놈들에게… 학살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원이였소?》
《세포위원장이였습니다.》
《그랬구만.》
수령님께서는 낯빛을 흐리시며 성냥곽을 눕혔다세웠다 하시면서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였다.
무거운 침묵… 이윽하여 그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고요가 깃든 방안을 꽉 채우며 울리였다.
《집에 누구누구 있소?》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몇이요?》
《둘입니다.》
《어머니는 뭘 하시오?》
《전쟁때 폭격에 허물어진 집을 다시 지으려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허리를 상한 후부터 농장에서 일을 못하고 부업을 합니다.》
《그러니 집에 들어가서는 세대주고 농장에 나와서는 관리위원장이고, 참 용소. 마음고생이 많았겠소.》
명숙은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라 눈물에 젖어 말씀드리였다.
《수령님, 저는 열살때에 원쑤놈들에게 아버지를 잃었고 미국놈폭격에 집도 잃었습니다. 앓는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피살자유가족이라고 학습장과 연필들을 무상으로 주어 공부를 할수 있었고 쌀도 내주고 옷도 주어 굶지 않고 살아갈수 있었습니다. 수령님께서 보살펴주셨기에 저는 아버지없는 설음을 몰랐고… 오늘은 관리위원장으로까지…》
명숙은 목이 메여 더 말을 못했다.
《음… 앉소, 앉으라구.》 그이께서 명숙이가 앉자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나는 피살자유자녀들을 만나본 날이면 가슴이 아파 잠이 오지 않소. 그때마다 나는 동무들의 친아버지가 되여 훌륭한 일군으로 키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오.》
명숙은 헉헉 흐느낌이 가슴속에서 솟구쳐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있었으나 어깨는 더 떨리였다.
다른 관리위원장들의 눈가에도, 도당위원장의 눈에도 눈물이 어리였다.

《진정하오, 명숙동무!》

도당위원장이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다.

명숙은 입을 더 힘껏 막으며 가까스로 진정하였다.

수령님께서 말씀하시였다.

《나는 명숙이에게 믿음이 가오. 힘이 든다고 솔직하게 말하니 믿음이 간단 말이요. … 힘이 들지! 그러나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도 능히 관리위원장사업을 잘해나갈수 있소. 녀성들이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남자들보다 일을 깐지게 하고 농장살림살이를 알뜰히 할수 있소.》

수령님께서는 일을 잘하겠다는 열의만 높아서는 안된다, 과학기술을 알아야 한다, 일하면서 농업대학을 통신으로 다니라, 군당에서 도와주라고 다심한 관심을 돌려 말씀하시였다.

《동무들과 같은 땅의 주인들인 농촌의 핵심들이 제일 큰 재산입니다. 나는 동무들을 믿습니다. 농업생산은 인민생활과 직접 련관되여 있습니다. 나라에 쌀이 많아야 인민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모든 일이 다 잘 펴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이와같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며 황해남도 농사에서 전변을 가져오리라고 확신한다고, 래일 협의회에서 실무적인 문제들을 토의하자고 하시며 자리를 뜨시였다.

눈물속에 잠긴 명숙은 어떻게 수령님을 바래워드리였는지, 또 어떻게 식당으로 안내되여 들어갔는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저 어슴푸레하게 생각될뿐이였다.

이날은 허명숙의 일생에서 관리위원장으로서의 시작점에서 가장 큰 영광과 은정을 받아안은 잊을수 없는 날이였으며 정신상태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열려진 날이였다. 명숙은 어버이수령님을 친아버지로 마음속깊이 모시였고 수령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 일해나갈 신념의 맹세를 더깊이 간직했다.

농장으로 돌아온 명숙은 저기 바다기슭 동뚝까지 아득히 펼쳐진 들판으로 나갔다. 세기를 두고 내려오며 우리 조상들의 원한이 서리고 눈물에 젖은 대지, 하지만 그들이 땅의 주인이 된 때로부터 애국의 구슬땀에 젖고 우리 제도를 지켜싸운이들의 성스러운 피가 스민 어머니 대지! 어찌하여 지금 명숙의 가슴은 이 대지에 대한 애착으로 더욱 후

더워오는것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머리속을 꽉 채우고있었다. 그이의 말씀에는 얼마나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가. 나라에 쌀이 많아야 모든 일이 잘 펴인다. 그렇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다른것과는 혹시 타협할수 있어도 배고픈것과는 타협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내 진정 이 대지의 주인으로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나라의 쌀독을 채우기 위해 충정의 더운 땀을 흘리리라! 명숙은 바다쪽으로부터 낟알이 익어가고있는 넓은 들판을 스쳐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을 가슴깊이 들이키였다. 머리수건이 나붓기고 치마자락이 펄럭이였다.
《관리위원장동무!》
등뒤에서 명숙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명숙은 라순돌리당위원장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리당위원장동지!》
《관리위원장동무, 축하하오!》
둘이 손을 맞잡는데 명숙의 눈굽에 물기가 어리였다.
《허허… 자, 여기 좀 앉기요.》
라순돌은 명숙이와 함께 보뚝우에 앉았다. 그리고 명숙의 손을 다시 쓰다듬어주면서 어서 이야기하라고, 수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였는가고 재촉하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 라순돌은 생각깊은 엄숙한 얼굴로 벼이삭들이 설렁이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땅의 주인들이라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할거요.》
라순돌은 해방후 우리 농민들이 토지를 분여받았을 때의 그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루 다 말할수 없다, 그래 해마다 풍작을 마련하여 나라의 쌀독을 채웠다, 오늘 협동화된 이 대지의 주인들은 주인구실을 더 잘해야 할것이다, 진짜 땅의 주인구실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고 자기의 느낌을 토로하였다.
《리당위원장동지, 저를 더 채찍질하고 깨우쳐주십시오!》
명숙이 진심으로 부탁했다.
《수령님께서 다 가르쳐주셨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소. 동무들의

친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참된 딸이 되기를 부탁하고싶을뿐이요.》

이렇게 말한 라순돌은 그날부터 허명숙이 진실로 수령님의 참된 딸이 되도록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뒤에서 이전보다 몇배의 노력을 기울여 도와주었다.

탈곡작업이 한창이던 초겨울, 6작업반의 탈곡이 늦어진다고 걱정하는 명숙의 소리를 들은 라순돌은 이튿날 아침 일찌기 작업반탈곡장에 나타나 아무말없이 농장원들과 같이 일에 붙었다. 그는 전쟁시기 구월산에서 빨찌산투쟁을 할 때 다리에 부상을 입은 사람이였는데 저녁늦게까지 탈곡을 하였다. 이날 6작업반의 탈곡실적이 쑥 올라갔다. 그는 이렇게 관리위원장을 뒤받침해주었다.

이날 뒤늦게야 이 일을 알고 작업반탈곡장에 달려간 명숙이는 그를 작업장에서 떼여내며 《왜 이렇게 무리합니까? 자기 몸상태를 알아야지요.》 하고 안타깝게 말했다.

탈곡장밖으로 나와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담배를 말며 라순돌이 빙그레 웃었다.

《좀 무리했소. 관리위원장동무처럼 해보려 했지. 어방도 없더군.》

《저야 젊지 않았습니까.》

《젊었지. 그래서 나는 농장의 앞날을 락관하오.》

그의 얼굴에 넘치는 따뜻하고 밝은 표정을 보며 명숙은 좋은 당일군을 만난 행복감에 눈굽이 뜨거워났다.

로당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허명숙은 이렇게 한해두해 성장했으며 연백벌—어머니대지에 깊이 뿌리내리였다.

이 과정에 가슴아픈 상실의 슬픔도 겪었다. 연백벌 앞바다의 섬에 둥지를 틀고있는 원쑤놈들과 련계를 가지고 마을에 잠입한 반동놈에 의해 라순돌이 피살되였던것이다.

라순돌의 죽음은 명숙이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한것이 아니라 계급적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연백벌에 알곡풍년을 가져오기 위한 영농사업에 더욱 분발하게 했다.

그렇게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

제 1 장

17년이 지나 새 고장에서

1

밤이였다. 밖에서는 1월의 찬바람이 눈가루를 휘말아가지고 창문에 뿌려치며 아우성을 치고 석탄불을 때서 훈훈한 사무실안에서는 두사람이 마주앉아있었다.

한사람은 키가 어지간히 크고 나이도 어지간히 든 농장기사장으로서 방의 주인이였다. 부석부석한 얼굴의 표정은 가늠하기 어려웠다. 다른 사람은 키가 크지 않고 나이도 기사장보다 아래되는 잠정리 리당비서로서 방금전에 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눈이 하늘처럼 맑고 표정이 밝았다. 그가 기사장을 찾아온 목적은 자기들의 농장에 있어서 자못 중대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기사장은 눈길을 떨구고앉아서 찾아들어온 사람이 입을 열기를 기다리였다.

《관리위원장동무가 해임되고 새 관리위원장이 임명되여 곧 도착할것이라고 군당에서 알려왔습니다.》

리당비서 차성재가 말했다.

기사장 로정만은 눈섭을 추켜올리며 새 소식을 접했다. 눈빛이 흐릿해지는 그의 심정은 착잡한듯 했다.

이 잠정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은 나이가 많은 아바이였는데 성실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이였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도병원에 입원까지 했었고 벌써 석달남짓이 자기 사업에서 떨어져있었다. 그간 기사장 로정만이 관리위원장사업을 대리했다. 로정만은 앞으로 관리위원장이 자기 직책에서 더 일할수 없을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었는데 그 예감이 맞아떨어졌다. 그가 해임되고 새 관리위원장이 온다는것이다.

《새로 임명되여오는 관리위원장은 어디 사람이랍니까?》
로정만이 궁금증을 참지 못했다.
《연백벌에서 관리위원장을 하던 녀성인데 서른아홉살났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랍니다.》
차성재의 대답을 듣고 로정만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이름이 허명숙이지요?》
《그 녀성을 압니까?》
《잘 모릅니다.》 로정만이 대답했다. 《얼굴도 보지 못했지요. 그렇지만 잘 알려진 관리위원장입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니 허명숙이겠지요.》
허명숙은 처녀로 관리위원장사업을 시작하면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닌 녀자였고 그후 오랜기간 일해오며 실적을 올려 소문이 났다. 그처럼 연백벌에서 명성이 높은 관리위원장이 온다니 우선 안심이 되였다.
이전 관리위원장은 진짜배기 농사군답게 일을 잘했고 이신작칙을 하는데서는 그 누구도 따르지 못했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조직력과 내밀성이 차츰 부족해졌다. 그래 기사장 로정만이 애를 많이 썼다. 하지만 기사장이 관리위원장을 대신할수 없지 않는가. 기사장은 농산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관리위원장은 농장전반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며 로력을 관리하고 농장원들과의 사업도 하며 군과 도에도 부지런히 다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관리위원장이 나이들면서 힘들어한다.
로정만기사장이 걸린 문제들, 례를 들면 뜨락또르부속품이라든가 비료를 해결받기 위해 나서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그는 반드시 해결받아가지고 왔다. 이런 과정에 로정만의 모습이 뚜렷하게 부각되였다. 재작년과 작년에 잠정리는 풍작을 이룩했고 국가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 특히 작년에 성과가 컸다. 하긴 70년대말인 작년은 전국적으로 농사가 잘된 해였다. 그저 잘된것이 아니라 최고수확년도를 기록하였다.
잠정리에서는 농호당 평균 알곡 8.5톤과 2 400원의 현금을 분배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가져온데는 관리위원장과 기사장의 노력이 컸다는것을 누구나 인정하고있었다.

로정만은 이곳 잠정리에서 태여나지는 않았지만 부모를 따라 잠정리로 와서 성장했고 나이가 되자 농사를 지었다.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된 후에는 분조장도 했고 농업대학을 졸업한 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사업하다가 다시 본고장에 기사장으로 내려와 어느덧 10년 잘되게 일해오고있다. 그는 농장의 내부실태와 살림살이, 초급일군들은 물론 농장원들의 성격까지도 환하게 알고있으며 그래서인지 관리위원회 성원들이나 작업반장들이 그를 어려워했고 그의 지시를 무겁게 대했다. 그는 농장원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농장에서 사업적권위가 있었다. 오랜 농사군이지, 기사장을 10년가까이 했지, 안면이 넓지, 말이 적고 점잖지, 이런것으로 하여 그는 잠정리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있었을뿐아니라 군적으로도 인정받고있는 일군이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로정만이를 경영위원회의 책임적인 위치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론의가 작년부터 있었다.

《여보, 로동무.》 로정만이 군경영위원회에서 일할 때 같이 있었고 지금은 경영위원장을 하는 사람이 작년 봄에 로정만이에게 내놓고 말했었다. 《동무가 잠정리에 지내 오래 있는것 같소. 경영위원회로 다시 올라와야 하겠소. 한해를 총화할 때마다 군당과 도당에서는 우리 군이 알곡 10만톤수준에 도달 못한다고 말하는데 로동무가 경영위원회에 올라와서 나와 같이 손을 잡고 우리 군을 10만톤군으로 만들어봅시다.》

같이 손을 잡고 일하자고 하는데는 군경영위원회 기사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이 담겨져있는것이 아닐가? 로정만이는 그의 말에 겉으로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충동이 컸다.

그자신도 자기가 지내 농장기사장을 오래 하고있다고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군경영위원장은 이미 시작한 올해농사나 짓고는 군으로 소환하겠다고 기일까지 찍어 말했다. 로정만은 신바람나고 기운이 솟아 작년농사에서 풍작을 마련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관리위원장이 앓기 시작하여 부득불 해임되였다. 이런 상태에서 농장기사장을 뽑아갈수 있을가? 아닌게아니라 한해가 지나가고 새해 정월달에 접어들었지만 군경영위원장은 로정만이에게 다른

사업상 이야기는 하면서도 군에 소환하는 문제만은 의식적으로 피하고있었다. 경영위원장이 가만있는데 로정만이 먼저 말을 꺼낼수가 없지 않는가. 또 경영위원장이 그 문제를 피하고있는것이 관리위원장의 해임과 관련되여있다는것을 짐작할수 있는데 구태여 캐여물어보아야 하겠는가. 그래 로정만이도 침묵을 지키고있는데 방금 리당위원장이 새 관리위원장이 온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로정만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로정만이 허명숙이가 새 관리위원장으로 온다니 안심되는것은 자기 문제가 다시 상정될수 있다고 보았기때문이였다. 이름난 쟁쟁한 녀성관리위원장이 오게 되였으니 로정만이를 예정했던대로 군에 소환해갈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한편 새 관리위원장이 자리잡도록 방조해야 할것이고 군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바랄것이다.

어째서인지 자기의 소환문제가 꼬이는것만 같아 로정만이는 불안스러웠다.

리당비서 차성재가 말을 계속했다.

《군당에서 그러는데 도당책임비서동지로부터 새 관리위원장이 들 살림집을 잘 보수하고 부엌에 불도 지펴서 온돌을 덥혀놓으라는 지시가 왔답니다. 어쩌면 도당책임비서동지가 같이 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당책임비서가 직접 허명숙을 선정했을수 있겠군.)

로정만은 허명숙에 대해 말은 좀 들었으나 실지 대상해본적은 없으니 호기심이 부쩍 동했다. 녀성이니 더욱 그랬다.

《새 관리위원장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하겠구만요.》

로정만이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차성재가 고개를 끄덕이였다.

로정만은 도당책임비서의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관리위원장을 맞이할 준비를 잘할 생각이였다. 잠정리에 인격이 있고 례절밝은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무엇보다도 허명숙이 오는것이 기뻤다.

리당비서 차성재는 기사장을 존경했고 그의 말을 함부로 무시 못했으며 나이도 자기보다 많아 대화할 때 존경어를 썼다. 로정만도 차성

재가 나이가 아래지만 리당비서여서 존경어를 썼다.
차성재가 방에서 나간 후 기사장은 부위원장을 찾아가서 관리위원장집 보수문제를 의논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도당책임비서동지도 같이 올수 있으니까 잠정농장의 실력을 보여야 하겠소. 완전히 새집처럼 해놓읍시다. 그러되 빨리 해야 할거요.》
부위원장은 난처한 표정이였다.
《세멘트랑 자재를 갑자기 어디서 가져오겠소?》
《보수반에 자재가 없소?》 로정만은 불만스러워했다. 《어데서 돌려쓰든 대책을 세워보시오.》
관리위원장사업을 대리하고있는 로정만이 부위원장에게 독촉하였다.

2

허명숙이 연백벌을 떠나 다른 고장으로 옮겨간다는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다. 그가 말한것처럼 큰 나무를 뿌리채 뽑아 옮겨심는것과 같다 할수 있었다. 실무적으로는 가산들을 자동차에 싣고 식구들과 같이 옮겨가면 되는 일이였다. 그러나 그동안 정을 붙인 농장원들과 헤여지고 정든 땅을 떠나자고 하니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명숙은 이미 처녀시절에 여기 연백벌에서 평생 농사를 지을 결심을 했었다. 그는 자기가 이 고장을 뜨게 될수도 있다는것을 한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부닥쳤으니 무척 당황했고 지어 그는 믿어지지 않기까지 했다.
허명숙은 정든 고장을 떠나기 싫어 자기가 조동되여간다는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서운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전야를 돌아보고 작업반들에 들려보며 시간을 보냈다. 바다기슭에까지 펼쳐진 저 넓은 들그 어디엔들 그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곳이 있으랴. 작업반사무실들과 지붕이 높은 탈곡장들이 왜 오늘따라 이처럼 정답게 안겨들가. 관리위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자기도 성장하고 농장도 번성해졌으며 탁아소, 유치원들을 새로 깨끗하게 짓고 확장했다. 학생들의 글읽는 랑

랑한 목소리와 풍금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소리 흘러나오는 소학교, 중학교의 해빛밝은 창문들은 오늘 별로 반짝이는듯 했다. 상점과 리발소, 목욕탕도 문화주택이 들어앉은 마을과 어울리게 다 새로 짓고 꾸렸다.

이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가보다. 리당비서의 입에서 나왔는지 군경영위원회에서 알려주었는지 어쨌든 허명숙이 타고장에 조동되여 간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쫙 퍼졌다. 만나는 사람마다 서운해하며 인사들을 했다. 이전 리당위원장 라순돌의 안해가 관리위원장사무실에 뛰여들다싶이 하더니 다짜고짜로 명숙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는 것이였다. 명숙이가 22살에 이 농장 관리위원장으로 배치되여와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또 낯선 고장이여서 정을 붙이지 못하고있는데 라순돌이 딸처럼 따뜻이 보살펴주고 하나하나 일을 배워주며 이끌어주었었다.

그는 명숙이가 제일 못 잊어하는 은인이였다. 그는 이 연백벌에 땀과 피를 흘렸고 지금은 땅속에 묵묵히 묻혀있다.

전쟁시기 월남한 남편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지만 우리 당의 품에서 삶을 새롭게 개척하고 모범분조장까지 된 녀인도 허명숙을 찾아왔다.

이 사람들은 명숙이와의 인연이 혈육보다 더 깊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만날수록 명숙은 정든 고장을 뜨고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커갔다. 하지만 어차피 잠정협동농장으로 옮겨가야 했다.…

하루는 도당책임비서 석영진이 명숙이를 불렀다. 몸이 나고 얼굴이 불깃한 석영진은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였다. 그는 명숙이를 반갑게 맞아들이고 차를 마시라고 부어주기까지 했다. 명숙이는 그가 자랑하고 아끼는 관리위원장들중의 한사람이였다.

농사작황과 가을걷이와 탈곡, 가을갈이 등 농장에서 벌어지고있는 일들에 대하여 일일이 물어보고 대답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던 석영진이는 명숙이가 대견해서 노상 웃는 얼굴이였다.

《명숙동무.》 이윽하여 정색하며 그가 말했다. 《내 동무와 중요하게 의논할 문제가 있소.》

명숙은 도당책임비서가 직접 불렀을적에는 반드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였기때문일것이라고 예견하고있었지만 이 순간 긴장감을 감추

지 못했다. 석영진은 허명숙이를 군협동농장경영위원장으로 등용하려 한다고 알려주면서 본인의 의향을 물었다.

허명숙은 깜짝 놀라 그를 빤히 쳐다보기까지 했다.

《책임비서동지, 롱담을 하십니까?》

《내가 무슨 롱담을 하고있겠소. 나는 명숙동무가 군경영위원장으로서 군적인 범위에서 농사를 책임지고 일하는것이 모든 면에서 합당하다고 보고있소.》

명숙은 흥분으로 발그레했던 얼굴을 숙이고 머리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책임비서동지, 저는 한 농장의 관리위원장범위를 벗어나 일할 재목이 못됩니다. 제가 관리위원장으로서 농사를 좀 지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풍작을 마련하도록 이끌어주신 수령님의 덕분입니다. 저는 다만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농사를 지었을뿐입니다.》

《그래서 허명숙이지. 전당적으로 도처에서 위훈떨치는 혁신자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고있는 지금 나는 허명숙관리위원장을 자랑하고싶소.》

《책임비서동지, 제발 사정하는데 저를 사무실에 앉히지 말아주십시오.》

석영진은 껄껄 웃었다.

《군경영위원장이 된다 해서 사무실에만 앉아있을것 같소?》

《하여튼 저는 싫습니다.》

석영진은 허명숙이 고집이 센 녀자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런데 물론 그 성격적인 고집이 사업에서는 드팀없는 관철력으로 표현되군 하였다.

《본인이 정 못하겠다니 내 좀 생각해보겠소, 도농촌경리위원장과도 토론해보고. 사실은 그 사람이 먼저 제기한거요. 내려가있소.》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는 명숙을 보면서 석영진은 정말 저 녀성은 타고난 관리위원장이로군 하고 생각했다.

며칠후에 석영진이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농장에 내려왔다. 그는 작업반장들, 관리일군들, 농장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농장살림살이를 직접 료해하면서 허명숙이 농사를 잘 지을뿐아니라 농장살림살이를 깐지게 하고 특히는 관리일군들과 작업반장들을 훌륭히

키워낸데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허명숙과 헤여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명숙동무, 애로가 하나 있어 그러는데 이번에는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오. 요전번에는 내가 양보를 했소. 그러니까 오늘은 동무가 양보를 하오.》

명숙은 석영진이 왜 이처럼 본론에 앞서 서론을 요란스럽게 떼는지 알수 없어 눈을 깜빡이며 쳐다보다가 말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잠정리 관리위원장이 도병원에 입원해있을 때 가보았소?》

《두번 가보았습니다.》

《그랬겠지. 그 아바이가 어떻습디까?》

《자기 병보다 농장일을 더 걱정하고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로당원들이 그렇단 말이요.》

《예. 저는 잠정리 관리위원장을 보면서 저의 첫 리당위원장이였던 라순돌동지를 생각했습니다.》

《라순돌아바이말이지… 참 훌륭한 당일군이였소. 그 아바이가 여기 리당위원장을 할 때 나는 도당위원회에서 지도원으로 일했는데 만나면 나는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군 했소. 잠정리 관리위원장에게도 나는 머리를 숙이였소. 그런데 말이요, 명숙동무.》 석영진은 들판으로 눈길을 돌리고 계속했다. 《그 아바이는 관리위원장사업을 더 할수 없소. 병이 심하고 나이도 되였으니 휴식을 주자는거요.》

《그럼?…》

《병원에서 퇴원한 후 본인의 요구에 따라 해임시켰소. 그 대신 그 아바이가 병원침대에 누워서도 늘 걱정했던 잠정리에 쟁쟁한 관리위원장을 보내서 그의 사업을 잇고 발전시켜 잠정리가 여기 농장처럼 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앞선 농장으로 되도록 하자는것이 도당위원회의 결심이요. 그러면 누구를 그곳에 보내겠는가?》

석영진은 명숙의 까만 눈을 마주보았다.

《누구를 보내면 좋을것 같소?》

명숙은 이것이 도당책임비서가 말하는 애로라는것일가? 그런데 왜 나한테 묻는것일가? 하고 의아해하였다.

《그건 도당위원회에서…》

《명숙동무의 대답을 듣고싶어 그러오. 잠정리가 속한 재성군은 능히 10만톤군으로 될수 있는 군이요. 알곡생산을 더 할수 있는 잠재력이 있소. 그런데 그 잠재력을 다 발휘 못하고있소. 우리는 잠정리를 부쩍 추켜세워 모범단위로 만들어 다른 농장들도 뒤따라나서게 하자는거요. 그러자니 지금 해임된 아바이관리위원장대신 능력있는 관리위원장을 잠정리에 파견해야 할거요. 그렇지 않소?》

《그렇습니다.》

명숙이 얼결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석영진은 빙그레 웃었다.

《그렇단 말이요. 내 오늘 여기 와서 관리위원회 기사장도 만나보고 작업반장들도 만나보았는데 이 농장은 허명숙동무가 없어도 대신할 관리위원장감이 있고 일군들이 모두 끌끌하고 농장의 토대가 확고하오. 허명숙동무, 도당위원회의 의도를 인제는 알았겠지?》

명숙은 반대할 근거를 찾아낼수 없었다. 그만큼 석영진이 조리있고 설득력있게 말했고 또 앓고있는 잠정리 관리위원장이 농장일을 근심하던 모습이 늘 가슴에 맺혀있었던만큼 로당원들의 뒤를 이어 농촌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새로 자각하게 되는것이였다.

군경영위원장으로 뽑혀가지 않게 된것만도 다행이다. 대지에 몸을 잠그고 자기 손으로 알곡을 가꾸는 일이면 다른 농장에 가도 무방하다. 어디 가든 땅의 주인으로서 땅에 진심을 바쳐 일하면 되는것이 아닌가? 하지만 쉽게 대답할수 없었다.

《저는 우리 농장에 정이 들고 익숙되여서 생소한 고장에 가서 이곳에서처럼 일해내겠는지 그리고 과연 내가 도당위원회에서 바라는 그런 관리위원장자격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생각해볼 시간을 주십시오.》

그의 대답을 듣고 석영진은 만족해하였다.

이렇게 되여 허명숙은 잠정리로 가게 되였다. 그러나 정이 든 고장을 떠나기 아수해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있는데 석영진으로부터 독촉하는 전화가 왔다.

새해 1980년 정초였다.

《명숙동무가 잠정리로 아직 떠나가지 않았다면서?》 전화는 리당

비서가 받았는데 석영진이 숨이 차하는 목소리를 듣고 흥분했다고 짐작되여 그는 《이제 곧 갑니다. 보내겠습니다.》 하고 급해하며 대답했다.

《〈이제 곧〉이라는것은 언제요? 나는 잠정리에다 녀성관리위원장이 가는데 집도 잘 손질해놓고 기다리라고 했단 말이요.》

《그런데 책임비서동지, 허명숙관리위원장동무가 선뜻 떠나지 못하는 그 심정을 리해하여주셨으면 합니다. 설을 농장원들과 같이 쇠고 떠나려 했던것입니다.》

《그랬어?!》

리당비서는 한동안 명숙의 심정을 대변하여 이야기하였다.

《음, 그렇단 말이지. 지금 그 동무가 어디 있소?》

퍽 누그러진 목소리였다.

《아마 작업반에 나가있을겁니다. 원래 사무실에 앉아있는 성미가 아니니까.》

《찾아서 나한테 전화를 걸도록 하오.》

이렇게 지시하고 석영진은 전화를 끊었다.

리당비서는 사람들을 띄우고 전화도 하면서 한시간 잘 지나서야 명숙을 찾아냈다.

해질녘에 명숙이가 나타났다. 퇴비를 내는 들판에 나가있었는지 누빈 솜옷을 입고 솜신을 신었다. 추운 날씨이긴 해도 하늘이 맑게 개여 있어서 수평선너머로 떨어진 해빛의 여광이 노을로 타고있는데 그 고운 노을빛이 명숙이가 쓰고있는 양털목도리와 추위에 언 둥그스름한 얼굴에 어려있었다. 처녀시절에 비해 얼굴이 더 퉁퉁해지고 허리도 좀 굵어진듯 하나 변함없이 키가 늘씬하고 온몸에 정력이 넘치고있었다. 중년녀인의 풍만한 몸매와 검은 눈에서 발산하는 정열의 불꽃인듯 한 눈빛은 대지를 다루는 농민녀성의 억센 모습을 한껏 돋구고있었다.

명숙이가 찬바람을 몰고 방안으로 들어오며 목도리를 벗는데 리당비서가 석영진에게 허명숙관리위원장이 전화기앞에 와있다고 전화로 알리였다.

《전화를 바꾸오.》

《안녕하십니까. 허명숙이 전화받습니다.》

넓은 들에서 탁 트인 명숙의 힘있는 목소리였다. 그것이 석영진의

마음에 든것 같다.

《음, 명숙동무요?》 석영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동무네 리당비서가 그러는데 연백벌에서 다른데로 옮겨가는것이 큰 나무를 뿌리채 뽑아 옮겨심는것과 같다고 동무가 말했다지? 허… 비슷한 소리야. 뿌리채 뽑으려니까 간단치 않겠지. 나는 동무를 리해하오… 그러니까 이제는 떠나야지?》

자기의 심정을 리해한다니 명숙은 고마와서 눈굽이 화끈해났다. 그는 떠나겠다고 대답했다.

《명숙동무, 이렇게 하기요. 가족들은 뒤따라 데려가도록 하고 동무 혼자 먼저 떠나오. 나하고 같이 가기요. 내가 며칠내로 평양에 갈 일이 있소.》

《책임비서동지.》 명숙이 목메여 말했다. 《서둘러 떠나지 못하는 저의 마음을 리해하여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 가겠습니다.》

《아니, 기다리오. 내가 잠정농장사람들에게 할말도 있으니 같이 가자구. 그렇게 하지?》

《…》

《떠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오.》

전화가 끝났다. 하지만 명숙은 송수화기를 이내 놓지 못했다.

저녁늦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안해를 한동안 살펴보다가 말했다.

《곧 잠정리로 조동되여간다는 말이 있더군.》

남편인 신호석은 체육선수처럼 몸매가 균형잡히고 근육이 발달되여 있었으며 말이 적은 사람이였다.

저녁상을 차려주며 명숙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집에서는 명숙이가 관리위원장사업으로 바쁘고 늦게 들어오기때문에 같이 살고있는 친정어머니가 집안을 거두고 때식을 끓였으며 짐승들을 키우고 터밭을 가꾸고있었다.

이 집에서 신호석은 손님격이였다. 사업의 특수성으로 하여 늘 나가있었고 밤늦게 들어오군 했다. 그는 안해의 사업에 일체 참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해를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하고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십여년간 같이 살아오면서 아직 별로 싸워본적이 없었다. 다

툼질을 하려 해도 얼굴을 맞대고 말할 시간이 거의 없었으니 할수 없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안해는 안해대로 하는 사업이 중요하고 늘 시간의 부족을 느끼고있어서 집은 마치도 그들이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는 려인숙 비슷했다. 신호석이 계속하였다.

《나보고 하던 일을 인계할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 안해를 따라가야 한다면서 말이요.》 그는 빙긋이 웃었다. 《안해가 큰 인물이니까 할수 없지.》

오늘따라 말이 헤퍼진 남편이였다.

《나 혼자 먼저 가니까 하던 일을 깨끗이 마무리지으세요. 그리구 제 없는 동안 몸조리를 잘해요.》

명숙이가 남편을 정답게 쳐다보며 말했다.

《혼자 가서 고생스럽지 않을가. 당분간이긴 하겠지만?》

《달린게 없이 홀몸이면 오히려 편안하지요. 호호…》

《일하기 더 좋다는 소리겠지.》

신호석은 웃지 않고 대꾸했다. 그는 농사일과 관리위원장사업밖에 모르는 안해를 깊이 리해하고있었다.

밖에서는 맵짠 바람이 윙—윙— 불어치고있었다. 굴뚝에서 웅웅 소리가 나고 창문들이 덜커덩거리였다.

새벽녘에 가서는 눈이 소담하게 내렸다. 하지만 허명숙은 그것을 새로운 임명지로 떠나게 되는 자기에게 뿌려주는 축복의 꽃보라로만 맞을수 없었다.

3

허명숙은 그처럼 정이 든 고장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반동놈들에게 피살된 라순돌의 묘소를 찾았다. 그는 그곳에 오래동안 서있었다. 들판으로부터 눈가루가 섞인 맵짠 바람이 불어와 솜옷자락이 펄럭이고 치마가 다리에 휘감기였다.

(라순돌위원장동지, 저는 당조직의 조치에 의하여 다른 고장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곳에 저는 저의 심장의 한쪼각을 두고 갑니다.)

그는 이렇게 마지막인사를 하고 관리위원회가 있는 소재지마을로 내려왔다. 언제 왔는지 석영진이 차에서 기다리고있었다.

승용차는 곧 북쪽을 향해 떠났다.

사망한 첫 리당위원장과 작별하고 차에 오른 명숙의 기분이 밝을수 없었기때문에 석영진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석영진이 그의 표정을 살피다가 사람은 의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나는 명숙동무의 그 의리심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하며 그를 위안해주었다. 명숙은 그렇게 하는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도덕이라고 대답하였다.

《우리 황해도땅에는 특히 애국선렬들의 피가 많이 흘렀지.》

석영진이 말했다.

그들은 잠시 생각에 잠겨 말들이 없었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리룡진, 조옥희, 김제원 등 황해도가 낳은 영웅들의 이름들이 피뜩피뜩 스치였으며 신천에서 학살된 애국농민들에 대한 생각도 갈마들었다. 그들은 모두가 대지의 훌륭한 아들딸들로서 후대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선렬들이였으며 후대들은 그들의 피에 젖은 이 땅우에 그들의 념원을 꽃피워야 할것이다.

명숙은 차츰 이제부터 가서 일에 착수해야 할 고장에로 마음이 끌려가기 시작했다. 그 고장도 황해도땅이며 연백벌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곡창지대이며 애국선렬들의 눈물과 땀과 붉은 피가 스며있을것이다. 조국의 대지 어디인들 무심히 대할수 있으랴.

이제부터 만나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는가. 리당비서, 기사장으로부터 평범한 농장원들에 이르기까지 다 생소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마음을 같이하고 손을 잡고 일해야 할 사람들이며 연백벌사람들처럼 정을 붙여야 할 사람들이다. 잠정리에 잠간 오는것이 아니다. 잠간 왔다간다 해도 정을 주고받으며 진심이 통해야 하겠는데 명숙은 새 고장에 새롭게 뿌리를 내릴 결심이니 벌써부터 더워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석영진이 말없는 명숙을 돌아보면서 《남편이 보안원이지?》 하고 두툼한 입술에 미소를 짓고 물었다. 《듣자니 이전 군당위원장이 소개를 해주었다고 하던데?》

명숙은 붉어지는 얼굴을 숙이며 대답했다.

《그렇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농장에 묻혀 일하느라 시집갈 궁리를 안하기때문에 군의 어른이 직접 나섰겠지.》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석영진의 말이 사실과 꼭 맞는다고 할수 없었지만 군당위원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만은 사실이였다.

석영진이 또 물었다.

《아이들이 몇이요?》

《넷입니다. 아들 하나, 딸 셋입니다.》

《아들이 맏이요? 몇살이요?》

《열세살입니다.》

《막내딸이 보은이겠소?》

《예.》

《몇살이요?》

《다섯살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막내딸의 이름을 《보은》이라고 지은 유래를 잘 알고있는 석영진이였다. 받아안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이 담겨져있는 거기에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점심때가 거의 되여올무렵에 그들은 잠정리에 도착했다. 군당책임비서, 군협동농장경영위원장, 리당비서, 기사장이 관리위원회마당에서 그들을 기다리고있다가 맞이했다.

석영진은 마중나온 사람들에게 《잠정농장 관리위원장 허명숙동무요.》 하고 명숙을 소개한 다음 계속하여 명숙이에게 군당책임비서와 군경영위원장을 소개했다.

군당책임비서는 몸이 호리호리한 사람으로 40살쯤 나보이였다. 칼칼한 인상이였다. 군경영위원장은 키가 크고 버쩍 마르긴 했어도 뼈마디가 굵직굵직하여 건장해보였다. 이 두사람은 도당책임비서가 온다고 해서 군에서 내려와 기다리고있었다.

석영진은 리사람들도 알고있었다.

《동무가 리당비서지?》 그는 차성재의 손을 잡아주며 물었다. 《관리위원장동무와 인사를 하오.》

크지 않는 키에 몸매가 다부진 차성재는 매우 친절하게 명숙이와 인사를 나누었다. 명숙은 머리를 깊이 숙이였다. 첫인상에 자기와 나이

가 비슷해보이는 리당비서가 마음에 들었다.

기사장이 어떤 일군인가 하는것도 홀시할수 없다. 농장에서 기사장은 전반적인 농산작업과 기술문제를 안고 수걱수걱 일하는 실무일군으로서 관리위원장에게 가리워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명숙은 기사장을 중시하며 그의 방조에 기대를 걸고있으며 내세워주려 하였다.

잠정리 기사장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명숙은 그와 인사를 나누며 우선 그가 나이가 많은데서 어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머리를 약간 숙여 인사하는 그의 얼굴은 어떻다고 딱 짚어 말할수 없는 모호한 표정인데 딱딱한감을 주었다. 석영진은 차를 타고오는중에 그가 오랜 농업일군으로서 잠정리실력가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면 되는것이다. 첫 인상을 가지고 사람을 다 알수 없다.

《추운데 안으로 들어갑시다.》

차성재가 석영진에게 권고했는데 석영진은 이렇게 물었다.

《관리위원장의 집을 잘 손질해놨소?》

《예, 기사장동무가 노력을 해서 잘 손질해놓느라고 했는데 마음에 들겠는지. …》

석영진은 로정만을 돌아보았다. 로정만은 눈길을 떨구었다.

《가봅시다. 내가 동무들에게 온돌까지 덥혀놓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건 관리위원장이 녀성이기때문이요. 녀성이니까 남자들과는 달리 부엌일도 하게 될거란 말이요.》

그러고보니 석영진은 매우 다심하고 깐깐한 사람이였다. 명숙은 집을 잘 손질하느라 노력을 했다는 기사장이나 구태여 집에까지 가보자고 하는 도당책임비서가 다 고마왔다.

차성재는 가족들은 후에 온다고 하기에 이웃집할머니가 이따금씩 와서 관리위원장의 일을 도와줄것이라고 걸어가며 설명을 했다.

큰 수로뚝 가까이에 있는 기와집은 방도 부엌도 넓어 안이 시원하고 편리한 구조를 가지고있었다.

석영진은 집안에 들어가보고 부엌에도 들려보았다. 그다음 밖으로 나와 창고와 돼지우리, 터밭들을 돌아보았다.

《어떻소. 마음에 드오?》

그가 명숙에게 물었다.

《저에겐 밥을 먹고 잠을 잘수 있으면 됩니다. 이 집은 과분한감이

듭니다.》
명숙이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석영진은 일행을 이끌고 관리위원회로 가서 위원장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도 깨끗이 정돈되여있었다. 명숙은 잠정리사람들이 새 관리위원장을 맞이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에 몹시 감동되였다.
《농장에서 새 관리위원장을 맞이할 준비를 잘했구만.》하며 석영진은 긴 앞상을 마주하고 장판을 한 방바닥에 앉았다. 《위원장동무는 자기 자리에 앉소.》
그는 앉은뱅이책상을 가리켰다.
《괜찮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명숙은 간부들을 어려워하며 한쪽구석으로 가려고 하였다. 석영진이 자기 옆자리에 군일군들을 앉히고 맞은편에 리사람들을 앉히는것으로 좌석배치를 끝냈다.
시종 고개를 숙이고있는 명숙을 보며 석영진이 말했다.
《허명숙동무는 연백벌에서 벌방농사경험을 충분히 쌓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역시 벌방지대인 이곳에서 그닥 애로를 느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농장마다 실정이 다르고 기후와 토지조건이 같지 않는것만큼 우선 잠정농장일군들에게서 배우고 한편 동무들은 새 관리위원장을 적극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기사장동무는 여기서 다년간 기사장사업을 해온것만큼 이 고장의 기후풍토와 실정에 밝을것입니다. 젊은 녀성관리위원장을 잘 도와야 하겠습니다.》
로정만은 눈길을 떨군채 잠자코 있었다. 표정을 보아서는 속마음을 알수 없었으나 명숙은 그가 석영진의 권고를 진지하게 대한다고 보았다. 가볍게 《잘 알았습니다.》, 《힘껏 돕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것보다 오히려 묵직한 태도에 믿음이 갔다.
석영진이 기사장에게 올해농사차비정형이 어떤지 물어보았다.
《자급비료생산은 계획량의 한 절반을 했고 반출은 40프로정도 했습니다.》
로정만은 수첩을 꺼내들고있었지만 들여다보지도 않고 활창대, 지주목, 나래 등의 랭상모판에 필요한 자재확보정형까지 수자들을 거침없이 렬거하였다.
허명숙은 그가 새해농사차비정형을 머리속에 수자로 다 장악하고있

는데 놀랐고 또한 그 준비가 상당한 수준에서 진척되고있는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기사장이 렬거한 수자들은 잠정리가 새해영농준비에서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듣던바대로 기사장은 일자리를 내는 사람인것 같다. 관리위원장이 없는 형편임에도 이와같이 일이 잘되여가고있다고 생각하니 그가 여간 돋보이지 않았다.

석영진이도 만족하여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만하면 새해농사차비가 괜찮게 진척되고있다고 볼수 있소. 기사장동무가 수고하누만. 올해에 알곡생산이 더 장성해야지? 올해알곡생산계획이 눌러졌소?》

이 물음에는 웬일인지 기사장이 대답하기 난처해하였다. 군경영위원장이 대신 대답했다.

《지금 확정하는중입니다.》

《그래?》 석영진은 기사장 로정만에게 눈길을 주며 다시 물었다. 《기사장동무, 현재 농장이 안고있는 애로가 뭐요?》

로정만은 이마를 손바닥으로 쓸어만지며 잠시 생각하고나서 대답했다.

《연유가 잘 보장되지 않고있습니다.》

기계화수준이 비교적 높은 농장인데 연유가 잘 보장되지 못한다는것은 그저 스쳐지내보낼 문제가 아니였다. 석영진은 어떻게 된것인가고 묻는 눈길로 군경영위원장을 돌아보았다.

군경영위원장 한광훈이 대답했다.

《군에서는 잠정리에 연유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년초에는 농촌에 연유가 잘 공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을 로정만이 모른단 말인가? 경영위원장은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 두사람은 사업상으로뿐만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련계가 깊었다.

《또 뭐요?》

석영진이 물었다.

《올해 우리 농장의 알곡생산계획을 지내 높이 떨구었습니다.》

로정만이 한광훈이를 흘끔 쳐다보며 대답했다.

군경영위원장이 설명하였다.

《잠정농장만 올해계획이 높아진것은 아닙니다. 올해에 국가는 알곡총생산량을 작년에 비해 105프로 장성시킬 전투적과업을 제시했고 그에 따라 도와 군의 계획이 세워졌고 매 농장의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도당책임비서동지도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로정만동무도 알고있지요.》

그는 로정만에 대해 불만스러워하는것 같았다.

《그거야 누구나 다 알고있지.》 석영진이는 다 알고있는 사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그를 좋지 않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올해에 열리는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새해 첫걸음부터 총진군을 하고있는데 농업전선에서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나서야 할것은 명백한거요. 잠정리 기사장이 이러한 정세의 요구를 모를 사람인가. 그런데도 왜 알곡생산계획이 지내 높다고 하는가 하는거요. 기사장동무, 작년에 비해 얼마 장성이요?》

《105프로 장성입니다.》

로정만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군경영위원장이 덧붙여 설명했다.

《국가 알곡장성비률과 같습니다.》

석영진이 기사장에게 다시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지내 높다는것은 무슨 뜻이요?》

로정만이 대답했다.

《작년에 우리 농장은 힘껏 했습니다. 현재의 농장실정에 비추어볼 때 한해사이에 그렇게 비약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도당책임비서앞에서 지내 당돌하게 나오는것이 아닐가? 새로 온 명숙이도 그렇고 이미 같이 일하고있는 리당비서도 불안한 눈으로 석영진을 바라보았다.

석영진은 경험있고 능력있는 기사장인 로정만이 솔직하게 말하는것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연백벌에서 이름난 관리위원장을 데려왔단 말이요.》

석영진의 굵은 눈섭이 움씰거리고 얼굴이 더 붉어졌다. 그는 군경영위원장에게 동무는 105프로라는 장성수자를 국가의 장성비률에 맞추어 기계적으로 내려보냈는가고 물었다.

《잠정농장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농장에 비해

서 더 할수 있습니다.》

군경영위원장이 기사장 로정만이에게 골탕을 먹이듯 이렇게 설명하였다.

《기사장동무, 동무가 솔직히 말한건 좋소.》 석영진이 이야기를 마감지을 때가 왔다고 인정하고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동무네가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있단 말이요. 동무들이 만성화되여 그 잠재력을 잘 보지 못할수 있소. 그러니까 이제부터 새로 온 관리위원장동무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눈으로 농장실태를 들여다보고 올해계획을 전투적으로 수행할 방도를 찾아내시오. 기사장동무와 리당비서동무,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알지? 새 관리위원장을 도와 일을 잘해야 하겠소.》

차성재리당비서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고 로정만기사장은 몸짓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였다.

석영진은 작년 10월에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자가 사살된 후 미국놈들이 무력을 증강하고 유신잔당의 두목인 전두환이가 칼부림을 하며 민주와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넣고있는 오늘 정세가 격화되고있는 시기이지만 우리 당과 정부는 1980년대의 첫해인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일으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내놓았으며 지금 온 나라 인민이 비장한 열의를 가지고 새해전투에 진입했다는것을 강조하고 잠정농장과 재성군이 알곡계획을 반드시 수행할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말을 맺았다.

석영진의 당부는 명숙을 고무했고 흥분을 억제할수 없게 했다. 계획수자가 높다고 제기했던 로정만기사장도 도당책임비서의 말에 공감하고 설복된듯싶었다. 그와 손잡고 높이 세워지게 될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 당의 기대에 보답하자!

이제부터는 여기가 나의 초소이며 이 농장이 우리의 농장이다. 본때있게 일해보자.

명숙은 마음다졌다. 둥그스름한 얼굴이 발그레해지고 검은 눈이 빛났다.

협의회가 끝나고 석영진이 떠나려 할 때 차성재가 미소를 짓고 말했다.

《새 위원장동무도 부임해오고 그래서 간단한 점심식사를 준비했습

니다. 식당으로 갑시다.》
석영진은 불기우리한 얼굴에 재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야지. 점심식사를 준비한건 잘했소. 확실히 동무들이 인사차림을 할줄 아오. 그런데 말이요, 이것 참 안됐는데 나는 평양에 가야할 시간이 촉박하고 보다는 밥먹는데서만은 흥미없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도당책임비서고 몸이 이렇게 뚱뚱하니까 아마 굉장히 잘 먹고 많이 먹을것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사실 나는 맹물만 마셔도 몸이 나는 체질이요. 나한테서는 이게 제일 큰 걱정거리요.》 모두 웃었다. 《빵 한개에 사이다 한병이면 점심식사는 충분하오. 그건 늘 가지고다니는것이니까 차안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겠소. 미안한대로 나는 갈테니까 동무들끼리 식사를 하시오. 그럼 잘들 있소.》
그는 승용차에 오르다가 마지막으로 허명숙에게 신심을 주듯 손을 쳐들어보이였다.
도당책임비서가 떠나가자 군의 일군들도 차성재와 로정만이 만류했지만 점심식탁에 같이 앉지 않고 군으로 올라가려 했다.
《수고하오, 기사장동무.》 군경영위원장은 로정만의 손을 잡아주며 만족한듯 말했다. 《도당책임비서한테 말하면 해결될줄 알았겠지요?》
로정만이는 입이 쓰거운지 더 말하려 하지 않았다.
셋이서 리식당에 가서 점심식사를 했다. 도당책임비서까지 참석할것으로 예견하여 준비했던것만큼 음식들이 남아돌아갔다. 로정만이 년장자답게 젊은 녀성관리위원장에게 맛있는 음식들을 련이어 권했다. 명숙은 대상하기가 어렵다고 느꼈던 첫인상과는 달리 기사장이 어지간히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며 인간적으로도 마음이 맞을것 같은 기대를 품게 되였다.
《오후엔 푹 휴식하시오.》
식사를 마치고 리당비서가 명숙이에게 말했다.
합숙관리원이 명숙을 집에까지 안내하여주었다. 명숙이가 자기집이 어딘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있을것이라고 판단하고 리당비서가 관리원처녀를 붙여주었다.
집에 가 뜨뜻한 구들에 앉아서 옆집할머니와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원처녀가 다시 왔다. 기사장이 보낸것이라고 하며 움

에 저장한 사과를 한바구니 가져왔다.

붉게 익은 큼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사과 한알을 들고 명숙은 생각에 잠겼다. 사과에서는 향기가 풍기고있었다. 새 고장에서의 사업과 생활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것인가. 달콤한 사과향기만이 풍기겠는가.

4

명숙은 워낙 낮잠이라는것을 몰랐거니와 새 고장에 온 첫날의 흥분상태로 하여 쉬지 않고 일어나 집안팎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다음 대문을 열고 나갔다. 집뒤쪽에 큰 건물이 솟아있는데 문화회관이였다. 명숙은 목도리를 감고 문화회관마당으로 나가보았다.

점심시간이 지나 농장원들이 작업반으로 나가기도 하고 리소재지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했지만 누구도 명숙이에게 관심이 없었다. 아직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것이다. 이 사람들과 이제부터 낯을 익히고 같이 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명숙은 자기를 무심하게 대하는 그들이였지만 벌써 애정이 가는것을 어쩌지 못했다.

문화회관앞 고성기에서 명숙이가 좋아하는 노래 《해바라기의 노래》가 울려나와 그는 속으로 따라불렀다. 회관앞에는 당 제6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한 구호들과 선전물들, 새로 나온 영화를 소개하는 간판이 나붙어있었다.

리소재지마을은 도로들이 포장되고 단층기와집들과 2층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깨끗하고 현대농촌맛이 두드러졌다. 상점앞을 지나니 대수로를 건느는 다리가 나졌다. 다리를 건너가자 중학교와 소학교가 있고 탈곡장이 나타났다. 그리고 살림집들이 꽉 들어차다싶이 한 밋밋한 언덕, 그 언덕은 높아지다가 불시에 끊어졌으며 그밑으로는 논벌이 아득히 멀리까지 펼쳐졌다.

하늘은 파랗게 개여있었다. 해별이 마을의 살림집들과 커다란 탈곡장지붕에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바람은 맵짰으나 해가 비치고있어 명숙은 머리에 썼던 목도리를 뒤로 제끼고 목과 어깨만을 감쌌다. 그는 마을로 난 좁은 길을 걸어들어갔다. 집들은 이 등성이에 몰켜있는

데 담장으로 에워싸여있었다. 모두 일을 나가고 길은 조용했다.
명숙은 문득 경사진 길 웃쪽에서 풍뎅이를 쓰고 무릎까지 오는 두툼한 솜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두팔을 휘—휘— 내저으며 제법 패기있게 걸어내려오는것을 보았다. 키는 크지 않으나 얼굴이 넙적하고 몸이 다부졌다. 풍뎅이밑으로 흰 머리카락이 보이고 구레나룻이 희슥희슥했다. 얼굴은 추위때문인지 붉게 달아올랐고 코끝에는 코물이 매달려있었다. 그 코도 붉은빛이였다.
명숙은 깍듯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
로인의 눈물이 질적한 눈이 금시 떼꾼해졌다.
《어, 누군가?》 가늘게 떠는 고음으로 묻는다. 《낯이 설구만.》
《저는 오늘 왔습니다.》
《음, 우리 농촌에 진출해나온 모양이구만?》
명숙은 할아버지의 모습과 말하는 품이 웬일인지 재미나게 느껴졌다. 패기있게 걸어오느라 했지만 로인은 비칠거리였고 지금도 몸을 온전히 가누지 못하는것을 보면 점심시간에 한잔 마신것 같았다.
《저는 여기 관리위원장으로 왔습니다.》
명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때 하얀 이가 해빛을 받아 눈부시였다.
《관리위원장이라구? 어데서 이렇게 인물이 환한 내인이 관리위원장으루 오셨소?》 하며 할아버지는 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이며 코물이며를 분주스럽게 씻었다. 《이거 첫대면에 실례하는군. 실은 친구가 생일날이라구 초청을 해서 갔다오는 길이요.》
《예, 좋은 일인데 무슨 실례가 되겠습니까?》
명숙은 더 밝게 웃었다.
《대낮에 취해서 다닌다고 주책없는 늙은이라구 할게 아니겠소. 한데 이보라구, 관리위원장동지!》
《동지》라고 부르는 소리에 명숙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였다. 로인이 우정 정중하게 부른다는것을 알았던것이다. 술에 취하기도 했겠지만 워낙 해학이 있는 할아버지 같았다.
《아니야, 웃지 말라구. 우리 잠정리의 웃어른이 아닌가. 참,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했던가… 아, 그렇지. 내 나이가 지금 일흔셋이요. 이 잠정리에서 태여나 여태 다른데를 가본적이 없구 내내 여기서 평생 농

사를 지었지. 나는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개인가 하는것까지 다 알아. 이 잠정땅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걸 알고싶거든 나한테 물으면 되오. 일두 많이 했구 겪은 일도 많소. 이 쌀고장에서 왜정때는 죽두 겨우 먹으며 살았다구. 지금이야 세상이 아주 달라졌지요. 기계루 농사짓지, 흰쌀밥을 먹지, 이 좋은 세상에서 난 부러운게 없구 걱정이 없쉐다. 년장자라구 잔치집이건 생일집이건 이 오만수를 빼놓지 않구 찾습네다. 내 그래 지금 어디 가서 좀 마시구 오는 길이요. 생일집에서 노래두 불렀소. 헤헤…》

《호호…》 명숙은 따라웃으며 《평생 농사를 지어오며 땀인들 오죽 많이 흘렸겠습니까. 이제는 년세도 많으시니 편히 쉬여야지요.》 하고 말했다.

《할아버지, 이 잠정리를 전에는 청룡리라고도 했다는데 여기서 무슨 룡이 솟아올랐다던지 하더군요.》

옆집할머니에게서 들은 소리였다. 그래 오만수로인에게 다시 묻는것이였다.

《옳습네다. 우리 잠정리는 이 넓디넓은 벌판에 두드러진 섬이나 같은데 그게 청룡 비슷하게 생겼다우.》 오만수는 손을 들어 큰 원을 그려가며 말했다. 《저기 높은데가》하며 그는 등성이가 차츰 높아지다가 우뚝 솟으며 절벽을 이룬 곳을 가리켰다. 《청룡의 대가리라우. 지금은 과수원이요. 그아래루 내려오면서 넓어진 등성이에 잠정리마을들이 몰켜있는데 이게 청룡의 몸뚱이요. 저쪽등성이가 낮아져서 벌판과 잇닿은데가 청룡의 꼬리인데 거기에 늪이 있소. 그 늪에 청룡이 꼬리를 담그고있지요. 아까 룡이 솟아올랐다고 하는건 틀린 소리웨다. 청룡이 저 늪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려다가 여기 벌판이 기름지고 여기서 나는 쌀로 지은 밥이 하도 맛이 있어서 그냥 넙적 엎드려서 잔등에 마을이 생기고 농가들이 자리잡고 사람들이 천년만년 잘살게 하려 했답데다.》

《예, 천년만년 잘살게 하려 했군요. 할아버지, 이제 더 좋아지고 더 잘살게 될겁니다.》

《암, 그래야지. 하지만 지금도 좋아.》

지난날 고생을 했고 또 지난 시기에 비해 지금 알곡생산이 높아지고 생활이 유족해졌으니 로인이 만족해하는것이리라. 하지만 오만

수로인은 현재의 농장의 구체적내용을 알수 없을것이고 허명숙이 왜 이 고장에 관리위원장으로 왔는지 별로 알려고도 하지 않는것 같다. 거나하게 취했으니 기분이 떠있는것이다.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 사십니까?》

《저 집이 바루 우리 집이요.》

《여기는 몇작업반마을입니까?》

《여기가?… 우리 집에서는 남새작업반에 다니는데?》

《그러니까 남새작업반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것도 아니요. 농산5반사람들이 기본이요. 저기 저 기와집이 5작업반장의 집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5작업반마을이군요?》

《동리가 좀 얼럭덜럭하오. 전에는 여기를 교항동이라 했소.》

《잘 알았습니다. 추운데 붙잡고 말을 시켜서 안됐습니다. 처음 오다보니…》

《난 몸이 훈훈하오.》

그는 풍뎅이를 벗어들기까지 했다.

《그럼 집에 가서 편히 쉬십시오.》

《그러지요. 수고하겠소.》

오만수로인은 답례를 하고 풍뎅이를 다시 쓰고서 집을 향해 골목을 걸어가는데 기분이 좋은지 흥얼흥얼 노래까지 불렀다.

에라 만수 풍년이로구나
두리둥둥 북소리는
풍년 불러서 흥이로다

허명숙은 웃음이 나오는 입을 손으로 막으며 가던 길을 계속하여 청룡의 대가리라고 하는, 등성이에서 제일 높은 곳인 과수원에까지 올라가보았다. 눈아래 아득히 펼쳐진 들판으로부터 맵짠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앙상한 사과나무가지들에 매달려 휘파람소리를 내였다.

등성이를 내려 다시 수로뚝우에 놓인 다리를 건너 리소재지마을에 이르렀다. 리당위원회는 벽에 하얗게 회칠을 한 아담한 기와집이였다. 리당비서 차성재가 누군가와 담화를 하고있었다.

《쉬지 않고 나오시오?》

차성재가 반기였다. 그리고 마주앉아있는 사람을 어느 작업반의 부락당비서라고 소개하였다.

부락당비서가 나가고 두사람이 마주앉았다. 어느새 해가 퍼그나 기울어 서쪽창문으로 들어온 볕이 장판바닥을 길게 비치고있었다.

《어떻게 할가요?》 차성재가 맑은 눈으로 명숙을 쳐다보며 물었다. 《래일 나 아니면 기사장동무와 같이 작업반들을 돌아보아야지요?》

《저는 방금 수로를 건너 거기에 있는 마을들과 과수원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과수원이 있는 언덕을 〈청룡의 대가리〉라고 하더군요.》

명숙이가 입을 가리우며 웃자 차성재도 같이 웃었다.

《허… 벌써 정찰을 적지 않게 했구만요.》

《비서동무, 이렇게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작업반들에는 제가 혼자 나가보겠습니다. 작업반들이 〈청룡의 몸뚱이〉라고 하는 등성이에 집결되여있으니 나가보는것이 어렵지 않을것입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작업반들에 나가서 실정을 료해한 다음 관리위원회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고 합니다.》

차성재는 머리를 끄덕이였다.

《도당책임비서동지도 관리위원장동무가 때묻지 않은 생신한 관점과 판단을 가져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작업반장들을 다 불러서 관리위원회 성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부임인사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관리위원장동무가 혼자 작업반에 나가도 몰라보지 않을테니까. 좀 있으면 해가 지고 하루일이 끝나니까 관리위원회에 가서 인사를 나눕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명숙은 이렇게 대답하고 계속하여 《저를 많이 도와주고 이끌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이것은 진심으로 하는 부탁이였다. 처녀관리위원장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리당위원장 라순돌의 방조가 없었더라면 명숙은 매우 힘들게 첫걸음을 떼였을것이다. 오늘은 사정이 다르다. 그는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성장한 녀성일군이다. 하지만 당조직의 지도와 방조를 받아야 한다는 원리는 같은것이며 또 이 생소한 고장에 와서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을것이다.

차성재도 허심하게 말했다.

《나도 여기 온지 몇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잠정농장 사람들은 우에서 도움을 받는데 버릇이 되여있습니다. 군에서는 우리 농장에 지원로력도 많이 보내주고있고 오전에 연유문제가 론의됐지만 사실 기계화수준이 높은 단위이니 연유도 다른데보다 잘 보장해주려 합니다. 리소재지마을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2층살림집을 비롯한 문화주택을 짓는데도 군의 지원이 컸습니다. 이렇게 지원과 도움을 받는데 습관이 된 이곳 사람들은 쩍하면 군이나 도에 손을 내밉니다.》

명숙은 오전에 도당책임비서가 애로가 무엇인가고 묻자 기사장이 연유문제와 올해알곡생산계획이 높다고 제기했고 군경영위원장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던 일이 되살아났다.

차성재가 하던 말을 계속했다.

《잠정리는 다른 농장에 비해서 앞선축이고 생활수준도 괜찮으니 만족병에 걸려 더 전진하려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작년에 알곡생산계획을 넘쳐해서 분배를 많이 탔는데 올해에 다시 105프로 장성이라는 계획수자가 떨어졌으니 그래서 기사장동무도 당황해하는것입니다.》

명숙은 방금전에 만났던 오만수로인이 눈에 삼삼했다. 지금도 좋다고 하며 풍년가를 부르던 오만수에게서 만족병에 걸려 더 전진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농장의 모습을 볼수 있는것이 아닐가? 그 만족병이 기사장으로 하여금 그러한 제기를 하게 했을수 있다.

저녁에 허명숙은 관리위원회 성원들, 작업반장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차성재가 허명숙을 소개하고 힘을 합쳐 농장을 발전시켜나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리고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을 한명씩 소개했는데 명숙은 해볕에 탄 그들의 적동색얼굴들이 하나같이 무뚝뚝하게 안겨왔다.

5

로정만의 딸 경애는 밤중으로 집에 갔다와야 할 일이 있어서 잠정리를 향해 합숙을 나섰다. 겨울에는 해가 짧고 날씨가 차서 일찌감치 하루일을 마친다. 해가 넘어가자 사위는 어둑어둑해지고 날씨는 더 차졌다.

처녀는 흰 양털목도리로 머리와 목을 뜨뜻하게 감쌌으며 파란 솜덧옷을 입고 까만 바지를 입었다. 얼굴은 아버지를 닮아서 훤했는데 이상하게도 몸집이 작았다. 하지만 어깨가 동그스름하고 허리가 잘룩해서 예쁜 얼굴에 잘 어울려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농장원들은 이 몸매 작고 곱게 생긴 처녀를 사랑했고 궂은일은 못하게 하며 아끼였다. 그럴수록 처녀는 힘든 일을 솔선 맡아하려 했고 재빠른 일솜씨와 갸름한 얼굴에서 떠날줄 모르는 상냥한 미소로 농장원들의 마음을 후더웁게 해주었다. 목소리도 맑아서 마치 꾀꼬리가 노래하는듯 하였다.

차거운 저녁바람을 맞받아 머리를 저으기 숙이고 걸어가던 경애는 뒤에서 나는 뜨락또르발동소리를 들었다. 퉁탕거리는 그 발동소리가 점점 가까와지였고 등뒤에서 비치는 전조등의 불빛이 더 밝아지였다. 경애는 한옆으로 물러나며 손으로 불빛을 가리우고 뜨락또르를 바라보았다. 뜻밖에도 잠정리 뜨락또르였다. 운전수는 잘 가려볼수 없었다.

마침 잘 만났다.

경애는 손을 쳐들었다.

《좀 타고 갑시다.》

옆을 지나치려던 뜨락또르가 멈추어서며 기름냄새와 먼지를 확 풍기였다.

운전수가 머리를 내밀었다.

《아, 우리 기사장동지의 따님이시구만.》

순간 경애는 얼굴이 화끈해지고 가슴이 떨리였다. 목소리만 듣고도 잠정농장 기계화반에 있는 철수라는것을 알수 있는데 경애는 그를 만나기만 하면 어째서인지 마음이 평온치 못했다.

그들은 같이 잠정마을 청룡의 몸뚱이에서 태여났고 같이 학교를 다녔다. 키가 큰 철수는 몸매 자그마한 경애를 늘 내려다보면서 《얘, 넌 왜 그렇게 자그마하니? 꼭 해주백화점에 있는 인형같구나.》하고 놀려주군 했다. 조옥희영웅의 동상이 있는 해주에 수학려행을 갔다가 백화점구경을 하면서 본 인형이 생각났던 모양이다. 그러면 경애는 《넌 꼭 전주대같다.》 하고 응수하며 혀를 내밀군 했다.

한번은 철수가 경애와 맞다들자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다.

《일요일에 고기잡이 같이 갈가?》

경애는 의심쩍게 쳐다보다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싫다.》
《왜? 저 늪에 가면 붕어서껀 메기서껀 많아.》
그 늪이란 청룡이 꼬리를 담그고있다는 곳인데 늪이 깊고 물밑의 경사가 급해서 아이들이 미역을 감거나 고기잡이를 하다가 빠지군 하여 어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구역이였다. 경애는 이것을 잘 알고있었지만 대답은 왕청같이 했다.
《늪에 데리구 가서 빠뜨려서 옷이 다 젖게 할려구 그러는줄 내가 모를가.》
철수는 얼굴을 하늘로 쳐들고 하하 웃고는 지나쳐버리였다. 철수도 경애도 만나면 말이 이상하게 꼬이는 투로 오고갔지만 실지는 서로 싫지 않았다.
중학교를 졸업하자 철수는 군대에 나갔고 경애는 농업대학에 붙었다. 철수가 입대하여 기차를 타고 떠나는 날 역홈에 다른 처녀애들과 같이 경애도 꽃다발을 들고 바래워주러 나왔다. 경애는 땀이 흘러 발그레해진 얼굴로 철수를 찾아다니다가 다른 처녀애들속에서 히쭉히쭉 웃고있는 그를 발견하자 대번에 온몸의 피가 솟구쳐오르는것을 어쩌지 못했다. 경애는 한쪽에서 철수가 처녀애들과 헤여질 때까지 입술을 깨물며 기다렸다. 마침내 철수는 자기네 입대생들쪽으로 향했다.
《철수동무, 나 좀 봐요!》
새파랗게 성이 난 경애가 소리쳤다. 철수는 경애를 알아보고 긴다리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경애두 나왔구만.》
철수가 반가와했다.
《흥! 못 본척 했지!》
《못 본척 하다니?》
《그럼 뭐야? 왜 나를 찾아보지 않았어? 내가 그래 군대나가는 남동무들을 바래워주러 나오지 않을 숙맥으로 알았어? 나를 응당 찾아봤어야지. 다른 애들하구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빠져서 나같은것은!》
경애는 눈물이 글썽해서 손에 들고온 꽃다발을 든채 돌아섰다.
《경애, 그런게 아니야!》
철수는 급해하며 눈물을 씻으며 군중속을 헤쳐가는 경애를 따라갔다.

《경애, 내 잘못했어. 군대나가는데 모두 이렇게 나와 전송하니 막 떠서 미처…》

경애는 그제야 멈추어서서 몸을 돌렸다. 그러나 눈물흘린것이 부끄러워서 얼굴은 들지 못했다.

《조국보위초소에 나가는 동무를 섭섭하게 해서 안됐어. 철수동무, 잘 복무하고 오세요.》

경애는 그때에야 생각나서 자기가 들고있는 꽃다발을 철수에게 안겨주었다. 그들의 심장은 세차게 뛰였고 마주보는 눈길은 뜨거웠다.

경애가 해주농업대학을 졸업하고 3대혁명소조원으로 농촌에 나가 활동하다가 고향에 와보니 철수가 제대되여 뜨락또르운전수를 하고있었다. 체격이 좋은 철수는 땅크병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경애가 철수를 찾아가 인사를 해야 하겠는데 주저하게 되는것이였다. 읍정거장에 입대생들을 전송하러 나갔을 때에 처녀애들속에서 웃고 떠들어대던 철수를 보며 시샘이 나서 앵돌아졌다가 이내 옹친것이 풀리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무엇이라 찍어 말할수 없는 심정의 강렬하고 짜릿한 충동을 느꼈댔는데 그후 그 일과 철수를 생각할적마다 얼굴이 뜨거워났었다. 세월이 흘러 대학을 다니고 3대혁명소조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과 사귀고 많은 사건들에 부닥치고 처녀로 성숙하면서 중학교시절에 있었던 그 야릇한 심정을 돌이켜보며 철부지처럼 논것 같아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래서인지 스스럼없이 철수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웃고 떠들며 과거를 추억하게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철수를 만나 인사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

며칠간을 두고 주저하며 배치를 기다리고있는데 뜻밖에도 곽철수가 찾아왔다. 경애는 당황해하며 어색하게 맞이하는데 워낙 쾌활한 철수는 지나간 일은 다 잊은듯 유쾌하게 웃으면서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야, 꼬마경애가 완전히 달라졌는걸!》하며 철수는 싱글거리였다. 《하긴 농업기사니까.》

《아이참! 철수동무는 여전하군요.》

《여전하지, 여전히 전주대지. 하하…》

《호호호…》

철수의 무랍없는 쾌활한 성미에 말려들어 경애도 어느덧 중학교시절의 동무로서 그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그래 농산기사가 됐으니 키는 작아도 지식의 키는 굉장히 높아졌겠지.》 하고 철수는 경애를 부러워했다. 《배치를 받았어?》

《왜 그런지 시간이 걸리는군요.》

《좋은데 배치하느라 그러겠지. 아버지가 한다하는 기사장이 아니요.》

《글쎄…》

그런데 철수의 예언과는 달리 경애는 고향 잠정리가 아닌 이웃리에 농장원으로 배치를 받았다. 아버지 로정만이는 《내가 우에 제기한것이니 다른 의견을 내지 말아라. 농장원을 한 1년 하고 그다음에 작업반기술원을 하고 그다음엔… 그다음엔 너한테 달렸다.》 하고 엄하게 말했다.

《제가 같은 농장에 있으면 아버지가 딱한 경우에 부닥칠가봐 다른 농장에 보내나요?》

경애가 앞질러 물었다.

《그 정도로 리해해둬라.》

로정만이는 무슨 깊은 생각이 있는지 더 다른 말이 없었다. 하여 경애는 이웃농장 태평리의 농장원이 되였다. 다른 농장에 가서 합숙생활을 하며 일하니 생활에서는 좀 불편했으나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다.

동무들도 늘 만나는것보다 드문드문 만나니 우정이 더 깊어지는것같았다. 특히 철수와 자주 만나지 않으니 그가 더 보고싶어지는것이 좋았다. …

철수는 뜨락또르운전칸에서 머리를 내여민채 《왜 그러구 서있소? 어서 타라구.》 하며 손까지 내밀었다.

경애는 처음으로 억센 철수의 손에 이끌리여 뜨락또르에 올랐는데 그 순간 온몸이 짜릿해났다.

철수는 신이 나했다.

경애가 타자 뜨락또르가 덜컹 하며 내달리기 시작했다. 둘은 차가 흔들거리는데 따라 같이 흔들리였다. 철수가 속도를 냈던것이다.

철수가 경애를 돌아보며 물었다.

《집에 가오?》

《예, 볼일이 있어서요.》
《뭐 그렇게 불편하게 다른 농장에 가있을게 있소? 잠정리에서 일하면 안되오?》
철수는 운전대도 돌릴래, 처녀를 돌아보기도 할래, 말도 할래, 몹시 분주스러웠으나 고운 경애를 옆구리에 태운것이 자못 즐거워 기름묻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글쎄 나도 잠정리에서 일하면 좋겠는데 배치를 태평에 했군요. 아버지가 그렇게 요구한것 같아요.》
퉁탕거리는 거친 발동소리속에서 경애의 맑은 목소리가 유별나게 울리였다.
《본인은 싫어했는데도?》
철수가 지꿎게 파고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의사를 따르는데 습관되여있어요. 그것이 도의가 아닐가요?》
《맹목적인 순종은 봉건이지요.》
경애는 호호 웃었다.
《왜 웃소. 허파에 바람이 찬것처럼?》
《너무 엄숙하고 요란한 표현을 써서!》
철수는 어깨를 으쓱하였다. 경애는 실지 고향마을이 아닌 다른 농장에 가서 일해보니까 나쁘지 않은것 같다는 자기의 견해를 말했다.
《글쎄 본인이 좋다면야. 우리 농장에 새소식이 있소.》
철수가 말머리를 돌렸다.
《뭔데요?》
《관리위원장이 부임되여 왔는데 젊은 녀성이요. 나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키가 늘씬하구 녀성간부답다구 하더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오.》
경애의 까만 눈이 반짝이였다. 잠정농장일로서는 중요한 소식이였고 농장기사장의 딸로서 아버지가 하는 일에 무관심할수 없는 경애로서도 그저 스쳐보낼수 없는 소식이였다.
《그러니까 능력있는 관리위원장을 파견했다는거겠지요?》 경애가 말했다. 《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아마 그렇테지.》

뜨락또르는 한동안 어둠속을 들썽거리며 달리였다. 경애는 운전수를 곁눈질해 보았다. 철수는 얼굴빛이 철색이고 곱슬머리였다. 그 곱슬머리가 한줌되게 모자밑으로 삐여져나와있었다. 언젠가 아버지는 철수가 쾌활하고 허심하고 뒤가 없으며 운전기술이 높다고 평가하였지.

《하나 물을가요?》

경애가 상긋이 웃으며 말을 붙이였다.

《아, 어서!》

《군대에서 땅크를 몰다가 뜨락또르를 타니까 어때요?》

《이건 아이들 장난감이요.》

경애는 호호 웃었다. 그러고보니 뜨락또르는 그의 손에서 아이들 장난감처럼 조종되는것 같았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 물읍시다.》

《어서 물으세요.》

《경애동무는 태평농장에 뿌리를 내리자는게요?》

《어떤 의미에선가요?》

《대학을 나온 기사니까 인차 기술원이나 작업반장이 될건 뻔하구 그다음에는 우리 농장에 새로 온 녀성관리위원장처럼 되겠지.》

《아이, 내가 어떻게 관리위원장까지 쳐다보겠어요. 공부를 했으니까 기술원쯤 되겠지요. 나는 그거면 만족해요.》

《하ㅡ 리상과 포부가 지내 낮구만. 리상을 높이 가져야 하지 않을가?》

《철수동무의 리상은 높은가요?》

《나야 운전순데… 그렇지만 장차 대학공부를 하려고 하오.》

이것은 진심의 목소리였다. 그는 경애를 다시 만난 후에 새롭게 느껴지는바가 있었던것이다.

《그걸 1단계 목표로 하자요.》

경애가 제기했다.

《아, 그거면 되오. 자, 다 왔소.》

경애는 아수해하며 뜨락또르에서 뛰여내려 철수에게 잘 타고왔다는 인사를 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무슨 짐인지 실은 련결차를 단 뜨락또르를 앞으로 전진시키였다.

(성미가 아이때 그대루야.)

멀어져가는 뜨락또르를 눈으로 바래우며 경애는 방긋이 웃었다.

잠정마을의 농가들에서 불빛들이 흘러나오고있었다. 리소재지마을이여서 연구실이며 문화회관이며 관리위원회며 하는 덩지 큰 건물들과 2층짜리 문화주택들이 우뚝우뚝 서있었다.

날이 추워서인지 마을은 조용했다. 맑게 개인 검푸른 밤하늘에서 별들이 추운듯 떨며 반짝이고있는것처럼 보였다.

언제 보아도 정이 가는 고향의 모습이였다.

경애는 변모되는 고향과 함께 성장했다.

어린시절, 특히 소학교, 중학교시절에 강가에서 뛰여다니며 미역을 감고 잠자리를 잡느라 풀숲을 꿰지르고 등성이꼭대기에 있는 과수원에 사내애들과 같이 숨어들기도 했던 추억들이 엉켜있는 고향마을은 경애가 대학을 다니느라 몇년 나가있는 사이에도 마음속에 항시 간직되여있었다. 이웃농장에서 일하면서도 집에만 오면 어린애처럼 천진란만해지는 경애였다. 경애가 태여났던 고향의 그 집이 더잘 꾸려지고 울타리를 둘러쳤지만 마당에 서있는 대추나무만은 변함이 없었다. 변한것이 있다면 더 크고 가지들이 더 많이 뻗은것이였다. 그 나무는 언제 누가 심었는지 알수 없으나 경애가 태여났을적에 이미 싱싱하게 자라고있었고 경애와 함께 컸으며 그를 언제나 반기며 잎들을 흔들어대군 하였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반기며 애처로운 마음이 앞섰는지 얼굴을 쓸어주고 손을 만져보며 부산을 피웠다.

《난데없이 까치가 울어서 오늘 네가 올것만 같더니 정말 왔구나. 이 손이 거칠어진걸 봐라. 오늘 무슨 일을 했니?》

체소하고 늘 앓는 몸이지만 정열적이고 촉기가 빠른 어머니는 거의 파랗게 된 눈으로 딸의 이곳저곳을 살폈다.

《두엄을 실어냈어요.》

《이 추운 날에 쯔쯔쯔… 방안에서 하는 일이 있을텐데.》

《엄마두 참, 피가 끓는 청년인데 나이든 아주머니들이 하는 일이나 하고있겠어요?》

《너는 몸이 약해.》

《난 단단해요.》

《장담말아라. 어서 들어가 옷을 갈아입어라. 배가 고프지? 너 먼저 밥을 먹겠니?》

《아버지가 들어오신 다음에 같이 먹지요.》

《네 아버지가 언제 들어오겠니?》

《관리위원장이 새로 왔다지요?》

《왔다더라.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가 더 늦어지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했던것보다 로정만이는 빨리 들어왔다. 그는 안해처럼 겉으로 수다스럽게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지 않는 성미였지만 속으로는 안해보다 더 외동딸을 사랑했다. 딸의 인사에 《음, 왔니?》 하고 간단히 대답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워지고 속이 후끈해났다. 그는 딸이 곱게 생긴데다 차분하고 인사성밝고 사람을 잘 따르는 성품을 타고난것이 대단히 마음에 들었다. 아들은 군대 갔다와서 대학을 나오고 평양에서 대외부문에서 일하고있다. 멀리 떨어져있는데다 자주 외국에 출장을 다녀 한해에 한두번정도 부모들을 만나보러 내려오니 정까지 멀어져갔다. 그래 데리고있는 딸애한테 애정을 다 기울이고있다. 경애를 시집보내도 사위를 맞아들여 같이 살고싶었다. 정말이지 그는 딸을 품에서 놓아보내고싶지 않았다. 그러자면 경애는 이 농촌에 정착해야 한다. 그런데 안해가 그것을 결사반대하고있다.

로정만은 딸의 장래와 그리고 그것과 결부되지 않을수 없는 자기들 부부의 장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이미 타산하고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안해에게조차 그것을 입밖에 내여 말하지 않았다.

로정만은 집에 들어와서는 안해한테 꼼짝 못했다. 잘 생기고 사업적권위가 있고 점잖으며 사람들앞에서 대단히 위신있게 처신하는 엄격한 그가 자그마하고 늘 앓아가지고있는 안해한테 쥐여산다는것은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일이였다.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이웃농장에 배치받은 딸의 장래문제를 놓고도 그는 안해로부터 계속 성화를 받고있었다.

안해가 그에게 왜 경애를 남들처럼 의학대학이나 사범대학에 보내지 않았는가고 그것부터 잘못하였다고 공세를 들이대고있는데 사실 그는 농장기사장으로서 당시의 정황에서는 농업대학에 보내는것이 옳았다고 간주하고있었다.

로정만은 딸이 나타난것을 보고 안해가 또 딸문제를 가지고 앙탈을 부리지 않겠는지 은근히 겁이 났다. 새 관리위원장의 집을 한창 꾸릴 때 안해는 《제 딸의 장래문제를 가지고 좀 열성을 내면 안돼요? 새로 오는 관리위원장이 젊은 녀자라는데, 흥!》 하고 강짜를 부리기까지 했다. 이런 강짜는 그저 스쳐보내며 웃어넘기면 되는것이여서 로정만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셋이 저녁밥을 먹으려고 두리반상에 둘러앉았다.

《경애도 왔는데 술을 좀 내놓지.》

로정만은 안해를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안해로부터 술마시는것을 통제받고있었다. 안해는 집에서 술병을 잘 꺼내지 않았을뿐아니라 남편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것도 몹시 싫어하였다. 그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았다. 기사장인 남편이 술을 마시고 실수할가봐 걱정하는것이였고 술을 자주 마시다가 건강을 보존하지 못할가봐 두려워하는것이였다. 그가 남편을 꼼짝 못하게 가정적으로 통제하는것은 실은 그를 아끼고 사랑하기때문이였다.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도수가 넘어 걱정이 잔소리로, 잔소리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번져갔다. 로정만은 안해가 푸념을 늘어놓을 때마다 울적해지고 진저리가 났으나 안해의 본심을 알고있기때문에 잠자코 있는것이였다.

안해가 잠간 생각하더니 술병을 가져왔다. 경애가 술잔에 술을 부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달게 마시는것을 보고 상긋이 웃으며 물었다.

《새로 온 관리위원장과 비서동지랑 같이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것 같구만요, 아버지?》

《점심에 같이 했다.》

아버지의 대답이였다.

《이야기를 해보았겠지요?》

《낮에 점심식사를 하면서 좀… 첫날이여서 그런지 어려워하는것 같더라.》

《아버지는 사람을 대상할 때 부드럽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요.》

어머니가 끼여들었다.

《야, 간부가 좀 엄해야지. 네 아버지가 엄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면서도 따른다.》

이럴 때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단히 존중하는것 같다. 하긴 어머니가 집에서 아버지를 틀어쥐고 통제한다 해도 어쨌든 안해이며 그것도 남편이 잘되기를 바라고 그에 의존하는 안해인것이다.

《관리위원장이 어때요?》

경애가 물었다.

《글쎄 사람이란 같이 일하며 지내봐야 알수 있는데 나는 기대가 간다. 웃는 얼굴이 인상적이구 씨원씨원하더라.》

로정만은 이렇게 대답했는데 사실 그는 허명숙이 관리위원장으로서 마음에 들고 기대가 갔는데 래년도 국가알곡생산계획지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궁금했다. 도당책임비서가 올해에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새 관리위원장도 왔으니 합심해서 알곡생산을 더 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판에 군에서 멸군 올해계획이 현실성이 없다고 의견을 냈던 로정만이도 다른 소리를 할수 없었는데 방금 도착한 허명숙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짐작은 갔다. 그렇더라도 로정만은 올해계획을 놓고 허명숙관리위원장과 진지하게 토론해보고 군에 다시 제기해보려 했다. 그는 계획을 낮추어 받으려는 끈질긴 속심을 버리지 않고있었다.

로정만이가 올해계획이 지내 높으니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불시에 더 강경하게 주장하게 된데는 리유가 있었다. 새 관리위원장이 왔으니 올해는 군경영위원회로 올라가기가 틀렸다. 래년으로 미룰수밖에 없으며 실지 미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에서 올해에 잠정리가 계획을 실행 못하면 군에서는 로정만이를 한해 더 기사장으로 일하여 기어이 새 관리위원장이 완전히 자립성을 갖추게 될 때까지 소환해가려 하지 않을것이다. … 아니다. 올해에 어떻게 하든 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자니까 계획지표를 안전하게 낮추 받아야 하는것이다.

이것은 그의 속깊이에 감추어진 타산이였다. 다시말하여 그의 몸은 아직 잠정리에 있지만 정신은 벌써 읍에 가있었다. 여기에는 그가 속에 깊이 간직하고있는 다른 계획적인 타산도 함께 작용하고있었다. 그것은 딸 경애문제였다. 딸의 장래에 관심이 없다는 안해의 앙탈질에

침묵으로 대하는 리유가 있었다. 군에 소환되면 자연히 딸을 달고 올라가 군읍기관에 넣으려는것이 그의 감추어진 속심이였다. 딸을 쉽게 데리고 가자면 딸이 다른 농장에 가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경애를 태평리에 보냈다. 이런 깊은 속심을 모르고 늘 앵앵대는 안해가 딱했으나 끝까지 입을 다물고있어야 했다.

6

이튿날 아침, 작업복을 가뜬하게 입은 명숙은 일찌기 관리위원회로 나갔다. 관리위원장사무실에서 부기원(당시)아주머니가 청소를 방금 끝내고있었다. 그는 명숙에게 인사를 하며 반기였다.

《제 방 청소야 제가 해야지요. 래일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명숙이가 말했다.

《아닙니다. 관리위원장사무실관리는 제가 맡았습니다. 방열쇠를 제가 하나 가지고있습니다. 그새 이 방이 비여있었지만 드문드문 청소를 했는데 이제는 주인이 왔으니 매일 해야지요.》

《그럼 여기 이 꽃병에 꽂은 꽃과 물병의 물도 부기원동무가…》

《그게 제가 받은 분공입니다.》

《겨울에 이 꽃은 어디서 났어요?》

《온실에서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관리는 하되 청소는 내가 하겠으니 래일 아침부터는 수고를 하지 마세요.》

《안됩니다. 기사장동지가 나한테 직접 과업을 주었습니다. 기사장동지는 과업을 집행하지 않는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허명숙은 자기가 그보다 일찌기 나와 청소를 하는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더 말하지 않고 책상에 가앉았다. 기사장에 대해 생각하는데 그 기사장 로정만이 들어오며 밤새 안녕했느냐고 인사를 했다. 명숙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 그를 맞이했다.

《아, 앉아계십시오.》

로정만이 손짓으로 명숙이를 제지시켰다. 그리고 먼저 앉으며 말했다.

《관리일군들의 아침모임을 이제는 위원장동무방에서 해야지요?》
아마 관리위원장의 부재중에 모임을 기사장이 있는 생산부사무실에서 한것 같다.
《제가 아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는데 생산부에서 기사장동무가 당분간 그대로 집행합시다.》
기사장이 나이가 많아서인지 혹은 웬만해서는 웃지 않는, 속심을 알수 없는 그 표정때문인지 명숙은 이 아침에도 여전히 그를 어렵게 대했으며 존경을 나타내였다.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관리위원장동무는 오늘부터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당분간 작업반들에 내려가 료해를 하는것도 사업입니다.》
명숙이도 웬만해서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고집스럽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 왜 그런지 기사장 로정만의 의견을 따라야 할것 같은 생각이 지배했다. 그래서 모임은 이 사무실에서 하되 집행은 당분간 기사장이 한다는 조건으로 그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계획, 농산, 축산 등의 지도원(당시)들, 지어는 부기장까지 들어왔다.
기사장은 관리위원장가까이에 앉아있었는데 로동지도원 아무개는 안 오는가고 물었다.
《이제 옵니다.》
누군가 대답했다.
《기다립시다.》
기사장이 랭정하게 말했다.
로동지도원은 한 5분 늦어 미안해하며 방에 들어와 앉았다.
《준식동무, 왜 늦었소?》
로정만이 따졌다. 로동지도원은 기사장의 직속이 아니지만 기사장이 그간 위원장대리를 하였으니 아직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것 같다.
《잘못했습니다.》
로동지도원이 일어서서 대답했다.
《앉소.》 로정만이 엄하게 말하고 명숙이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그럼 내가 말을 할가요?》

《예, 어서!》

《오늘 아침에 관리일군들을 다 모이라고 한것은 오늘부터 동무들이 작업반들을 하나씩 담당해가지고 나가서 퇴비생산과 반출을 직접 장악하도록 분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작업반들에서는 퇴비반출작업을 뜨락또르가 해줄것만을 바라면서 팔짱을 끼고있단 말이요. 축력과 인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지도원동무들이 내가 이제 분공하는대로 작업반들에 내려가서 냅다 몰아야 하겠소. 작업반에 내려가 점심대접이나 잘 받을 생각부터 하지 말란 말이요. 알았소, 준식동무?》

로동지도원은 늦은것때문에 기사장이 자기 이름을 우정 불렀다고 생각하면서 얼굴을 붉히며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작업반에 내려가》 하고 로정만이 계속하였다. 《자급비료생산 및 반출과 함께 모판자리를 준비하고 나래, 지주목, 활창대, 새끼줄, 비닐박막을 확보하는 정형도 장악해가지고 저녁에 매일매일 총화를 짓도록 합시다.》

이어 그는 지도원들에게 작업반들을 담당시키는 조직을 하였다. 그들은 의견 한마디 제기하지 않고 분공하는대로 따랐다. 기사장은 시종 엄한 표정이였고 지도원들은 그를 두려워하는것 같았다.

《관리위원장동무, 할말이 없습니까?》

모임 전과정에 말 한마디없이 앉아있기만 한 명숙에게 마지막에 가서 물었다.

《다른건 없고, 저녁마다 총화를 한다니 그때에 다음날사업을 포치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이처럼 모이는것을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은 로동지도원이 늦어서 추궁을 받을 때부터 생각했던바를 말했다. 연백벌에서 바로 그렇게 아침마다 모이는것을 피했었다. 《농촌은 아침시간이 귀중한데 공연히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가자들은 기사장의 얼굴만을 쳐다보았다.

로정만은 한동안 무표정으로 있다가 마침내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렇게 해봅시다.》

해보자는 대답이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다른 편향이 생길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관리위원장이 내놓은 첫 의견인데 받아들여야 했다.

모임이 끝난 후 허명숙은 부기실(당시)을 찾아들어갔다. 아까 위원장사무실청소를 했던 부기원과 늙수그레한 부기장이 앉아있는데 부기장은 돋보기를 끼고 장부를 들여다보며 수판알을 튕기고있었다.

고향에서 부기원을 해본 경험이 있으며 농장관리위원회사업에서 부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는 명숙은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장부들도 들여다보는것이 농장사업을 파악하는데 매우 필요한것임을 인정하고 몇가지 물었다. 그리고 장부도 보면서 의견을 냈다. 부기장은 점차 긴장해졌다. 그들은 관리위원장이 부기실무에 밝은데 놀랐다.

부기장과 부기원이 마음을 조이고있었지만 명숙은 장부책을 돌려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문제점도 찾아쥐지 못한것은 아니였다. 입고와 출고간의 불일치, 애매하거나 합당치 못한 지출 등을 밝혀냈다. 하지만 첫날인데 콩이야 팥이야 하고 캐겠는가. 관리위원장이 부기에 밝으며 관심이 크다는것만 깨닫도록 충격을 주면 될것이다.

《부기원동무, 나하고 바람을 좀 쏘이지 않겠어요?》

명숙이 웃으며 말했다.

《어디 가보시렵니까?》

《기계화작업반에 가보려는데 같이 가보자요.》

명숙은 부기원과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며 기계화작업반에 이르렀다. 작업반장은 어디 갔는지 없고 마당과 차고에 정비중이거나 고장난 뜨락또르들, 화물자동차 그리고 무슨 골격을 이룬 쇠붙이들, 련결차들이 가득차있었다. 발동을 건채로인 빨간 《천리마》호가 퉁탕거리며 창고앞에 서있고 운전수인듯 한 청년이 무슨 기름통인지 들고 움직이고있었다. 명숙은 청년을 향해 갔다.

그곳은 연유창고앞이였다. 청년이 기름을 타느라고 기름통을 들고 창고안으로 들어갔다가 얼마후 나왔다. 그는 명숙을 호기심에 끌려 쳐다보며 기름통을 무겁게 들고갔다.

《철수동무, 새로 오신 관리위원장동지예요.》

부기원이 소리쳤다.

철수는 기름통을 내려놓고 머리에 쓴 모자에 손을 눌러대며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수고합니다.》 명숙이가 인사를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오늘 무슨 일을 해요?》

철색의 얼굴에서 눈이 유난히 영채도는 철수가 대답했다.

《퇴비반출을 하게 되여있었는데 갑자기 변경이 돼서 화물역에 가서 화물을 실어오랍니다. 작업반기술원이 기름을 타가지고 빨리 갔다오라구 재촉입니다.》

《무슨 화물인가요?》

《목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철수는 그때 창고문을 닫고 이쪽으로 오는 중년의 남자에게 《통계원동무, 새로 오신 관리위원장동지요.》 하고 알려주었다.

명숙은 기계화작업반 통계원과 인사를 나누고 그와 한동안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연유를 받아오고 내주는 일을 겸해서 하고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왜 그런가요?》

《…》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새로 온 관리위원장을 만나자마자 좋지 못한 소리를 하는것이 경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명숙은 더 캐묻지 않고 이렇게 요구했다.

《올해에 들어와 오늘현재까지 뜨락또르들의 가동정형을 집계할수 있겠지요?》

통계원이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명숙이가 기계화반의 차고, 창고, 마당, 고장난 차들, 수리기재들을 다 돌아보고 사무실에 들리니 마침 통계원이 1월 23일 현재까지의 자료집계를 끝냈다.

뜨락또르 43대중 현재 10대가 퇴비반출에 참가하고있었다. 나머지는 수리, 정비, 다이야부족, 부속부족 등으로 서있고 목재수송, 발관개동원 등으로 나가있었다. 잠정리가 기계화수준이 높은 단위인것만큼 명숙은 오래동안 검토하였다.

허명숙은 오후에 농산2작업반을 찾아갔다. 마을의 행길에 뜨락또르가 발동을 건채로 몸체를 부들부들 떨며 서있고 농장원들 대여섯명이 결이대로 련결차에 두엄을 싣고있었다.

운전수가 뜨락또르기관부를 걸레로 닦고있는데 가보니 기계화반

에서 만났던 그 고수머리였다.
《오후에는 퇴비운반을 하는가요?》
명숙이가 인사를 하는 그에게 상냥하게 물었다. 명숙이에게는 그가 자기의 뜨락또르를 아끼는 성실한 청년으로 보였다.
《예, 목재를 다 실어왔으니까요.》 철수라고 하는 운전수의 대답이였다. 《기사장이 퇴비운반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응당 그래야지요.》
명숙이는 련결차옆에서 걸이대질을 하고있는 농장원들쪽으로 다가갔다. 농장원들이 그에게 알은체를 하며 인사를 하는데 혀아래소리로 수군거리는것이 아마 새로 온 관리위원장이라고 서로 말하는듯 했다.
명숙은 털모자귀덮개를 올리고 걸이대질을 하고있는 나이든 농장원의 손에 쥐여져있는 걸이대를 잡았다.
《제가 좀 해볼가요?》
볕에 탄 얼굴에 땀이 질벅한 농장원은 얼결에 걸이대를 빼앗기고 이게 웬일이냐는듯 명숙을 의아쩍게 쳐다보았다.
《담배를 태우며 좀 쉬십시오.》
명숙은 걸이대창날을 두엄무지에 쿡 박아떠서는 련결차우에 휙— 올리던지였다. 풀과 돼지똥을 섞어 썩인 질좋은 두엄이였다. 속에서 흰김이 피여나고 두엄냄새가 확—확— 풍기였다.
《거 걸이대질을 괜찮게 하는구만.》
농장원이 입을 하 벌리였다.
명숙은 방싯 웃어보이며 말했다.
《두엄이 괜찮습니다.》
담배곽을 꺼내며 농장원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는 관리위원장의 칭찬에 흡족해하는것 같았다.
《여기는 2작업반 몇분조입니까?》
《1분조외다.》 하며 그는 두엄무지 저쪽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 분조장이지요.》
젊은 사람이 명숙이와 눈길이 마주치자 재차 인사를 했다.
명숙은 땀을 흘리며 한동안 일했다. 나이든 농장원은 옆에 쪼그리고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명숙을 바라보다가 담배를 한대 다 태우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걸이대를 쥐며 말했다.

《그만큼 했으면 됐소. 어서 가보시오.》
명숙은 의아해서 물었다.
《가보다니요? 저는 2작업반에 왔는데요.》
《작업반에 막일하러 왔겠소? 간부들이야 몇삽 떠보면 되는거지요. 간부들이 할일이 따로 있으니까. 자, 이걸 놓소. 원, 벌써 얼굴에 땀이 질벅했군.》
《호호… 그 말씀이 옳습니다. 관리위원장이야 할일이 따로 있지요. 그렇지만 관리위원장도 의무가동을 해야 합니다.》
명숙은 걸이대질을 계속했다. 오래간만에 육체적로동을 하니 몸이 거뿐해지는것 같았다.
처녀와 아주머니, 분조장과 늙은이, 또 한명의 젊은 사람으로 구성된 작업조성원들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재미나하였다.
뜨락또르를 떠나보내고 분조원들과 같이 휴식하며 통성을 했다. 농장원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녀성관리위원장을 대했다.
《이 두엄무지가 몇톤이나 나갑니까?》
분조장에게 물었다. 대답은 열댓톤 나갈것 같다는것이다.
《정확히 몇톤 나갑니까?》
명숙이 다시 물었다.
《정확히야 어떻게 압니까? 저울로 달아보겠나요?》
명숙은 그 눈짐작이라는것이 언제나 실지량보다 많이 계산하는것임을 모르지 않았다.
《논밭에 두엄을 어느 정도 냈어요?》
분조장은 힘들지 않게 대답했다.
《한 절반 냈지요.》
《이 추운 때에 많이 했군요.》
이때 작업반장을 데려오라고 보냈던 처녀가 나타났는데 그뒤로 키가 크고 눈이 시꺼먼 쉰살쯤 되여보이는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명숙이가 일어서자 그는 털모자에 손을 눌러대고 머리를 끄떡했다.
《작업반장이올시다.》
《예, 낯이 익습니다. 요전모임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 2작업반장이구나 하고 머리에 새겨넣었댔습니다.》
작업반장은 굳어진 표정으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큰 입을

꾹 다물고 관리위원장이 무슨 말을 또 하겠는지 기다리는것 같았다.
《작업반실에 갈가요?》
명숙은 이렇게 말하고 1분조를 떴다.
2작업반장의 이름은 최윤구이다. 보통 그저 윤구라 부른다.
같이 걸어가면서 따분한감을 메꾸려고 명숙은 반장동무는 어디 태생인가고 물었다.
《잠정리태생이웨다.》
《여기서 태여나 여태 농사를 짓고있구만요.》
《그럼 뭐 갈데 있겠소?》
이 사람과는 이야기할 재미가 없었다. 원래 이렇게 뻣뻣하고 무뚝뚝한 사람일가? 내가 녀성이라고 그럴가? 지금까지 오만수할아버지나 로정만기사장, 부기원아주머니처럼 새로 온 녀성관리위원장이라고 따뜻이 대해주고 생활에서 불편할세라 성의를 다해 보살펴준 농장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할가, 사람마다 성격이 각이하고 사람을 대상하는 례절도 나름대로이다.
두사람은 작업반사무실까지 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걸어갔다. 바람이 심했다. 쌀쌀한 바람이였다. 명숙은 윤구와 같이 걷는것이 따분한데다 바람마저 쌀쌀하여 어쩔수없이 기분이 저하되였으나 표정을 밝게 하려고 애썼다.
작업반사무실은 탈곡장울타리안에 있었다. 추운 날씨여서 별로 썰렁해보이는 탈곡장이였다.
사무실은 뜨뜻했다. 명숙은 최윤구에게 작업반의 문서들을 보자고 하였다. 아직 그 누구도 이런 요구를 한적이 없었기때문에 윤구는 의아해하였고 난처해하였다. 작업일지를 비롯한 문서들이 제대로 정리되여있지 않았으며 무슨 소린지 알수 없게 적어놓기도 했다. 명숙은 그에게 몇가지 물었다. 윤구는 꽛꽛하고 숱이 많은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작업반의 로력구성과 논발상태 등에 대해 마지못해 적당히 대답하며 몹시 지루해하였다.
《1분조는 퇴비반출을 얼마나 했어요?》
《한 절반 했지요.》
그는 깊이 생각지도 않고 작업일지를 뒤적이며 대답했다. 분조장과 같은 대답이다.

《1분조논에 나가볼가요?》

명숙이가 요구하자 최윤구는 눈을 껌뻑이며 의아해하였다.

《거긴 왜요?》

《두엄을 어떻게 냈는지 보려구 합니다.》

그러자 윤구는 불쾌해하였다.

《확인해보자는건가요?》

《확인이라기보다…》 명숙은 옹색해졌다. 사실 자기가 마치도 《한 절반 냈지요.》 하는 그의 대답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확인해보려고 그러는것으로 인식할수 있었다. 《나는 말입니다. 농장의 모든 포전들을 다 돌아보려 합니다. 혼자 돌아보는것도 좋겠지만 작업반장들과 같이 돌아보면 더 좋겠지요.》 명숙은 이렇게 자기의 의도를 밝혔다.

《그럼 뭐 1분조논부터 나가봅세다.》

윤구는 여전히 찌뿌둥해가지고 대답했다.

넓은 들에는 바람이 세찼고 눈가루가 날리였다. 바람은 맵짰고 솜옷자락과 머리수건이 세차게 나붓기였다. 윤구는 추위에 얼굴이 퍼렇게 되여가지고 2작업반에 속한 포전들을 명숙에게 손으로 가리켜 알려주고 1분조논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

《여기가 1분조논이요.》

그는 관리위원장이 드문드문 두엄무지들이 쌓여있을뿐 땅이 꽁꽁 얼어붙고 희슥한 눈가루들이 날리는 황량한 논벌을 이 추운 날에 무엇때문에 돌아보려 하는지 알수 없었다.

허명숙은 논에 낸 두엄무지들을 돌아보고 윤구에게 물었다.

《정보당 퇴비를 얼마나 냈어요?》

《한 스무톤 냈지요.》 퉁명스러운 대답이다.

《스무톤이요?》 명숙은 두엄무지들을 가리켰다. 《내가 보기에는 열톤도 못되는것 같은데요?》

《열댓톤은 됩네다.》 윤구가 조금 낮추었다. 그러면서 관리위원장을 힐끔 바라보았다. 《우리 농장은 퇴비원천이 문제지요. 벌방이 아닙니까. 그러니 군에서 화학비료를 우선공급해줍니다.》

윤구는 두엄을 한 절반 냈으며 정보당 한 스무톤정도씩 냈다고 적당히 대답한것이 실지로 사실과는 맞지 않게 과장되였음을 인정하며

면구스러워하는지 이와 같이 변명을 했다.

《2분조논에 가보자요.》

명숙은 그의 구차한 변명에는 상관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다음분조 포전으로 갔다.

2분조의 퇴비반출형편도 비슷했다. 명숙은 푸접없고 거친 최윤 구반장이 어지간히 당황해하는것을 보았다. 2작업반을 더 돌아볼 필요가 있을가?

《2작업반의 포전은 그만 돌아보겠어요. 추운데 수고했습니다.》

명숙은 그와 헤여져 3작업반으로 향했다.

3작업반도 크게 다를바 없었다. 자급비료생산과 반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장악이 없이 적당히 불쿠어서 보고를 하고있었다. 이렇게 종합된 수자를 기사장 로정만이 수첩에도 적었고 머리속에도 기억하고있으며 군에도 보고했을가? 석영진책임비서에게 퇴비반출을 40프로정도 했다고 한 로정만의 대답이 진실인가, 허위인가? 작업반들에서 올라온 수자들을 따져보고 확인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종합한것일가, 그렇다면 실속없는 수자를 보고한것이다.

(실력자라고 한 기사장이?…)

명숙은 의문스러웠으나 기사장이 그처럼 사실과 맞지 않는 수자를 쥐고 만족해하고있을 사람이라고 인정하고싶지 않았다. 더 알아보아야 하며 시간이 지나가야 안다.

아래지도원이 장악을 허술하게 적당히 했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책임일군은 분조들에 내려가 직접 따져보아야 하는데…

의혹이 구름처럼 밀려들어 명숙은 머리가 무거웠다.

7

차거운 대기속에서 빛을 뿌리며 솟아오른 해가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겨울날의 아침이였다. 허명숙은 농산제5작업반으로 향했다.

5반 반장은 중키에 몸이 단단하고 세상만사를 자신만만하게 대

하는 쉰살넘은 농사군이였다. 담배를 어떻게나 지독하게 피우는지 담배대진에 눈알이 누렇게 퇴색된듯 했다. 그의 몸에서는 담배냄새가 물씬물씬 풍겼고 담배불에 작업복이 여러군데 타서 구멍이 났다. 이름은 마장석이였다. 그는 명숙관리위원장을 매우 정중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했다. 2작업반장 윤구와는 달랐다.

《여기 따뜻한데 내려와앉으십시오. 가족들을 두고 혼자 와서 객지에서 고생많겠수다.》

《여기가 왜 객지겠습니까? 집도 있고 농장원들모두가 저의 식솔이나 같지요.》

《좌우간 앉으시오.》 마장석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녀성관리위원장을 피가 진 눈으로 얼핏 쳐다보고는 마주앉기 바쁘게 주머니에서 담배곽을 꺼내며 재털이를 끌어갔다. 《도착하신 날 우리 동네에 와보았다지요?》

그가 물었다.

《통보가 빠르군요, 호…》

명숙은 이 5반 반장과 대상하기가 왜 그런지 첫 순간부터 흥그러웠다.

《〈에라 만수〉령감이 그럽디다. 자기가 뭐 새 관리위원장한테서 인사를 받은 첫 인물이라고 자랑하면서 우쭐댑데다.》

《이름이 오만수라 하던데 〈에라 만수〉라는건 무슨 뜻입니까?》

마장석의 두툼한 입술이 벙글서해졌다. 그는 썩썩 갈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이렇습니다. 령감의 이름이 만수인데다가 위에 술이 몇잔만 들어가면 흥타령인데 늘 〈에라 만수 풍년이로구나〉하는 노래로부터 시작하군 해서 그런 별명이 붙었지요.》

《호호호…》

명숙은 배를 그러쥐고 웃어댔다. 워낙 웃음이 헤픈 명숙이긴 하지만 이렇게 통쾌하게 웃어보기가 잠정리에 온 후 처음이였다.

마장석은 별걸 가지고 다 바스러지게 웃는다는듯 우정 시쁘둥한 얼굴을 하고 한마디 더 했다.

《만수령감이 하는 소리가 관리위원장이 인사성밝구 인물도 환해서 대번에 마음에 들어 〈관리위원장동지〉라고 불렀더니 령감이 〈동지〉라고 부른다고 그러는지 관리위원장이 웃어대더라구 하면서 〈난

시원하게 잘 웃는 사람이 나쁜걸 못 봤어.〉 합디다. 령감이 원래 제 자랑을 좋아하고 다사해서 나는 령감과 잘 마주서지를 않는데 그날두 어찌나 소란스럽게 떠들면서 관리위원장을 만난 자랑을 하는지 나는 도중에서 홱 돌아섰지요.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인사불성이라느니, 어떻다느니 하며 소리를 칩데다. 그래 내가 젊은 사람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자 명숙이 또 웃음을 터치였다.

《아이 반장동무두, 왜 사람을 그렇게 웃깁니까?》

명숙은 허리를 펴며 눈시울을 적시였다.

《내가 웃겼습니까? 자기가 웃었지요. 그만 웃구 얘기나 합시다.》

두사람은 첫 대면에서 벌써 상대방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였다.

마장석은 명숙의 물음에 대답하며 작업반의 로력구성, 경작지, 기술수단, 분조들의 형편, 알곡생산정형, 축산 등등을 거침없이 이야기하였다. 모든것이 그의 머리속에 정확히 들어가있었다. 부잡스러운 걸 모양새와는 달리 머리가 정돈된 정확한 사람이였다. 명숙은 문건과 장부들을 그의 말과 대조해보았다.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5작업반은 작년에 작업반알곡생산계획을 넘쳐했군요?》

《예, 넘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업반들은 왜 그렇지 못합니까?》

《글쎄요. 우리 작업반은 일을 세게 합니다. 건달군이 배겨내지 못해요. 우리 작업반기술원이 여간 세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5작업반에서처럼 일을 빈틈없이 짜고들면 계획을 넘쳐할수 있겠지요? 나아가서 농장적으로도 계획을 할수 있구요?》

《그거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금년도계획이 작년에 비해 105프로 장성하는것으로 떨어진것을 알고있겠지요?》

《기사장은 그렇게 못한다고 경영위원회와 싸운다고 합데다.》

《105프로 장성이 힘들가요?》

《쉽지는 않지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단 말이지요.》

명숙은 생각에 잠겼다.

결국 조직사업을 어떻게 하고 생산을 어떻게 내미는가 하는데 달렸다. 계획이 높이 섰다고 경영위원회에 가서 싸울것이 아니라 생산을 더 높이기 위한 예비를 찾아야 할것이다. 군경영위원장도 말했지만 잠재력을 다 발휘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만족병과 싸워야 한다.

명숙이가 화제를 돌려 물었다.

《내가 마을들을 돌아보고 오만수로인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락단위로 조직된 작업반의 구성이 좀 얼럭덜럭해진것 같습니다. 다시말하여 농산에서 부차적인 남새, 공예, 축산등 작업반으로 로력자이동이 좀 있은것 같습니다.》

마장석은 담배를 갈아대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관리위원장동무가 옳게 보았습니다. 로력이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묘하게 농산반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작업반에 안종기라는 실농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남새반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실농군이?…》

《리기주의기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우리 작업반에서 배겨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보내면 되겠어요?》

《아니, 자기가 빠져나갔지요.》

《문제가 있구만요.》

마장석은 싱긋 웃었다.

《우리 작업반에는 안종기가 없어도 일없습니다. 안종기가 일을 묘리있게 잘하는 실농군이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잘된 일같지 않았다. 이것 역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명숙은 선진적이고 조직능력이 있으며 연구가 깊은 마장석반장과 끝없이 이야기하고싶었다. 들을수록 느껴지는바가 많았다.

《하나 더 물읍시다.》

《어서 물어보시오.》

마장석이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느낀건데 작업반들의 실태자료가 관리위원회에 종합된 자료와 잘 맞지 않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관리위원회 농산지도원의 수준이 그게 답니다. 그래서 기사장은 농장전반적인 기술적자료의 종합분석은 우리 5반기술원한테 시킵니다.》

명숙은 생각이 착잡해졌다.

《5반기술원은 어떤 동뭅니까? 아까 여간 세밀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요?》

《예, 총명하고 연구심이 깊습니다. 수자에 밝지요.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크게 받습니다.》

《그렇다면… 5반기술원은 이름이 뭔가요?》

《강현입니다.》

《강현동무를 농장관리위원회 농산지도원을 시키면 되지 않을가요? 지금의 농산지도원보다 더 실력이 있으니 기사장도 강현동무에게 종합분석을 시키는게 아니겠습니까?》

마장석은 난처한듯 뻣뻣이 일어선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였다.

《그런 론의도 좀 있었지요. 그런데… 하여간 위원장동무가 이제 알게 될겁니다. 기사장과 틀렸지요. 그래 위원장동무가 보았다는 관리위원회의 종합자료를 이번에는 강현이한테 시키지 않고 농산지도원한테 시킨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비반출이 40프로라는 그 허위수자는 농산지도원이 종합한것이다.

강현과 기사장은 왜 틀렸는가? 무엇인가 심상치 않는 내용이 있는것 같다. 마장석과의 담화과정에 로정만기사장의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로정만은 장성하는 올해계획을 접수하기 힘들어하는것이고 마장석은 할수 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마장석작업반에서도 심하지는 않지만 퇴비장만과 반출정형을 분조들에서 적당히 보고하는 결함이 나타났다. 분조들을 돌아보는 과정에 명숙이가 알아냈다. 5작업반 2분조장은 처녀인데 이 처녀분조장만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

해질무렵 허명숙은 관리위원회로 돌아왔다. 그는 래일 진행하게 되는 10일지령총화모임에서 강조해야 할것들과 제기할것들을 준비하면서 1970년대에 특히 작년도에 농사와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들을 다시 연구하였다.

1970년대는 세계적으로 이상기후현상으로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아 농업생산과 식량이 엄중한 위기를 겪은 년대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

로도 계속될것으로 전망되였다. 태풍, 무더기비, 무더위, 왕가물 등으로 하여 농업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알곡수확고는 감소되고 알곡값이 대폭 인상되였으며 지구상에서 매일 굶주리는 인구가 10억명이나 된다고 했다.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에서도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이러한 때 수령님께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나라의 농업생산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갈 획기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몸소 농업전선의 사령관이 되시여 정초의 강추위를 무릅쓰고 숫눈길을 밟으시면서 때로는 논두렁에서, 때로는 밭머리에서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농사일을 의논하시였으며 찬바람과 눈비를 맞으시며 전국의 농촌들을 쉬임없이 찾아주시였다.

…두엄과 부식토를 많이 내여 땅을 걸구어야 한다.

…모를 튼튼하게 길러 모내기를 적기에 와닥닥 해제껴야 한다.

…농작물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하라.

…김을 잘 매야 한다.(지난 시기 농촌들에서는 모내기를 끝내면 한해농사가 다 된것처럼 여기면서 김매기철에 농장일군들을 회의에 불렀고 가방을 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았으며 논밭에서는 녀자들만이 남아서 김을 매고있었다. 이것이 큰 문제였다.)

…랭상모를 널리 받아들이라.

…문화주택을 많이 지으라.

낡은 집을 헐어버리고 문화주택을 지으면 질좋은 자급비료가 나온다. 수리반을 조직하고 살림집수리를 계획적으로 하라.

…종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한랭전선을 이겨내고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짓는데서 종자를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정미소를 잘 꾸려 거기서 나오는 미강을 사료로 하고 벼겨는 불을 때게 하라. 매 농가들에서 돼지를 두마리정도 길러 고기도 먹고 두엄도 해결하라.

…농사일을 기계화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 모내는기계가 다 들어갈수 있도록 포전정리를 하라. 랭습지를 없애기 위하여 도랑을 파고 거기에 돌을 넣어 물이 빠지도록 하라.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지키라.

수령님께서 농업발전을 위한 방도와 대책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심

으로써 농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렇다. 다수확의 예비, 계속되는 알곡생산장성의 잠재력은 수령님의 교시를 제대로 관철하여 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 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잠정리는 예비와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올해 우리가 잘 짜고들면 높아진 국가계획을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다.

결심을 확고히 가진 허명숙은 저녁때에 리당비서 차성재를 찾아갔다. 밖은 벌써 어두워졌고 작업반들에 나갔던 관리일군들이 하나, 둘 들어오고있었다.

《비서동무, 래일의 10일지령총화모임이 저로서는 잠정농장에 와서 처음 집행하는 모임인데 저는 그간 농장의 전반실태를 료해하는 과정에 느끼고 결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다음 10일지령을 새롭게 제기하려 합니다. 기사장동무가 제출한 10일지령을 그대로 발표할수 없습니다.》

차성재는 명숙의 말을 심중하게 들었다.

《응당 관리위원장동무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한테 파견했지요. 나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기사장동무가 몇달동안 위원장대리사업을 했고 또 기사장이니까 함께 토의해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성재가 전화로 로정만을 찾았다. 얼마후 그가 나타났는데 매우 여유있는 몸가짐이였다. 그가 앉자 차성재가 입을 열었다.

《관리위원장동무가 래일 지령총화모임에서 제기하려는 문제를 토론합시다. 관리위원장동무, 말하시오.》

명숙은 일단 결심이 서면 시원시원하고 대담하게 그 결심을 제기하고 그리고는 고집스럽다고 할 정도로 끈덕지게 내미는 성격이였다. 그렇다고 하여 무분별하게 처신하지는 않았다. 녀성답게, 부드럽게 례의를 지켜가며 주장을 세웠다.

그는 먼저 분조와 작업반들에서 현행작업실적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현상이 있다는것을 지적하고 대표적으로 2작업반장 최윤구의 실례를 들었다.

《왜 분조장들과 작업반장들이 자급비료생산과 반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한것처럼 허위보고를 합니까? 말로는 땅의 주인이 되자고 하지만 행동에서는 주인구실을 제대로 못하고있습니다. 땅에 진심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숙이가 하는 말들이 로정만이에게 좋게 들릴수 없었다. 이 고장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들, 무엇보다 자기의 성과를 부정하고있는것처럼 느껴졌기때문이다. 물론 허명숙의 비판적인 분석이 옳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은 로정만이도 잘 알고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는것들이다. 나이가 있는만큼 농사경험이 명숙이보다 더 풍부하다고 자부하고있는 로정만이는 명숙이가 자기도 다 아는 문제를 말하고있기때문에 입을 다물고있었다.

새로 온 사람에게 무슨 결함인들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결함을 이제부터 시정해나가야 할 당사자는 관리위원장이다.

허명숙은 분조나 작업반들에서 농사차비정형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밑에 내려가 따져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적당히 집계한 농산지도원이나 역시 그 집계된 수자를 검토하지 않는 기사장에게도 잘못이 있다는것을 까밝혀야 했으나 처음부터 지나친 언행을 삼가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해두고 다음문제로 넘어가 농산작업반들에서 로력자류동이 있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는 농산작업반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의 이름까지 지적하면서 이외에도 인원류동이 좀 있었기때문에 작업반로력을 일부 조절해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로정만이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을수 없기도 했거니와 자기로서도 걱정되는바가 있어 입을 열었다.

《그렇게 하면 작업반들에서 소란스러워질것이고 다시 농산반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 자기로서는 합당하다고 할 의견을 내면서 반발할수 있지 않을가요? 당장 영농기에 들어가겠는데 시간을 내서 교양도 하며 준비를 했다가 가을에 조절합시다.》

《아닙니다. 당장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올해계획을 수행하는데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옳다고 인정되면 즉시 실행해야지 무엇때문에 가을로 미루겠습니까?》

명숙은 자기가 흥분하고있다는것을 느끼였다. 무엇때문에 흥분하겠는가. 관리위원장으로 자기의 견해를 내놓는것은 응당한 처사이고 또

권리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속심을 알수 없는 거의 무표정하고 나이도 많은 기사장을 대상하자니 자연히 긴장해지며 흥분이 되는것이였다.

명숙이가 강경하게 나오기때문에 더 말해야 소용없겠다고 생각했는지 로정만은 잠자코 있다가 한가지 문제를 불쑥 꺼냈다.

《이건 내가 5작업반에 있는 처녀분조장이 한해농사를 짓는걸 보고 깊이 생각한것인데 안될것 같습니다. 농사에 생둥이란 말입니다. 관리위원장동무가 일부 로력자들을 농산반으로 돌리도록 조절하자고 제기했는데 이 기회에 처녀분조장도 실농군과 교체합시다.》

그는 처녀분조장이 한해동안 분조장일을 서툴게 한 사실을 놓고 걱정은 했으나 교체하는 문제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온 관리위원장이 문제점들을 자꾸 끄집어내니 자기가 피동에 빠지고있는것 같아 그것을 들고나온것이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였다.

명숙은 5작업반 2분조장인 처녀를 이미 만나보았다.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체격이 녀성농민답게 든든한 그 처녀분조장은 퇴비장만과 반출정형을 명숙에게 솔직하게 말해 첫인상에 벌써 마음에 들었던 새 세대 농촌초급일군이다. 분조장으로 한해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으니 부족점이 있을것이다. 《농사에 생둥이》라는 소리를 들을수 있다. 하지만 첫걸음에 만리를 가랴, 첫술에 배부를가. 그 처녀분조장 류순절은 새 세대 청년들에게서 볼수 있는 때묻지 않은 순결한 마음을 간직하고있다. 이것이 귀중한것이 아닌가.

명숙이도 처녀로 관리위원장사업을 시작했다. 말하자면 생둥이였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작업반에 내려가 꾹 박혀 일만 했었다. 그런것을 당조직이 이끌어주었다. 리당위원장 라순돌이 명숙을 처녀관리위원장으로 내세워주시고 친히 가까이 부르시여 당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도 능히 관리위원장사업을 잘해나갈수 있다고 고무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수 있도록 깨우치고 이끌어주어 성장하게 되였다. 류순절이도 우리가 잘 도와주고 이끌어주면 훌륭한 농촌일군이 될수 있다.

허명숙은 처녀분조장을 교체하자고 하는 로정만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대답을 주었다.

차성재도 오늘 녀성들을 농촌일군으로 많이 키워내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말했다.

로정만이는 류순절과 같이 한해 일해본 기사장으로서 쉽게 접수되지 않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말았다. 새 관리위원장과의 관계에서 아래위치에 있는 기사장인데도 자기가 피동에 빠지는것 같아 자존심을 누르기 힘들었던것이다.

허명숙은 다음으로 올해알곡생산계획에 대하여 말했다.

《올해계획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는 군경영위원회가 옳게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로정만이 머리를 추켜들었다. 바로 그것을 명숙이와 진지하게 의논해보려 했는데 의논도 없이 결론부터 내리지 않는가.

《군경영위원장동지가 말한것처럼 우리 잠정리는 잠재력과 예비가 있습니다. 나는 작업반들을 료해하는 과정에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올해계획이 작년에 비해 105프로 장성이지만 능히 수행할수 있으며 또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정만은 이마살을 찡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 잠재력이 어떤것인지 설명해줄수 있겠습니까?》

이 물음이 명숙이에게는 어쩐지 기분에 거슬렸으나 내색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답하였다.

《그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농장이 안고있는 결함을 고쳐나가는데 있습니다. 퇴비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정확히 논밭에 내여 땅의 지력을 높이며 로력을 농사에 집중하며 로력일평가를 정확히 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며 바로 그렇게 하도록 관리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이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면, 그리고 뜨락또르들의 가동일수와 작업능률을 보장하면 기계화수준이 비교적 높고 지금껏 농사를 잘 지은 전통과 경험이 있는 우리 농장이 능히 해낼것입니다. 중요한것은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것이 잠재력이 아닐가요?》

로정만은 어이없어하는 표정이였다.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가 했는데 결함을 퇴치하는데 잠재력이 있으며 중요한것은 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하니 이런 일반적인 소리를 누가 못하겠는가, 농장원들의 각오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겠는가.

명숙이가 설명을 계속했다.

《나는 일부 작업반장들과 이야기해보았는데 그들은 우리가 능히 올해 장성하는 계획을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장석이가 그랬겠지요.》
로정만의 대답이다.
《마장석반장은 작년계획을 넘쳐했습니다.》
《글쎄 다 마장석이처럼 한다면야!…》
《다 그렇게 일하도록 해야지요.》
로정만의 입술에 웃음이 연하게 비끼였다.
《말은 쉽지만 최윤구가 마장석이처럼 될것 같습니까. 마장석은 어디까지나 마장석이고 최윤구는 어디까지나 최윤구지요. 그래두 최윤구만 한 반장도 찾기 힘듭니다. 관리위원장동무, 내딴에는 그래도 내가 우리 농장의 현실정을 잘 알고있다고 믿고있었는데… 내가 군경영위원회와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야 오자바람으로 계획을 낮추자고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명숙은 기사장을 납득시키기가 헐치 않겠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답답해났다. 사실 명숙이로서도 특별한 묘안이 있는것은 아니였다. 묘안이 있다면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사업의욕 즉 정신력을 더욱 발동시키는것이였다. 그들이 이전처럼 각오를 다지고 떨쳐나서면 될것이 아닌가.
《나는 군경영위원회에 가서 계획을 낮추어달라고 말하기가 딱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명숙이가 말했다. 《실지 계획이 현실성없게 세워졌다면 론의를 하자는것입니다. 기사장동무, 중요한것은 군경영위원회를 납득시키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립장에 서며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하는것입니다. 물론 나는 무슨 뾰족한 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실지 그런것이 하늘에서 떨어질수도 없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나삐 생각마시오. 욕망을 앞세우지 맙시다. 관리위원장동무는 새로 온 농장에서 첫해부터 실적을 올리고싶을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같은 심정일것입니다. 하지만 첫해에 알곡생산계획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관리위원장의 체면이 기본문제는 아닙니다. 일군들이 칭찬받을수도 있고 비판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허명숙관리위원장동무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

가 있지 않을가요?》

로정만이가 관리위원장을 생각하는듯이 너무 고집쓰지 말고 이 농장에서 오래 일한 기사장의 의견을 참작하는것이 어떤가고 권고하고 있었지만 진속은 계획을 못하는 경우 자기의 발전에 저애가 될가봐 걱정하는것이였다.

물론 명숙은 그의 진속을 알수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그가 새 관리위원장을 위해 설복하는것이라고 고맙게 여기였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내린 결심을 철회할 명숙이가 아니였다.

리당비서 차성재가 드디여 입을 열었다.

《올해는 여러 면에서 의의가 깊은 해입니다. 당에서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할것을 호소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정신이 올해알곡생산계획에 반영되였습니다. 나는 관리위원장동무가 옳게 결심했다고 인정합니다. 래일 10일지령모임에서 군경영위원회에서 떨군 계획을 올해 우리 농장의 전투계획으로 확정하고 여기에 맞게 년간과 영농별계획들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기사장동무, 의견이 있습니까?》

《나는 이미 의견을 말했습니다. 기사장으로서의 의견 말입니다. 하지만 최종결심은 관리위원장이 하며 리당위원회가 하지요.》

로정만이는 자기 우월감을 감추지 않았고 얼굴표정이 흐릿했지만 기사장의 지위에 맞게 처신했다. 어쨌든 그는 기사장인것이다. 이제는 전력을 다해 높아진 올해계획을 수행하는 길밖에 없다. 로정만이 이전보다 더 열성을 내여 일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8

《관리위원회는 군경영위원회가 떨군 올해알곡생산계획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허명숙관리위원장은 작업반장들이 이미 알고있는 벼와 강냉이, 기타 작물들의 국가계획수자들을 재확인시키였다. 《작년에 비해 105프로의 장성입니다. 우리 농장은 장성한 이 계획을 수행할수 있으며 또 해야 합니다.》

문화회관에는 모든 농산, 공예, 남새, 축산, 기계화작업반의 반장, 기술원, 분조장, 부락당비서들 그리고 관리일군들전원이 모여와 자리를 잡고 앉아있었다. 주석단에는 허명숙, 차성재, 로정만, 3대혁명소조책임자가 앉았다. 명숙관리위원장이 지령총화모임의 규모와 장소를 새롭게 정하고 소집한 회의였다.

연탁에 나선 허명숙이 말하고있었다.

《우리 잠정농장은 중요한 알곡생산기지의 하나입니다. 전후에 5개의 소규모협동조합으로 시작하여 그후 리적으로 통합되면서 집단경리의 우월성을 발휘하여 발전하여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급진적발전은 1970년대에 이룩되였습니다. 이 시기로 말하면 세계적인 이상기후현상으로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농업생산에서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으로 그 난국을 타개하고 우리 나라의 농업생산에서는 앙양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앙양속에서 우리 잠정협동농장도 큰걸음을 내디디여 자기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었고 도적으로 기계화수준에서나 알곡생산고에서 앞선 농장들중에 속하게 되였습니다. 이 자랑찬 나날들에 여기 기사장동무와 5작업반장동무를 비롯하여 많은 동무들이 우리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농장이 달성한 성과의 밑에는 우리 농장원들의 숨은 공로가 깔려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자랑찬 성과를 달성한 이름있는 농장에 책임일군으로 온것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명숙은 여기서 잠간 쉬였다가 연설의 다음부분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1980년대의 첫해인 올해에 당은 알곡생산에서 비약을 가져올것을 호소하고있으며 그리하여 당제6차대회를 농업에서 풍작을 이룩하는것으로 맞이할 결의들이 지금 전국의 협동농장들에서 울려나오고있습니다. 우리 잠정리도 올해 더 큰 풍작을 마련합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족병이 좀 있는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가고 만족해하고있으며 또 현재의 땅에서 작년에 낸 최고수확의 이상을 내지 못할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비는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농장에는 현재 43대의 뜨락또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 분조에 한대씩 차례지는 량입니

다. 그런데 현재 가동하고있는 뜨락또르가 27대이며 그중에서 실지 농사차비에는 10대가 참가하고있으며 그나마도 가동률이 낮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큰 예비가 있습니까.

또 봅시다. 요전 10일지령총화에서 종합된 자료인데 현재 자급비료생산은 52프로, 반출은 41프로, 나래준비 63프로, 활창대준비 82프로… 등등으로 집계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작업반들과 분조들에 내려가 료해하여보고 이것들이 추상적으로, 눈짐작으로 그것도 보태여 보고한 수자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왜 허위보고를 합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도 속이고 농장도 속여서 얻자는것이 무엇입니까? 설사 자신과 관리위원회는 속일수 있어도 땅이야 속일수 없지 않겠습니까? 땅은 농민이 기울인 노력만큼의 수확을 주지 덜 주지도, 더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퇴비를 얼마 장만했소, 얼마 반출했소 하고 군에 보고해서 칭찬을 받는다 해도 그것이 거짓일 때 가을에 가서 어떤 수확이 차례지겠습니까?》

명숙은 계속하였다.

《내가 잠정농장이 안고있는 일부 결함을 까밝히고있는데 대해 기분이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 사실 새로 오는 사람의 눈에는 이것저것 많은것들이 걸리기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검열온 사람도, 잠시 들린 손님도 아닙니다. 잠정리의 주인입니다.》

차성재가 몸을 움씰하면서 기침을 가볍게 하고 입을 열었다.

《나는 관리위원장동무가 문제를 아주 정당하고 예리하게 분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만족해있을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안고있는 결함들을 아프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해계획을 수행할수 있습니다. 모두 정신들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그는 명숙에게 도중에 끼여들어 미안하다며 계속하라고 했다.

《나는 하고싶었던 말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최근년간 농산작업반에서 일부 로력이 부차적인 작업반으로 빠져나간 현상들이 있었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이 발양되지 못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이제 그러한 결함들은 바로잡힐것이므로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곡생산에 힘을 넣기 위하여 일부 로력조절이 있게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협동농장들에서 분조관리제를 실시할데 대한 현명하고 혁신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후 협동

농장관리운영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분조관리제가 제대로 실시되고있지 않습니다. 나는 5작업반의 처녀분조장 류순절동무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것을 명백히 알수 있었습니다.

동무들, 나는 여기 와서 잠정리사람들이 일욕심이 세고 그만큼 우월감도 높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좋은것입니다. 그러나 실속이 있어야 합니다. 잠정농장이 도적으로뿐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앞선 명성높은 농장으로 되기 위해, 계속 전진하기 위해 우리 다같이 힘을 합쳐 일합시다.》

명숙은 이러한 호소를 한번 하는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농장내에 존재하는 고질적인 병집을 뿌리빼자면 계속 투쟁해야 하며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제부터 우리는 실지행동으로 결함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나의 눈에 우리 농장의 결함만이 보인것은 아닙니다. 나는 농산5작업반 2분조장인 류순절동무에게서 새 세대의 깨끗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알아본데 의하면 처녀분조장 류순절동무는 자급비료생산과 반출, 랭상모판자재준비정형을 사실대로 작업반에 보고했습니다. 나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조장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작업반장들은 분조장들이 보태서 보고한 수자를 또 좀 보태서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순절분조장이 보고한 내용도 5작업반장 마장석동무가 좀 보태였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농장의 유일한 처녀분조장이 제일 꼴찌할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5작업반장동무.》

명숙이가 마장석을 지명했다. 마장석은 얼굴이 벌개져서 일어섰다.

《내 말이 틀리지 않아요?》

《…》

마장석은 두툼한 입술을 약간 움씰거리였을뿐 대답을 못했다.

《앉으세요. 그래도 5반이 그중 실적에 가깝게 관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엄격합니다. 높아진 올해계획에 맞게 작성한 다음 10일지령을 주려고 합니다.》

연단에 나선 관리위원장의 발언은 참가자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으며 깊은 감명을 자아내였다. 사실 지난 기간 농장은 자랑찬 성과를 이

룩하였으며 생활수준이 쑥 올라갔었다. 수령님의 령도하에 한랭전선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속에서 이룩한 결실이였다. 그들은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었으며 긍지감으로 얼굴들이 빛났었다. 명숙관리위원장은 바로 그들의 그 자부심과 긍지감을 돌이켜보게 했고 성과에 만족하여있은 자신들을 깊이 반성해보도록 했다. 언제 저렇듯 손금보듯 작업반들을 알수 있었을가, 잡도리가 다르다, 간단치 않다, 웃는 얼굴에 상냥한 겉보기와는 달리 매우 깐깐하고 예리하며 정확하고 엄격하다, 정치적으로 준비된 녀성일군이다 하며 혀를 내두르는 사람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 왔으니까 결함을 들추어내며 무엇을 굉장히 할것처럼 말할수 있지, 녀자가 좀 매정해, 처음 소집한 회의인데 마장석을 대중들앞에 세워놓고 망신을 주다니, 마장석이 창피해서 어떻게 머리를 들고 다니나? 그래두 마장석이 그중 일 잘하는 반장인데 하필 그를 지명하다니… 이렇게 의견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불쑥 마장석이 일어섰다. 그는 충혈진 눈으로 장내를 둘러보았다. 성난것 같은 눈이였다. 그가 무슨 소리를 하자고 일어섰는가? 혹시 지명받고 일어서기까지 한것이 내려가지 않아서 어떤 반박을 하자는것은 아닐가? 명숙은 마장석을 이미 파악했지만 이런 위구심이 드는것을 어쩌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도 의혹을 품고 그를 일제히 바라보았다. 모든 눈길이 그에게 쏠리였다.

《이자 관리위원장동무는 우리 농장과 작업반들에 존재하는 결함들에 대하여 까밝혔습니다.》 그는 갈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시작했다. 장내는 기침소리하나 들리지 않았다. 《모든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가 옳게 말했습니다. 우리 농장원들이 다 발동되면 올해알곡생산계획을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가 나를 옳게 비판했습니다. 나는 우리 농장에 한명뿐인 처녀분조장을 데리고있는 작업반장으로서 그의 량심을 어지렵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진심으로 순절분조장에게 사죄합니다.》

그의 거친 음성이 이 순간에 왜 그리도 뜨겁게 회의참가자들의 가슴을 흥분시키는것일가? 명숙은 저도 어쩔새없이 박수를 쳤다. 모두의 심정과 숨결이 하나와 같이 일시에 그에 호응하여 박수를 보냈다.

마장석이 저렇듯 대범한 사나이였던가! 마장석과 같은 작업반장이

잠정리에 있다는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순절은 머리를 푹 숙이며 눈을 슴뻑이였다. 마장석은 오른손을 왼쪽가슴에 눌러댄채로 자리에 앉았다. 장내가 술렁술렁했다.

마장석이 순절분조장에게 사죄한 이례적인 행동이 큰것은 아니였지만 명숙관리위원장의 비판적이면서도 현실적이고 고무적인 연설을 들으며 무엇인가 변화가 있으리라는 예감으로 흥분하고있는 군중의 심리와 호흡에 맞았기때문에 파문이 컸던것이다. 그렇다, 지금은 그들에게 실제상의 변화가 움트고있는것이 몸에 느껴졌다.

움트는 새봄의 훈향이 들에서 부는 2월의 들바람속에서뿐만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상태에서도 풍기는듯 하였다.

이어 기사장 로정만이가 관리위원장 허명숙이 직접 손을 대여 완성한 새 10일지령을 발표하였다. 목표는 아름찼으나 초급일군들의 흥분된 얼굴에는 신심이 넘치고있었다. 명숙은 잠정농장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가슴에 넘치는것을 어쩌지 못했다. 대중은 언제나 정확하며 정당한 선택을 따른다. 일부 개별적인 사람들이 뒤떨어진 생활인습에 젖어있다 해도 대중은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지향속에서 시대를 대한다. 우리 수령님께서 키워주시고 당에 의해 교양되고 단련된 군중이다.

농장원대중은 일이 잘되여 알곡수확고가 더 높아지고 농장이 발전하는데 절대적인 리해관계를 가지며 그것을 지향하면서 그 지향에 맞는 대책을 따르는것이다.

9

기사장의 처 양옥실은 아침밥상을 치우고 설겇이를 끝내기 바쁘게 이웃집으로 찾아갔다. 휴일이여서 어제 밤에 집으로 온 딸 경애와 남편이 무슨 이야기인지 펼쳐놓고있어 기회가 좋았다.

옆집은 5작업반에서 일하는 옥화라는 녀인이 살고있는 집이였다. 이들은 이름까지 옥실, 옥화 이렇게 자매같아서 언니, 동생 하며 가까이 지낸다.

옥화의 남편은 돼지우리에서 두엄을 쳐내고있었다. 옥화자신은

세면장에서 빨래감들을 물에 담그다가 양옥실을 맞아들였다.
《말을 들었소?》
옥실은 옥화와 마주앉기 바쁘게 입을 열었다. 옥실이가 감실감실하고 체소한데 비해 옥화는 얼굴이 환하고 가슴이 불룩했으며 몸이 실했다. 이상한 일같지만 이렇게 생김새와 성격이 상치되는 사람끼리 서로 잘 어울린다. 옥실은 말이 많고 옥화는 말이 적었다.
《무슨 말?》
옥화가 물었다.
《새로 온 관리위원장녀자 말이야, 오자마자 이 작업반, 저 작업반을 돌아치며 농장의 결함을 들추어내더니만 리당비서, 기사장을 아예 무시하고 벌써부터 독판치기를 한다누만. 암닭이 울기 시작했지. 기가 막혀서!》
《내가 듣건대는 상냥하고 똑똑하다구 하던데?》
옥화가 옥실의 비방을 의문시했다.
옥실의 눈이 대뜸 동그래지며 더 재게 입을 놀리였다.
《이보라구, 말을 들어두 들을만 한 말을 들어야지. 경애 아버지가 어제 밤에 들어와서 저녁식사도 제대로 못했다우. 그 녀자가 글쎄 군경영위원회에서 떨군 올해알곡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면서 기사장을 공격했다오. 기사장이 우리 령감이니까 내가 편역을 들구 감정을 품는것이라구 생각할가봐 내 더 말하지는 않겠어. 만일 우리 농장이 올해계획을 높게 받아가졌다가 수행하지 못하면 그땐 어떻게 하겠어?》
옥화는 큰 눈을 슴벅이며 무언가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면 계획이 바루 섰다구 주장한 사람이 책임지겠지요. 어제 회의에서 계획을 눌렀다던데? 모두 찬성했게 채택했겠지.》
옥실은 목소리를 부쩍 돋구었다.
《할수 있어? 관리위원장이 내려먹이는데.》
그바람에 방안에서 수첩을 들여다보면서 분조사업을 연구하던 처녀분조장인 옥화의 딸 순절이가 부엌과 통하는 문을 열고 나왔다. 나이는 열여덟살, 부모들을 닮아서 키가 쭉 빠지고 얼굴이 둥실했으며 어깨가 너부죽했다. 머리는 중발이였다. 처녀는 나이보다 숙성해보였고 어른스러운 몸가짐이여서 어리다고 숙보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인

지 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땅에서 농사일을 시작한 순절인데 그후 분조장을 시켰다. 순절이는 분조장사업을 대단히 아름찬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한해동안 애를 많이 먹었다. 아마 그래서 기사장이 그를 교체하자고 제기했을것이다.

순절은 경애의 어머니가 하는 소리를 귀기울여 들을뿐 아무런 견해도 내놓지 않았다. 순절의 기색을 살피고있던 양옥실은 슬그머니 그의 팔을 잡아당기였다.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관리위원장이 일하는 처사가 마음에 드니?》

순절이는 웃으며 《경애 어머니가 좀 과장하는것 같애요. 관리위원장이 기사장을 언제 공격했다구 그래요?》하였다.

양옥실은 잡고있던 순절의 팔을 내밀치였다.

《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런데 웃기는 왜 웃는거야.》

순절이는 웃음이 더 나와 소리내여 웃어댔다.

양옥실이는 화를 내며 옥화네 집을 훌쩍 나와버리였다.

어제 10일 지령총화모임에서 토의된 문제들과 회의과정에 있은 일들을 놓고 오늘 휴식일에 농장원들은 자기 집에서와 마실을 가서 이야기판을 펼치였다. 흐아흐아 웃기도 하고 침방울을 튕기며 언쟁을 하기도 했다.

《좌우간 이번 관리위원장이 문제도 옳게 세우고 언변도 좋다더군. 배짱두 보통 아니래.》 하고 장기판에 끼여들어 훈시를 하다말고 한 로인이 말리워 썬 잎담배를 종이에 말면서 말했다.

《전번 관리위원장하구는 달라. 그 사람은 기사장이 하자는대루 했지.》

《〈말〉을 쓰라구. 〈포〉는 왜 만지면서 그러나?》 장기판에 대고 훈수를 하던 2작업반장 윤구가 담배를 다 말고 침을 바르는 로인을 홱 돌아보았다. 《우리 기사장이야 잠정리 토배기나 같은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 해될게 뭐있소?》

이쪽 로인은 눈길을 들지 않고 라이타를 찾으며 그에게 퉁을 놓았다.

《그러기 내 뭐라나? 이전 관리위원장이 혈기차게 일을 내밀었지만 작년에 병을 앓으면서 기사장에게 관리위원회사업을 맡기구 기사장이

하자는대로 했다는 소린데 공연히 화를 내는군.》
윤구는 더 할 말이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같은 마을에 살고있는 윤구보다 나이가 우인 농장원이 윤구를 너나들이로 대하며 끼여들었다.
《윤구, 자네 말도 옳고 정령감말도 옳소. 사실 우리 기사장이야 일군이지. 그런데 이 사람 윤구, 자네는 새 관리위원장이 마음에 안드나?》
그들은 먼 친척간이였다.
윤구가 담배를 말아 피우는 로인을 가리켰다.
《정령감이 방금 관리위원장을 칭찬했는데 나는 분조에까지 나와서 퇴비를 얼마 장만했는가, 얼마 반출했는가 따지구 작업반장부를 검열하구 하는게 마음에 안든단 말이요. 녀성이니까 깐깐하겠지만 농사라는거야… 그만하세!》
그는 손을 내저었다.
그가 어성을 높이는 바람에 장기를 두던 사람들이 숙인 머리를 버쩍 들었다. 그중 장기가 잘되지 않아 끙끙 갑자르고있던 사람이 짜증을 내였다.
《좀 작작 떠드우. 떠들겠으면 멀리 떨어져서 떠들던지, 이거야 어디 장기를 두겠소?》
《허허… 임자 수가 딸리는 모양이군.》
《허허…》
《7작업반장네는 오늘 아들잔치를 한다지?》
《그런가봅데.》
오늘은 휴식일인데다가 7작업반장네가 잔치를 한다는것이였다.
이날 사무실에 나와있던 차성재가 딸문제로 찾아온 농장원인 중년녀인과 진지한 담화를 하는데 7작업반장이 찾아와 아들잔치에 참가해달라고 했다.
《반장동무, 고맙소. 한데 내가 대사집에 다니지 않는다는거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니요?》
털보반장의 청도 여간 간절하지 않았다.
《아니웨다. 내 사정도 좀 들어주시우. 3대독자 외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리의 어른들을 빼놓으면 그게 절반짜리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저 평농장원이라면 그런대루 작업반장이나 부락당비서

를 초청해서 하겠지만 그래두 명색이 작업반장이 아닙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비라는게 변변하지 못해 절반짜리 잔치를 한다구 원망할게 아닙니까? 눈 한번 질끈 감구 잠간 얼굴을 내밀어주시우. 갑시다, 다들 기다립네다.》

이런 딱한 일이라구야! 차성재는 성을 낼수도 없고 그렇다고 응할수도 없어 머뭇거리다가 《기사장동무는 가겠지요?》 하고 물었다.

《기사장이야 오지요.》

《그럼 됐습니다. 한마을에서 같이 컸구 농사도 같이 지은 막역한 사이겠다, 나이도 있어 그런 대사집에 어울리겠으니 기사장동무가 가면 되지 않겠소?》

하지만 털보반장은 막무가내였다.

《그럼 말이요.》 차성재는 한걸음 물러섰다. 《내 지금 이 아주머니와 중요한 가정사를 의논하는 중인데 저녁때쯤 잠시 들리겠으니 잔치를 시작하시오. 어서 가보오.》

7반장은 대답을 받아가지고 좋아하며 인사를 하고 물러갔다. 그러나 거기에 갈 생각이 없는 차성재는 녀성농장원을 향해 돌아앉았다.

《좌우간 리당위원회를 믿고 찾아온건 고맙습니다.》

농장원녀성이 환하게 웃었다.

《사실 당조직이 아니면 누구에게 이런 가정사를 터놓겠습니까. 그래 렴치불구하고 찾아왔으니 욕 많이 하십시오.》

《아닙니다. 이렇게 합시다. 집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내 좀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녀인이 인사를 하고 나갔다.

녀인이 들고온 딸문제란 이런것이였다. 딸은 인물이 환하고 중학교시절부터 노래를 잘 불러서 군에서는 물론 도에서도 욕심을 내는 처녀였는데 군기동예술선동대에서 선손을 썼다. 그래서 뽑혀 올라가게 되였는데 인차 도예술단에서 긴팔을 뻗쳤다. 군에서는 처녀를 놓아주는것이 아까왔지만 도를 당해낼수가 없었고 또 처녀의 장래발전을 위해서도 양보하는것이 옳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부모들이 반대하였다. 딸을 멀리 해주로 못 보내겠다는것이였다. 아직 자립성이 부족한 딸을 멀리 보내는것이 마음

놓이지 않았던것이다. 이것을 안 군에서 딸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나섰다. 딸이 울면서 군에는 안 가겠다고 하고 어머니는 군기동대에라도 가라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리당비서 차성재를 찾아와 지원을 요구한것이였다. 딸을 설복하여 군기동예술선동대에 가도록 해달라고.

《아버지는 금옥이가 군에 올라가는것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읍이 코앞이니까 자주 신칙할수 있으니 마음놓을수 있다는겁니다. 도예술단에서는 하는수없이 포기하려 하는데 딸년의 마음은 이미 해주에 가있으니 야단 아닙니까. 이러다가는 게두 구럭두 다 놓치고 말것 같습니다.》

농사일만 해도 바쁜데 별 까다로운 가정사들이 다 제기된다. 차성재는 금옥이를 알고있었다.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춘다.

금옥이 어머니가 나간 후 그는 군당부장에게 전화를 하였다. 부장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금옥이의 눈이 이마에 올라가 붙었는데 군예술선동대에 데려올수 있겠소? 어떻게 데려온다 해두 인차 날아가버릴게요. 도에서 가만있지 않을테니까.》

이 순간에 차성재는 결심이 섰다.

그는 리당사무실을 나와 관리위원장의 집으로 향했다. 허명숙이 이곳에 와서 맞는 첫 휴식일인데 아직 깊이 사귄 사람도 없으니 적적하게 지낼수 있을것이다. 7작업반장과 마지못해 하긴 했어도 약속을 했으니 명숙의 의향을 들어보고 잔치집에 잠시 들려보는것도 나쁘지 않을것이다. 그가 7작업반장에게 약속한것도 명숙이를 생각해서 같이 간다는 전제를 두고 했었다.

그런데 관리위원장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니 방안에서 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냥 갈가 어쩔가 망설이는데 그 목소리가 귀에 익어 차성재는 기침을 크게 깇고 《계십니까?》 하고 주인을 찾았다.

관리위원장이 방문을 열고 내다본다.

폭이 넓은 치마에 분홍빛털쎄타를 입고 흰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감싼, 가정에서의 녀인의 모습인 명숙은 별로 생신해보이였다. 젊고 혈기에 넘친 녀성으로서 얼굴이 발그레했다.

《아이, 비서동무이군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손님이 와있구만?》
차성재가 머뭇거렸다.
명숙이는 미소를 지었다.
《손님이라니요, 로동지도원동무예요.》
《글쎄 목소리가 귀에 익다했지.》
로동지도원도 일어서서 차성재를 맞이했다.
방한가운데 작은 상이 놓여있고 그우에 종이장들이 널려있는데 두 사람이 마주앉아서 무슨 명단을 작성하던중이였다.
《일을 하댔구만?》
차성재가 앉으며 상우를 가리켰다.
《예.》 폭넓은 치마로 다리를 감싸고 앉으며 명숙이가 대답했다.
《농산작업반을 떠났던 사람들을 본래 자리로 데려오고 작업반들의 로력구성을 합리적으로 하자니까 품이 좀 듭니다.》
차성재가 수긍했다.
《사람을 한번 옮겨놓는다는게 쉽지 않지요. 나는 관리위원장동무가 혼자 고독하게 휴일을 보내는가 했는데.》
《로동지도원동무한테는 미안합니다.》
명숙이가 이렇게 말하자 로동지도원은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미안할것이 없습니다. 혼자 있는 위원장동지를 동무해주는셈이지요. 그런데다가 일이 끝나면 섭섭치 않게 대접까지 해주겠다니, 허…》
푸접좋은 로동지도원의 대답이다.
차성재는 명숙이와 한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더 방해하지 않겠다고 하며 일어섰다.
《관리위원장동무, 이젠 가족을 데려와야 하지 않을가요?》
토방을 내려서며 물었다.
《그건 바쁘지 않습니다.》
차성재는 집으로 가면서 본인은 관리위원장사업을 하느라 몸뺄 사이 없겠으니 농장에서 이사를 도와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말이 세대주지 노상 사무실과 작업반에 나가있고 군에 회의를 다니느라 차성재비서는 가족들과 단란하게 모여앉을 사이가 없었고 집일

에는 더욱 관심을 두지 못했다.

중학교 수학교원인 안해가 학생들의 숙제장을 검토하고있다가 점심을 차리려고 부엌으로 나가 무엇인지를 지지고 볶느라 얼굴이 발그레해져서 돌아가고 아이들도 좋아하는것을 보며 차성재는 자기가 너무 집일과 가족들에게 관심이 적었다는 자책감을 느끼였다.

그는 식사후 오래간만에 세대주구실을 해보려고 마당으로 나가 돼지우리를 손질했다. 역시 돼지우리나 담장같은것은 남자의 손이 가야하는 모양이다. 돼지우리에 댄 널판자가 흘렁거리였다.

《여보, 못하고 망치를 좀 내오구려.》 하고 그는 집안에 대고 소리쳤다.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것이다.

안해는 무슨 그런 일에까지 참견하느냐, 들어와 좀 쉬라고 살뜰하게 말했다. 하지만 종당에는 못과 망치를 들고나왔으며 널판자를 붙잡아주면서 조력하였다.

이들부부는 금슬이 좋았다. 외아들인데다가 부모들이 일찌기 세상을 떠난 차성재에게서 안해는 어머니이기도 했으며 행복하고 아늑한 가정의 요람이였다. 군대에서 제대되여 군농기계작업소에서 수리공, 운전수로 성실하게 일한 차성재는 학교를 나온 후 군당에 얼마간 있다가 잠정리 당비서로 내려왔다.

오후에 금옥이네 집을 찾아갔다. 금옥이네는 그를 맞아들이느라 한동안 분주스러웠다. 그들은 리당비서의 입에서 어떤 기대되는 말이 나오겠는지 가슴을 조이며 초조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옥이가 노래를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니 우리 리예술소조에서는 말그대로 금옥처럼 귀중히 여기는데…》 차성재가 이렇게 서두를 뗐다.

《군에서도 데려가겠다, 도에서도 데려가겠다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나도 참 딱합니다.》 그는 군당부장이 금옥이의 눈이 이마에 가붙었다고 하던 말이 귀에 그냥 울리는듯 했다. 《그런데 명심할것이 있습니다.》

그는 금옥의 부모들에게 계속하여 타이르듯 말했다.

《사람은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잘 떼야 합니다. 예술가를 지망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청이 좋다고 하여 다 훌륭한 가수로 되는것은 아닐것입니다. 금옥이에게서 지금 필요한것은 군이나 도에 가서

노래를 하는것보다 고향땅에서 땀도 흘리고 낟알도 가꾸면서 향토의 넋을 체득하는것이 아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그래야 장차 인민의 사랑을 받는 향토맛이 나는 가수로 될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차성재의 사리밝은 깨우침앞에서 금옥이 부모들은 생각이 깊어졌고 금옥이 당자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리당비서가 무슨 이야기를 더 하다가 간 후 금옥은 방바닥에 어푸러지며 눈물을 쏟았다.

…이날 7작업반장네 잔치가 밤이 늦어서야 끝났는지 동네개들이 짖어대는 속에서 오만수로인이 거나하게 취하여 부르는 노래소리가 유별나게 울리였다.

에라 만수 풍년이로구나

동네사람들은 《〈에라 만수〉령감이 기분이 좋았군.》 하며 모두 웃었다.

휴일의 하루가 지나가는 속에서 잠정마을은 깊은 잠에 잠겨들었다.

제 2 장

농산 제5작업반

10

마장석은 관리위원장에게 공연히 안종기얘기를 해서 입덕을 보게 되였다고 속으로 쫑쫑댔다. 5작업반에서 남새반으로 빠져나간 안종기를 두고 그가 실농군이지만 리기주의가 심하다며 차라리 시원히 잘 가버렸다고 했었는데 관리위원회에서 농산작업반들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일부 로력자들을 조절하면서 그를 다시 돌려보냈던것이다. 그밖에도 몇사람이 더 왔다. 그런데 난사는 안종기를 분조장들이 자기 분조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것이였다. 마장석은 분조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1분조장에게 말했다.

《안종기는 1분조에 편입시키겠소.》

그러자 나이지숙한 분조장이 머리를 저었다.

《나는 안종기를 받지 않겠소.》

《그건 왜?》

마장석이 눈살을 찌프리였다.

《안종기는 터밭농사에만 열성이고 공동로동에는 흥미없어한다우.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나쁘단 말이요.》

마장석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한가지라두 장점이 있으니 됐구만. 일은 요령있게 잘하는 사람이요. 두말할것없이 받소. 그런 실농군을 싫다고 하다니?》

《아니, 싫소.》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떠맡길수 없어 다른 분조에 넣으려 하는데 순서대로 하면 2분조장에게 받으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2분조장은 류순절이다. 순절이가 안종기를 다루어내겠는가? 그래 건너뛰여 3분조장에게 받으라고 하니 그는 덮어놓고 싫다고 했다.

《아니, 1분조장이 싫다는 사람을 나한테 넘겨요? 난 싫수다. 1분조장아바이, 작업반에서 정해준대루 하는게 옳지 않소?》
《글쎄 나하군 더 말말게.》
1분조장이 딱 뻗치였다.
마장석이 화를 내며 들고있던 수첩을 탁 내려놓았다.
《이러면 안되지요. 그래 우리 마을에 사는 안종기를 남새작업반에 도루 보내야 옳겠소? 거기서도 도루 받지 않겠다면 종기동무는 어딜 가야 하겠소?》
《그건 내 알바가 아니요.》
1분조장이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그의 이마에 퍼런 피줄이 돋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젠장, 머리아프군. 4분조장생각은 어떤가?》
4분조장은 벌씬 웃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이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기면 시무룩해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스러운 일에 부닥치면 웃군 했다. 이런 이상한 성미를 잘 알고있는 마장석은 쓴입을 다시였다. 대답은 들으나마나하였다.
이때 2분조장 류순절이가 숙이고있던 머리를 들었다.
《우리 2분조에 보내주십시오.》
순절이가 안종기를 맡으면 애를 먹을것 같아서 2분조를 건너뛰였는데?… 마장석은 순절이를 한동안 쳐다보았다.
《너 정말이냐?》
《정말 아니구요.》
《허참!》
《난 안종기아바이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다들 싫다니 어찌겠어요? 어느 분조에든 속해야 하겠지요?》
마장석은 아무말없이 담배곽을 꺼내들었다.
부락당비서가 순절분조장이 받겠다는데 2분조에 편입시키자 했고 기술원 강현이도 지지했다. 다른 수가 없어 마장석이 동의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분조인원조절이 끝났다. 마장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5작업반이 계속 본때를 보여야 하겠소. 우리 농산5작업

반은 지금까지 영농준비와 모내기, 김매기에서 다른 작업반들의 앞장에서 제일먼저 결속하군 했소. 이 전통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자면 분조장들이 자기 분조원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잘해서 분발시켜야 하겠소.》

기술원 강현이 그를 쳐다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 마장석5작업반에 새로 편입된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것 같습니다.》

마장석이 흡족해할줄 알았는데 의외에도 이마살을 찌프리였다.

《우리한테 오면 마장석이 거저 먹여준대? 이제 일을 세게 내몬다고 나를 욕이나 하지 말래.》

《허허…》

그들은 5작업반사람들이라는 궁지를 감추지 못하며 웃음을 터뜨리였다.

이튿날 아침 새 5작업반원들이 모두 작업반사무실 앞마당인 탈곡장에 모였다. 마장석이 분조성원들을 발표했다.

《분조별로 모여 오늘 작업지시들을 하시오.》

마장석의 지시에 따라 2분조원들도 탈곡장 한쪽에 모였다.

류순절이는 수첩을 꺼내들고 한사람한사람 호명했다.

《리세호아버님.》

《예.》

《리춘녀동무.》

《예.》

리세호의 딸이 큰소리로 대답했다. 교항동 5작업반마을에는 리씨들이 많았다. 서로 친척되는 사람들이 같은 분조, 같은 작업반에 적지 않았다.

《안종기아버님.》

순절이가 마지막으로 호명했다. 대답이 없다. 다시 불렀으나 여전히 응답이 없다. 분조원들이 사방을 두릿두릿 살폈다.

분조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리세호가 《아까 저쪽뒤에서 어물거리는것을 보았는데 분조모임에는 빠졌군.》 하고 중얼거리였다.

어디 갔을가? 류순절은 머리를 기웃거리였다.

안종기는 그 시간에 마장석이한테 가있었다. 그는 농장관리위원회

의 조치에 따라 농산5작업반에 다시 온것을 어쩔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였다. 물론 손탁이 세고 결백한 마장석의 밑에 들어오는것이 달갑지 않긴 했지만 내심으로는 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옳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농장은 뭐니뭐니해도 알곡을 많이 생산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는 왜 남새반으로 갔는가? 남새반은 부수입이 괜찮았다. 또 터밭농사를 하는데도 유리했다. 그러니 그가 남새반으로 빠져나간것은 농장의 규률이 해이된 틈을 리용한 리기적인 행동이였다. 새 관리위원장이 와서 그런것들을 바로잡는것이니 령리한 안종기는 다른 군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처녀분조장밑에 속하는것은 질색이였다.

《마반장, 내가 철부지같은 처녀분조장한테 꼭 속해야 하겠소? 난 1분조에 가겠소.》

그는 가느다랗게 좁아든 눈으로 마장석을 살피였다. 마장석은 마뜩지 않게 피진 눈으로 그의 불그레한 얼굴을 피뜩 마주보고나서 갈리는 목소리로 쏘아주었다.

《이건 다 관리위원회와 리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은거요. 순절이 어쨌단 말이요? 그 애가 왜 철부지요?》

《글쎄 다시 제기해주우. 1분조로 가게 말이요.》

마장석은 바로 1분조에서 당신을 싫다고 했단 말이요 하고 쏘아줄가하다가 참았다.

《안된다질 않소. 동무처럼 제 마음대로 가고싶은데 가던걸 이번에 바로잡았단 말이요, 정신을 차리오.》

그는 안종기를 더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안종기는 의기소침해졌다. 류순절이 무엇을 알아서 제대로 농사를 짓겠는가. 더우기 고지식한 책상물림이니까 책대로 하자고만 할것이다. 아침에 출석을 부르고 신문독보를 하고 작업지시를 주고 저녁에 로력일평가를 하고… 남새작업반의 3분조에서는 분조장이 나이든 사람인데 두리뭉실하게 분조사람들을 이끌었다. 여유가 있었다.

안종기는 작업반사무실에서 침침한 얼굴로 나왔다. 할수없이 순절이네 분조에 가야 하는가?

탈곡장안을 두루 살피니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모두 일을 나간 모양이다. 에라, 오늘은 집으로 들어가고말자. 첫날이니까 말을 좀

듣겠지만 이제 기신기신 순절이를 찾아가는것이 나살이나 먹은게 할 노릇인가.
  집에 들어간 종기는 터밭일에 달라붙었다. 터밭에다가는 이 추운 날에도 비닐로 온실을 만들어놓고 오이를 자래우고있었다. 비닐은 물론 남새반에서 분조장과 사업하여 조절해온것이였다.
  해가 지고 어슬어슬해 올무렵 갑자기 마당에서 개가 으르렁거리였다. 이 늙은 수개는 웬만해서는 짖지 않았으며 낯이 선 사람이 나타나면 으르렁거리기만 했다. 대체 어떤 사람인가 가늠해보는것이였다. 그러는 사이면 주인이 문을 열고 내다본다.
  자기 집의 늙은 수개의 성미를 알고있는 안종기는 자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는것을 알아차리였다. 혹시 순절이가 아닐가? 이런 예감이 든것은 하루 집에 있으면서 터밭일을 슬금슬금 하기도 하고 방안에 드러누워있기도 하며 일을 나가지 않은것이 마음에 걸려 편안치 않았기때문이였다. 고지식한 처녀분조장이 찾아올수 있는것이다.
  아니나다를가 《안종기아버님 계시나요?》 하고 찾는 젊은 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면서 《이 개가 물지 않나요?》 한다.
  수개가 무서웠던 모양이다. 사실 그랬다. 늙은 그 수개는 누런 털에 검은 털이 섞여있는데 그 털들이 솜처럼 부풀어올라 몸뚱이가 훨씬 커보였다. 상판대기는 누르스름하고 코와 주둥이, 턱주가리만 검은데 그것이 마치 사람의 구레나룻처럼 보였고 게다가 엄청나게 커서 순절이는 그놈이 으르렁거리며 몸뚱이를 일으켜세우자 겁이 덜컥 났었다. 그러나 수개는 짖지도 않았고 달려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괴상하게 생긴 상판과 대가리가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안종기가 문을 열고 내다보니 순절이는 더 들어오지 못하고 선채 개한테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지개!》 하고 안종기는 우선 개를 진정시키며 찾아온 이 처녀를 무섭게 대해서는 안된다는것을 개한테 신호하였다. 《곰이, 저리가 있어라.》
  수개는 꼬리를 늘어뜨리고 굴뚝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어, 순절이 왔니? 저 늙은 개를 무서워할것 없다. 순해, 어서 오너라.》

토방에 나선 안종기가 순절이에게 손짓을 했다. 순절이는 터밭사이에 난 길로 그에게 다가갔다. 이 집마당은 터밭이 거의다 차지하고있어서 좁았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우리 2분조에 속했다는것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순절이는 상냥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안종기는 왜 오늘 일 나오지 않았어요? 하는 책망이 나올가봐 걱정하고있었는데 순절이가 의외에도 친절하게 한 분조성원임을 알려주며 웃음까지 지으니 우선 마음이 확 풀리였다.

《오, 그래? 그거 잘됐구나.》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속에 없는 대답을 했다.

《잘됐지요?》

순절이가 좋아하며 다짐하듯 물었다.

《거럼!》

그는 어차피 이렇게 수긍하지 않을수 없었다.

《오늘은 어디 편치 않았댔나요?》

《어ㅡ 좀…》

《래일은 나오시겠어요?》

《나가지 않구.》

《그럼 전 가보겠어요.》

《음, 살펴가거라.》

안종기는 순절이를 대문까지 바래워주었다.

《네, 편히 주무셔요.》

(생각던것과는 좀 다르구나.) 집안으로 들어가며 안종기는 대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생각했다. (처녀애들은 기계처럼 시키는대루만 하고 직통배기인데?…)

하면서도 여전히 처녀분조장이 미덥지 않아 그는 장차 처녀의 지시를 받으며 그밑에서 어떻게 일해갈수 있겠는가 하는 실농군의 본능적인 걱정과 함께 분조일도 하면서 터밭농사도 잘해야 하겠는데 이에 대해 순절이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하는 우려심때문에 한동안 궁싯거리였다. 터밭농사때문에 리기주의를 한다고 말을 들었는데 학교에서 책대로만 배운 순절이가 더할것은 뻔했다. 집단주의와는 량립될수 없어

요 하고 총알같이 쏘아줄것만 같았다.
이튿날 안종기는 일찌감치 분조에 나갔다. 순절분조장은 아닌게아니라 아침독보로 《로동신문》사설을 읽은 다음 작업배치를 했다.
《오늘은 강냉이영양단지찍기와 소석회살포를 하겠습니다.》
강냉이영양단지찍기는 두사람씩 짝을 무어 하게 하고 재료(부식토와 물)운반을 한사람이 달구지를 가지고 하도록 조직했다. 소석회는 달구지로 날라다가 몇명이 다래끼로 논에 살포하게 했다.
《안종기아버님은 소달구지로 강냉이영양단지 찍는데 쓸 부식토와 물을 보장하십시오.》
안종기는 오전내내 그 일을 했다. 재료보장이 쉬운 일이 아니였다. 작업장이 몇군데 널려있는데다가 달구지가 경사지밭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영양단지를 찍는 조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기네 조에 우선적으로 딸리지 않게 보장해달라고 안종기를 달구어댔다.
《분조장.》하고 점심먹으러 들어가며 안종기가 순절이한테 말했다. 《내가 맡은 일이 내 나이에는 헐치 않구만.》
순절이는 까다롭게 구는 성미가 아니여서 대뜸 대답을 주었다.
《아버님, 알았어요. 오후에는 창길동무한테 맡깁시다.》
창길이는 젊은 청년인데 오전에 소석회를 논에 살포하는 일을 했었다.
《그래주면 좋겠어. 창길이야 힘이 남아돌아가는 녀석이니…》
《그대신 아버님은 창길동무가 하던 소석회를 살포하시겠어요? 얼굴이 온통 허옇게 되는데?》 하며 순절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 일을 하지, 내가 해. 그런데 지금 세명이 거기에 붙었는데 둘이서 하겠다.》
순절이는 가던 걸음을 멈추어서기까지 했다.
《셋이서도 힘들겠는데… 소석회는 빨리 뿌려야 합니다. 둘이 언제 해내겠습니까?》
《걱정 말아라. 내 혼자서라두 해낼수 있다. 하지만 잔심부름 시킬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하겠기에 둘이서 하겠다는게다. 내가 해낸다니까.》
순절이는 잠시 생각하고나서 응했다.

《아버님을 믿고 그렇게 하기로 하자요.》 순절이는 마침 논에서 소달구지를 앞세우고 들어오는 세사람―중년남자와 청년과 처녀를 불러세웠다. 그들은 모두 얼굴들이 소석회가루가 묻어 뽀얬다. 다래끼로 소석회를 살포하느라니 어쩔수없이 소석회가루가 날려 얼굴에 묻게 되는것이였다. 《저, 오후에는 말이예요, 경섭아저씨하구 창길동무는 단지 찍는데 붙으세요. 창길동무는 안종기아버님이 하던 재료보장을 해요. 그리구 혜옥동무는 안종기아버님하구 소석회살포를 계속해요.》

혜옥이는 안종기를 힐끔 쳐다보며 싫은 표정을 지었다. 젊은이들은 거의다 늙은이와 같이 일하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잔소리가 많고 젊은이들을 부려먹는다는 편견때문이였다. 더구나 안종기는 분조원들속에서 그가 처녀분조장한테 오지 않겠다고 했다는 말들이 벌써 돌아서다 그를 싫어했다.

그런데 저녁 작업총화시간에 혜옥이는 너무 좋아서 생글거리기까지 했다.

안종기가 오후에 소석회뿌리기를 그것도 혼자서 할수 있다며 말아나선데는 오랜 농사군으로서의 타산이 있었다. 이맘때면 오후에 바람이 인다. 그러므로 안종기는 이 바람을 리용하였다. 즉 달구지에서 다래끼에 소석회를 옮겨담는 노릇을 하지 않고 소달구지를 직접 논판으로 몰고가며 삽으로 떠서 바람을 리용하여 뿌렸다. 이렇게 하여 안종기는 오후에 둘이서 오전에 셋이 했던것보다 더 많이 뿌렸고 쉽게 했다.

류순절이는 그가 바람방향을 리용하여 삽으로 떠서 뿌리는것을 보고 과연 실농군이 다르구나, 반장이 안종기아버님은 일을 요령있게 잘한다고 한 말이 사실이였구나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순절은 오전에도 수고하고 오후에는 계획보다 더 한 안종기에게 최고점수를 주었다.

집으로 가며 리세호가 중년남자에게 말했다.

《안종기야 꾀가 있고 낌새를 잘 보기루 유명하지. 그게 오후에 소석회살포를 하겠다구 했을 때 아마 순절이는 정말 단지 찍는 재료보장일이 딸리니 힘들어서 그러는거구나, 그런데 늙은이한테 소석회뿌리는 일이야 어떻게 시키겠는가 하구 동정했을게야. 한데 안종기는 오후에 바람이 인다는것을 알았구 다래끼에 소석회를 떠담아 걸어가며 뿌릴것이 아니라 달구지에서 직접 뿌리면 된다구 타산하구 공수를

많이 벌자고 그렇게 제기했지. 요령이 있구 똑똑한데 지내 구멍수만 본다니까. 그 사람한테는 당해내지 못해. 그 집 터밭을 가봤나?》
상대방이 대답했다.
《이랬든저랬든 일을 많이 하잖았어요?》
《그러니까 글쎄 내놓구 말하기 힘들다니까.》 하면서 리세호는 무엇인가 속에서 내려가지 않아 끙끙 갑자르는것이였다.

허명숙관리위원장에게 5작업반에서 안종기분조편입이 좀 복잡했었다고 마장석이 말했다. 그는 류순절에게 안종기를 맡긴것이 어쩐지 마음에 걸려있었던것이다.
《내가 순절분조장을 만나보겠어요. 안종기동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구요.》
《그래서 순절이가 말째하면 안종기를 관리위원회에서 어디 맞춤한데 데려다 쓰시우.》
마장석의 대답이였다.
《그렇게는 못하지요. 농산작업반을 강화하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명숙은 마장석에게 이렇게 못박아 말하고 2분조 작업장으로 나갔다. 그는 모든 면에서 때묻지 않고 고지식하면서도 인정이 있는 류순절을 도와주어 5반 2분조를 분조관리제를 옳게 실시하는데서 모범단위로 내세울 결심을 하고있었다. 그렇게 해서 순절이가 분조장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도록 하려는것이였다.
순절이는 랭상모판을 만드느라고 말뚝을 박고 바람막이바자를 둘러치는 일을 두명의 분조원들과 같이 하고있었다.
《동무네 작업반장은 순절이를 생각해서 안종기동무를 어디 다른데로 뽑아갔으면 하는데 분조장의 생각은 어때요?》
명숙이가 물었다.
《제가 다들 싫다고 하는 안종기아버님을 우리 분조에 받을 때 그저 동정이나 해서 받은건 아닙니다. 끌끌한 장년로력 한사람이면 어딥니까? 더구나 안종기아버님은 일의 요령을 알고 마음만 먹으면 일을 제낍니다. 실농군이 아닙니까. 저는 다른데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닌 순절이를 분조원들이 왜 따르지 않

을수 있겠는가. 명숙은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모두 그를 리기주의자라고 하나?》

순절은 소리없이 웃었다.

《리기주의가 있습니다. 요전날 강냉이영양단지도 찍고 논에 소석회도 쳤는데 종기아버님은 단지 찍는데 재료보장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소석회 뿌리는 작업을 하겠다기에 나이도 있고 작업이 험한데 일없겠느냐 했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주었는데 오전에는 달구지에 싣고간 소석회를 다래끼에 퍼담아 살포하느라 힘이 들었지만 오후에는 바람이 일어서 안종기아버님은 소달구지를 몰고가며 삽으로 퍼서 바람에 날려 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쉽고 능률도 내서 그날 로력점수를 최고로 받았는데 리세호아버님이 의견이 있어했습니다. 로력점수를 최고로 준데 대한것이 아니고 안종기아버님이 그 요령을 오전에 일한 사람들에게 대주지 않고 속으로 타산하고있다가 오후에 자기가 맡아한것이 괘씸하다는것입니다. 제 생각에도 로력공수를 더 벌자고 좋은 작업방법을 혼자 품고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은것은 분명 리기주의입니다. 집단을 생각하기에 앞서 자기 개인만을 먼저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일을 제끼고 많이 하니 분조의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터밭농사도 굉장하다면서?》

《겨울에도 오이를 심어 장마당에 내다 팝니다.》

《그것이 공동로동에는 방해로 되지 않나?》

《그런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동로동에서는 성실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부닥쳐보지 못했는데 어떨는지…》

명숙은 순절이가 안종기를 나쁘게만 평가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었다.

《나는 분조장이 사람을 아끼는걸 좋게 평가해요. 앞으로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은 조장시키고 나쁜 점은 비판을 주면서 공동로동에 마음과 힘을 쓰도록 이끌어줘야겠어요.》

《제가 뭐…》

순절은 수집어했다. 어린 처녀가 산전수전을 겪을대로 겪은 실농군을 공동로동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준다는것이 격에 어울리는것 같지 않았던것이다.

명숙이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것, 새 세대의 깨끗하고 사심없는 마음과 행동이 아무리 농사를 오래한 실농군이라 해도 감동을 주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말해주었다.

사람을 아끼는 순절이가 기특했다. 명숙은 류순절분조가 화목해질것이라고 믿었다.

허명숙은 그 길로 안종기가 일했던 남새반 3분조에 가보았다. 3분조에서는 크지 않는 비닐박막온실을 지어놓고 거기서 겨울에도 무우, 오이, 고추 같은것을 재배하여 현금수입을 높이고있었다. 이것은 다른 분조들에서 볼수 없는 류다른 풍경이였다. 명숙은 분조장을 칭찬했다.

《아니올시다.》 3분조장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이건 안종기동무가 한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관리위원회결정을 옳다고 봅니다만 안종기는 우리 남새반에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분조장은 안종기를 농산5반에 보낸것을 몹시 아수해하고있었다.

명숙은 그것을 보며 안종기를 농산반에 넘긴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안종기는 농산반에 가서도 여기 남새반에서 한것처럼 일할것이기때문이다. 그렇게 하도록 잘 이끌어주면 그는 류순절분조를 추켜세우고 모범단위로 만드는데서 큰 몫을 감당할것이 아니겠는가.

《안종기동무는 자기 집 터밭에도 비닐박막으로 온실을 만들었다지요?》

3분조장은 얼굴을 약간 붉혔다.

《그 사람이 자기 집 터밭농사도 잘합니다. 우리 분조에 온실을 만들어 현금수입을 높이는데 공로가 있기때문에 내가 허용했지요. 본인이 요구하는 비닐박막도 좀 조절을 해서 주었지요.》

명숙은 안종기가 리기주의를 해도 밉지 않게 한다고 생각했다.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서 터밭농사도 잘하지 않는가. 분조의 현금수입도 높이고 자기 집의 현금수입도 높이고있다.

안종기의 장점을 적극 장려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무턱대고 개인리기주의가 있다고 비난하기 전에 그의 장점과 열성을 조장시켜주어야 할것이다. 명숙은 농장원 한사람을 새롭게 알게 된것이 기뻤다.

11

로정만이가 리당비서에게 관리위원장동무의 가족을 데려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를 생각하고있던 차성재는 몹시 반가와하며 관리위원장 본인은 농장사업에 갓 착수해서 분망하여 이사할 생각을 못하고있을뿐아니라 몸을 뺄 형편도 안되니 농장에서 도와주자고, 누구 한사람에게 과업을 주어 차를 가지고 가서 이사짐을 싣고오게 하자고 대답을 주었다.

저녁에 하루총화가 끝난 후 관리위원장방에 남은 로정만은 정중하게 말했다.

《리당비서동무와 토론이 있었는데 가족을 데려와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로정만의 얼굴에서 온화한 빛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속심을 겉에 잘 표현하지 않는 성미 그대로였다.

사실 지금 그는 허명숙에게 기대했던 좋은 감정이 흐려지고있는 상태였다. 그는 명숙이가 열성도 좋고 일욕심도 있고 조직사업도 녀성답게 치밀하지만 잠정리실정에 비추어보아 열성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벌써부터 걱정되였다. 허명숙이와 합심하여 계획을 수행해야 하겠는데 명숙의 주관이 강하다고 보는 정만은 그와 마음과 손발을 맞추어내기가 힘들것 같은 위구심이 생겼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고 인간생활은 인간생활이다. 허명숙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낯선 고장에 와서 작업반에서 작업반으로 분주히 달려다니는 모양이 측은했다. 로정만은 왜 농장에서 그의 가족을 데려올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되였는가, 관리위원장이 녀성인데 그의 개인생활에 지내 무관심했다는 자책을 느꼈었다.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이들 아버지한테서 이사준비가 다 되였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주저하던 중이였습니다.》

명숙이가 밝은 얼굴로 이와 같이 대답했다.

《그런 기별이 왔으면 우리한테 벌써 알렸어야지요.》 로정만이 년장자답게 말했다. 《그래서 비서동무와 이렇게 토론했습니다. 로동지도원 준식동무가 화물차와 뻐스를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이사짐을 실어오도록 말입니다.》

이 농장에는 뻐스가 한대 있었는데 수령님께서 농장원들이 들에 일나가고 들어올 때 리용하도록 배려해주신것이였다. 넓은 들가운데 섬처럼 솟은 언덕에 잠정리가 집결되여있어서 멀리에 펼쳐져있는 논판까지 일나가고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도 들었다. 이러한 사정을 아신 수령님께서 뻐스를 타고다니도록 해주신것이다. 요새는 휘발유가 긴장하여 모내기와 김매기, 가을걷이철에만 뻐스를 리용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있기에 명숙은 화물차와 뻐스를 리용하는것을 반대했다. 기차로 오도록 하자는것이였다.

《아니지요. 기차로 오면 짐을 날라다 싣고부리우고 또 역에서 여기까지 자동차로 날라오고, 매우 복잡하지요. 이사짐이 파손될수도 있습니다. 잠정리의 존엄과도 관계됩니다. 휘발유 몇키로 아까와서 관리위원장의 가족들을 고생시키겠습니까. 위원장동무는 이 일에 상관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처리합니다.》

명숙은 더 우기지 못했다.

가족이 온다.… 이날 밤 명숙은 가족들과 만나게 될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여 잠을 제대로 잘수가 없었다.

남편 신호석은 편지에다 어머니를 그리는 아이들의 애타는 심정과 안해와의 상봉을 기다리는 자기의 마음을 써보냈다. 같이 있을적에는 몰랐는데 달포가 지나도록 헤여져있었으니 명숙이자신도 남편과 아이들이 그리웠고 같이 사는 친정어머니가 보고싶었다. 관리위원장사업을 하느라 아이들과 가정일을 돌볼새 없었고 남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틈도 없어 늘 미안스러워했던 명숙이였다. 이제 가족이 오면 남편을 더 따뜻이 대해주고 안해로서의 지성을 다하리라, 어머니를 더 잘 공대하고 아이들의 생활에도 더 관심을 돌리리라.…

하긴 연백벌에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결심을 다짐한것이 몇번인지 모른다. 보안사업때문에 수척해진 남편을 보며 가슴인들 얼마나 아파했던가. 남편의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

명숙이가 잠정리로 오는 날 승용차안에서 도당책임비서 석영진이가

이전 군당위원장의 소개로 신호석과 결혼했는가고 물었는데 사실 명숙은 전부터 그를 알고있었다. 군에서 신호석이 라순돌의 살해사건을 해명하기 위해서 파견되여왔던것이다.

첫인상에 신호석은 남자답게 생기고 무게가 느껴졌다. 나이도 명숙이보다 네살이나 우였다. 그래서 명숙은 그를 어렵게 대했고 존경했었다. 호석은 라순돌을 살해한, 섬과 련계를 가지고있던 반동놈을 잡아내고야말았다. 명숙은 그에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이제는 일이 끝났으니 군으로 올라가야 하겠지? 하는 섭섭함을 금치 못했었다.

숨어있는 반동놈을 잡아내는 기간에 명숙은 신호석을 잘 알게 되였고 깊이 신뢰하게 되였다. 후에 알았지만 그 기간 보안원으로서 호석은 관리위원장 명숙의 신변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어느날 명숙은 논김매기가 늦어지는 6작업반에 가서 대책을 세워준 다음 늦게야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그믐밤이여서 달이 없는데다가 밤하늘이 높은 구름으로 흐려있어서 별빛조차 볼수 없는 칠흑같은 캄캄한 밤이였다. 이런 어둠을 두고 흔히 눈알을 빼가도 모를 정도라고 한다.

희미하게 보이는 달구지길을 따라걸으며 명숙은 6반에서 늦게 떠난것을 후회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걸음을 계속해야 할것이다. 라순돌의 권고대로 군중속에 들어가며 그들의 생활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했다. 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길은 다른데 있지 않다. 협동농장관리운영사업을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대로 확고히 사회주의원칙을 틀어쥐고 하는것이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어 농장원들의 분배몫을 늘이는것이다. 라순돌이 말한것처럼 원칙앞에서는 순돌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제일가는 인간성이고 인정미이다. 명숙은 그 모범을 라순돌이에게서 보았고 배우기 위해 노력하려는 결심을 굳히였다. 그래서 오늘도 6작업반에 내려가 늦도록 있었다.

라순돌을 생각하자 목이 메여왔다. 그에 대한 추억은 너무 가슴아픈것이여서 될수록 피하려 하지만 때없이 불쑥불쑥 치미는것이였다.

명숙은 어둠속 그 어디선가 원쑤가 눈을 밝히고있는것 같았다. 무서움에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러나 라순돌이의 원쑤를 갚겠다고 맹세한 처녀였다. 라순돌의 원쑤를 갚겠다고 맹세를 다진 자기가 원쑤놈

을 무서워하면 되겠는가? 그는 틀어쥔 주먹을 가슴에 대고 씽—씽—걸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물레야 돌아라
가락아 돌아라
물레나 가락은
살살 도는데
윙 윙 찌구둥
이 물레질은
이리저리해서
어느 누구를 해입힐가
시어머니가 있으니
시어머니 해입힐가
윙 윙 찌구둥

명숙은 대대로 내려오는 향토의 민요들을 아는대로 불렀고 학교시절에 배우고 예술소조경연에 가지고나갔던 전시가요도 불렀다.

식량바리 등에 싣고
얼룩소야 어서 가자
쩔렁쩔렁 방울소리에
잠자던 새도 반기는구나
이랴 이 소야 어서 가자
얼룩소야 어서 가자

원쑤놈의 시한탄에
귀한 내 딸 잃었단다
이내 원쑤 갚아주는
인민군대를 찾아가자
…

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노래도 불렀다.

그런데 명숙은 아까부터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따라오는듯 한 감촉을 받았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으나 륙감으로 느껴졌다. 호석보안원이 늘 어디선가 살펴보는듯 한 그 느낌은 아닌지. 그렇다면 왜 그가 몰래 뒤따르겠는가. 명숙은 멈추어서서 어둠속에 든 지나온 행길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어둠속에 녹아든 가로수의 컴컴한 모습이 사람처럼 보였다. 그때문일가?

머리카락이 쭈빗 곤두서며 심장이 세차게 박동쳤다. 귀신이나 도깨비에 대한 동심적인 공포감이 겹치여 더했다.

(아무것도 아니겠지.)

다시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걸었다. 그러나 집에 다달을 때까지 누군가 따라오는듯 한 느낌과 그로 인한 공포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 하고 명숙은 마당에 들어서며 서둘러 어머니를 찾았다.

기다리고있은듯 문이 곧 열리며 어머니가 내다보았다.

《왜 이렇게 늦었냐?》하던 어머니는 방안에서 쏟아져나오는 불빛에 멀리 비추인 사람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사라져가는 키가 큰 남자의 뒤모습이 어슴푸레하게 보였다.

《누구와 같이 왔냐?》

《아닌데?》

명숙이가 뒤돌아보았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꼭 신호석보안원같구나.》

《그래요?!》

그제야 명숙은 호석이 자기의 신변을 념려하여 뒤따라왔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안도의 숨이 나가는것과 함께 호석보안원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후더워났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늦은 밤에 그러한 미행을 여러번 당한것 같다. 신호석이 라순돌의 사건과 같은 참사가 빚어질가봐 남모르게 수고하는것이리라.

후에 명숙은 호석에게 6작업반에 갔다오던 밤길에 자기를 뒤따랐는가고 물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들켰으니.》

호석은 멋적게 웃었다.

《무서워 혼났어요. 꼭 누가 뒤따르는감이 들었으니까요. 차라리 드러내놓고 같이 왔더라면 좋았을텐데요.》

《노래를 부르는데 방해될가봐 그랬습니다.》
《엄마, 창피해!》
《노래를 잘 부르던데요.》
《놀리지 마세요. 난 목청이 곱지 못해요.》
《아니요. 감정이 풍부했고 정열적이고 힘이 있었지요.》
명숙은 활짝 웃으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뭘 그랬겠어요. 앞으로는 밤길을 같이 걷게 되면 함께 노래랑 부릅시다.》
《승인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깊은 밤에 승인없이 처녀와 동행할수 없었지요. 그리구 어쩐지 내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것이 본인에게 알려지는것이 쑥스러웠지요.》
《고마워요, 보안원동무. 그런 수고를 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말이 나오기때문에 은페된 행동을 하는겁니다.》
《너무 무리하는것 같애요.》
호석을 쳐다보는 처녀의 눈에 정이 넘쳤다. 무척 깊어보이고 다심한 정이 넘치는 그 눈을 호석은 넋없이 바라보았다. 처녀의 둥근 검은 눈은 매혹적이였다.
맡은 임무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신호석이 명숙이와 헤여져 군으로 올라간지 2년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군당에서 소집한 회의에 참가한 명숙이는 군당위원장으로부터 회의뒤끝에 좀 남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군당위원장은 수령님으로부터 공부도 하고 일도 잘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받고 이악스럽게 농사를 짓고있는 처녀관리위원장 명숙이의 사업과 생활에 대해 늘 관심을 돌리고있었다.
《내 사무실에 가기요.》
군당위원장은 따로 남은 명숙을 데리고 사무실에 들어가더니 《처녀관리위원장, 이거 실례되는 말이긴 한데, 올해 몇살이요?》 하고 대뜸 물었다. 26살이라는 대답을 듣고는 《허, 이러다간 시집을 못가겠소. 관리위원장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집도 가야지.》하며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알았소, 가보오.》하였다.
그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군당위원장이 다시 찾았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선 명숙은 그곳에 앉아있는 신호석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호석은 빙긋이 웃었다. 그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아니, 서로 아는 사이요?》
희한해하며 군당위원장이 물었다.
호석이가 서로 알게 된 경위를 간단히 설명했다.
《아, 그랬구만. 허허…》 그는 매우 재미나하였다. 《이거 일이 잘될것 같다.》하며 그는 두손바닥을 마주 비비며 흡족해하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군당위원장은 명숙의 대상자를 물색하던중 역시 사업에 묻혀 장가갈 생각을 못하고있는 30살난 군보안원 신호석을 골라냈다. 서로 맞을것 같았고 또 신호석을 무슨 구실을 대여 불러다가 만나보니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오늘 두사람을 사무실에 불러 인사를 시키고 특별과업을 하나 주어 하루동안 같이 있으면서 수행하는 과정에 친숙해지도록 하려 하였다. 그다음에 따로따로 만나 상대방이 어떤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타진해보고 정식 맞붙여주려 했다. 그런데 서로 잘 아는 사이고 반동놈을 잡아내는 과정을 통해 리해가 깊어졌다고 한다.
《아주 좋소.》 군당위원장은 두사람을 가까워지게 하는 특별과업을 주는것도 또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타진하는 중간공정도 다 필요없게 되였다고 좋아하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기본문제에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내가 동무들을 불러서 맞대면시킨것은 두사람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짓고 락착을 보아야 할 일이 생겼기때문이요. 길게 말하지 않겠소. 나는 동무들이 부부간이 될것을 희망하오. 아니, 명령하오.》
《어마나!》 하고 명숙이 비명을 지르며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호석이도 얼굴이 붉어지며 눈길을 떨구었다.
《두사람 다 인물이 잘나고 사업에 충실하고 나이두 들었겠다, 이 이상 리상적인 배필이 어디 있겠소, 엉? 허허허…》 그는 방안이 떠나가게 웃어댔다. 《자, 결정됐소! 어때, 반대없지? 아무리 명령이래두 접수여부는 물어야 하니까.》
신호석이 사내는 사내였다.
《군당위원장동지, 저는 반대없습니다. 만일 명숙동무가 싫다고 한대도 저는 쟁취하고야말겠습니다.》
《아이참!…》

명숙은 머리를 더욱 깊이 숙이였다.
《군대에서 단련된 제대군인출신이 다르구만! 좋소, 찬성하오. 명숙동무, 할 말이 있소?》
《저는 모릅니다.》
《처녀들이 모른다고 하는건 찬성한다는 뜻이요. 명숙이의 얼굴에 찬성의 밝은 표정이 그대로 어려있소.》하며 그는 다시 껄껄 웃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결혼을 했는데 군당위원장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것만은 사실이다. 그는 지금은 늙어서 집에 들어가 집짐승들을 치고있다. …
명숙은 지나간 일을 추억하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으나 곧 시무룩해졌다.
그들의 가정생활은 그닥 즐겁지 못했다. 호석은 리에 아주 옮겨와 데릴사위노릇을 했는데 부부가 다 일에 몰리우다보니 아기자기한 가정생활의 맛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 남편도 직업상특성으로 늦어들어오군 했지만 안해는 더했다. 어느날 먼저 들어온 호석이 안해를 기다리기에 지쳐서 그가 들어서기 바쁘게 화를 터뜨렸다.
《아, 그렇게 일하니 사람이 견디겠소. 일찍 들어와 편안하게 잠자는 날도 있어야지.》
그래도 명숙은 웃는 얼굴이였다. 아들이 태여나자 부부의 정은 더 깊어졌다.
《2대 1이군요.》 남자가 둘이고 녀자가 하나라는 뜻의 롱을 하며 명숙은 웃었다.
《아니, 2대 3이요.》 호석은 가시어머니와 처제를 가리켰다. 《아직 력량관계에서 균형이 잡히지 못했소. 그러니 아들 하나를 더 낳아야 해.》
호석이 명숙이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수 있으며 또 그앞에서 두손을 들지 않을수 있으랴.
한번은 출장갔다 늦게 집에 들어섰다. 안해를 보름만에 만나보게 되는 호석의 가슴은 울렁이였다. 게다가 보배덩이 아들까지 있지 않는가. 그는 안해와 아들, 겸하여 가시어머니에게 줄 기념품을 준비하여 가지고왔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모두 잠들어 개만 낑낑거리며 반길뿐 불꺼진 집안은 괴괴하였다. 문을 두드렸다. 호석은 잠자리에서 일

어난 잠내나는 안해의 정다운 얼굴을 기다렸다. 그러나 문을 열어준 것은 장모였다. 늘 앓고있는 주름진 얼굴이다. 호석은 정중히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래방이였다. 장모가 처제와 같이 거처하는 방이다.

《모두 잠들었다우, 깨울가?》

《놔두십시오.》

《저녁식사를 해야겠지?》

《먹구왔습니다. 명옥인 어데 갔습니까?》

그는 례의상 이렇게 먼저 처가집사람들을 물었다. 장모는 명옥(처제)이가 축산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호석은 우선 아들애를 당장 보려고 웃방으로 들어가고싶었지만 장모앞이라 점잖게 처신해야 했다. 부엌에 나가 세면을 하고 발을 씻은 다음에야 웃방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니 안해는 정신없이 자고있었으며 아들은 그옆에서 따로 포단을 덮고 쌔근쌔근 자고있었다.

호석은 아들의 얼굴을 오래동안 들여다보았다. 애기들의 자는 모습은 더욱 귀여운것 같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싫지 않다. 그는 일어서서 옷을 벗고 안해의 머리맡에 앉아 드러내놓고있는 둥근 어깨를 건드렸다.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그의 몸으로 전해졌다. 그는 어깨를 흔들었다. 점점 세게 흔들었다.

명숙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남편을 알아보고 방싯 웃으며 《왔어요?》 하고 잠내나는 소리로 물었다.

《응, 몹시 피곤한가보군.》

명숙은 호석의 손을 쥐였다. 그리고 《저녁식사를 해야지요.》하며 일어나려 했다. 호석은 어깨를 눌러 눕혔다. 그러자 안해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호석은 벽에 걸린 명숙의 허름한 솜옷을 보았다. 그 솜옷을 입고 눈오나 비오나 바람이 부나 넓은 농장벌을 걸어다니는 명숙의 모습이 떠올랐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호석은 눈물이 나서 더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서서 담배를 찾았다. 담배와 성냥을 쥐였으나 아이때문에 방안에서 피우지 못하고 솜옷을 걸치고 토방으로 나갔다. 맑게 개인 초봄의 밤하늘에 쪼각달이 떠있고 별들이 무수히 반짝이고있었다. 호석은 담배를 피우며 오래도록 앉

아있었다.
(명숙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줄수 있겠소? 좀 뭘 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요구도 하고 짜증도 내보오. 늘 웃기만 하며 괴로움과 힘겨움을 혼자 안고 묵새기고있으니!)
그는 안해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심장이 터질듯 하였다. …
호석은 그후로 안해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며 늘 좋은 낯으로 대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결심대로 되지 않았다. 마치 영원히 풀수 없는 모순처럼.

12

열세살난 아들과 그 아래나이의 딸들이 뻐스에서 내리기 바쁘게 엄마를 부르며 달려와 안기였다. 명숙은 막내딸 보은이를 닝큼 들어올리고 오동통한 볼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들이 저마끔 이사짐을 실은 자동차앞에서 뻐스를 타고온 감상을 이야기하느라 덤벼쳤다.
《엄마, 난 사과 세알 먹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몸이 실한 보은이는 먹성이 좋았다. 태여나면서 벌써 어버이수령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영양제와 보약을 먹기 시작한 보은이는 한번도 크게 앓지 않고 무럭무럭 커서 얼굴, 어깨, 가슴, 팔, 다리가 다 포동포동했으며 복스러웠다.
《그래!》
《저 아저씨가 사준거야.》
아들이 자동차옆에서 기사장에게 갔다온 이야기를 하고있는 로동지도원 준식이를 가리켰다.
《그래 고맙다는 인사를 했니?》
《보은이는 안했어. 내가 했어.》
아들이 대신 대답했다.
《보은이는 어리구 너는 학생이니까 네가 인사하는게 옳지.》
보은이는 보동보동한 손으로 엄마의 뺨을 어루만지며 해해 웃었다.

명숙은 보은이를 안은채로 준식이한테로 가서 수고했다는 인사를 했다. 그사이 남편 신호석이가 다가와 먼저 기사장에게 인사를 하고 안해와는 눈길을 다정히 주고받는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명숙은 왜그런지 남편이 수척해진것 같았다. 그들은 남들이 보는 앞이여서 언행을 삼가했다.

《짐들은 우리가 다 부리우겠으니 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시오.》

기사장 로정만이 년장자로서 권위있게 지시 비슷한 어조로 말했다. 사실 이번 이사는 로정만이가 다 주관하고있었다.

《신동무도 들어가오. 짐을 부릴 사람들이 옵니다.》

기사장이 신호석에게 말했다.

《저야 같이 부리워야지요.》

호석이가 대답했다.

《아니, 어서 들어가 식사부터 해야지, 지금이 몇시요?》

《식사를 준비하자면 시간이 걸릴텐데요.》

《허, 식사는 다 준비되여있을거요.》 하며 로정만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그럼 기사장동무도 같이 식사를 해야지요?》

《예, 이사짐 부리우는 조직사업을 해놓고 인차 따라들어갑니다.》하며 로정만이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관리위원회쪽으로 향해갔다.

명숙이가 부엌을 들여다보니 옆집할머니가 점심준비를 다 해놓았다. 할머니는 기사장이 식사준비를 잘해놓으라고 하며 리합숙식당에서 필요한것들을 가져다 쓰라고 했다며 기사장이 인정이 있다느니, 아무러면 관리위원장네 식솔이 오는데 한다하는 농장이 소홀히 대하겠느냐고 한바탕 떠들었다.

기사장 로정만이 이처럼 다심한 사람이였던가, 명숙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처음에 기사장과 인사를 나누며 대상하기 어렵겠다고 느꼈고 그후 지내보니 실지로 사근사근하지 못했으며 관리위원장이나 리당비서는 물론 군경영위원장앞에서도 웬만해서는 머리를 숙이지 않는 로정만이였으며 지도원들을 엄하게 다루는것을 보면 인정사정이 있어보이지 않던 로정만이였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 꿁지는 않지만 속으로

뜨거운 사람일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사짐들을 날라들이기 시작했다. 명숙은 남편과 같이 일군들을 거들어주며 짐들을 방안으로 대충 들여놓았다. 가구배치와 정리는 후에 하기로 하였다.
이사짐은 로동지도원이 책임지고 대여섯명의 장정들이 날라들이였다.
《얼마나 시장들 하겠어요. 어서 상을 놓고 음식들을 차리자요.》
명숙이가 부엌에 대고 말했다.
밥상들을 다리펴놓고 음식들을 들여왔다. 그사이에 일군들은 자질구레한 세간들을 마저 날라들이고 세면들을 했다.
《기사장동무는 안 오오?》
같이 짐을 나른 신호석이 로동지도원에게 물었다.
《저녁에 비서동지랑 같이 인사하러 오겠다더구만. 그 사람은 경우가 밝은 사람이여서 아무데나 끼여앉지 않소.》
《그럼 점심식사는…》
《집으로 갑디다.》
《그것 참, 하긴 어른은 어른이군. 자, 들어들 갑시다.》
로동지도원은 평시에 말이 적고 온순하며 간부들이 비판을 하면 공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술에만 취하면 아주 딴 사람이 된다. 비서건 관리위원장이건 기사장이건 가리지 않고 야, 자, 아무개하고 불러대며 별소리를 다 한다. 그래서 술마시는데 그가 끼이는것을 다 싫어했다.
오늘도 이사짐을 나르는 로동을 했으니 점심시간이지만 술을 좀 마셨는데 그 악습이 살아났다.
《처녀관리위원장! 어, 처녀가 아니지. 이제말이요, 잠정리에 3대명물이 있는거 아오?》
옆에서들 그를 쥐여박으며 불평들을 했다.
《또 시작하는군.》
《우정 그러는거야,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버릇이 고약하단 말이야.》
《좀 조용하라구, 준식이!》
《놔두세요, 뭐랍니까.》

명숙은 흰이를 반짝하고 웃으며 재미나하였다.
《보란 말이야, 왜들 때리면서 그래. 어깨죽지가 아파 죽겠구나.》 로동지도원이 더 떠들어댔다. 《내 입 가지구 내 말하는데 상관 말라구. 에— 그래서 말이요, 관리위원장! 3대명물이 누군고 하니 첫째가 기사장 로정만이요. 〈코대〉라 하지, 〈정코대〉. 성을 따서 〈로코대〉라 하지 않고 〈정코대〉라 하지. 코가 이만큼 높거던. 둘째는 2농산반에 있는 곽기춘이요. 〈꽉쇠〉라고 하지. 고집이 하늘소 뒤발통이요. 셋째는 5농산반장 마장석이요. 그치는 지휘하기를 좋아하지. 그래서 〈마대장〉이라 하지, 하…》
명숙은 참다못해 호호하고 웃음을 터뜨리였다. 얼마나 재미난 사람인가. 본인도 웃고 관리위원장도 웃으니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이 3대명물이 없으면 잠정리가 쓸쓸할거야. 아참, 하나 더 있어. 〈에라 만수〉 령감.》
《하—하—하—》
《그러니까 4대명물이지.》
신호석이도 껄껄 웃음을 터치였다.
《하나 더 있는것 같소.》
《뭐, 하나 더 있다? 방금 온게 그걸 알아? 누구야?》
《동무요, 동무까지 해서 5대명물이요.》
또 웃음이 터졌다.
《에이, 난 아니야. 어림두 없지. 내가 어떻게 명물이 되는가, 아니야!》
로동지도원이 떠들어대는 속에서 모두들 얼른 점심식사를 끝내고는 그를 끌고 물러들 갔다.
《참 재미난 사람들이군. 기사장도 속이 깊소. 사람이 점잖더군. 당신이 사람들을 잘 만난것 같소.》
둘이 남자 신호석이 안해에게 말했다.
《난 오늘 3대명물얘기는 처음 들어요. 호호…》
명숙은 로동지도원의 모습이 떠올라 다시 웃음을 터뜨리였다. 술만 마시지 않으면 세상 온순한 사람이라고 한다.
어머니와 아이들은 다른 방에서 식사를 했다.
아이들은 이사온것이 좋고 엄마를 만난것이 기뻐서 노래까지 불렀다. 보은이가 손벽을 쳐가며 춤을 추었다.

13

농산5작업반 기술원 강현에게 기사장이 농장전반에 대한 기술적자료를 종합분석하는 사업을 시킨다고 한 마장석의 말이 명숙의 머리속에 박혀있었다. 명숙이가 그렇다면 강현이를 농산지도원 시키면 되지 않는가고 한데 대해 마장석은 그가 기사장과 틀렸다고만 대답했다.

어느날 명숙은 5작업반에 나갔다가 그를 종자처리장에서 보았다. 그곳은 후끈하게 더웠고 김이 서리여 돌았다. 바닥은 물이 질쩍질쩍한데 고무장화를 신은 녀자 둘이 물바께쯔를 들고 왔다갔다했고 남자 한사람은 가마옆에서 어물거리고있었다.

《수고합니다.》 명숙이가 인사를 하며 물었다. 《작업반기술원동무가 여기 있어요?》

삽을 쥐고 가마옆에 서있던 젊은 남자가 대답했다.

《예, 제가 기술원입니다.》

《지금 바쁜가요?》

《준비작업중이니 바쁘지는 않습니다.》

《작업반실로 갑시다.》

기술원은 명숙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다.

서른두셋 되였을가? 눈에 총기가 흐르고 키가 후리후리했다. 명숙은 물론 그가 초면이 아니였다. 지령총화모임에서 자주 보았고 이름도 알고있었다. 둘이 이야기를 나누어보지 못했을뿐이다.

《강현동무, 작업반기술원을 몇년째 합니까?》

명숙이가 물었다.

《3년째 합니다.》

《작업반장은 무슨 일을 하고 기술원은 무엇을 해요?》

《작업반장은 로력, 농산 그리고 전반적인 작업반살림살이를 봅니다. 기술원은 비료, 종자, 농약을 관리하는데 모든 작업반농사는 기술원이 기술지표를 작성합니다. 이에 따라 작업반장이 결심을 채택

하고 작업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5반에서는 동무가 세운 기술지표대로 충분히 작업이 진행되는가요?》
《기술원이 작성한 기술지표가 다 충족될수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로력, 자재, 시간이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작업반장이 유능하면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력량을 돌리고 또 어떤 기술공정들은 건너뛰기도 합니다. 우리 마장석반장이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명숙은 만족스러워 머리를 끄덕이였다.
《현대농사는 과학농사이지요?》
명숙은 강현의 이야기를 더 듣고싶어 이렇게 문제를 던졌다.
《그렇습니다. 농사가 공장에서 벽돌이나 기계를 생산해내는것처럼 그시그시 생산품이 나오는것이 아니고 또 치차처럼 맞물려 규모있게 진행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치차처럼 맞물려돌아가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례를 들어 종자처리장에서 3일이면 종자싹이 틉니다. 그것을 그날로 모판에 내고 기일이 되여 아지를 친 모를 논에 냅니다. 모내기를 하루이틀에 못하니까 모내는 전기간에 맞추어 모를 계단별로 길러야 합니다. 즉 종자싹트이기를 날자를 잘 타산해서 시작해야 하고 모내기기간을 짧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과학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옳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로력, 자재, 시간의 부족외에도 적당히 하려는 낡은 타성이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는데서 큰 장애로 되고있지요.》
《농사란 그저 땅에 씨앗을 심고 김을 매고 거두어들이는것이라는 오랜 기간 인습된 타성이 문젭니다. 기술원은 그것과 투쟁합니다.》
사고가 정확하고 깨끗한 사람이였다.
주체농법은 그가 말한것처럼 과학적으로 타산을 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중요한것은 모내는 기일을 앞당기는것이다. 보름내에 하는것이 리상적이다. 수령님께서 모내

기를 와닥닥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것이다.

《강현동무 생각에는 모내기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와닥닥 해제낄수 있을것 같아요?》

강현이는 잠시 생각하고나서 대답했다.

《그 문제는 간단한것이 아닙니다. 저두 그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보았는데 결국은 아까 제가 말한것처럼 종자싹트이기와 씨앗뿌리기로부터 시작하여 모내기를 끝낼 때까지 전과정을 치차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하면 되지 않겠는가, 다시말하여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공업제품생산과 같은 엄밀한 타산과 조직동원을 하며 중요하게는 관리일군들, 작업반장들, 분조장들, 모든 농장원들이 사상적으로 동원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입니다.》

명숙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강현동무, 한번 구체적인 안을 세워보지 않겠어요?》

《제가 좀 짜보겠습니다.》하며 강현은 명숙을 떠보는듯 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관리위원장동지, 관리위원장동지가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모르겠는데 모내기기일을 앞당기는데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지원로력을 받지 않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의 의도대로 농장자체로 농사를 지으면 모내기기일도 앞당겨진다는 뜻이겠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농장자체로 하면 모내기를 오히려 빨리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로력을 받지 않으니 몇곱절 힘이 듭니다. 그래 저도 이 문제를 꺼내기 주저했습니다.》

명숙이가 대답을 하지 않자 그는 후에 더 연구해서 말하겠다고 했다.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명숙은 화제를 돌렸다.

《영농일지가 있으면 좀 볼가요?》

강현은 두말없이 자기의 서류장을 열고 뒤적이더니 여러권으로 된 영농일지를 꺼내였다.

《작업반기술원을 하면서 쓰기 시작한겁니다.》 강현이 말했다. 《매일 쓰지는 못했습니다.》

명숙은 첫권을 번지였다.

△3월 22일

날씨. 오전 11시 30분까지 높은 구름으로 흐려졌다가 개임.
최고기온 16～18도씨, 최저기온 4도씨
바람 남서방향 3～7메터/초

작업명. 모락종

기술적내용. 1분조 모판 120평 락종함.

※모판 20평에 한하여서는 3월 20일에 출고한 싹튼 종자를 락종함. 같은것을 3분조에서는 50평. 싹의 길이 2.5미리메터(1～1.5가 되여야 함). 모판이 반듯하지 못한데다가 나무다짐로라로 다지기작업을 했는데 잘되지 않음.

△3월 24일

날씨. 23일부터 흐려서 약간의 눈이 내렸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찬 날씨로서 오전 9시경부터 눈가루가 날리기 시작하여 9시 30분부터 북서풍이 세게 불면서(하늘이 컴컴해오고) 함박눈이 내렸다. 땅이 3센치메터정도 얼었다.
최고기온 2도씨, 최저기온 －4도씨～－6도씨
바람 북서방향 7～12메터/초

작업명. 모판만들기

기술적내용. 불리한 기후로 락종을 못함.

※4분조에서 23일에 받은 벼종자 12키로그람정도 락종하지 못함.

△5월 11일

※바람이 심해서 모내기를 중지하자고 제기했으나 작업반장은 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듣지 않음. 모들이 마르고 모내기한 모들이 바람질에 떴다. 기사장에게 제기함. 기사장은 모내기 하루 중지하는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가, 군경영위원회의 승인 받아야 하는데 누가 승인하겠는가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음.

명숙은 영농일지를 이 정도만 보아도 그의 성실성과 탐구심, 책임성을 잘 알수 있었다. 이처럼 영농일지를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쓰는 기술원이 쉽지 않다.
《잘 봤어요. 참 훌륭합니다.》
명숙이가 이렇게 치하하자 강현은 얼굴을 약간 붉혔다.
《부족점이 많습니다.》
《이런 영농일지는 이듬해 농사에서 좋은 참고가 될거예요. 그래서 그후부터 바람질이 심한 날에 모내기하는 현상이 근절됐어요?》
강현은 머리를 세게 저었다.
《근절되는게 다 뭡니까? 어느날 몇정보 모내기를 했다는 수자가 매일 보고되여야 하는데 바람때문에 그날이 령(0)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형식주의군요.》
명숙이 탄식조로 말했다.
명숙은 시간이 갈수록 그가 마음에 들었다. 이처럼 똑똑하니 기사장이 기술자료들을 종합분석하는 일을 그에게 시키군 했을것이다. 그런데 기사장과 틀렸다는것은 무슨 소리인가, 왜 기사장과 틀렸을가.… 여러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강현동무, 하나 물읍시다.》
《이제까지 묻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답을 하고… 무엇이든 더 물으십시오.》
《여기 영농일지에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모내기를 중지하자고 기사장에게 제기했다가 거부당한 내용이 있는데 이때문에 기사장동지와 다투었는가요?》
강현은 관리위원장이 왜 이런 물음을 하는지 알수 없다는듯 명숙의 얼굴을 의혹이 실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다르게 생각할건 없습니다.》 명숙이가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한 형식주의는 모내기전투뿐아니라 다른 영농공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더러 생깁니다. 일군들이 결심하기 힘든 경우지요. 내가 묻는것은 그 일로 강현동무가 기사장과 다툰적이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강현은 눈을 내리깔았다.
《없었습니다. 》

그의 풀기없는 대답이였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기사장을 두려워하고있어.)
명숙은 더 묻지 않았다.
밑의 일군들을 엄하게 다루는 기사장, 로동지도원이 코대가 높다고 《정코대》라 한다던 말이 떠올랐다. 로정만기사장이 요구성이 높은것은 좋은 일이다. 해놓은 일도 있고 실력자로 알려지고있으니 코대가 높을수 있다. 강현이가 이러한 기사장에게 경솔하게 항의하는 행동을 한것은 아닌지.
허명숙은 5작업반에서 종자처리문제와 모판만들기상태를 돌아보고 분조에 나가 일을 하다가 해질녘에 관리위원회로 들어갔다.
그는 관리위원회청사 복도에서 뜨락또르운전수 곽철수를 만났다.

14

뜨락또르운전수 곽철수는 관리위원회를 찾아들어가 생산부의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말소리들이 나는데 대답은 없다. 이 방은 기사장과 생산부의 지도원들이 함께 쓴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드는데 그래서인지 대체로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고 들어가도 쳐다보지 않는다. 관리위원회에 올 일이 없는 뜨락또르운전수인 곽철수는 그런 분위기를 모르기때문에 조심하는것이였다. 응답은 없으나 사람들이 있는것이 분명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저녁시간이여서 있을 사람들이 다 모여 떠들어대는데 기사장만은 웃자리의 복판에 놓인 책상에 틀지게 앉아서 지도원들이 낸 자료를 검토하고있었다. 철수는 그에게로 다가가서 인사를 했다.
《기사장동지, 만날수 있습니까?》
그는 군대식으로 차렷을 하고 물었다.
《음, 철순가? 뭔데?》
《저는 농업대학에 다니려고 합니다.》
로정만은 그를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설명을 기다리는것이였다.
《통신수업을 받자는겁니다.》

《붙을수 있는가?》
《지금 입학시험준비를 하고있습니다.》
《그럼 추천을 받아 시험을 쳐보라구.》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방조를 받았으면 합니다. 학습참고서들을 빌려볼수 있겠습니까?》
철수는 이런 제기를 받으면 기사장이 기특해하리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기사장은 반기는 기색은 보이지 않고 참고서 빌리는따위를 가지고 간부에게 제기한다는 아니꼬운 표정이였다. 로정만은 농산지도원을 가리켜보이고 읽던것을 계속하며 말했다.
《저기 가서 부탁해라.》
철수는 그를 어려워하며 지내 당돌한 제기를 하지 않았는가 가책을 느끼였다.
철수는 《알겠습니다.》 하고 공손히 물러나 농산지도원에게로 갔다. 농산지도원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있었던것만큼 철수가 다가서기 바쁘게 말했다.
《리나 군도서실에 가봤소? 나한테도 좀 있기는 한데 불충분하지.》
《그것이라도 우선 봅시다. 도서실에는 물론 가보겠습니다. 래일 저녁에 집에 들리겠습니다.》
《음.》
군에서 놓치지 않고 매 시기 떨구어주는 기술지표를 머리에 새기고 집행하자 해도 아름찬데 언제 기술참고서적을 읽을 틈이 있는가. 농산지도원은 철수가 요구하는것들이 실지 집에 있기나 한지 자신이 없었다.
철수는 절도있게 돌아서서 생산부를 나왔다. 그는 출입문을 향해 가다가 마침 밖에서 들어오는 관리위원장과 맞다들었다. 추위에 뺨이 발그레해진 명숙은 인사를 하는 철수를 알아보고 반가와했다.
《어떻게 관리위원회에 왔댔어요?》
명숙이가 멈추어서며 물었다.
철수는 인상이 밝고 따뜻한 감을 주는 관리위원장에게 훅 끌려드는 마음을 억제 못했다. 그는 명숙관리위원장과 선참으로 알게 된 잠정농장원들중 한사람으로서 그것을 오만수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지는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긍지로 간직하고있었다. 왜냐하면 시간

이 갈수록 명숙관리위원장에게서 처음 받았던 좋은 인상이 더 부각되고있었기때문이였다.

명숙이 역시 제대군인인 곽철수를 믿음직한 운전수로 마음에 들어했다. 땅크병이였던 철수는 장수와 같은 체격을 가졌다고 할수 있었다. 몇번 상대하여보니 그는 례절이 밝고 마음이 고왔다. 그는 진취성이 강한 청년으로 알려져있다.

철수는 얼굴을 약간 붉히며 대답했다.

《관리위원장동지, 저는 농대 통신학부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명숙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리당비서동무한테서 들었어요. 공부를 해야지요. 그 결심을 나는 적극 지지해요. 시험치는데 방조받을것이 있으면 기사장동무나 농산지도원이나 누구에게든 제기해요.》

뜨뜨미지근하게 대하던 기사장과는 대조적이다. 기사장은 위신은 차리는데 친절한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새로 온 녀성관리위원장은 무슨 일에나 적극적으로 대하고 관여하며 정열적으로 활동한다. 젊어서 그럴수 있겠지만 원래 활동적인 성격인것 같다.

철수는 생산부를 나오며 실무적이고 딱딱한 그 사람들에게서 도움받을 생각이 없어졌으나 대답은 이렇게 했다.

《예, 방조를 받자고 왔댔습니다.》

《잘했어요. 행정적인 처리는 내가 도와주지요. 우리 방에 좀 갈가요? 시간이 있다면…》

《시간은 있습니다.》

《그럼 갑시다.》

철수는 명숙이에게 이끌리여 관리위원장사무실로 들어갔다. 관리위원장사무실은 생산부나 부기실과는 달리 온돌을 놓고 장판을 했으며 앉은뱅이책상에 앉아서 사무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회의도 하게 되여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족의 풍습대로 농촌의 관리위원장이나 리당비서의 사무실을 온돌방에 앉아서 찾아오는 농민들과 담화하도록 꾸려야 한다고, 그래야 농민들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허심하게 속을 터놓을수 있고 간부들도 관료주의틀을 차리지 않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집은 몇작업반에 있어요?》

명숙이 물었다.

《2작업반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모두 2작업반에 속해서 일하겠군요?》
《예.》
《아버지의 이름은 어떻게 불러요?》
《곽기춘이라고 합니다.》
《곽기춘…》
이름을 들은것 같다. 곽기춘이도 잠정리 명물중의 한사람이라 해서 그 이름이 명숙의 귀에도 인차 알려졌다. 《꽉쇠》라는 별명이 붙어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들앞에서 별명을 말할수 없는것이여서 이렇게만 말했다.
《이름을 들었어요.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년세가 많은가요?》
《쉰여덟입니다.》
《환갑이 멀지 않군요.》
《그렇지만 건강하고 힘이 남아 돌아갑니다.》 철수는 다시 눈을 번뜩이며 웃었다. 《고집이 세고 무슨 의견인지 늘 내놓군 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철수가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그의 장점을 단점으로 슬쩍 바꾸어 에둘러 표현하는지 알수 없어 명숙은 의견을 내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계속하여 철수에게 물었다.
《철수동무의 희망은 무엇이예요?》
어지간히 진정된 철수가 대답했다.
《대학공부를 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엔?》
《그다음은 모르지요.》
《모른다?》
《예, 하긴 그다음엔 또 어떻게 되겠지요. 경애라는 처녀기사를 압니까?》
명숙이가 기억을 더듬어보려고 눈을 깜빡이였다.
《그런 처녀기사가 있나요?》
《있지요. 기사장의 딸입니다. 농대를 나와가지고 태평농장에서 일

합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좀 들읍시다.》
철수는 경애에 대해 자기가 아는것을 간단히 털어놓고 계속하였다.
《그 처녀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내가 대학공부를 하는 것을 1단계목표로 하자고 했습니다. 나도 찬성했습니다. 그 처녀가 사람은 희망과 리상을 높이 가져야 한다고 했거던요. 하지만 나는 아직 2단계목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경애이야기를 하는 철수의 눈이 유난히 번쩍이였다.
《경애가 곱게 생겼어요?》
명숙이 미소를 짓고 불의에 물었다.
《꽤 생긴것 같습니다, 허…》
저도 어쩔새없이 속을 내비친 철수는 얼굴을 확 붉혔다.
명숙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알만 하다는 뜻이였다.
어색해진 철수가 무릎을 세우며 물었다.
《그만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부터 기본얘기예요. 기계화작업반에 대해 듣자는거예요.》
이야기는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명숙은 수령님께서 농업부문에 주신 교시들을 학습하면서 기계화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돌렸다. 잠정농장은 자동차와 뜨락또르, 모내는 기계들을 많이 가지고있었지만 기계가 작업할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고 기계들의 리용률과 가동률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하지 못하고있었다. 오히려 최근년간 기계화비중이 떨어지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밝혀내며 명숙은 몹시 가슴이 아파했다.
철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원인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부터 자기가 해야 할 사업의 중하를 재삼 느꼈다. 그는 자기의 심정을 철수에게 이야기하면서 기계화반사업을 개선하는데서 작업반장이나 기술원뿐아니라 매개 운전수들이, 특히 철수와 같은 새 세대의 젊은 운전수들이 주인구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수는 모자를 만지며 앉아서 심중하게 들었다. 그는 관리위원장의 고충이 충분히 리해되였다. 동시에 운전수들이 제구실을 못했다는 자책감에 젖어들었다.

(사실은 우리 기계화반에서 운전수들이 해야 할 일인데… 기름랑비, 정비와 수리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지 않는 문제, 부속품 부족 이런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풀었어야 하는데 관리위원회만 쳐다보고 해결해줄것만을 바랐지.)

철수가 자기의 심정을 내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명숙은 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수 있었다.

관리위원회를 나와 춥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 집으로 가며 철수는 명숙과 나눈 담화를 돌이켜보면서 경애가 곱게 생겼는가라는 질문에 경솔하게 대답한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런데 사실 경애가 곱게 생기지 않았단 말인가. 작은 몸매였지만 날씬했고 얼굴이 고왔다. 이상하게 첫눈에 벌써 마음이 끌리는 처녀였다. 그렇더래도 관리위원장의 질문에 에둘러 표현하든가 했어야 했을것이다.

(그런데 어쨌단 말인가?) 그는 후끈하게 달아오르는 얼굴을 감촉하며 자신에게 화를 냈다. (고운거야 사실이니까 그대로 말한거지. 부끄러워할건 없어.)

그럴수록 경애의 예쁜 얼굴이 눈에 방불해지면서 그는 발걸음이 힘차지는것이였다.

사실 철수가 농업대학에 다니겠다고 마음먹은것은 군대에 입대하면서 헤여졌던 당시의 중학생 로경애를 제대되여와서 만나본 후에 내린 결심이였다. 철수는 그간 경애가 처녀로 성숙했고 또 대학공부를 하고 3대혁명소조기간을 거치며 사회활동가로 성장한 모습을 보며 자기가 그에게 뒤지여있다는 충격을 받았다.

물론 그 기간 자기는 군대에서 단련이 되였으며 총대를 쥐고 조국을 지켰다. 그렇지만 공부를 못했으니 농산기사로 된 경애와 학식으로 견줄수 없게 되지 않았는가. 몇번 만나보고 이야기도 해보니 확실히 지적면에서 경애가 훨씬 앞서있었다. 그래서 통신으로 대학공부를 하여 경애와 어깨를 견주는 청년으로 되려고 결심했던것이다. 자존심의 발동이였고 경애에 대한 사랑의 깊고 진실한 충동에서였다.

어느날 철수는 휴식일이였지만 아침부터 시험준비를 하다가 참고서들을 농산지도원에게 가서 빌려오려고 일어섰다.

《공부는 안하고 어딜 가려구 그러니?》

닭장을 손질하고있던 아버지 곽기춘이 못마땅해하였다.

《참고서 빌리러 가요.》
마침 보고싶었던 참고서가 농산지도원한테 있어서 빌려가지고 기분좋게 휘파람을 휙— 휙— 불며 집으로 돌아오다가 불시에 길가에서 경애를 만났다.
경애는 리상점에서 무엇인가 사서 검은 천구럭에 넣어 들고나오는 중이였다. 요전처럼 파란 솜덧옷에 까만 바지를 입었다. 흰 양털목도리를 목에 두르지 않은것이 다르다 할가. 날씨가 그만큼 봄날에로 가까이 가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리라.
경애는 철수를 보자 얼굴을 약간 붉히면서도 스스럼없이 생긋이 웃으며 반가와했다.
《철수동무, 안녕하세요?》
철수는 그 순간 심장이 후두두했다. 어쩌면 처녀가 그렇게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생신한 모습으로 안겨드는것일가. 마치 추위를 몰아내며 훈훈하고 향기로운 봄바람이 불어오고있는듯 하였다.
철수는 경애의 인사에 쾌활하게 답례하였다.
《안녕하오, 경애동무?》
경애는 체격이 크고 건장하며 성미가 시원시원한 철수에게서 사나이의 매력을 느끼였다.
《깨끗하게 입고 어디 갔다 오세요?》
처녀가 생글거리며 물었다.
철수는 깨끗하게 입고 어디 갔다 오느냐는 물음에 흥미가 동해서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롱삼아 말했다.
《예, 깨끗하게 입고 놀러 갔다 오지요, 휴식일이니까. 그래서 경애동무도 집에 왔겠지요. 뭘 사들고 가오?》
《아버지의 점심식사대접을 특식으로 하려고 이것저것 좀 샀어요.》
경애는 천구럭을 약간 쳐들었다가 내리웠다.
철수는 불시에 이 처녀의 아버지가 기사장령감이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유쾌한 기분이 좀 흐려졌다. 따분한 기사장에게 어떻게 이런 사귐성 좋은 다감한 딸이 있는가. 경애가 그 아버지의 점심식사로 특식을 차려주겠다고 하는것이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버지의 딸이 아닌가?
《그래요?!》 철수가 심드렁하니 대답했다. 《극진하구만요.》 그

러면서 그는 엉뚱한 생각이 떠올라 이렇게 말했다. 《나도 경애동무의 대접을 받고싶은데요. 물론 식사대접은 아니고 뭐라 할가 학습에 대한 방조 말이요. 나는 농대에 통신으로 다니려고 하는데 입학시험준비를 하려니 참고서적이 걸렸지요. 그래 좀 해결했는데 경애기사의 방조를 받았으면 하오. 말하자면 선생으로 되여줄수 없겠는가 그 뜻이요.》
이 착상은 방금 머리에 떠오른것이였다. 그렇지만 말해놓고보니 대단히 마음에 들었다. 경애와 자주 만날수 있는 합법적이고 실제적인 공간이 생기지 않겠는가.
경애는 그의 제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였다. 처녀는 천성이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대학을 나온 지식인으로서의 지성미가 깔려있어 사람들은 그를 경솔하게 대하지 못했고 그 또한 가볍지 않았다. 뒤가 없지만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유쾌한 운전수인 철수에게는 누구나 쉽게 말을 붙이였고 꺼리낌없이 대했다. 이것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간의 차이일것이다. 철수는 그것을 벌써부터 느끼고있었다. 그래서 기어이 공부하려는것이 아닌가.
《통신으로 대학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환영합니다. 도와주겠어요.》
이렇게 말하며 철수를 진지하게 쳐다보는 처녀의 검은 눈은 무척 깊어보이였다. 그 눈을 마주보며 철수는 위압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엄숙해지며 말했다.
《고맙소.》
《그런데 열흘에 한번씩 만나게 되니 그 기간 자체로 공부를 착실하게 했다가 한번씩 집중적인 강의를 받도록 해요.》
경애는 친절하게도 이와 같이 학습하는 방식까지 내놓았다.
《좋소. 나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자는것을 선포하오.》
《좋아요. 오후 3시에 과학기술지식보급실에서 만나자요.》
철수는 금시에 온몸이 하늘로 붕— 떠오르는것 같았다.
집에 들어가니 닭장손질을 끝낸 아버지가 밥을 먹고는 굴뚝 개자리를 파내라고 지시했다. 흥분이 싹 가셔졌다.
《아버지, 오후에는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뭔데 그렇게 요란하게 말해?》

《시험준비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예리한 눈에서 병끗하고 섬광이 일었다.
《정말이겠지?》
《나는 거짓말을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 공부를 해야지. 밤늦도록 해라.》
《예, 아버지.》
경애를 만나 그의 곁에 앉아서 그의 지도를 받을 생각에 기분이 붕─뜬 철수는 점심밥도 어떻게 먹었는지 알지 못했다.
이날 늦도록 과학기술지식보급실에 불이 켜져있었으며 그 불이 꺼진 다음에는 어두운 밤길을 두 청춘남녀가 어깨를 맞대고 걸어가다가 갈림길에서 한동안 지체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대기를 흔들었다. 추운데서 더운 입김들이 뿜어나왔다.
그들은 지금 이전에 철없이 고기잡이를 가자며 재미나하던 소년시절의 철수와 경애가 아니였다. 성숙한 청년과 처녀로서 말없는 속에서 심중하고 격렬한 감정이 오고가는 한쌍이였다.

15

분망한 영농기가 도래하였다. 잠정농장에서는 벼랭상모판만들기가 마지막단계에 이르렀다. 여기서 관심사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그래야 벼모가 튼튼히 자라며 모내기를 성과있게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명숙은 새해 영농사업의 첫 공정부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을 넣었다. 이 사업은 기사장과 농산지도원 그리고 각 작업반의 기술원들이 책임적으로 해야 할 몫이였다.
명숙이가 매일 강조하고있기때문이기도 했지만 로정만자신도 요구성이 강한 녀성관리위원장과의 첫해농사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 풍작을 마련하고 계획을 해야 한다는 각오가 서있었으므로 잠정농장에서는 이 문제에서 불이 붙었다고 말할수 있었다. 하루

사업을 총화하는 관리일군들의 모임에서 기사장 로정만의 목소리가 특별히 크게 울리였다.

그렇지만 계절과 들판이라는 자연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농촌에서 공장에서처럼 되기는 어려웠다. 요구성을 부단히 높여야 했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종합된 의견을 자주 제기했다. 하루를 총화하는 자리에서 명숙은 3대혁명소조 책임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잠정리에 나와있는 3대혁명소조책임자는 농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제대군인으로서 원칙이 강했다.

《두가지를 말하겠습니다.》

말을 간단명료하고 조리있게 하는 소조책임자가 입을 열었다.

《지금 분조들에서 랭상모판을 만들며 과학기술적요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되는대로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농산 2작업반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3분조에서 경사지와 토심이 얕은 땅, 물조건이 나쁜 곳에 500평가량 랭상모판을 정했습니다. 담당소조원이 문제를 세우자 분조장은 작년가을에 판상을 다 골랐다, 비료에 오염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조원동무는 논판에다가 하되 암거를 파라고 했습니다. 3분조장은 대답을 했을뿐 집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작업반, 분조들에 락종기가 부족합니다. 락종기가 없으면 손으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저는 시급히 부족한 락종기 15대를 생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사장 로정만이 지도원들을 둘러보며 엄하게 말했다.

《소조책임자동무가 옳은 문제를 제때에 제기했습니다. 10일지령총화에서 그만큼 강조했고 또 작업반에 내려가서도 지적해주며 바로잡도록 했는데 왜 고치지 않고 아직도 되는대로 모판자리를 만들고 있는가! 규철동무, 2반 3분조에 나가보았소?》

규철이란 농산지도원의 이름이다. 농장의 기술문제를 총적으로 맡아안고있는 기사장 로정만이는 3대혁명소조책임자의 지적이 곧 자기에 대한 경고로 되기때문에 대뜸 열을 올려 밑에 있는 농산지도원을 다불러대는것이였다.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규철이가 기여드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로정만은 그를 한동안 지켜보다가 타협조로 말했다.

《하긴 동무 혼자 온 벌판을 돌아볼수야 없지. 그렇기때문에 작업반기술원들을 잘 틀어쥐여야 한단 말이요. 2반 3분조 모판자리를 래일 당장 바로잡도록 하오.》

《예.》

《아침일찌기 집에서 직접 3분조로 나가오.》

《예!》

그런데 소조책임자가 로정만을 돌아보며《2작업반을 담당한 소조원이 하고있습니다.》하고 말했다.

《그래도 동무가 나가보란 말이요.》

《예.》

농산지도원은 거듭 예, 예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구》 기사장이 계속했다. 《랭상모판씨뿌리기 시범상학준비를 잘하오. 어느 작업반에서 하겠소?》

《소조책임자와 토론해서 정하겠습니다.》

그러자 로정만이 화를 벌컥 냈다.

《동무는 주인이요, 손님이요? 5작업반에 준비시키오, 기술원 강현이한테 과업을 주오.》

그는 소조책임자로부터 비판이라고도 할수 있는 의견을 들은것이 내려가지 않아서 이처럼 어성을 높여 규철이에게 화를 내는것이였다.

명숙은 그가 자존심이 상해 그런다는것을 간파하고 그것을 좋게 평가했다. 비판이나 지적을 받으면 반응이 강렬할수록 좋은것이 아니겠는가.

명숙은 또한 로정만이가 강현이를 중시하고있는것에 주의가 갔다. 로정만과 강현이와의 사이가 어째서인지 버그러진것 같은데 그렇지만 기사장은 랭상모판씨뿌리기 시범상학 같은 중요한 사업을 그에게 맡기는것이였다. 개인감정과 사업을 갈라보는것 같다. 명숙은 강현에 대한 로정만의 견해를 알고싶어 모임이 끝난 후 그를 남으라고 했다.

《기사장동무, 하나 물읍시다. 5작업반 기술원 강현동무가 실력이 있습니까?》

로정만은 왜 관리위원장이 그것을 묻는지 갑자기 부닥친 정황앞에서 얼른 대답을 찾지 못한듯 무표정한 얼굴로 잠자코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래서 시범상학을 5반에서 하도록 했지요.》
이렇게 대답하며 로정만은 명숙이가 5반에 나가서 강현이를 이미 만나 료해를 했고 마장석의 의견도 들었으리라는것과 강현이가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고 인정했으리라는것, 그래서 그에 대해 묻는것이라는것을 간파하였다. 명숙이에게 강현에 대한 옳은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명숙관리위원장이 아직 사람들을 깊이 파악 못했을것은 명백했고 따라서 일면적인 견해를 가질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로정만이 계속 말했다.
《능력이 있고 똑똑한데 그에게는 소총명이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다 옳다고 하며 이 로정만이도 현대농업과학에서는 뒤떨어졌다고 내놓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내놓고 말하는것을 나는 탓하지 않습니다. 솔직하니까요. 그런데 위원장동무, 솔직히 말해서 농사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것과 같습니까? 자연을 대상으로 하니까 가령 랭상모판을 만들 때 류안이 150그람 들어가야 한다면 농장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저울에 달굽니까? 처음엔 달구겠지만 그다음부터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짐작하여 섞지요. 싹이 튼 씨앗도 종자처리장에서 내오는 날 심어야 하는데 갑자기 눈이 오면 뿌릴수 있습니까? 농사란 가을에 가서 수확을 해놓은 다음에야 〈제품〉이 어떻고 얼마 나왔다는것을 알며 진짜평가도 받는게 아니겠소? 그렇지요? 그런데 강현이는 농사도 공장에서처럼 치차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기술공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철이 없다는 의견들이 제기됐지요.》
하지만 기술공정에 대한 강한 요구자체야 옳지 않겠는가. 명숙은 5반에 가서 강현과 담화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
《더구나 어처구니가 없는것은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농장자체로 모내기를 해야 질도 보장되고 기일도 앞당겨진다는 그의 주장입니다. 관리일군들은 이 사람이 머리가 돈게 아닌가 하고 아연해하였습니다.》
명숙이도 강현이로부터 그러한 소리를 들었었다.
《강현이를 관리위원회 농산지도원으로 끌어올리자는 의견도 있었고 론의가 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강현이는 작업반규모에서 기술지

도사업이나 할 인물입니다. 똑똑하고 머리가 좋으나 똑똑한것이 넘치면 모자라는것이나 같지 않습니까. 물론 똑똑하고 머리가 좋기때문에 내가 더러 데려다 일을 시키는데 기술실력이 있고 분석능력이 있다 해서 지도능력이 있는것은 아니지요.》

《그건 그렇습니다.》

명숙은 로정만이가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고 생각했다. 명숙이가 알고싶어했지만 꼭 짚어 물어보기 따분했던 내용들을 그는 다 털어놓은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의 말대로 강현이 농사도 공장에서처럼 치차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기술공정을 지켜야 한다고 한 주장이 틀렸을가?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모내기를 해야 기일이 앞당겨진다는 강현의 주장도 과연 어처구니없는것일가? 강현에 대한 로정만의 견해는 다분히 부정적이였고 그밑에는 어떤 감정이 깔려있는듯 했다. 하긴 5작업반장 마장석이도 기사장에 대해 무슨 불만이 있는것 같다. 그런데 명숙은 차츰 마장석이와 강현에게 정이 쏠리고 믿음이 갔으며 로정만에 대해서는 초기의 좋은 감정이 흐려지는것이였다. 무엇때문일가? 그것은 올해농사차비에서 나타난 허위보고를 알게 된 때부터 기사장의 사업에서 심중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기때문일것이며 또한 아래사람들을 거칠게 대하며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욕설이 많은 그의 사업작풍을 보았기때문일것이다. …

5작업반에서의 랭상모판씨뿌리기 시범상학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방조와 강현의 책임적인 노력에 의해 잘 진행되였다. 명숙이가 강현의 3년전 영농일지에서 본것과 같은 기술적정확성을 가지고 진행되였다. 거기에 참가한 모든 작업반장, 기술원, 분조장들은 많이 배웠다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범단위에서 일이 꿰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사장 로정만은 씨뿌리기가 시작되여 며칠이 지나 다른 작업반을 거쳐 5작업반에 이르렀다. 종자처리장에서 그는 싹틔운 종자를 내주고 받아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야 영복이, 네 몸무게부터 달아보자.》

종자가 든 마대를 큰 저울에 올려놓기 전에 젊은 녀석이 종자를 타려고 온 처녀에게 하는 소리였다. 처녀는 몸매가 둥실둥실하고 얼굴이 넙적했으며 눈두덩이가 불룩했다. 처녀는 두눈이 맞붙게 웃으며 《어디 달아봐요.》 하며 큰저울에 올라섰다.

《에키, 수매하게 됐구나.》
젊은 녀석의 소리에 처녀는 손벽을 마주치며 깔깔 웃어댔다.
그러다가 그들은 엄하게 서서 지켜보는 기사장을 발견하고 와뜰 놀라며 부랴부랴 가져갈 종자를 저울에 달구었다.
《너 몇분조야?》
로정만이 턱으로 처녀를 가리켰다.
《4분좁니다.》
처녀는 겁을 내며 공손히 대답했다.
《언제 장난질할새가 있는가? 기술원이 어데 갔어?》
이번에는 청년에게 물었다.
《2분조에 간다고 했는데…》
2분조면 류순절분조다.
그사이에 처녀는 종자가 든 마대를 둘러메고 도망치듯 멀어져갔다.
기사장은 1분조로 갔다. 아직 씨뿌리기를 하지 않고 모판준비를 하는 곳에 저절로 발걸음이 옮겨졌다. 한것은 거기서 뜨락또르의 발동소리가 들려왔기때문이다. 가까이 가보니 뜨락또르가 양수기를 돌려 물을 퍼올리고있는데 그렇게 퍼올린 물을 고무호스로 모판에 뿌리고있었다.
《중지하라!》 하고 로정만이 소리쳤다.
분조원들이 어리둥절해서 기사장을 쳐다보는 속에서 분조장이 뜨락또르와 련결된 피대를 벗겨 양수기를 멈추어세웠다.
《동무가 분조장이지?》
로정만이 나이지숙한 1분조장을 손가락으로 찌를듯이 가리키며 물었다. 분조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누가 모판에 물을 이렇게 주라고 했소? 기술원이 지시했소?》
《아닙니다.》
《기술원이 어떻게 지시했소?》
《…》
《왜 말 못해? 랭상모판에 물을 이렇게 주면 모판에 들어간 퇴비가 씻겨 내려갈수 있기때문에 가마니를 펴고 물을 뿌리든가 아니면 초롱으로 퍼서 물을 주게 되여있다는걸 동무는 모르오?》
《…》

《모르는가?》
기사장이 꽥 소리쳤다.
《압니다.》
《그런데 왜 호스로 쏘아대는거요, 엉?》
《시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자 기사장동지가 말한대루…》
《아니야, 모판을 다시 만들어야겠소. 보란 말이요. … 됐소, 동무같은 분조장하구 더 말해야 입이나 아프지.》
로정만은 기술원이나 작업반장을 당장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강현이가 왔다.
《모판에 이런 식으로 물을 주라고 동무가 지시하지는 않았겠지?》
얼굴이 시퍼래서 쏘아보는 로정만의 눈길을 피하여 강현이 머뭇거리였다.
《동무를 믿고 씨뿌리기 시범상학을 조직했는데 모두 이런식으로 망탕하지 않겠는지 근심이 돼!》
강현은 머리를 들지 못했고 분조장과 분조원들은 사색이 되여 서있었다.
《말은 잘하는데 집행에서는 왜 이 모양인가, 작업반장도 책임이 있소. 잘한다잘한다 하니까… 문제를 단단히 세우시오.》
《제 잘못입니다.》
강현이 꺼져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무야 옳게 지시를 주었겠지. 그런데 분조장들이 망탕 일하니 책임은 져야 해. 기술원이 아닌가.》
《알았습니다.》
로정만이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작업반 저녁총화모임에서 마장석이 1분조장을 어떻게 닦아세웠는가 하는것은 후에 농장원들속에서《1분조장이 학춤을 췄대.》하는 말이 돌아간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분조장들이 기술규정과 작업조작규정을 어기는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래서 기술원들과 기사장이 목이 아프게 강조하고 요구하며 3대혁명소조원들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시정시켜주군 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규정대로 하지 않고 숙련으로 하는 분조장이 있다. 가령 작업조작규정에는 씨를 뿌릴 때 골고루 그리고 정확히 뿌려지도록 하기 위

해 반드시 락종기를 쓰게 되여있는데 그 락종기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되박에 씨앗을 담아가지고 손으로 뿌린다. 그런데 숙련된 농장원은 잘 가동하는 락종기조차도 무색해할 정도로 골고루, 정확히 뿌린다. 그렇게 하는것을 보고 기술원이나 소조원은 웃어넘기고 만다. 농산작업에서 기술적요구를 관철하며 작업을 기계화하는 사업은 이렇듯 여러가지 요인, 즉 분조장들의 경험주의, 무책임성, 농기계들의 결합, 자연을 대상하는 환경 등등에 의하여 쉽게 되지 않는다. 5반 1분조장이 학춤을 추었다 해도 별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강현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다. 그는 이날이후로 자개바람이 일게 분조들을 돌아다니였다.

16

명숙은 강현이를 만나 그가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농사를 지으면 모내기를 더 질적으로 빨리 할수 있다고 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해보려고 5작업반으로 갔다. 로정만은 강현의 주장을 두고 사람들이 그가 머리가 돈게 아닌가 아연해한다고 했지만 명숙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

명숙은 강현이를 만나지 못하고 마장석과 맞다들었다. 마장석은 비여있던 작업반사무실에 언제 들어와 앉았는지 입술을 우물거리며 장부에 무엇을 기록하고있었다.

《안녕하세요, 반장동무?》

《어서 오시우.》

《아까는 비여있던데 언제 들어왔습니까? 나는 강현동무를 찾아 사무실에도 종자싹틔우기장에도 분조들에도 가보았지만 종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럴 사정이 있습니다. 기사장한테 욕을 먹고 분조들을 돌고있으니까 아마 길이 어긋났겠지요.》

명숙은 자리에 앉아 마장석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들은바에 의하면 강현동무는 문건이나 잘 만들고 말은 잘하

지만 집행력이 부족하다는데 어때요?》

1분조모판에서의《물사건》을 놓고 로정만이 그날 저녁에 관리위원회의 총화모임에서 강현이를 비판하면서 그런 말을 했었다.

담배를 풀썩풀썩 피우며 마장석은 썩썩 갈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누가 그럽디까?》

《강현동무가 지도능력이 딸리지 않아요? 그래서 농산지도원으로 제발시키려다 그만두었다던데요?》

《누가 그래요?》

반박심리가 비낀것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마장석의 피가 진 눈이 사납게 번뜩이였다. 명숙이가 잠자코 있자 마장석이 말했다.

《기사장이 그랬겠지요. 내 사실 이 말을 하지 않자고 했는데 합시다. 관리위원장동무, 강현이 왜 발전 못하고있는지 내가 진실을 말하겠소. 언젠가 강현이 년간총화에서 기사장을 비판한적이 있었소. 옳은 비판이였지요. 그런데 기사장의 기분이 편안치 않더구만. 강현이 기사장의 눈밖에 난 결정적인 계기는 벼정당평균예상수확고판정을 할 때 기사장의 요구를 듣지 않은것입니다. 기사장은 농장적인 예상수확고가 얼마라고 했는데 강현이는 그렇지 않다, 그보다 낮다 하고 우겼지요. 우리 농장이 계속 상승해야 하겠는데 그해 벼수확고가 전해와 같았지요. 농장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높은 수자를 보고하는데 잠정리가 떨어지면 되겠는가, 그래 안달이 난 기사장이 작업반들에 판정을 다시 하라고 내리먹이였지요. 다시 하니까 쑥 올라갔습니다. 기사장이 왜 다시 판정하라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았으니까… 기사장이 강현이 보고 〈자, 이래도 우기겠소?〉하고 들이댔지요. 강현이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기사장동지, 저는 억지로 올린 거짓수자를 군에 보고하는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기사장이 천둥같이 화를 냈습니다. 〈누가 속였어? 어느것이 거짓수자야? 다들 예상수확고가 높아져 칭찬을 받고 평가를 받기를 바라고있는데 우리 잠정리만 답보를 하고있다고 군에서 비판하기를 바라는가? 동무의 심보가 어떻게 돼먹었어, 엉?〉 이렇게 욕을 퍼부었고 강현이를 더 밉게 보게 되였습니다. 내 언젠가 강현이가 관리위원회 농산지도원보다 똑똑하지만 기사장과 틀려서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한적이 있지요? 그게 이런 사연입

니다. 이게 진상이요! 지도능력이 딸리고 집행력이 부족하다? 집행이야 작업반장들이 하지 기사가 하는가. 지도능력이 강현이만큼 높은 사람을 나는 못 봤소.》

그가 어찌도 소리를 치는지 사무실 창문이 드릉드릉 울리기까지 하였다.

마장석이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다. 기사장에 대해 품고있던 불만을 터뜨린것이다. 그가 왜 기사장을 좋게 보지 않는지 알수 있었다. 그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기사장 로정만은 진실하지 못한 위선적인 일군이다.

명숙은 로정만이 도당책임비서앞에서 농사차비가 원만하게 진행되고있다고 당당하게 대답하던 모습이 되살아났다. 그것과 논벼정당예상수확고판정과정에 강현이가 사실대로 수자를 장악해야 한다고 한데 대해 오히려 천둥같이 화를 냈다고 한것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명숙은 화를 내며 떠들썩하는 마장석과는 반대로 온화해진듯 한 얼굴로 조용히 앉아있었으나 마음속은 몹시 괴로왔다. 마장석이 말한것이 사실이라면 강현이의 의견제기와 비판은 다 정당하다.

로정만은 로동지도원이 말한것처럼 확실히 코대가 높다. 공연히 《정코대》라 하겠는가. 그가 3대혁명소조 책임자가 랭상모판 만드는데서와 씨뿌리기준비에서의 부족점을 지적했을 때 공손히 받아들인것이 아니라 농산지도원에게 되받아 욕설을 퍼붓는것을 보며 명숙은 그것을 느꼈다. 방금 마장석이는 로정만이 강현의 원칙적인 비판에 반발했고 그와 틀려서 강현이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했다. 기사장의 위치가 큰것은 아니지만 아무개가 같이 일할 대상이 못된다고 하면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명숙은 로정만에 대한 믿음이 허물어지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강현이 벼정당예상수확고판정을 원칙적으로 하자고 한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로정만은 자기의 공적을 평가받기 위해 허풍을 치고도 오히려 진실한 사람을 억눌렀다. 명숙은 그가 강현이에 대하여 한 부정적인 평가밑에는 지난날의 그러한 관계에서 빚어진 감정이 깔려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반장동무가 한 말이 다 사실입니까?》

명숙이가 마장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강현이를 두둔하고 로정만을 비난하는 내용이 충격적이여서 묻는것이였다.

《글쎄 관리위원장동무가 어떻게 듣고 판단하겠는지는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요.》

마장석은 담배연기를 날리며 대답했다.

《참고해도 좋고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고싶었던 말을 좀더 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쩐지 로정만기사장의 열성이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전 관리위원장이 해임된 이후 요새와선 더 그런것 같습니다. 사실 기사장이 일은 제끼는 사람이지요. 일욕심도 있구 능력도 있는데 그 일욕심과 능력이 자기의 낯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좋겠다는것입니다.》

마장석은 군경영위원회에서 로정만이를 끌어올리려는 론의를 했었다는 말을 귀동냥해 들었었다. 그렇지만 정확한 소식이 아니여서 입을 다물고있었으며 지금도 명숙관리위원장에게 말하려 하지 않았다.

허명숙은 마장석이 짐작으로 하는 소리여서 그저 들어넘기였으나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날이 어두워지자 하루총화에 참가하려고 분조장들이 들어왔고 강현이도 나타났다. 하루작업과정을 총화지으며 강현은 분조들에서 기술지표들과 작업조작규정을 어긴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비판하였다.

《어제 저녁에도 기술원이 얘기했고 소조원도 강조했는데 이건 소 귀에 대고 경 읽기야!》

마장석이 고함을 쳤다.

《1분조장, 아직 정신이 덜 들었소? 왜, 분조장하기 싫은가!》

명숙은 작업총화과정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총화를 지으니 5작업반은 늘 앞서나가며 씨뿌리기에서도 현재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총화후에 명숙과 마장석, 강현 이렇게 셋이 남았다. 명숙은 강현을 새롭게 다시 보며 그에 대한 기사장의 평가와 마장석이 한 말을 생각했다. 마장석과 강현은 관리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고 기다렸다. 아마도 기사장이 와보고 올라가서 이야기했을것이니 그것을 꺼내려는지, 아니면 오늘 저녁의 작업반총화에 참가해서 느낀바를 말하려는지 또는 관리위원회의 무슨 새 지시를 전달하려는것인지 궁금했다.

그런데 관리위원장은 전혀 예상밖의 문제를 꺼냈다.

《강현동무는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농장자체로 하면 모내기를 더 질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끝낼수 있다고 나한테 말했어요. 관

리위원회에도 그런 론거를 내놓은적이 있대요. 그래 일부 사람들이 머리가 돌지 않았는가고 하며 반박했다더군요. 그랬지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는 동무의 론거에 일리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작년초부터 원화리를 비롯한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서 모를 튼튼하게 키워 잘 자란 모를 논에 내야 하며 모내기날자를 바로 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와닥닥 끝내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군에서는 작년에 군당위원회와 군경영위원회가 모든 농장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모내기를 군적으로 20일동안에 끝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풍작을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강현동무가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모내기를 하는것이 오히려 모내기기일을 앞당기게 된다고 하는 주장에 그래서 더욱 흥미를 가지는거예요. 말해봐요. 한번 들어봅시다.》

강현은 오래전부터 연구해오던 문제여서 그런지 즉시에 대답하였다.

《그것은 주인된 립장을 지키는것과 관련됩니다. 농장의 주인은 농장원입니다. 지원로력은 어디까지나 도와주려고 온 손님격입니다. 물론 지원자들이 주인인 농장원처럼 하면 되겠지만 우선 그들은 농사에 익숙되지 못했고 과학기술지표들을 잘 모르며 정신적으로 〈도와주러 왔다〉는, 보조적인 또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능률을 내지 못합니다. 한편 주인인 농장원들은 어떤가? 지원로력 즉 손이 많아졌다는데로부터 탕개를 늦추며 지원자들에게 의거하려 합니다. 어떤 분조장들은 자기들의 기본로력을 떼내여 다른 작업에 돌리기도 합니다. 또 지원자들의 숙식을 보장하고 그들을 인솔하고 작업을 시키느라 적지 않은 인원이 일을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인들이 자기의 능력과 마력을 다 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모두가 실지 체험해본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내기를 한달이나 40일동안 질질 끌게 되였습니다. 두번째로 이야기하게 되는것은 조직동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사활적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해 지원자들을 받습니다. 조직사업에서는 선행공정들을 늦추지 말며 모락종과 모판관리를 잘해서 튼튼한 모를 키우며 모내기에 들어가서는 모뜨기를 새벽부터 시작하여 논판에서 모가 떨어져 공시간

을 보내지 않게 하면서 농장원들이 모내기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며 기본로력자와 부대로력자를 100프로 인입하는것입니다. 내가 계산해보니 이렇게 하면 농장원들자체로 열흘 내지 보름이면 모내기를 끝낼수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조직사업도 빈틈없이 하자니 힘이 들고 새벽부터 일어나 모판과 논판에 들어가 하루를 보내야 하니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정신육체적으로 보름동안 돌격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없이 자체로 해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지고 달라붙으면 오히려 한달이상 질질 끄는것보다 힘이 덜 들고 피로도 덜할것입니다.

모내기를 자체로 짧은 시간에 하면 지원자들에게 주던 로력공수를 농장원들이 가지니 분배몫이 많아질것이고 김이 얼마 자라지 않아 다음공정인 김매기는 쉽고 흥겨웁게 하게 됩니다. 이 훌륭한 전투조직을 왜 두려워하며 지원로력을 내라고 군에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까.》

마장석은 연방 담배연기를 뿜어댔고 명숙은 마치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강현의 설명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명심하며 머리에 새겨넣었다.

《우리 잠정리사람들이》 하고 명숙이 말했다. 《우에다 손을 내미는 나쁜 습성이 있는데 자체로 모내기를 하고 농사를 짓는것은 그런 나쁜 습성을 버리고 주인답게 일하도록 하는데서도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국가에 리익을 주는것은 더 말할것 없고. 어떻습니까. 반장동무, 강현동무의 설명에 납득이 갑니까?》

마장석은 담배연기에 퇴색한듯 한 눈을 껌벅이며 《글쎄 리론적으로는 옳은데 실천적으로 가능하겠는지?…》 하고 미타해하였다.

《실천적으로 가능합니다.》

강현이 확신성있게 말했다.

《그러면 올해 모내기를 5반에서 시범적으로 자체로 해볼가요?》

명숙이가 제기했다.

《나는 마장석반장의 조직력과 실천력을 잘 압니다. 이제부터 분조장들과 작업반원들에 대한 사상사업과 해설사업을 하고 준비를 잘 갖추면 우리 반장은 능히 해냅니다. 우리 반장동무의 통솔력이 어떤지 관리위원장동지는 아직 다 모릅니다.》

강현이가 이렇게 말하자 마장석은 흐뭇해하면서도 근심이 되여 눈살을 찌프렸다.

《기술원, 자기 얘기나 하라구. 자기가 자신있다면 책임적인 대답을 하는것이지 내 얘기는 왜 자꾸 하나?》

강현이는 싱글거리였다.

《어쨌든 실천은 반장동무가 해야 하니까요. 관리위원장동지, 우리 마반장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마대장〉입니다.》

《호호호…》

명숙은 주먹으로 입을 가리우며 웃음을 터뜨리였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마장석당자도 허허 웃었다.

결국 농장원들이 주인구실을 하는것이며 그러자면 땅에 진심을 바쳐야 하는것이다.

17

이날 저녁 명숙은 5작업반 사무실에서 강현이와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장석이 들어가고 그들 둘이 남았다.

《강현동무도 잠정리 출신인가요?》

《아닙니다. 나는 해주사람입니다. 지금도 해주에는 년로한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여 잠정리에 왔어요?》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여기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장차 농업일군이 될것을 희망했는가요? 도시사람으로서 좀 이례적이라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기계에 취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선반공이였습니다. 그래 평양기계대학에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농업을 중시하던 때여서 농업대학에 추천받았습니다. 나는 대학입학시험을 치지 않고 로동현장에 나가 일을 하려고까지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농업대학에 다니게 되였습니다. 대학공부를 하면서도 장차 졸업후에 다른데로 빠질 궁냥을 하면서 홍심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성적은 늘 좋았습니다.
4학년때 년간실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을 태운 뻐스가 산골짜기에 접어들더니 끝없이 언덕을 오르내리는데 벌방지대가 많은 우리 도에 이처럼 궁벽한 산촌마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대학에서 의도적으로 이런 궁벽한 농촌을 구경시킨것 같습니다. 나는 가슴이 막 답답해났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골짜기가 끝나고 눈앞이 확 트이며 넓고넓은 벌이 시야에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야!〉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나는 지어 이 넓은 대지에서 한번 청춘의 활개를 펼치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뻐스가 군인민위원회에 멈추어서고 여기서 우리는 몇사람씩 조를 무어 농촌리들에 흩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간 곳은 화송리라는 고장이였는데 벌방지대였지만 농사는 락후한 방법으로 짓고있었습니다. 종자처리를 재래식으로 하는데 종자를 가마에 넣고 증기로 쪄내고있었습니다. 그러니 발아률이 아주 낮았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달라붙어 흐름식처리장으로 개조했습니다. 이것을 본 작업반기술원은 황홀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스물세살난 처녀였습니다. 이름은 신옥인데 그가 하루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정말 뒤떨어져있어요. 화송리는 더합니다. 이 넓은 벌을 뜨락또르로 왕왕 갈아번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뜨락또르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소원대로 실컷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처녀가 한 말은 도시에 비한 농촌의 락후성을 직접 체험하고있는 나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 고장에서 실습의 나날을 보내며 한평생을 농촌의 기술적 진보에 바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참 재미나게 번져져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우리는 3대혁명전위로서 농촌에 파견되였는데 나는 바로 그 화송리에 가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소조생활을 마치고 떠날 때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해하던 기술원 리신옥이 나를 다시 만나자 얼마나 반가워했던지! 정열적인 처녀였습니다. 화송리에 파견된 우리 소조원들은 농장청년들에게 농업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는 화송리에도 뜨락또르들이 적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소조원들은 자신들이 뜨락또르운전을 배운 다음 농장의 청년들로 운전수들을 양성해내는 사업을 했습니다. 나는 소

조기간 일곱가지 기계를 창안제작했습니다. 과수동력분무기, 알비료치는 기계, 논벼제초기, 영양단지이식기, 강냉이탈곡기 등인데 이 기계들을 쓰면서 좋아하던 농장원들과 리신옥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나는 날이 갈수록 농촌에 3대혁명전위들을 파견한 당의 조치가 얼마나 정당했는가 하는것을 깊이 느끼였습니다. 화송리 관리위원장은 그 사업을 십여년한 쉰살 가까이된 사람인데 열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낡았습니다. 과학농사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부족했고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져있었습니다. 이 관리위원장은 우리 소조원들이 작업반모판에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벼종자를 락종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미타해서 작업반장들에게 두곱되게 더 뿌리라고 지시하군 했습니다. 성글게 뿌린것이 마음에 놓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소조원들이 관리위원장보고 한사람이 먹어야 할 밥 한그릇을 두사람이 먹는 셈인데 모판이 배고프지 않겠는가, 과학을 믿으라고 했더니 농사는 자기가 책임진다, 만일 그렇게 듬성듬성 뿌렸다가 모가 모자라면 소조가 책임지겠는가, 우리 고장은 땅이 척박해서 아지를 많이 치지 못하기때문에 일없다고 하며 통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수없이 소조원들이 따로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락종을 했습니다. 실물교육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심은 모판에서 모들이 듬성듬성하게 자라고 키도 작으니 관리위원장은 자기의 주장대로 두배로 심은 모판에서 모들이 시퍼렇게 배게 자라는것과 대조하여 가리켜보이며 자, 어때? 하는 뜻으로 싱글싱글 웃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위원장의 지시로 심은 모는 바늘모가 되여 논판에 나가 구실을 제대로 못했지요. 소조원들이 심은 모는 모살이를 이틀이나 앞당겼고 수확도 한톤이나 더 냈습니다. 이렇게 실물교육을 하니까 관리위원장은 머리를 숙였고 다음해부터는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3대혁명소조파견의 정당성을 말해주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합니다. 우리 소조원자신들도 그 과정에 많이 배웠고 새형의 농업전문가로 준비될수 있었습니다.》

《강현동무가 대학실습기간에 한평생을 농촌의 기술적진보에 바치겠다고 결심한데는 작업반 기술원처녀 리신옥의 작용이 컸다고 했지요? 소조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많은 기계들을 창안제작하여 그 처녀의 얼굴에 기쁨이 꽃피게 했겠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가까와졌습니다. 관리
위원장동지가 무엇인가를 낌새채고 묻는것 같은데 그럼 뭐 다 얘기하
지요. 리신옥이는 나를 무척 따랐습니다. 나도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한번은 내가 위경련이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한적이 있었는데 신옥이
가 옆에 붙어서 며칠밤을 새우며 간호해주었습니다. 신옥의 어머니도
어디서 꿀을 구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 어머니의 신세를 많
이 졌습니다. 그래 휴가로 해주에 있는 집에 갔다올적엔 나도 기념품
을 준비해가지고 오군 했습니다. 소조사업을 끝내고 출발하기 전날 신
옥이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쪽상에다가 음식들을 차려가지
고 왔는데 나에게 마실줄 모르는 술까지 부어주고 이것저것 안주를 살
뜰하게 집어주면서 이 말, 저 말을 하다가 〈강현소조원이 반대 없다
면 딸을 주겠는데 어떤가?〉 하였습니다. 나자신은 반대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고맙
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부모님들과 상론해야 합니다.〉 신옥이 어
머니는 물론 그래야지 하며 내가 반대하지 않는것을 기쁘게 받아들이
는것 같았습니다. 떠날 때 신옥이가 역에 배웅나왔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헤여지는것이 몹시 가슴아팠던 모양입니다. 나
는 〈신옥동무, 우린 다시 만날지도 모르오.〉 하며 처녀에게 다정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기차는 해주로 달리는데 나는 화
송리에 심장의 한쪼각을 남겨놓고오는듯 어쩐지 쓸쓸해지기까지 했습
니다. 신옥이의 물기어린 까만 눈이 머리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휴식하며 며칠을 보내다가 나는 부모님들에게 리신
옥이와의 문제를 꺼냈습니다. 〈야, 여기 해주바닥에서 숱한 처녀들
이 너를 바라보고있다. 대학을 나왔지, 3대혁명소조를 거쳤지, 그 기
간에 당원이 되였지. 앞길이 창창한데다가 인물이 잘났으니 처녀사태
가 났다. 매일 소개군들이 온다.〉 하며 어머니는 사진들까지 꺼내보
이며 고르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니 괜찮은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하
지만 나는 어머니에게 다 싫다고 하고는 다시 결혼문제를 꺼내지 않
았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배치문제를 가지고 나를 불러 담화를 했습니다. 간
부동지가 나를 특별히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에서는 동무가 3
대혁명소조기간에 한 사업을 높이 평가합니다. 동무는 대학기간의 성

적도 좋고 농업전문가로서, 일군으로서의 자질도 갖추었다고 인정하면서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곳에 배치하려 하는데 우선 동무의 희망을 들어봅시다.〉 나는 나의 배치지가 이미 내정되여있는것이라고 판단하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자 간부동지가 말했습니다. 〈강현동무는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사업하게 됐소.〉 사실 이것은 괜찮은 배치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도내 농업부문 사업을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위치가 아닙니까. 나는 가슴이 막 활랑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마 화송리에서의 소조활동을 끝내고 돌아온지 보름쯤 지났을가 하는 때에 뜻밖에도 리신옥이로부터 문안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읽는 나의 뇌리에는 소조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지어 눈물겹게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농촌은 도시에 비해 정말 뒤떨어져있어요.〉 신옥이가 한 이 말은 이상하게도 그 처녀가 나를 바래워주며 눈물을 머금고 손을 흔들던 모습과 합쳐지면서 나의 가슴을 비틀었습니다. 그 처녀를 알게 되면서 한생을 농업의 기술적진보에 바치리라 결심한 나였습니다. 〈그래서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 사업하게 되지 않았는가. 강현이, 바로 됐어.〉 이렇게 한쪽에서는 나를 위안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다른쪽에서는 〈가방을 끼고 돌아다니고 문서를 만들겠지. 소조시절에 화송농장에 박혀서 농기계들을 창안제작하여 신옥의 얼굴에 웃음이 넘치게 하였던 나날들과 농장원들에게 과학기술지식을 배워주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짓도록 일깨워주던 그 나날들이 얼마나 보람찼던가를 잊지 말라. 강현이, 너는 현실에서 자기의 결심을 실현해야 해.〉 하고 나를 채찍질하는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 현실에서 리상을 실현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나는 해당 기관에 찾아가 어느 농장도 좋으니 될수록 뒤떨어진 농장에 보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간부동지는 나에게 동무는 도적인 넓은 범위에서 지도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하고 아수해하면서도 나의 제기를 수락해주었습니다. 도에서는 나무리벌의 잠정농장이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면서 이곳으로 파견해주었습니다. 내가 농촌으로 가게 됐다는 소문이 퍼지자 소개자들의 발걸음도 뜸해졌다고 합니다. 나는 부모님들을 위안해드리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잘됐습니다. 내가 이제 색시감을 데리고 오겠으니 잔치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화송리에 가서 신옥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딸을 나한테 주겠다고 했지요? 〉 신옥이를 만나서는 혹시 내가 해주에 떨어졌는가 생각할수 있는데 농촌으로 간다는것, 그래도 일없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신옥이가 대답했습니다. 〈저야 농장원인데 농촌이 아니면 어디를 바라겠나요.〉 저는 리신옥이를 데리고 해주로 돌아와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잔치를 한 다음 여기 잠정리로 내려왔습니다. …

농촌에 나와 정작 작업반 기술원으로 일을 하게 되니 나의 리상을 실현한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소조때는 리당비서, 관리위원장, 기사장, 작업반장들이 다 소조원들의 결심에 심중히 대했고 기술혁신을 할수 있는 시간도 자의로 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업반 기술원은 우선 농사를 지어야 하니 시간이 없었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제약을 받지 않을수 없었으며 관리위원장이나 특히는 기사장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소조때처럼 생각하고 기사장에게 몇차례 의견도 내고 비판도 했다가 허… 미움만 샀습니다. 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잠정리에 왔지만 이제는 아이들도 생기고 해가 자꾸 바뀌는데 해놓은 일이 별로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침 관리위원장동지가 새로 와서 자체로 농사짓는 문제를 제기하니 나는 용기가 부쩍 납니다. 약속한대로 올해에 5작업반에서는 모내기와 김매기를 자체로 꼭 하겠습니다.》

강현이와 헤여져 관리위원회로 돌아오며 허명숙은 불꽃이 튀는듯하던 그의 두눈과 열정에 넘친 목소리가 그냥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귀에 쟁쟁해 어둠속에서 여러번 발을 헛디디기까지 했다. 마치 서사시와도 같이 읊어진 한 인간에 대한 노래라 할가 감동 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 농장에 파묻혀있던 이야기였다. 본인은 자기 자랑으로 될것 같아서인지 비약을 하며 짧게 기본선만을 이야기했지만 명숙은 그 함축된 이야기속에 담겨진 풍부한 내용을 충분히, 생동하게 상상할수 있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들이라 해도 파고들어가보면 그에게서 들을 이야기가 있다. 강현은 평범한 농업전문가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얼마나 정확하고 헌신적인 인간인가. 얼마나 인간적으로나 당적으로 준비된 농업일군이고 전문가인가. 귀중한 사람이 농산 5작업반에서 일하고있었다. 명숙은 강현이야말로 새형의 초급일군, 농업기술일군으

로서 관리위원회의 농산지도원정도가 아니라 기사장으로 일해야 할 재목이라고 인정하게 되였다. 주체농법의 요구에 충실하고 현대농업의 과학기술로 무장하고 한생을 농업의 기술적진보에 바칠 각오를 하고 농촌현실로 진출하여 아득바득 애쓰고있는 이런 일군들을 알아내고 떠밀어주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강현은 기사장 로정만의 미움과 노여움을 사서 여태 5작업반에 못박혀있지 않는가.

18

이슬비가 뽀얗게 내리고있다. 마치 안개가 낀듯 앞이 보이지 않고 땅은 축축하게 젖었다. 뻐꾹새도 울고 꾀꼬리도 우는 봄절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곡우가 지났다. 어제 밤에는 바람이 윙— 윙—거리고 탈곡장의 지붕이 덜커덩거리였었다. 봄날에는 언제나 이렇듯 바람과 비와 흐린 날씨의 성화를 받는다.

명숙은 이슬비를 맞으며 분조들에 나가보느라 질쩍거리는 달구지길을 부지런히 걸었다. 간밤에 분 바람으로 일부 분조의 모판들의 비닐박막이 벗겨지고 바람막이바자가 쓰러졌다. 그래서 바람피해복구를 하느라 새벽부터 농장원들이 일하고있었다.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사이바람막이바자를 제대로 친 모판들에서는 바람피해를 입지 않았다.

어느덧 이슬비는 멎었으나 하늘은 여전히 흐려있고 으시시 추웠다. 모판관리공아주머니가 파란 비닐장화를 신고 모판사이를 걸어오다가 명숙이에게 인사를 한다.

《여기는 몇분조인가요?》

《5반 2분조입니다.》

그러니 처녀분조장 류순절의 분조이다.

《바람피해를 입지 않았군요.》

《아이구, 순절분조장이 사이방풍장을 잘 치라, 지주목을 깊이 박으라, 귀아프게 강조하고 모판들을 팽이돌듯 돌아보는데 피해를 왜 입겠습니까? 어제 밤에도 바람질이 심하자 밤새껏 모판에서 보냈다우. 처녀가 이악해요.》

류순절에 대한 기특한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일기예보를 들었어요?》
명숙이 물었다.
《들으나마나 이제 날이 개입니다. 세호아바이가 아침에 말했어요. 우리 분조에서는 리세호아바이가 일기예보를 한답니다.》
명숙은 재미나서 호호 웃었다.
《그러니까 해가 나고 온도가 올라가면 모판에 통풍을 시켜야겠군요.》
《아침 10시반이면 어김없이 바람이 입니다. 그러니까 통풍시간을 잘 정해야지요. 이것 봐요, 모판안의 온도계가 뵈지요?》
모판관리공아주머니는 비물에 젖은 박막을 손바닥으로 쓸고 그안을 가리켰다. 파릇파릇 자라고있는 벼모들과 한옆에 꽂아놓은 온도계가 보였다.
《이 온도계를 보고 박막을 열어 통풍합니다. 강현기술원이 시킨대루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겁니다, 호…》
우리 농장원들이 주체농법에 상당히 숙달되였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명숙은 다른 작업반으로 향했다. 요새 농장은 모내기준비로 분주하다. 따라서 관리위원장도 분망하다. 곧 뜨락또르들이 써레치기에 들어간다. 그전에 작답을 선행시켜야 한다. 5월초에는 일제히 모내기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밭을 갈아야 한다. 퇴비도 마저 내야 한다.
올해에 5반에서 시범적으로 자체로 모내기를 해보려는 작업반 초급일군들과 명숙의 결심은 드팀이 없었다. 잠정리에서의 첫해농사인데 한해 농사지어보고 래년부터 해볼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연백벌이나 이 고장이나 농사물계에서는 같을것이고 래년이라고해서 바쁜 영농기의 사정이 달라지겠는가. 래년에 가면 또 다음해로 미루고싶어질것이다.
명숙은 저녁에 기사장과 농산지도원을 불렀다. 농산지도원 규철이가 먼저와서 흥분해서 말했다.
《관리위원장동지, 오늘방송을 들었습니까?》
《작업반들에 나가다니며 확성기를 통해 들었어요.》
《광주에서 일이 크게 번져질것 같더구만요. 시민들이 맨주먹으로 싸우다가 이제는 무기들을 탈취해서 무장을 한다고 합니다.》

요새 《유신헌법》을 철폐하며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남조선 대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소식이 매일 보도되는데 광주에서의 인민봉기가 최근에 주목을 끌었다. 명숙은 신문에서 읽고 방송에서 들을 때마다 우리가 모내기전투를 잘해서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자각으로 가슴이 부풀군 했다.

기사장이 뒤이어 들어왔는데 명숙은 농산지도원과 하던 이야기를 마저하며 우리가 모내기전투를 잘하자는 뜻을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본문제로 들어가 5작업반에 가서 토의한 내용을 알려주고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

로정만이는 놀라운 표정으로 어처구니없다는 뜻을 나타냈고 농산지도원이 즉시 반발했다.

《아니 관리위원장동지, 지원로력이 없이 어떻게 모내기를 합니까? 군에서는 항상 우리 농장에 지원로력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보장해주는데 무엇때문에 그걸 마다하고 농장원들만으로 힘들게 한단 말입니까?》

《5작업반장과 기술원은 해보겠다는거예요. 자체로 모내기를 하면 어떻게 좋은가 하는것을 강현동무가 나한테 말했는데 나는 전적으로 공감했어요.》

명숙이가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하지만 농산지도원도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우리 농장은 아직 자체로 농사지을수 있게 준비되여있지 못합니다.》

《5작업반에서 시범적으로 한단 말이예요.》

《5작업반장과 기술원의 주관적욕망을 믿을수 있습니까?》

명숙은 웃고말았다.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하겠는가?

그런데 실지 더 바빠난것은 로정만이였다. 계획을 못하면 큰일이다. 자기의 개인문제가 우선 난관에 부닥친다. 명숙의 모험을 막아야 한다. 무엇때문에 명숙은 자꾸 새로운 착상을 들고나오는가?

《관리위원장동무, 우리 농장은 올해에 알곡생산과제를 높이 받았지요.》

로정만이 딱한듯 입을 열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계획을 수행해내겠는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관리위원장동무는 비록 한개 작업반이지만 자체로 모내기를 하도

록 하겠다고 하니 설상가상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아마 강현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것 같은데 그러단 녹습니다. 이제 두고보시오. 며칠 안 가서 마장석이 지원로력을 달라고 할거요.》

로정만의 걱정과 우려가 리해되는 점이 없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도 강현에 대해 나쁜 평가를 하고있는데 그것을 옳지 않다고만 할수는 없었다. 마장석은 강현이를 옹호하고 로정만이는 그를 믿지 못해한다. 허명숙은 어떤 립장에 서야 할가.

강현에게서 3대혁명소조기간에 겪은 이야기를 들은 후 허명숙은 그에게 더욱 정이 가고 믿음이 갔다.

《기사장동무.》 명숙이가 대답을 주었다. 《나는 강현동무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믿는것입니다. 자체로 농사를 짓도록 하는것은 당의 요구입니다.》

《옳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농장도 준비가 성숙되면 자체로 농사를 지읍시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로정만이는 완강했다. 그는 이 녀성관리위원장이 하자는대로 하다가는 올농사를 제대로 지을것 같지 못한 위구심으로 가슴이 무거워졌다. 허명숙이 진취적이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리는 관리위원장인것만은 사실이다. 이것을 로정만은 인정했다. 하지만 로정만은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안정되고 안전한 기존방식으로 농사를 지어 성과를 올리려했다. 그는 허명숙이 자체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것은 모험이라고 보았다. 그 모험에 말려들고싶지 않은 로정만이다. 자기가 군에 올라간 다음에나 모험을 하겠으면 해보라는 립장이였다.

《관리위원장동무가 강현이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건 글쎄 좋을대로 하시오. 그렇지만 기사장은 믿지 못하겠습니까? 농장기사장이 한 작업반의 기술원보다 생각이 짧을가요?》

노여움으로 불깃해지는 로정만의 얼굴을 보며 명숙은 《짧을수도 있지요.》 하고 면박을 주고싶었으나 참고 절절한 어조로 설복했다.

《이것 보세요, 기사장동무. 한개 작업반의 농사를 책임진 사람은 작업반장과 기술원입니다. 그들이 하겠다는데 왜 못한다고 해야 합니까? 나는 리해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관리위원장으로서 내가 결심했으니 리당위원회에 제기하렵니다. 집체적지도기관인 리당위

원회에서 토의결정해야 하는데 그때 기사장동무는 부당성을 론증하세요. 우리는 다같이 리당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면 되는것입니다.》

갈이 손잡고 일을 잘해나갈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던 기사장 로정만에 대한 실망감이 명숙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아래일군들을 불신하고 사업에서 구태의연하며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기사장은 진취성이 강한 명숙이의 성미와 작풍에 맞지 않았다. 명숙은 침체상태에 처한 농장을 부쩍 추켜세우기 위해 첫해부터 대담하고 통이 크게 그리고 선진적인 방법으로 나가려 하는데 로정만이 따라서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한편 로정만은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했다. 아무리 말해야 자기의 론거가 통하지 않을것 같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명숙이의 주장대로 결정이 지어질것이다. 명숙의 론거에 빈틈이 없었고 또 진취적이였던것이다.

과연 리당비서 차성재는 관리위원장을 지지했다. 모험이라는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로정만에게 차성재는 전체 농장이 아니라 한개 작업반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는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리고 강현이 같은 새 세대 기술일군들의 혁신적인 제안을 귀중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내기를 와닥닥 해제낄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관철하려는 명숙의 립장과 노력, 강현이의 발기를 평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선 농산 제5작업반에서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모내기와 김매기를 시범적으로 할데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강현은 4개의 분조를 돌면서 걸그림까지 걸어놓고 어떻게 자체로 모내기를 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고 어떻게 작업조직을 하며 어떻게 동원되여야 하는가 하는것을 해설하였다. 이것은 물론 실무적인 해설이였다. 강현은 자신뿐아니라 당조직이 분조선동원들을 발동해주어 그들과 같이 분조원들을 정신적으로 준비시키는 해설사업도 하였다.

어느날 저녁총화시간에 마장석작업반장이 분조장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지원로력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것으로 알고있던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겠소. 이건 혁명이요. 우리 작업반원들로만 한단 말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그는 1분조장을 짚었다.

《1분조장, 알겠소?》

《알… 알겠수다.》
《왜 대답이 시원치 못하구만. 못하겠으면 여기서 지금 말하오, 후에 뒤소리 말고.》
《하겠다니까요. 한데 왜 나보구만 따지우?》
《1분조장이 보수주의가 있기때문이요. 1분조장만 결심하면 되는거요. 다른 분조장들은 해낼거요. 그런데 2분조장.》
《녜.》
순절이가 머리를 들었다.
《듣자니까 강현기술원이 2분조에 해설사업하러 나갔을 때 안종기가 선참으로 지지했다는데 사실이요?》
순절이가 눈에 웃음을 담고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보란 말이요. 다른 분조들에서 받지 않겠다고 한 안종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자 3분조장이 수염이 꺼칠한 턱을 손바닥으로 쓸며 말했다.
《지원로력이 없이 분조자체가 하면 로력점수가 뚜렷하게 평가될것이고 그러니까 안종기 같은 실농군은 일한것만큼 공수도 받고 그만큼 분배를 탈게 아니겠소. 그래서 찬성하는거요. 지원자들까지 섞어서 와— 와— 할 때는 안종기 같은 사람이 잘 알리지 않지요.》
《그게 좋은게 아닌가! 그게 리기주의인가? 안종기가 여럿이 몰려다니며 일할 때는 열성을 내두 별루 공수를 높이 받지 못하니까 그 평균주의가 싫어서 뼈심들여 일하지 않았단 말이요. 이게 리기주의긴 하지만 작업조직을 하고 평가하는 우리도 잘못이 있소. 평균주의를 하면 생산의욕이 떨어질것은 자명한 리치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소. 이렇게 평가사업을 잘하면 모두 정신나가게 일할거요. 지휘성원들도 같소. 작업반장, 기술원, 부락당비서, 분조장, 사로청초급단체위원장이 제일먼저 모판에 들어가고 논판에 들어가며 제일 늦게 나와야 하겠소. 작업반장인 나는 1분조를 맡아나가서 일하고 부락당비서는 4분조를, 기술원은 2분조를, 사로청초급단체위원장은 3분조를 맡아서 하기로 부락당과 토론했소. 이상이요. 전투준비를 기술원이 지시한대로 잘해야 하겠소. 모레부터는 모내기에 진입하오, 농장적으로 일치하게.》

마장석이 일장 훈시를 했다. 《마대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는 연설도 잘했고 욕도 잘했으며 일에 앞장서는 투신력있는 초급일군이였다.

모내기를 시작하는 날 아침 다섯시에 마장석이 종을 뗑뗑 울려 반원들을 들판으로 불러냈다.

명숙은 모내기가 시작된 첫날에 농장전반사업이 분주하여 5작업반에 나가보지 못했다. 저녁에 기사장이 각 작업반별 실적을 종합하여 가지고 명숙을 찾아들어왔다. 관리위원회에서는 매일매일의 실적을 작업반별로 총화하고 농장적으로 종합하도록 토론이 있었다.

로정만은 명숙이 앞에 앉지도 않고 아무말없이 작업반별 모내기실적을 적은 종이를 내밀었다. 명숙이가 들여다보니 농산작업반들중 5반이 꼴등이였다.

명숙은 로정만을 쳐다보았다. 로정만은 명숙이를 동정하는듯 한 눈길로 마주보며 묵묵히 서있는데 마치도 《보시오,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하는 5작업반이 꼴찌요.》 하고 못박는것 같았다.

차라리 그렇게 말이라도 했으면 로정만이 걱정되여 그런다고 할수 있겠지만 말없이 실적표를 보여주기만 하니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지 명숙이 모를수 없었다. 명숙은 속이 끓었지만 참아야 했다. 현실적으로 5작업반이 꼴등이 아닌가. 만일 명숙이가 자기를 걷잡지 못하고 불쾌해하거나 짜증을 낸다면 로정만의 얼굴표정이 엄엄해지면서 무슨 훈시라도 하려 할것이다.

명숙은 태연해지려고 애쓰면서 눈길을 떨구며 쌀쌀하게 말했다.

《시작이니까 뒤질수 있어요. 아직 익숙되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따라설거예요.》

로정만이는 명숙이가 태연한 자세를 보이고있지만 결코 속이 편안치 않으며 어쩌면 동요하고있을지도 모른다고 보면서 입을 열었다.

《아니, 이건 어쩔수 없는 귀결입니다. 내 부탁하는데 관리위원장동무, 이제라도 5반에 지원로력을 넣읍시다.》

기어이 관리위원장을 설복시켜 자기의 의지를 따르게 하려는 끈덕진 속마음이였다. 하지만 그는 명숙이를 아직 다 모르고있었다. 명숙이 대답했다.

《리당위원회에서 결정한 문제입니다.》

명숙이가 이렇게 변함없는 자세를 보이자 로정만은 한동안 서있다

가 머리를 내저으며 나가버렸다.
그의 뒤모습을 보며 명숙은 아닌게아니라 마음의 동요가 이는것을 어쩌지 못했다. 실지 5작업반이 계속 뒤로 처질수도 있지 않는가. 사람의 일을 알겠는가. 강현이가 보름동안이면 모내기를 끝낸다고 장담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수도 있다. 강현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어떤 불가피한 정황이 조성될지 알수 없는것이다.
이튿날 허명숙은 5반이 뒤지고있는 원인을 해명해보려고 새벽에 류순절분조에 나갔다. 모판에 이르니 분조장 순절이와 안종기, 리세호등 늙은이들과 중년남자들, 처녀총각들이 열심히 모를 뜨고있었다.
아직 해는 솟아오르지 않고 맑게 개인 하늘은 푸르스름했다.
명숙은 순절이 옆에 앉아 모를 뜨며 물었다.
《몇시에 시작했어요?》
《5시전에 시작했습니다.》
《다 나왔는가요?》
《아이어머니들이 아직 몇명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제시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모를 두판씩 뜬 다음 논에 들어갑니다. 두판씩 먼저 뜬 사람들은 먼저 논에 들어가 시작합니다. 모내는기계운전공과 공급수 2명이 한조니까 셋이 손이 맞아야 하는데 어제는 잘되지 못했습니다.》
《모운반은 누가 합니까?》
《안종기아버님이 합니다.》 순절이가 말했다. 《안종기아버님은 어제 모를 두판 제일먼저 뜨고 모춤들을 달구지에 싣고 논에 나갔는데 모내기군들이 따라서지 못해 논판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기다렸다고 합니다.》
명숙은 저쪽 끝에서 모를 부지런히 뜨고있는 안종기를 보았다.
그때 두 아주머니가 나타나 몹시 미안해하며 모판에 달라붙었다. 아주머니들이 힘들것이다. 밥도 할래, 거두기도 할래, 아이들을 탁아소에 맡기기도 할래…
《모내는기계조는 어떻게 조직했어요?》
명숙이가 물었다.
《기술원의 지시로 운전공은 제일 끌끌한 청장년들이고 공급수는 다 처녀들입니다.》

《참, 강현동무가 2분조 담당이라던데…》
《오늘 저한테 량해구하고 4분조에 나갔습니다. 4분조가 첫날 망태기를 쳤거던요.》 순절이의 대답이였다.《어제 모내기를 끝내고 어두워지자 다른 분조들에서는 다시 모판에 들어가 한판씩 떴는데 4분조 사람들은 피곤하다고 그냥 집에 들어가버렸답니다.》
첫날에 진행한 모내기전투에서 이런저런 편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차츰 극복되고 작업이 째여들어갈것이라고 명숙은 믿고싶었다.
《4분조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군요.》
명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절은 얼굴을 살짝 붉혔다.
《우리 분조에서두 왜 우리 작업반은 로력지원을 받지 않고 고생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기술원이 그만큼 해설했겠는데두?…》
《호, 힘이 드니까 그랬겠지요. 차츰 습관되면 일없을겁니다. 걱정마십시오.》
동녘하늘이 불그레해지면서 푸름푸름한 새벽빛이 서서히 물러가고있었다.
붉은 해가 구름사이로 불끈 솟아올랐을 때에 벌써 순절이, 안종기, 중년의 경섭이, 처녀총각인 혜옥이와 창길이가 모 두판을 다 떴다.
경섭이와 창길, 혜옥은 논에 소석회를 칠 때 한조에서 일했는데 분조에서 제일 열성적인 축에 속했다. 그들 셋이 안종기와 같이 모판에서 뽑아 묶은 모춤들을 달구지에 실었다. 그러는새 모내는기계운전공들인 경섭이와 창길의 모공급수처녀들도 모뜨기를 끝내여 그들은 함께 논으로 나갔다. 얼마후 모내는기계의 동음이 들판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명숙이는 부대로력자들과 함께 모를 계속 떴다. 수염이 허연 로인이 물었다.
《관리위원장, 지원로력자들이 와서 모를 떠주면 힘이 덜 들겠는데 왜 고생을 사서 하게 하나?》
명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계속 국가에 손을 내밀겠습니까? 잘 짜고들면 얼마든지 자체로 할수 있습니다.》

《글쎄 그렇기야 하지. 헌데 작년까지만 해두 모뜨기는 지원자들이 했어.》
이 로인을 납득시키자면 가을에 분배를 타는 때에 가서야 될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명숙은 입을 다물었다.
명숙은 4분조에 가있던 강현이가 왔기때문에 그에게서 그곳 형편을 대충 듣고 자기가 직접 그쪽으로 가보았다.
손으로 모를 꽂는 아낙네들 틈에 끼워 같이 일하는데 입심이 센 한 중년녀인이 물었다.
《관리위원장은 아침식사를 했소?》
《하지 않구요. 그건 왜 물어요?》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으면 들어가 하구 나오든지 하라는 말을 할려구.》
《아주머니는 아침식사를 안했어요?》
《했지요.》
《참 아주머니두, 관리위원장은 뭐 다른가요?》
《아무래두 다르지뭐, 간부들이야. … 우리 분조장은 어제 새벽에 일찍 나와서 꽥꽥거리면서 분조원들에게 빨리 밥먹고 모판으로 나가자고 하고서 맨 선참으로 모판에 달라붙었다우. 그리구 모뜨기가 끝나고 모두 논으로 나갈 때 슬그머니 빠져서 집에 들어가 아침식사를 그때에야 하구 눈까지 좀 붙이구서 논판에 나타났다우.》
명숙은 4분조가 어제 망태기를 친 원인을 알수 있었다.
저녁 작업반총화에 참가한 관리위원장은 5작업반이 첫날 실적에서 꼴등을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분석총화하고 대책을 세워주었다.
닷새째부터는 5작업반의 모내기실적이 3위로 올라갔다. 그대신 농산 2작업반이 꼴등으로 떨어져서 전혀 추서지 못하고있었다.

19

농산 제2작업반장 최윤구는 관리위원장이 녀성인것으로 하여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왜 그런지 녀성들과는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성미인데다가 명숙이가 세밀하고 파고들며 따지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5작업반에서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작업반자체로력으로 모내기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어안이 벙벙해졌다.

《마장석이 환장을 했나?》 하고 중얼거리며 윤구는 이마살을 찌프리였는데 마장석의 그러한 모험을 관리위원장이 뒤에서 떠밀었을것이 뻔했기때문에 결국은 명숙이의 처사에 불만을 나타낸것이였다.

그런데 뒤떨어졌던 5작업반이 차츰 실적을 올리며 앞서나가고 자기네 2작업반이 대신 꼴등으로 떨어지자 윤구는 다시 어안이 벙벙해졌다.

명숙은 2작업반으로 나갔다.

《반장동무 어디 있어요?》

넓은 벌판의 2작업반 논에 이른 명숙이가 모내는기계에 모공급을 하고있는 처녀에게 물었다.

《모판에 있을겁니다.》

처녀의 대답이다.

모판에 가있을수 있었다. 지원로력이 벌을 덮었으니 조직사업과 보장사업이 분주할것이다. 분조장들도 논판에 들어설 틈이 없다.

넓은 벌에서 농장원들보다 몇배나 되는 지원자들이 와와 떠들고 웃으며 자를 뒤로 옮겨 전진하면서 손으로 모를 꽂고있었다.

농장원들은 다른 논배미에서 모내는기계로 모를 내고있다. 모내는기계와 논써레를 치는 뜨락또르의 동음이 들바람에 실려왔다. 뜨락또르로 써레를 치고있는 곽철수의 모습이 안겨왔다. 철수는 농업대학 통신학부에 입학하였다.

그는 관리위원장을 알아보았는데 검실검실한 얼굴에 쾌활한 웃음이 넘실거리였다.

명숙은 손을 흔들어주고 2반장 윤구를 찾아 보뚝길로 나섰다. 벼모들이 충실한지, 빈포기들이 얼마나 생기는지, 지내 깊이 꽂거나 얕게 꽂지는 않는지 등등 살펴보면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빈 소달구지가 등뒤로 지나가는것이였다. 덜커덩거리는 빈 달구지가 젖어있고 벼모들이 더러 붙어있는것을 보니 모춤들을 날라다 부리우고 다시 모판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다.

소달구지를 몰아오던 달구지군이 농립모를 쓴 머리를 끄덕여 인사

를 했다.
《관리위원장, 안녕하시우?》
농립모의 그늘이 진 길고 좁은 얼굴에서 작은 눈이 명랑하고 능청스러운 웃음을 짓고있었다. 《짝쇠》로 불리우는 곽기춘이였다. 곽철수의 아버지다.
《안녕하십니까?》
명숙이 인사를 받았다.
《마을루 들어가시오?》
《예, 반장을 찾아 모판으로 갑니다.》
《와— 와—》 곽기춘은 달구지를 세우고 말했다. 《그럼 올라앉으시우. 내가 모셔다드리겠소.》
명숙은 명랑하게 웃었다.
《아버님두!》
《아니, 롱이 아니외다. 빈 달구지루 갈게 있소. 내가 보느라니까 관리위원장이 늘 벌판에 나와다니던데 달구지와 맞다들었으니 좀 타고가며 다리쉼을 하우.》
《생각해주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 황소를 보세요. 엉치뼈가 솟아오른걸!》
곽기춘은 소고삐를 주무르며 잠시 말이 없었다.
《하긴 옳소.》 그는 황소에게 호령했다. 《가자.》
달구지가 움직이자 그는 옆에서 따라걸었다. 명숙은 반대쪽으로 가서 황소와 달구지를 사이에 두고 그와 같이 걸었다.
곽기춘이는 생긴것은 없는데 이상하게도 도고한 인품이 사람을 끌었다. 그래서 명숙은 아버님이라고 존대하며 부르게 되였다.
곽기춘은 확실히 다른 늙은이들과 다른데가 있었다.
《관리위원장말이 옳소. 이 황소의 꼴이 말이 아니요.》
곽기춘이 심중하게 말했다.
《소를 왜 이렇게 먹입니까?》
《작업반소우리에서 먹이는데 이 꼴이요.》
《그러면 안되겠는데요.》
《더 말해 뭘하겠소.》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달구지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벌판의 뜨락또

르와 모내는기계소리, 지원자들의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관리위원장.》
곽기춘이 입을 열었다.
《그래두 나를 아버님이라구 불러주는 사람은 관리위원장이요. 지금 어디 늙은이를 존경합니까? 〈령감〉, 〈곽령감〉, 〈꽉쇠령감〉 나를 이렇게들 부르우.》
명숙은 밝게 웃었다.
《그건 아버님을 친근하게 부르느라구 그러는겁니다. 제 경우에는 녀자니까 〈령감님〉이라구 못 부르지요, 호호…》
그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에 퍼지였다.
《아니, 그래서만이 아니요. 내 가만 보니 관리위원장은 농장원들과 가까운것 같소. 농장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것 같단 말이요.》
《그거야 관리위원장이면 응당…》
곽기춘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말을 마저 듣소. 나는 내가 말을 할적에 막아치우거나 듣지 않는게 제일 싫소. 기사장처럼 심중하게 듣는척 하고는 곧 잊어버리든지 무시해치우는건 더욱 싫어하오. 사람들이 이 곽기춘의 말을 왜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소. 아마 새 관리위원장두 내가 이제부터 말을 하면 싫어할게요.》
명숙은 잠자코 있었다. 막지 않는 한 그가 이야기를 계속하리라는것이 뻔했다.
《듣다가 싫으면 그만하라구 말하오.》
곽기춘은 여전히 찌뿌둥한 얼굴이였다.
《이전 관리위원장얘긴데, 일을 잘했지요. 그리고 농장원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도와주니 모두 따랐지요. 그런데 흠이 좀 있었소. 나이들어가면서 인심이 지내 후해지구 늘 들판에 나가있으면서 관리위원회 내부를 틀어쥐지 못했소. 그러니까 못된것들이 살아나구 규률과 질서가 문란해졌소.》
명숙은 그의 말을 심각하게 들었다. 완전무결한 사람은 없으니 이전 관리위원장에게도 결함이 있었겠지만 관리위원회 내부를 틀어쥐지 못해 규률과 질서가 문란해졌다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곽기춘의 이야기가 근거없는 소리 같지 않았다. 얼마전에 명숙은 기회가 생

기자 부기실에 대한 검열을 하였다. 이 검열과정에 곽기춘이 말한것처럼 농장 공동재산을 침해한 사실들이 적지 않게 밝혀졌다. 검열결과를 총화하는 모임에서 부기장이 진땀을 뺀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관리일군모두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곽기춘이 계속했다.

《질서와 규률이 해이되니 재간껏 농장재산에 손을 대게 됐고 농사에 힘을 넣지 않았지요. 지원자들에 거의 의거하다싶이 했소. 지금 지원로력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것으로 알고있게 됐소. 저것을 좀 보시오.》

그는 들에 널린 지원자들을 가리켰다.

《지원자들이 주인같지 않소? 농장원은 어디 뵙니까? 농장원들은 모내는기계루 하는것밖에 있소? 하기야 지원로력이 가득 왔으니까 그들에게 조건을 보장해주는 조직을 해주느라 뛰여다니지 않을수 없지요. 결국은 주인이 바뀌였소. 헌데 지원로력이야 사실 손님이지요.》

명숙은 곽기춘이 5반의 강현이와 같은 견해를 내놓는것이 더없이 기뻤다.

《말씀을 다 하셨습니까?》

《내 얘기는 종일 해도 끝이 없소. 하지만 마을에도 다 왔으니 서론으루 그칩시다.》 하며 그는 벌씬 웃었다. 그는 관리위원장이 자기 이야기에 심취된듯 주의깊게 들어주니 만족스러웠던것이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읍시다.》

《예.》

《작업반에서 농장원들자체로 모내기를 할수 있습니까?》

명숙이가 논판의 지원자들을 보며 물었다.

《5반에서는 하고있지 않소?》

《2반을 묻는겁니다.》

《왜 못하겠소? 아까 말한것처럼 지원로력이 없이는 모내기를 못하는것처럼 인식하고있구 쉽게 해먹으려 하기때문이지요. 5반처럼 하자면 머리를 써야 하구 뛰여야 하니까.》

《2반장동무는 일군인것 같던데요. 말보다 행동을 더 하는 실농군이 아닙니까.》

곽기춘은 싱긋 웃으며 손으로 자기 머리를 가리켰다.

《이게 돌지 않습니다.》

어느새 모판에 다왔다. 과연 거기에 키가 껑두룩한 윤구가 지원로력책임자로 보이는 새 농립모를 쓴 사람과 무엇인가 토의하고있었다. 모판에도 지원로력이 한벌 깔렸다.

명숙은 곽기춘이에게 앞으로 종종 찾아와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듣겠다고 했다.

《내가 뭐 아는게 있소. 그래두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주니 좀 뜻밖이요.》 하며 곽기춘은 모판으로 달구지를 몰고들어섰다.

명숙은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그저 인사로 한것이 아님을 알수 있었다. 아들 철수도 말했지만 작업반에서는 곽기춘의 옳은 충고를 시끄러워하며 잔소리로 친다고 한다. 그리고 곽기춘을 고집이 세다고 《꽉쇠》라 부른다. 성이 곽가인데다가 한번 옳다고 주장하면 끝까지 내미니까 그런 별명이 붙은것 같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확실히 곽기춘은 유식했다. 3대명물에 속한다는것이 그저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씨먹은 소리를 하기때문일것이다.

2반장 윤구를 만났다. 윤구는 농장원들이 아침일찍 나와 모내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사람이 모를 한판씩 뜨는데 지원자들은 종일 한사람이 한판을 뜬다고 두덜댔다.

《그래서 지원로력책임자한테 의견을 내니까 사무원들이니 어쩌겠는가, 하여튼 사상동원을 해서 더 뜨도록 하겠다, 이럽디다.》

명숙은 흰 이를 반짝이며 웃음을 지었다.

《지원로력을 받지 않는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 모내기를 어떻게 하겠소? 한사람이 하루 한 판대기를 떠두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명숙은 모를 뜨는 지원자들을 가리켰다.

《저 숱한 지원자들을 조를 나누어서 농장원 한명씩 붙어 일하는데 그렇게 지원자들을 맡아서 같이 일하는 농장원들을 〈지도농민〉이라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윤구가 큰 입을 쩍 벌리고 껄껄 웃었다.

《웃어요?》

《웃지 않으면 울갔소? 허허…》

명숙은 래년도에는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지원로력없이 자체로 모내

기를 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농립모를 쓴 새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명숙에게로 다가오며 인사를 했다. 명숙은 이 미끈하게 생기고 체력이 좋은 청년을 어디서 꼭 본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정쩡해있는데 청년이 그 눈치를 채고 자기 소개를 했다.

《군경영위원회 지도원입니다.》

생각났다. 경영위원회에 가서 본것 같다.

《예, 글쎄 낯이 익다 했지요. 난 여기 온지 반년도 채 못돼서…》

명숙이 좀 미안해했다.

《나 역시 군경영위원회에 배치받은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디 있다 오셨게요?》

《제대되여 곧바로 농업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여기 배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랬군요. 많이 도와주세요.》

청년은 얼굴을 붉혔다.

《햇내기가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전 관리위원장동지에 대해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도원동무, 마침 잘 왔어요. 그러지 않아도 군에 지원로력과 관련한 저의 의견을 내려고 했어요. 먼저 2반장동무의 말을 들어봐요.》

키가 큰 윤구가 지도원과 인사를 나눈 다음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지도원은 심중하게 들었다.

20

모내기를 시작하여 보름이 지났다.

농산 5작업반의 모내기실적은 열흘 지나서부터는 확고하게 제일 앞서나갔다. 그러나 보름이 되였지만 애초에 예상한대로 모내기를 다 끝내지는 못하였다.

로정만이가 벗어든 작업모를 주무르며 자못 엄엄하게 말했다.

《5작업반 사람들이 모두 지쳤습니다. 이제 더 몰아대면 쓰러질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명숙은 대답을 못했다. 자체로 모내기를 하는것이 우월하다는것이 명백해졌다. 보름동안에 다 끝내지는 못했지만 거의 끝나가고있지 않는가. 다른 작업반원들은 절반정도 했다. 이것만 보아도 자체로 모내기를 하며 농사를 짓는것이 정당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물론 작업반원들은 돌격전을 했다. 돌격전을 보름 했으나 다 끝내지 못했다. 그렇다고 계속 돌격전을 하면 쓰러질수 있다. 기사장이 이 측면에서는 옳게 말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옆에 앉아있던 차성재가 대신 대답하였다.

《5작업반에 지원로력을 들이밀어 나머지를 마무리합시다.》

로정만은 휘파람소리같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래야 할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예상하였기때문에 마장석이 지원로력을 꼭 요구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요청한것이나 같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 지원로력을 넣읍시다. 우리 의견대로 합시다.》

명숙이 대답했다.

《이제라도 지원로력을 넣읍시다, 뒤이어 김매기도 해야 하니까요.》 얼굴이 볕에 타서 자기의 모습마저 잃은듯 한 명숙의 검은 눈에서 불시에 광채가 벙끗했다. 《하지만 5작업반은 실패한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점을 명백히 말합니다. 처음 해보니 빈구석이 많았고 아직 정신적준비가 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 보름동안에 끝내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실적은 자체로 하는것이 정당하고 우월하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결코 단념하지 않겠습니다. 교훈을 찾고 래년에는 비록 한 작업반의 범위라해도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숙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로정만은 물론 차성재도 강하게 의식했다.

하지만 어쨌든 명숙은 귀에 거슬리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뒤소리들을 들어야 했고 그것을 무시할수 없었다.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었다.

《자체로 농사를 짓는다구 〈마대장〉이 큰소리를 쳤지만 나중에는 지원을 받았지!》

《관리위원장이 마장석이를 든장질했답데.》

《관리위원장이 마장석반장한테 지시했단 말이지?》

《강현이가 제기했다는 소리도 있어.》

《그래두 관리위원장이 〈아니〉 했더라면야 그런 모험을 했을가.》

이런 뒤소리가 귀에 와닿을 때마다 명숙은 피가 지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왜 그런지 로정만의 엄엄해진 얼굴이 떠오르는것이였다. 로정만이 그런 소리들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가?

차성재가 관리위원장 명숙을 도와주었다. 그는 모내기하는 기간 작업반별로 돌며 전투적인 예술선동활동을 하던 리예술소조원들을 5작업반에 투입하였다. 말하자면 5반을 지원하되 지원로력이 아니라 농장로력을 넣은것이다. 예술소조원들은 원래 작업반들을 순회하며 일을 같이하다가 휴식참에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며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활동을 하고있었다. 전원이 처녀들과 총각들이고 상로력자들이여서 일을 걸싸게 해제끼였다.

이 예술소조원들이 5작업반에 나타나자 마장석은 입이 귀밑으로 돌아가게 벌어지며 좋아했다. 여기 소조원들중에는 금옥이도 있었다. 금옥이의 모를 꽂는 손동작과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작업반원들의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금옥이 본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도예술단에 가서 노래를 불러야 할 자기가 겨우 한 농장안에서 일도 하며 노래도 불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였으니…

이렇게 된바치고는 군기동예술선동대에라도 들어가자. 이와같이 목표를 낮추어 마침 모내기전투현장을 돌아보러 나온 군당부장에게 부탁했다.

《그래? 군기동예술선동대에 오겠단 말이지. 알겠다, 내 리당비서와 토의해서 모내기가 끝나면 데려가겠다.》

금옥이 같은 꾀꼴새를 데려다가 보충하면 군기동예술선동대가 빛을 낼것이다. 모내기가 끝나자 부장은 우정 시간을 내여 차성재를 찾아왔다.

《아닙니다. 금옥이에게는 향토의 넋이 깃들어야 합니다.》

차성재가 딱 잘랐다.

《아, 향토의 넋이 농장벌에서 일을 해야만 깃들겠소? 우리 군은 농업군인데 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것이 향토의 맛이 아니겠소?》

《…》

《동무두 참, 로력자 한명이 아까와서 그러지는 않을게구… 그래, 예술적재능의 봉오리가 꽃피지 못하게 하는 동무의 처사를 어떻게 보

아야 하겠소, 예?》
차성재는 전혀 당황해하는 기색이 아니였다. 그는 맑은 눈으로 부장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금옥이는 여기서도 재능이 꽃펴날것입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동무가? 동무가 예술을 아오?》
《글쎄 금옥이는 올해 지나서 봅시다.》
《난 모르겠소, 동무를 모르겠단 말이요.》
모내기가 끝나자 금옥이가 군에 가지 못해 안달아한다는 말을 듣고 차성재는 그를 불렀다. 해별에 타고 들바람에 끄슬려 금옥이는 한결 건강하고 생신해졌다.
《올해 농장의 알곡생산계획이 얼마요?》
차성재가 왕청같이 묻는 바람에 금옥이는 얼떨떨해졌다. 금옥이는 그것을 대답할수 없었다.
《5작업반에 가서 모도 꽂고 노래도 부르며 뭘 느꼈소?》
대답은 여전히 없다.
《여기 오우, 손을 보자구. 음, 손이 거칠어졌구만. … 금옥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착실하게 일하면서 예술소조에 나가 노래도 더 아름답고 힘차게 부르라구. 그 길이 금옥이의 발전을 위해 빠른 길이야. 허명숙관리위원장 그리고 류순절분조장과 같은 진짜 농촌의 녀성농민이 되려고 노력하라구. 그러지? 약속하지?…》
금옥은 두손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흐느껴울었다.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였다. 차성재는 처녀의 가냘픈 어깨에 손을 얹고 그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
농산5작업반은 다른 해에도 물론 영농공정이 늘 앞섰지만 올해는 특히 모내기를 선차적으로 기일을 훨씬 당겨끝냈다. 물론 당초의 목표였던 15일간에 끝내지 못했고 마지막에 로력지원을 받았지만 조직사업을 잘하고 정치사업을 선행하여 자체로 모내기를 한것이 은을 냈다. 그들은 모내기를 끝내고 푹 휴식한 다음 김매기에 들어갔는데 김이 채 자라지 않아서 일에서 능률이 났다. 그러니 모내기를 와닥닥 해제끼는것이 얼마나 좋은가. 5작업반원들은 성수가 나서 래년에는 지원로력을 전혀 받지 않고 자체로 다할 결심들을 굳히였다.

제 3 장

한 해 총 화

21

모내기와 김매기기간에 철수는 경애를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 다시 말하여 경애의 학습지도를 받지 못했다. 한것은 한해농사과정의 제일 바쁜 대목이여서 경애가 태평농장에서 자리를 뜨지 못했으니 어쩔수 없었다.

그들의 학습은 중단된 상태에 있었지만 그사이에 경애를 군으로 올려보내기 위한 그의 어머니 양옥실의 노력은 꾸준히 중단없이 진행되였으며 어느 정도 진척되여갔다. 철수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

철수는 뜨락또르정비작업을 하고있었다.

모내기가 끝난 후 뜨락또르들은 긴급한 수송과제를 수행하는 몇대를 내놓고 전부 정비에 들어갔다. 한때 뜨락또르수리공, 운전수를 했던 차성재는 기계화반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명숙의 사업을 적극 뒤받침해주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기계화반사업을 맡아나섰다. 그래서 영농준비와 모내기에서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역할이 한결 높아졌다. 명숙관리위원장과 직접 진지한 담화를 한 곽철수는 차를 애호하고 기름을 절약하며 정비를 책임적으로 하는데서 앞장섰다.

《곽철수가 뜨락또르수리를 수리공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자체로 정비도 하고 수리도 하자면서 자검자수하는데에 앞장섰소.》 하고 차성재는 어느날 기계화반을 찾아온 명숙이에게 말했다.

《비서동무도 수리와 정비를 직접 하지 않습니까?》

명숙은 얼굴에 기름이 얼룩진 차성재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차성재가 고마왔다. 차성재는 작업반에 매일 나오다싶이 하여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도록 했고 당원들이 앞장서도록 지도하였다. 관리위원장은 리당비서가 기계화작업반을 중시하고 운전수들과의 사업을 직접

하고있기때문에 한시름을 놓고 논에서의 빈포기보식과 김매기작업에 집중하였다.
어느날 철수의 교대운전수가 씨물씨물 웃으며 말을 걸었다.
《철수, 너 기사장의 딸 경애하구 보통사이가 아닌것 같더라?》
《응? 무슨 소리야?》
철수는 흠칫했다.
《둘이 휴식일이면 과학지식보급실에서 늦도록 앉아있다더라. 나두 봤어.》
《그거야 경애한테서 학습방조를 받느라구 그러는건데 뭐가 이상할게 있어?》
《글쎄, 학습방조를 받겠지. 그렇지만 젊은 남녀가 밤늦도록 같이 있다는건 벌써 다른 무엇이 있다는거야. 사람들이 말하더구나.》
철수는 모자채양을 밀어올리였다. 곱슬머리가 삐여져나왔다.
《태호, 나는 농업대학을 통신으로 공부한다. 입학준비를 할 때부터 나는 경애한테서 방조를 받았고 입학한 후에도 드문히 방조를 받는다. 경애가 농대를 졸업한 기사이기때문에 도움을 받는데 너희들이 이걸 가지구 시비를 해야 옳겠니?》
태호는 시무룩한 얼굴로 그의 말을 받았다.
《철수, 그걸 시비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 심보고약한 놈은 혼내줘야 해. 내가 말하자는건 그렇게 배워주고 배우는 사이에 뜨거운 무엇이…》 하며 그는 오고간다는 손시늉을 했다.
철수는 찌뿌둥해서 무시한다는 표정이였지만 속심을 숨길수는 없었다.
아닌게아니라 교대운전수는 정통을 찔렀다. 철수는 경애한테서 학습방조를 받기 위해 휴식일을 기다리군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점차로 학습방조를 받아야 한다는 목적에서보다 자그마하고 예쁜 처녀를 만나보고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더 휴식일을 기다리는것이였다. 그는 이것을 부인할수 없었다. 모내기전투기간에 만나보지 못한지가 벌써 달포를 넘었다. 그는 그 사근사근하고 부드러운 처녀에 대한 생각으로 몸이 달아나는것을 어쩌지 못하고있던차였다.
하지만 태호앞에서는 태연한체 했다.
《글쎄, 청춘남녀니까 자주 만나는 과정에 애정이 싹틀수 있지.》
철수가 말했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그 처녀를 감히 넘겨다볼수 없어. 대학을 졸업한 기사와 짝이 맞을수 있나? 난 꿈도 꾸지 않아.》
《흥, 사랑의 감정이 뭐 그런것을 타산한대?》
이미 장가를 든 태호다.
《어쨌든 우리사이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얼굴은 왜 붉히나?》
《내가? 내야 원래 얼굴이 시커멓지 않는가.》
《음—》
태호는 여전히 시무룩했다. 그는 심중해질 때면 늘 그랬다.
《그렇다면 공연히 걱정을 했군.》
《걱정은 무슨 걱정?》
《철수는 귀가 없는가? 경애의 어머니가 사위감을 하나 골랐대.》
《그거 잘했군.》
철수는 금시초문이였고 그것이 심상치 않은 소리였으나 태연한체 했다.
《뭐, 군경영위원회 지도원이라던지. 모내기때 우리 농장을 담당하고 내려와있었는데 경애 어머니가 보고 확 반했대. 제대군인이구 농대를 졸업했구 미끈하게 잘 생겼다누만. 경애 어머니가 벌써 그치를 만나 교섭을 시작했대.》
《그래?》
철수는 공연히 공기청정기를 매만지며 일부러 무심한체 했다.
《거 잘됐군. 경애두 반대없겠군.》
《그건 모르겠어. 아직 당사자들끼리는 대면을 한것 같지 않아. 여, 그런데 철수, 정말 모르고있었어?》
《듣다처음이야. 그 경영위원회지도원은 한번 피뜩 봤어.》
《어드래?》
《괜찮더구만.》
《그러면 경애두 반대없겠구만.》
《아마 그럴테지.》
태호는 철수를 살펴보았는데 별다른 기미가 느껴지지 않아 흥미를 잃었다. 그래 《또 시작해볼가?》 하고 다시 차체밑으로 기여들어갔다.
(그렇단 말이지!…)

철수는 경애에게 대상자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속이 확 달아올랐다.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것을 잃게 되는것 같은 심정이였다. 군에 있다는 청년과 웃으며 걸어가고있는 경애의 모습이 떠오르자 철수는 주먹을 틀어쥐기까지 했다.

(아니, 안돼!)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철수는 손에 들고있던 나사틀개를 내동댕이치고 량손으로 허리를 짚으며 씩씩거렸다.

태호가 차밑에서 기여나왔다.

《왜 그래?》

그는 철수를 유심히 살폈다.

《상점에 갔다오겠어.》

물론 구실이였다. 도저히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던것이다 .들바람이나 쏘이면 어떻겠는지…

《상점에는 왜?》

《상관말라구.》

그는 자꾸 간섭하며 자기의 속내를 알아내려고 치근거리는 태호를 경멸하듯 힐끗 쏘아보고는 작업장을 떠났다.

《알만 해. 나두 총각시절에는 그랬지.》

태호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다시 차밑으로 기여들어갔다.

철수는 인차 돌아왔지만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수걱수걱 일만 했다. 점심시간에도 오후작업시간에도 입을 꾹 다물고있었다.

저녁이 되였다. 하루일을 끝낸 운전수들이 퇴근길에 올랐다. 철수도 수수한 외출복을 입고 작업반정문을 나섰다. 그러나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잠정마을가운데로 난 도로를 따라 걸었다. 대수로가 나타났다. 도로는 대수로의 다리를 건너 평양으로 뻗어있다.

수로에는 물이 차넘치고있었다.

다리로 수로를 넘은 철수는 뚝을 따라 동쪽으로 거슬러올라갔다. 해는 지평선너머로 떨어지고 사위는 어둑어둑했다. 더운바람이 들에서 불어왔다.

그는 내처 걸었다. 온몸이 땀에 젖도록 힘차게 걸었다. 머리를 수긋하고 옆을 돌아보는일 없이 앞으로만 돌진했다. 그리하여 반시간후

에는 태평마을에 도착했다.

날은 아주 어두워졌다. 농가들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아이들을 집으로 부르는 아낙네들의 목소리와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가 들려오는 마을은 하루의 로동뒤끝에 차례지는 휴식과 식사 그리고 단란한 가정분위기속에 푹 잠겨있었다. 모두 집에 들어가있어 골목길에는 사람이 없었다.

관리위원회를 찾아가 경비원에게 리합숙을 물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거기 로경애라는 기사가 있습니까?》

《있지.》

《몇호실입니까?》

《4호실이야.》

《4호실이라…》

철수는 속으로 호실번호를 되새기며 《지금 가면 만날수 있을가요?》 하고 물었다.

《어디 가지 않았으면 있겠지.》

《예, 고맙습니다.》

철수는 무슨 웅뎅이같은데 한발이 빠져 역시 까닭모르게 두덜대며 리합숙을 찾아갔다. 합숙은 세멘트기와를 올린 길게 련결된 집이였다. 칸수가 많지 않았다. 4호실은 끝방인데 불이 켜져있고 안에 사람이 있는것 같았다. 처녀가 자리잡고있는 호실답게 유리창에 종이로 꽃을 오려붙여서 안이 잘 들여다보이지 않았다.

《똑 똑 똑.》

문을 두드렸다.

응답이 없다. 다시 두드렸다.

《누구예요?》

경애의 쨍쨍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요.》

《누군데?》

《문을 여우.》

《목소리가 귀익은데…》

혼자소리를 내며 방문으로 다가와 달카닥하고 걸쇠를 벗기였다. 문이 열렸다. 방안에서 쏟아져나가는 불빛에 드러난 청년의 모습은 처

녀를 아연케 했다.
《아니, 철수동무가!》
《그래 철수요.》
《어서 들어와요.》
《혼자요?》
《혼자예요.》
신을 벗고 들어갔다. 작고 아담하고 정갈한 호실이였다. 책상이 있고 침대가 있었다. 책상우에는 꽃병에 생화들이 꽂혀있고 책들, 물주전자와 고뿌, 탁상거울과 탁상시계가 놓여있었다.
철수의 모양은 어떠했는가. 우선 우람한 어제날의 땅크병이 들어서자 방안에 꽉 차는것 같았다.
몸매작은 경애에게 어울리던 소박한 모든 세간들이 완구같이 작아보였다. 철수가 모자를 벗자 굽실굽실한 고수머리가 이마에 흩어졌다. 밤길을 걸어오느라 얼굴, 목이 죄다 땀으로 번지르르했다. 코날은 우뚝 솟고 눈이 번들거리였으며 큰 입은 꾹 다물려져있었다.
그가 왜 갑자기 뛰여들었겠는가? 몸매작은 경애는 애처로운 웃음을 지으며 《앉으세요.》 하고 자리를 가리켰다. 철수가 앉자 벽에 붙어 경애도 앉았다.
어째서 얼굴이 심각할가? 경애는 그의 거동을 살폈다.
《태평리에 볼일이 있었어요?》
경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요, 경애동무를 만나자고 일부러 왔소.》
그는 무쇠덩어리같은 주먹을 쥐였다폈다하였다.
《아이참, 저는 왜 갑자기?…》
《물어볼것이 있어서 왔소.》
그는 여전히 무뚝뚝하게 말했다.
《급한 문젠가요?》
《그렇소.》
《그런데 왜 성난것 같군요?》
《아니, 성이 난건 아니요. 대답해주시오, 시집을 가오?》
돌발적이고 직선적인 공격이였다.
경애는 세운 무릎우에 팔굽을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뺨과 턱을 고이

고 뽀얘진 눈으로 철수를 바라보았다.
철수는 경애의 눈길을 피해 어딘가 다른데를 보며 가슴을 들먹이고 있었다.
《경애동무는 훌륭한 청년을 택하는것이 응당하고 나같은것은 아예 거들떠볼 필요도 없을거요. 그렇기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그렇지만 알고싶단 말이요. 왜 알고싶은지 나도 모르겠소. 경애동무가 군경영위원회 지도원한테 시집갈것 같다는 소리를 듣자 진정할수 없었소. 참, 어리석지. 그렇지 않소?》
《…》
경애는 변함없는 자세로 철수를 지켜보기만 했다.
《내가 직접 경애동무한테서 듣기 전에는 진정할수 없단 말이요. 대답해주오. 그러면 그만이요.》
경애는 눈길을 떨구었다. 얼굴에 서글퍼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자 철수는 이 자그마한 처녀가 애처로와 견딜수 없었다. 마치도 처녀는 자기와는 상관없고 마음에도 없는 청년에게 어머니로부터 강요되여 시집을 가게 되는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며 처녀에 대한 애정으로 목이 메여왔다.
그런데 대답은 뜻밖이였다.
《철수동무는 무엇때문에 나한테서 대답을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나한테 강요해요?》
처녀의 목소리가 떨리였다.
《내, 내가 강요를 했다구?》
대답을 우직스럽게 강요한것이 사실이였으므로 철수는 당황해졌다.
《철수동무, 부탁해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줘요, 부탁해요.》
경애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불빛을 받아 구슬처럼 반짝이였다.
철수는 더욱 당황해져 어찌할바를 몰라 쩔쩔맸다.
《아니, 저, 난… 그런데 울기는 왜 우오? 왜 그러오? 내가 무엇을 괴롭혔다구…》
《철수동무, 가주세요. 조용히 가줘요.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아줘요. 나를 내버려둬주세요, 부탁해요.》
그는 속에 불이 활활 이는것 같았다. 대체 어찌된 일인가. 시집을 간다, 안 간다 하면 될게 아닌가. 내가 무얼 강요했고 괴롭힌단 말인

가? 눈물은 어째서 흘리는가.
《젠장! 이거야 어디 속이 타서.》
그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쾅 울리였다.
《좋소, 가겠소. 내가 괴롭혔다니 나쁜 놈이지. 가겠소.》
그는 일어서서 모자를 푹 눌러썼다. 캄캄한 밖으로 나가 신을 신고 문을 쾅 닫았다. 경애는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았다.
몇걸음 터벅터벅 걸어가던 철수는 갑자기 그 어떤 배신감을 느꼈다. 시집을 가겠으면 가라! 그렇지만 나같은건 아무렇게나 대상해도 된단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괴롭혔다는건 시집가는걸 가지고 강요하듯 물어보았다는 뜻이겠는데 내가 방해군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닌가. 아, 녀자들의 마음이란!…
분노가 치밀어오른 철수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는것만 같았다. 아니다, 그저 공손히 물러가지 않겠다. 할 소리는 하고 가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그는 돌아서서 4호실 방문을 향해 땅크가 진격하듯 육박했다.
문고리를 잡고 홱 잡아당겼다.
경애는 그냥 벽에 기대인채 몸을 푹 숙이고 앉아있는데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울고있었다. 가냘픈 어깨가 떨고있었으며 흐느낌소리도 들리는듯 했다.
철수는 술취한 사람처럼 문설주에 부딪치며 돌아섰다. 돌아서기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뛰여들어가 처녀를 와락 껴안고 위안해주며 용서를 빌고싶은 강렬한 욕망을 누르기가 정말 힘들었다.
(용서하오, 경애! 난 경애를 사랑하오. 아니, 난 경애를 그 누구한테도 보내지 않겠소. 경애, 아, 경애…)
그는 비틀거리면서 걸었다. 그는 경애가 어머니의 강요를 받고있다는것을 확신했으며 그러자 의분이 치솟아 눈물까지 나올번 했다.

22

차성재는 기계화반에서 태호와 담화하는 과정에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였다. 곽철수에 대한것이였다. 곽철수가 최근 이상하게 행동하

고있었다. 말이 거의 없고 때로 짜증을 내는가 하면 우울해있군 했다. 본인보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그래 그의 짝패인 태호를 만난것이다.

《제가 보건대 곽철수동무가 기사장동지의 딸을 마음에 두고있는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사이인데 경애가 철수의 학습을 도와주는 과정에 애정이 깊어졌을것입니다. 본인은 부정하고있지만 진심을 속일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에게 말하지는 않고 뒤에서들 쉬—쉬—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애의 어머니가 군경영위원회 지도원이 마음에 들어 그에게 딸을 주려 한다는 소식이였습니다. 그래 나는 철수의 교대운전수로서 응당 말해주어야 한다고 보았기때문에 본인에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역시 태연한체 하며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립장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후 철수는 나사틀개를 내던지고 어디론가 갔다왔습니다. 그날 밤 태평에 나타난 철수를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철수가 경애를 찾아가지 않았는가 짐작합니다. 그들사이에 무슨 충돌이 있은것 같습니다. 다음날부터 철수는 성격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것은 뜨락또르보수정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차성재는 듣고나서 물었다.

《죄다 사실이겠소?》

《사실입니다, 추측도 좀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남의 일을 가지고 함부로 추측해서 말하는건 좋지 않아.》

차성재가 경고를 주었다.

《예, 압니다. 비서동지가 물으니까 제 생각을 죄다 말한것이지 다른데 가서는 말을 흘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차성재는 속으로 태호를 욕했다. 태호야말로 말을 흘리고 다니는 청년이다. 철수를 깊이 파고든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어쨌든 입을 조심하오.》

《예, 알았습니다.》

차성재는 밤에 관리위원장사무실을 찾아들어갔다. 명숙이 혼자 앉아서 무엇인가 쓰고있다가 반갑게 맞아들이였다.

《리당에서 내다보니 관리위원장방에 불이 아직 켜져있길래 찾아왔습니다. 늦게 들어가면 집에서 기다리겠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미 습관되였습니다.》

명숙이가 밝은 얼굴로 대답하였다. 여름내 들에 나가 살다싶이하여 감실감실하게 탄 명숙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정열이 넘치는듯 했으나 입술이 튼것이 성재의 눈길을 끌었다. 모내기와 김매기철에는 몰랐는데 바쁜 고비가 지나가니 피곤이 몰리면서 입술이 터갈라진것 같았다.

《관리위원장동무, 바쁜 고비도 지나갔으니 저녁에 좀 일찌기 집에 들어가는것이 좋을것 같소. 집에 들어가서 별로 할일이 없다 해도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세대주와도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이야기도 하면 피곤이 많이 풀립니다.》 하고 차성재는 어떻게 하나 올해에 5작업반이 자체로 농사짓는 일을 성사시키며 높아진 금년알곡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려고 아득바득 애쓰는 명숙에게 감동이 되면서도 지내 무리하는것 같아 동정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세대주가 늦어 들어온다고 싫어하겠지요?》

그러자 명숙은 활짝 웃었다. 흰이가 반짝 드러나는 인상적인 웃음이였다.

《보은이 아버지가 더 늦게 들어오는걸요. 지금은 출장갔습니다.》

《허허… 관리위원장동무하고는 더 어쩔수 없군. 그럼 이왕 늦은김에 이야기나 좀 합시다.》

《예, 저의 사업에 참고가 될 말씀을 해주십시오.》

차성재는 손을 가로저었다.

《사업얘기는 그만둡시다. 우리 농장에서 싹터나고있는 처녀총각의 사랑얘기를 합시다.》

누구들을 념두에 두고 하는것인지 짐작이 되는 명숙은 흥미가 동해 벌써 입이 벙글서해졌다.

《우리 기계화반 곽철수와 태평농장에서 일하는 기사장의 딸사이가 심상치 않은것 같은데 관리위원장동무는 눈치채지 못했소?》

차성재가 물었다.

명숙은 리당비서가 그저 심심풀이로 처녀총각의 사랑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리고 일련의 문제도 있었다.

《눈치채다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방해군이 하나 나타난것 같소.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가 생각중입니다.》

문제가 있다는것은 그 방해군을 말하는것인데 명숙은 그를 벌써 만나보았다. 그래서 그 방해군이 제거될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제거되다니요?》

《어제 군에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군경영위원회 지도원 말입니다. 나도 비서동무가 들은 그런 뚜뚜한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또 결코 개인적인 사건으로 취급하고 방임해둘수 없다고 보았기때문입니다.》

명숙이가 말했다.

《나는 그 지도원동무에게 직판 들이댔습니다, 우리 농장 기사장의 딸과 말이 있는가. 했더니 그의 대답인즉 처녀의 어머니가 자기를 몇번 찾아와서 제기하기때문에 자기는 생각중이라는것입니다. 그는 태평리도 담당하고있어서 거기 갔을 때 경애를 보았는데 〈눈이 곱게 생기고 귀여운 처녀더군요.〉 하면서 호감을 나타냈습니다.》

《흠.》

차성재가 담배를 피우며 이거 복잡해질수 있다는 뜻에서 코소리를 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경애가 곱게 생기고 똑똑한 처녀라는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잠정리에 와서 경애를 좀 더 알아보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그러면 경애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수 있겠지요.〉 했더니 그가 그런가, 경애에 대해 아는껏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곽철수와의 사이가 심상치 않은데 그러나 경애가 철수를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마음에 두고있는지 그것은 알수 없다, 명백한것은 철수가 경애를 사랑하고있다는것이다,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두사람이 어떻게 학습을 하며 정이 통하게 되였는가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지도원동무는 미소를 짓더니 〈내가 방해군으로 될수 있겠구만요.〉 하는것이였습니다. 나는 좀 딱했습니다. 곽철수를 생각해서 그 지도원을 만나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경애가 그 청년을 택하려 할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는 경애가 철수와 정이 통해있으며 그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았기때문에 동무가 좀 물러날수 없겠는가 하는 암시를 주었는데 잘못하면 방해군은 내가 되는셈입니다.》

명숙은 자기가 우려하는 점까지 다 말했다.

《그것참, 그럴수도 있소.》
차성재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난 어쩐지 관리위원장동무가 좀 서두른것 같구만.》
《그럴가요? 난 말입니다. 경애 어머니가 경애를 읍으로 빼내가려고 그런다는 말을 들었기때문에 어쩐지 철수에 대한 의협심이 동해서…》
《그건 리해됩니다. 나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 망설이던중인데 관리위원장동무는 벌써 행동으로 넘어갔구만요. 우려되는건 이제 입심사나운 경애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나오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그래 좀 서두른것 같다구 한겁니다.》
차성재의 말을 듣고보니 관리위원장으로서 자기네 농장청년을 위해한 행동이긴 해도 아닌게아니라 남의 가정문제에 서뿔리 참견하지 않았는가 하는 위구심이 들었다. 그렇지만 의협심의 충동을 억제할수 없었다. 명숙의 성격에 그저 보고만 있을수 없었던것이다.
《비서동무, 제가 경솔했던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해할건 없소. 관리위원장으로서 그럴수 있지요. 더우기 녀성이니까.》
《기사장동지의 부인이 어떻게 나오겠는지 걱정되는군요.》
명숙은 벌써 걱정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차성재의 충고와 명숙의 걱정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경영위원회 지도원은 경애 어머니 양옥실이가 다시 찾아왔을 때 단념한다고 선포하며 이렇게 말했던것이다.
《경애동무한테는 이미 대상자가 있다구 합니다.》
양옥실이 당황해하며 소리쳤다.
《그건 무슨 소리요?》
《기계화반 뜨락또르운전수 곽철수라고 하는 청년이라던데요?》
양옥실이는 손을 홱―홱― 내저었다.
《이 사람아, 그 철수하구는… 그 애가 우리 애한테서 학습방조를 받느라구 좀 상종했을뿐이야. 그리구 속에 든것이나 인격이 입자에 댈수 있을라구?》
《그렇지 않지요. 나두 철수를 좀 압니다. 훌륭한 청년입니다.》
《글쎄 그렇다 해두 경애와 약속한 대상자는 아니야.》

《잠정리 관리위원장동무의 말에 의하면 철수는 경애를 사랑하고있다는것입니다. 경애도 그를 사랑하겠지요.》

《아니라는데!》

양옥실의 목소리가 자신없게 맥없이 울리였다. 그는 속이 띠끔했다. 경애에게 좋은 대상자가 나타났으니 선을 봐야 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애는 펄쩍 뛰였다. 이년아, 그래 넌 시집을 안 갈테냐 했더니 나라에서 공부를 시켜주었는데 농사일을 하다가 시집을 가도 가겠다, 지금은 싫다, 군경영위원회에 있다니 더욱 싫다고 하였다.

양옥실은 태평농장의 합숙에까지 몇번 딸을 찾아가 얼리기도 하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다 소용없었다.

《야, 너 그 곱슬머리한테 빠진건 아니겠지?》 하자 경애는 《빠졌다면 어쩔테야요?》 하고 반박했었다.

《철수하구는 절대로 안된다. 너는 읍이나 도에 가서 살아야 해. 한뉘 농사를 지어온 네 아버지나 어머니가 네 덕으로 좀 도회지에 가서 살아보자. 우린 네 오빠가 아니라 너한테 말년을 의탁하려 한다.》 하며 양옥실은 울음을 터치였다.

경애는 아연해서 어머니를 측은하게 바라볼뿐이였다. …

경애가 철수를 마음에 두고있는것이 사실인것 같다. 양옥실은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멎을것 같았다. 경영위원회지도원이 경애도 철수를 사랑하겠지요 했을 때 아니라고 부정하는 목소리가 맥없이 울린것이 그때문이였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깨는 행동을 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저를 깨끗이 잊어주십시오.》

지도원이 한 마지막말이다.

양옥실은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다리가 후들거려 겨우 잠정리로 돌아왔다.

(관리위원장이 철수하구 경애가 어쩐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 우리 집과 무슨 원쑤가 져서 훼방질인가.)

이런 생각에 숨이 꺽꺽 막히였다.

그는 오자마자 옥화를 찾아갔고 또 입이 빠른 녀자 몇을 찾아가서 명숙이를 한바탕 욕하며 눈물까지 좔—좔 흘리였다. 그리고나니 속이

좀 후련해지는것 같았다. 하지만 밤에 남편이 들어오자 또 한바탕 해대였다.

《경애 아버지, 당신은 도대체 경애를 어쩌자는거예요?》

로정만이는 대답을 피하고 세면하러 나가버렸다. 그러자 양옥실이 수건을 들고 뒤따라와서 군경영위원회 지도원과 다 성사해놓은것을 관리위원장이 끼여들어 방해를 논다는것, 이것을 참을수 있느냐, 왜 당신은 입이 붙었느냐, 그래 경애를 한뉘 농촌에 두어두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고 남편을 공박하였다.

로정만이는 자기가 한마디라도 하면 안해가 열마디, 백마디로 대답해나선다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에 세면이 끝나자 수건을 받아 두루 물기를 씻으며 다시 방안으로 들어갔다.

《내 가만 보니까 당신은 녀자관리위원장한테 눌리워 꼼짝 못하는것 같은데 왜 의견 한마디 말 못해요?》

듣다못해 로정만이 설명을 했다.

《그는 관리위원장이고 나는 그밑에서 보좌해야 하는 기사장이요. 그렇다 해서 내가 왜 의견 한마디 내지 않겠소? 우리는 늘 토론을 하오.》

양옥실이 입을 삐쭉거리였다.

《나도 귀가 있으니까 다 듣고있어요. 녀자관리위원장이 하자는대로 끌려다닌답디다.》

이 말은 로정만의 자존심을 자극하였다.

누구도 로정만이에게 이렇게 직선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지만 관리일군들이 기사장의 영향밑에서 점차 관리위원장쪽으로 기울어지는것을 보면 무엇인가 알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때까지는 로정만이 전 관리위원장때에도 사업적권위가 있었고 오랜 기사장으로서 인망이 있었으며 새 관리위원장이 오기 전까지 위원장 대리사업을 하면서 농장사업을 주관했다. 그러니 관리일군들이나 온 농장이 그를 따랐다. 하지만 대담하고 전개력있는 관리위원장이 왔으며 그는 오자마자 관리위원회 사업과 농장전반을 즉시에 파악하고 장악하였다. 그러므로 관리일군들과 온 농장의 관심이 새 관리위원장 명숙이에게로 쏠리고 그를 따르는것은 응당하고 정상적인 현상이다.

하다면 안해 양옥실이 한 비난이 왜 그의 자존심을 자극했는가. 녀자관리위원장이 하자는대로 끌려다닌다는 듣기 불쾌한 소리를 직선적으로 했기때문일가? 그런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보다는 실지로 로정만의 발언권과 사업적권위가 희미해지고있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까닭때문이였다.

(그러면 어쨌다는건가.) 하고 로정만이는 자존심을 누르고 대범해지려 했다. 어쨌든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하면 된다. 명숙관리위원장이 전개하는 일들이 당조직과 군중의 지지를 받고있으니 그것은 로정만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장사말가운데 혼사말이라고 안해가 경애문제를 가지고 관리위원장을 비난하고 남편에게 지청구를 해대다가 남편이 관리위원장한테 눌리워 끔짝 못한다는 인격과 사업상의 문제에로 이야기가 번져갔는데 경애문제도 그렇다. 로정만이도 경애와 철수의 관계를 놓고 돌아가는 소리를 좀 들었다. 그래 딸에게 한번 물어보자던 참이다. 그런데 안해가 방금 명숙의 처사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군경영위원회 지도원에게 딸 경애를 붙여주려고 경애 어머니가 적지 않게 노력을 해서 성사되여가고있는데 관리위원장이 경애에게는 이미 철수라는 애인이 있다고 해서 그 지도원이 물러섰다고 한다.

어쨌든 경애가 휴식일에 집에 오면 알아보자. 그들사이가 별다른것이 없다면 안해나 자기가 소원하는대로 될것이요, 만일 돌아가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딸을 읍에 빼내가려고 애쓰는 안해의 노력은 어차피 헛수고로 될것이며 동시에 문제가 아주 복잡해질것이다.

오늘 저녁에도 안해는 로정만을 만나자마자 도대체 경애를 어쩌자는건가고 걸고들었는데 딸을 도회지로 시집보내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안해가 절대로 가만있지 않을것이다. 안해와 딸, 안해와 관리위원장사이가 복잡하게 얽힐수 있었다. 명숙관리위원장이 경애와 철수를 생각하는 선의에서 이 일에 끼여들었겠지만 로정만이로서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 참으로 딱했다.

(경애가 부모들과 의논도 없이!…) 하고 그는 속으로 딸을 욕했다.

관리위원장이 경애의 혼사에 훼방을 놀았다고 소문이 과장되여 돌았다.

어느날 오만수로인과 2작업반장 윤구의 형벌되는 사람이 길가에서 만났다. 윤구의 형벌되는 사람이 먼저 말을 붙이였다.

《령감님이 칭찬하는 관리위원장이 기사장의 딸 경애가 평양에 시

집가게 된걸 못 가게 했다더군요.》

그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눈물코물이 나오는 만수로인의 질적질적한 얼굴을 대하기 싫어서 눈길을 떨구고말했다.

《임자 잘못 들었구만. 평양이 아니라 읍이야.》

《농촌을 뜬다는데서야 갈고갈지요.》

《난 그 애가 농업대학을 나오구서 농장에서 일하는게 용타구 했더니 그것두 아닌가봐.》

《저렇게 경애가 도시루 시집가는걸 원칙을 가지구 반대하면 기사장네두 바쁠거웨다.》

《이 사람아, 시집장가가는데 무슨 원칙이 있겠나.》 오만수로인이 틀을 차리며 훈시조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관리위원장이 옳다구 보네. 아직은 우리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뒤떨어져있구 일이 힘드니까 농촌에서 도시루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나두 하는 소리 아니요. 기사장네가 우겨대기 바쁠게라구.》

《기사장은 가만있는데 경애 에미가 그런다누만.》

《기사장이 뒤에서 추겨대는지도 모르지.》

윤구의 친척되는 농장원이 담배를 꺼내물고 라이타를 철컥거리였다. 불이 잘 켜지지 않았다.

《불꽃은 튀는데 휘발유가 다 됐나?》 하며 그는 알통을 뽑아 심지쪽을 물고 휘발유가 나오도록 빨았다. 그다음 다시 켜니 불이 당겼다.

《휘발유가 떨어졌구만. 임자 아들이 모내는기계운전공이니까 휘발유야 넉넉하겠지.》

《그 애가 보장해주지요.》

그는 로인에게 담배를 권했다.

《피우시겠습니까?》

《아니, 난 길바닥에서는 안 피우네.》

그들은 헤여져갔다.

기사장 로정만은 떠도는 소문도, 관리위원장에 대한 뒤소리도 일체 들은척 하지 않고 태연하게 지냈으며 명숙이앞에서는 더욱 내색을 하지 않았다.

23

그것은 이상한 일이였다. 류순절분조가 5작업반의 4개 분조중에서 일을 제일 열성스럽게 한것 같은데 벼정보당 평균예상수확고판정결과는 나빴다. 맨 꼴찌였다. 1분조나 4분조가 봄에 욕도 많이 먹고 말썽도 적지 않았는데 그들은 다 2분조보다 수확고가 높았다.

예상수확고판정은 관리위원회에서 내려온 계획지도원과 작업반기술원 강현 그리고 각 분조에서 실농군 1명씩 망라하여 과학적으로 엄격히 하였다. 관리위원장은 판정사업을 과장하지도 말고 적게 하지도 말며 객관적으로 정확히 하도록 지시했었다. 강현과 계획지도원은 그 지시대로 했다.

누렇게 익은 벼들이 가을바람에 설렁대고있는 넓디넓은 들을 마주하고 선 류순절분조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제 분조원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그들의 사기가 저락될것은 뻔했다. 농사경험이 없는 처녀분조장밑에서 일하게 된것을 두고 생각들이 많을것이다.

아닌게아니라 논의 물을 뽑으려고 논고를 터치는 삽질을 하며 안종기는 《내 이래서 애숭이처녀분조장한테 안 가겠다고 뻗치였댔지.》하고 침침한 얼굴로 혼자 웅얼댔다. 그 개인으로 말하면 작업반적으로뿐아니라 농장적으로 가장 높은 공수를 벌었다고 할수 있었다. 그만큼 분배몫도 제일 많을것이다. 분조관리제에서는 앞선 분조가 분배몫을 많이 가지며 뒤진 분조는 적게 가지게 된다. 그 적게 차례진 몫을 가지고 분조안에서 공수에 따라 분배를 한다. 그러므로 안종기가 아무리 공수가 많다 해도 분조안에서는 엄지손가락이겠지만 분배몫이 많이 차례진 다른 분조의 엄지손가락에게는 (비록 그 사람의 공수가 안종기보다 적다 하더라도) 뒤지게 된다.

이것은 분조원들로 하여금 자기 개인만이 아니라 분조전체가 일을 잘해 많이 버는데 리해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분조관리제의 집단주의 원칙이다.

분조가 농사를 잘 지어 분배를 많이 타야 개인의 몫도 커진다.

안종기는 이것을 잘 알고있다. 때문에 그는 농사를 오래한 경험있는 분조장밑에서 일하려 했다.

분조관리제하에서는 다같이 일을 잘해야 한다. 그런데 안종기의 견해에 의하면 뼈심을 들여 일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남의 덕을 보려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니 분조관리제가 은을 내겠는가.

특히 여기서 분조를 책임진 분조장의 능력과 경험이 중요하다. 순절이는 이제 겨우 농사를 시작한 애숭이이다. 처녀가 서글서글하고 열성은 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한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2분조에 망라되는것을 감수했다. 처녀를 믿어보려했다.

아니였다! 한해농사를 지어보니 역시 자기가 처녀분조장밑에서 일하지 못하겠다고 작업반장한테 제기했던 초기의 결심이 옳았다. 사람이 좋은것이 무슨 쓸데 있는가. 농사경험이 있어야지…

(판이 이렇게 됐는데 내 터밭농사나 잘 짓는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을 굴리며 와락와락 삽질을 해댔다.

2분조의 침침한 분위기는 마장석이로 하여금 순절분조장에게 동정을 금할수 없게 했다.

(그게 속이 타겠지. 안종기가 투덜댔다니까. 그건 그 혼자뿐이 아니라 분조원들전체의 분위기를 말하는거야.)

마장석은 담배연기를 날리며 이 궁리, 저 궁리를 해보았다.

그런데 마침 관리위원장 명숙이가 작업반에 내려왔다. 명숙이가 사무실에는 별로 앉아있지 않고 늘 작업반과 들판에 나가있으니 그가 나타난것은 례사로운 일이였지만 마장석은 2분조때문에 속이 타던차라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마장석은 담배를 갈아대여 피우면서 류순절이 눈물이 글썽해있더라는 소리를 했다. 류순절분조를 내세우려고 애써온 명숙이도 속이 알찌근했다.

《저, 다른 분조의것을 좀 떼서 2분조에 붙여줄가요?》

이것이 마장석이가 궁리해낸 대책이였다.

그가 리해는 되였으나 명숙은 받아들일수 없었다.

《안됩니다. 그것은 평균주의를 조장하며 평균주의는 로동의욕을 떨어뜨리고 건달군을 낳게 합니다. 반장동무가 제기한것처럼 할바엔 분조관리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녀분조장에게 그러한 동정이

가도 할수 없습니다. 다음해에 각성해서 분조가 많이 벌도록 대책을 세워야 해요.》
마장석은 숱이 많은 꿋꿋한 머리카락속에 손가락들을 찌르고 긁었다.
《내가 순절이를 잘 돕지 못했습니다. 지금 2분조의 사기는 완전히 저락되여있습니다. 가을걷이와 래년농사가 걱정됩니다. 안종기는 처녀분조장밑에 들어간것을 다시 로골적으로 후회하고있지요. 그 사람이 2분조에서는 상로력자인데 이럴 때 보면 리기주의가 두드러지군 하지요.》
명숙은 류순절이 처녀분조장으로서 열성은 높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더 말해 뭣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농사경험이 부족하니 실력으로 분조원들을 틀어쥐지 못했습니다.》
같이 있던 강현이가 대답했다.
《말하자면 분조장의 작업배치나 평가, 지시 등에 의견들이 있었지요.》
마장석이 덧붙여 말했다.
《그렇다면 제때에 의견을 제기해서 바로잡고 안종기같은 실농군들이 분조일이 잘되도록 도와주었어야 하지 않을가요?》
《글쎄 안종기나 리세호령감이 서로 시비질을 하며 분조가 단합되지 못했지요.》
명숙은 한동안 생각에 골몰하다가 마장석과 강현을 번갈아보며 물었다.
《혹시 올해 작업반에 부과된 국가알곡계획을 4개 분조에 평균적으로 쪼개여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쨌다는건가 하는 의혹을 품고 마장석이 대답했다.
《그렇게 했지요.》
명숙은 알만 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사달은 거기서부터 생겼어요. 분조관리제를 실시하는데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지 않았군요.》
명숙이가 심각히 말했다.
《수령님께서는 정보당수확고기준을 분조별로 잘 정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국가계획을 평균적으로 쪼개여줄것이 아니라 매 분조의 토질과 여러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포전별로 정보당기준을 정

확히 규정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어요. 그런데 2분조에는 랭습지 논이 있지요. 안개들논 말입니다. 이런 논에서는 기준을 낮게 설정했어야지요.》

마장석은 관리위원장이 한개 분조의 토지형편까지 알고있는데 크게 감심하며 자기의 실책을 인정하였다.

《아, 정말 그렇구만요! 이거참, 결국 내 잘못이였습니다.》

《5작업반이 일을 잘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아직 바로잡을것이 많다는것을 말해줍니다.》 명숙이가 말했다. 《류순절동무가 농사경험이 적어 분조를 잘 이끌지 못하고 분조내 단합이 부족한 원인과 함께 그 평균주의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강현의 가느다란 눈이 반짝이였다.

《깨닫는바가 많습니다. 교훈을 찾았으니 래년에는 잘될것입니다.》

강현이가 하는 말에 이어 마장석이 그런데 글쎄 안종기가 마음이 돌아섰으니 어쩐다? 하였다. 명숙은 자기가 직접 안종기를 만나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들판에서 삽을 들고 돌아가는 안종기를 데려왔다. 명숙이가 그와 인사를 나눈 후 말했다.

《안종기동무는 처녀분조장 순절이가 누구도 받지 않겠다고 한 동무를 자기 분조에 받아들인 사실을 알고있지요?》

《알고있수다.》

안종기는 그 점에서만은 순절이를 고맙게 생각하고있었다.

《순절분조장이 농사경험이 어리고 사업조직을 잘하지 못한것도 있겠지요. 2분조의 실적이 떨어진데는 다른 원인도 작용했습니다.》

옆에 있던 마장석이 안개들논의 정보당수확고기준을 평균적으로 정한 작업반의 잘못을 말했다. 그러면서 분조별 평가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안종기는 얼굴이 좀 밝아지는것 같았다.

《그렇게 하는것이 옳수다.》

그는 선망어린 눈으로 명숙을 쳐다보았다.

《내가 안종기동무한테 부탁할것은 순절분조장이 자기 분조에 받아준것을 고맙게 생각하고있다면 다시는 처녀분조장밑에서 일하게 된 타발을 하지 말고 분조장을 잘 도와 분조의 농사일이 잘되도록 노력해

달라는것입니다.》
안종기는 대머리를 쓸어만졌다.
《내야 내 일이나 잘하면 되지요. 내가 무슨 집단까지 생각하겠소?》
《아닙니다. 개인의 명예도 보수도 집단속에서 빛나고 높아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명숙이가 꾸준히 해설했다.
《다 옳은 말이웨다. 모두가 다 뼈심들여 일하면 분조가 잘살게 되지요.》 안종기가 속에 품고있던 말을 했다. 《헌데 사람들이 어디 하나갈습니까?》
마장석이 썩썩 갈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무두 터밭농사에 힘쓰듯 하면 지금보다 곱절 더 낼수 있고 분조의 분배몫도 높아지게 되오.》
안종기가 성을 내며 반박했다.
《난 터밭농사도 잘해야 부수입이 는다고 생각하네. 그래서 솔직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수입이 많아. 그게 나쁜겐가, 개인리기주의인가?》
《그 문제는 따로 론의합시다.》 명숙이가 그를 진정시켰다. 《내가 부탁한것을 명심해주세요.》
안종기는 끓어올랐던 성이 이내 가라앉지 않아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명숙은 그가 더는 처녀분조장타발을 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
《순절분조장이 어데 있습니까?》
《논판에 있는가 봅디다, 안개틀논에…》
명숙은 안종기를 보내고 순절이를 찾아 안개틀논으로 나갔다. 과연 그곳에 순절이가 서있었다. 들바람에 벼이삭들이 솨— 솨— 물결치는 속에 우두커니 서있는 순절이가 그 논의 수확고가 낮은것때문에 고민에 잠겨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순절이.》
명숙이가 처녀를 불렀다.
순절은 바람에 날리는 머리수건을 붙잡으며 머리를 돌렸다.
《아이, 관리위원장동집니까?》
명숙이 그에게로 다가갔다.
《속이 타서 이렇게 나와 서있겠지?》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분조장사업을 계속해야 하겠는가 하는 생

각까지 듭니다.》

순절의 눈에서 고뇌의 빛을 본 명숙은 자기가 마음만 앞섰을뿐 실지로 처녀분조장을 잘 도와주지 못했다는 가책이 들었다. 이러다가는 처녀분조장을 실농군과 교체하자고 한 기사장의 제기가 옳은것으로 될수 있었다. 그럴수 없다. 당조직에서도 전망을 내다보고 농장의 주인으로 키우기 위해 처녀에게 분조장을 시켰을것이다. 자기 명숙이가 처녀로 관리위원장의 중책을 걸머졌을 때와 같은것이다.

《순절이.》 하고 명숙이가 말했다.

《나도 처녀로 관리위원장사업을 시작했을적에 애를 먹었고 못해낼것 같은 나약한 생각도 들었어.》

명숙은 연백벌에서 있은 지나간 시절이 떠올라 순절이에게 한동안 이야기해주었다.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고 또 리당조직의 지도방조를 받으며 한걸음, 두걸음 성장했다는 이야기였다. …

《나에게는 한 10년후 우리 농장에서 순절이가 성장하여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서있는 모습이 상상된다. 힘을 내고 분발해야지. 지금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10대전망목표를 받아안고 우리모두가 신심에 넘쳐있는 때가 아닌가! 우리의 앞날은 얼마나 휘황찬란할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끓어올라!…》

명숙이는 순절이에게 신심을 주려고 말을 시작했지만 어느덧 그 자신이 흥분되여 벼이삭 물결치는 들을 향해 시를 읊듯 격정을 터치였다.

《관리위원장동지! 제가 동요했댔어요. 좋은 말을 해주어 고마워요.》

순절이 눈에 물기가 어리였다.

그들은 이어 오손도손 농사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다.

명숙은 작업반에서 매 분조의 토질에 따라 포전별로 정보당기준을 정확히 규정해주지 못하고 국가계획을 평균적으로 쪼개준것이 잘못되였기때문에 평가사업을 다시 하기로 했다는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물었다.

《이 논을 왜 안개틀이라 해요?》

《이 논우에 안개가 잘 낍니다.》

《아— 알겠어요. 랭습지여서 그래요. 그러니 이런 논에서야 수확

고가 낮을수밖에. 순절분조장, 우리 이 랭습지를 개량해보지 않겠어요?》

순절은 눈을 깜빡이였다. 그는 주저하며 말했다.

《개량해야 한다는것은 명백한데…》

《그렇다면 대담하게 시도해야지.》

명숙이가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수령님께서 랭습지들을 개량할데 대해 말씀을 여러차례 하시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논에 도랑을 파고 거기에 돌을 넣어 찬물이 빠지게 하라고 그 방도까지 밝혀주셨는데 우리 농장에서는 아직 집행 못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마음먹고 달라붙어 랭습지를 개량한다면 2분조의 알곡생산량이 쑥 올라갈거야.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 그렇지만 작업반이 돕고 관리위원회가 관심을 돌리겠는데 한번 용기를 내여 암거를 만들지 않겠어, 응?》

순절의 크고 서글서글한 눈이 빛났다.

《한번 해보겠어요. 깨우쳐주어 고마워요.》

성미가 시원시원한 순절이다.

《난, 이 안개들논때문에 방금도 속이 내려가지 않았댔어요. 관리위원장동지, 이 논을 개량하고 논밭에 두엄을 듬뿍듬뿍 내면 나는 우리 분조가 농장적으로도 1등할수 있을것 같은 신심이 생겨요.》

들바람이 다시 일면서 벼들이 물결치듯 설레이고 두 녀성의 머리수건도 세차게 나붓기였다. 그들의 앞이 탁 트이는것 같았다.

24

분조장은 분조장대로, 작업반장은 작업반장대로 그리고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장대로 벼정당평균예상수확고판정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대했다. 관리위원장의 경우는 특히 올해 국가알곡계획을 수행하게 되느냐, 못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판정결과에서 초보적으로 결정되므로 초조감을 가지고 기다렸다.

농장적인 판정결과는 작업반들의것을 종합하면 된다. 5작업반이 제

일먼저 판정했는데 2분조가 다른 분조들에 비해 뒤떨어지긴 했어도 작업반적으로는 계획을 수행하였다.

마침내 농장적인 판정결과가 집계되였다. 결과는 시원치 못했다. 계획을 미달하였다. …

집계된 자료를 적은 종이장을 앞에 놓고 기사장은 오래동안 말없이 앉아있었다. 바로 이렇게 될것 같아서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가지고 군경영위원회와 다투었으며 새로 온 관리위원장에게도 접수하면 안된다고 했었다. 그렇지만 명숙은 부임되여오자 곧 계획수자를 가지고 말하기 싫어서인지 당조직의 신임에 보답하려는 명예심때문인지 군에서 떨군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행할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우겼다.

로정만은 그때 농장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명숙이를 제지시키지 못한것이 후회되였다. 가을에 있을 일, 즉 오늘과 같이 계획을 수행 못한 결과가 빚어질것을 내다보면서 걱정에 잠겼고 심히 우려했었지만 어쩔수 없었다.

누구를 탓하랴! 그래도 잠정리에서 뼈가 굳어졌고 기사장을 10년가까이 한 자기가 명숙관리위원장을 설복시키지 못한데 잘못이 있다.

그렇다고 앞이 콱 막힌것은 아니다. 출로는 있다. 로정만은 종이장을 들고 관리위원장방으로 찾아들어갔다.

허명숙이도 기사장에게 제출된 집계자료를 동시에 받았는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며 심중한 얼굴로 앉아있었다.

로정만은 눈길을 들고 자기를 쳐다보는 명숙에게 전제없이 이렇게 말했다.

《예상수확고판정을 다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이 로정만이 생각해낸 출로였다.

《그건 왜요?》

명숙이 의아해하였다.

작업반별 판정을 앞두고 명숙은 작업반에 파견되는 지도원들에게 판정성원들을 량심적이고 경험있는 농장원과 기술원을 망라하되 판정에 들어가서는 벼가 잘된 포전, 보통으로 된 포전, 잘되지 못한 포전 이렇게 상중하로 논을 선정하여 평균수치를 낼데 대하여 엄격히 지시하

였다. 잘못 판정하여 예상수확고가 떨어지면 국가계획을 수행 못한것으로 평가되고 예상수확고가 올라가면 계획을 수행했거나 초과수행한것으로 평가되는데 두 경우 다 량심을 속이는것으로 된다.

《이것 보시오. 2작업반은 다른 작업반에 비해 훨씬 앞섰지요? 그런데 2작업반이 이렇게 특별히 두드러지게 농사를 잘 지은것은 아닙니다. 다른 작업반들에서 판정을 다시 합시다.》

로정만은 수자를 짚어가며 태연히 제기했다. 그런데 2작업반의 판정사업은 로정만이 전적으로 주관했다. 반장 윤구는 관리위원회의 지시대로 포전을 상중하로 선정하기는 했으나 매 포전에서 잘된것의 벼를 털어 평당수확고를 내고 그것을 3천으로 곱하여 정당평균수확고를 냈다. 수분함유량도 적당히 유리하게 잡았다. 다시말하여 기사장의 의도에 맞추었다.

명숙은 다른 작업반들의 판정사업에는 관심을 돌려 정확히 하도록 했으나 2작업반만은 기사장이 거기 나가있으니 관심밖에 두었었다. 명숙이 지금 그것을 후회하고있었다.

그리하여 명숙은 기사장의 제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

《그렇다면 기사장동무, 2작업반만을 다시 판정합시다.》

로정만은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명숙을 건너다보며 놀랍게 물었다.

《아니,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요?》

《기사장동무가 말했지요? 2작업반이 특별히 두드러지게 농사를 잘 지은것은 아니지만 다른 작업반에 비해 훨씬 앞섰다고, 그러니까 2작업반의 판정이 잘못됐겠지요.》

로정만의 그 태연자약한 얼굴에 경련의 파도가 스쳐지나갔다.

《난 리해할수 없구만요. 관리위원장동무는 왜 자기 농장의 성과를 제대로 장악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깎으려 합니까?》

명숙은 로정만의 속심을 알고도 남았다. 로정만이 2작업반에서처럼 다른 작업반들도 다시 판정하면 국가계획을 수행한것으로 예비수자가 나올것이라고 타산하고 재판정을 제기하는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내놓고 찍어말하지 않고 성과를 제대로 장악하려 하지 않는다고 에둘러 표현하는것이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기사장동무, 우리는 이번에 판정을 량심적으로, 과학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미달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대로 군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상수확고를 실지보다 높게 잡아서 계획을 수행한것으로 군에 보고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위원장이나 기사장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고 훈장도 타겠지요. 그러나 탈곡이 끝나 실지 생산량이 떨어지면 부득불 농장원들의 분배몫에서 떼내여 높게 잡은 예상수확고에 맞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위반하는것으로 되며 더우기는… 땅을 속이고 당을 속이는것으로 됩니다.》

흥분이 절정에 달한 로정만의 머리가 떨리였다.

《만약에… 만약에 탈곡이 끝나 실지 생산량이 높아진다면… 그건 뭐요?》

로정만이 말을 더듬을 정도로 격동을 겉에 표현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명숙이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좋은 일이예요.》

《농장원들의 분배몫이 많아져서?… 그것은 속이는것이 아니요? 적게 보고하고 많이 먹는 리기주의가 아닐가요?》

로정만의 주먹이 꽉 쥐여졌다.

명숙이는 당황해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소를 짓는것이였다.

《적게 보고하고 많이 먹는다면 리기주의일뿐아니라 범죄지요. 많이 생산했다고 허위보고를 하는것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로정만이 손으로 이마를 고이며 중얼거리였다.

《내 더 할말이 없습니다. 계획을 수행 못했다고 보고합시다. 재판정을 그만둡시다.》 하며 로정만은 명숙이가 《그렇게 하는것이 량심적입니다.》 하고 응할줄 알았다. 아니였다. 명숙은 언젠가 예상수확고판정을 량심적으로 정확히 하지 못한 로정만에게 항의했던 강현이가 그로부터 되게 면박을 받았고 그때부터 강현이를 더 나쁘게 보고 농산지도원으로서 제발되는것도 반대했다고 한 마장석의 말이 다시 상기되였다.

명숙은 저력있게 그러나 힘들게 말했다.

《아닙니다. 2작업반만은 재판정해야 합니다.》

그렇다. 명숙은 힘들게 말했다.

명숙은 로정만에게서 인간적으로 좋은 면모를 적지 않게 보면서 존경심을 품고있었다. 로정만은 명숙이를 농장에 맞이하는 날 따뜻하고 성의있게 대해주었고 그후에도 여러가지로 생활적으로 보살펴주었다. 로정만이에게 미안한 일도 있었다. 경애의 혼사문제에 서뿔리 끼여들어 비록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경애 어머니의 노염을 자아내게 했다. 로정만은 일체 그런것을 내색하지 않았다. 명숙은 로정만과 일해오며 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사업면에서 부당하다고 보는것을 받아들여야 할가.

로정만은 얼이 나간듯 명숙을 쳐다보기만 했다.

… 어느날 예고없이 도당책임비서 석영진이 잠정리에 들리였다. 평양으로 가는 도중이였다.

탈곡장에서 일하던 명숙이가 큰길로 나가니 석영진이 차성재와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석영진은 여전히 혈색이 좋고 우람찬 몸에서 열정이 넘치는듯 해보였다. 여름에도 그는 평양으로 가는 길에 잠정리에 잠간 들려 명숙이를 만나 어떤가고 물어본적이 있었다. 명숙은 새로운 눈으로 본 잠정리의 실정을 말할수도 있었으나 다른것이 없다고, 제대로 되여가고있다고만 대답했었다.

이 가을날에 다시 찾아온 석영진이 한해농사정형에 대해 물을것은 뻔했다. 비록 높아진 계획이라 해도 첫해부터 계획을 수행 못한 부끄러움과 자책감으로 명숙은 머리를 들지 못했다.

석영진이 시원스럽게 말했다.

《명숙동무, 한해동안 수고많았소.》

석영진은 명숙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얼굴이 많이 축갔구만.》

《책임비서동지, 면목이 없습니다. 부임되여온 첫해부터 계획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은 머리를 더욱 숙이였다.

《아, 내 얘기를 다 들었소. 어떻게 첫술에 배가 부르겠소. 올해 잠정리 알곡생산계획으로 말하면 지난해에 비해 105프로 장성하는 계획으로서 여기 기사장동무가 너무 높이 설정되였다고 제기하였던것이 아니요. 잠정리에 와서 첫해농사를 짓게 되는 명숙동무에게는 사실상 아름찬 과제였지. 그렇지만 동무는 그것을 접수했고 한해동안 아

글타글 애썼소. 그래 작년에 비해 상당히 전진했소. 물론 계획을 미달한데서 교훈을 찾고 분발해야지. 중요한것은 전진했다는거요. 나는 래년에도 계속 전진하리라고 기대하오.》

명숙은 눈굽이 뜨거워났다. 그는 얼굴을 들고 대답했다.

《책임비서동지, 분발하겠습니다.》

사실 명숙은 석영진이 이와 같이 고무적인 말을 해주리라고 생각 못했다. 오히려 계획을 못했다고 섭섭해할줄 알았다. 그렇기때문에 석영진에게 분발하겠다고 한 말의 밑에는 당조직에 대한 고마움의 심정이 깔려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명숙이 위안을 찾았거나 안심한것은 아니였다. 도당책임비서의 평가를 그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였다. 계획을 수행하고 이 가을에 석영진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래 더 분발하자. 우리 기사장이 다시는 그런 딱한 제기를, 예상수확고판정을 다시 하자는것과 같은 제기를 하지 않게 하자.)

명숙은 기사장의 제기를 부당하게 여기고 일축하였으나 마음은 무거웠었다. 지어 괴롭기까지 했다. 계획을 높이 받아놓고 수행할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장담한 사람이 자기가 아닌가.

한해를 돌이켜보니 국가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지 못한것외에도 적지 않은 결함들이 나타났다.

류순절이네 분조의 일도 그렇다. 분조의 계획을 수행 못해 의기소침해있는 순절이를 안개틀논에서 만나 그 논을 개량하여 수확고를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분조가 해야 할 일, 발전전망들을 토론하고 사기를 북돋아주었는데 그후 랭습지개량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있다.

류순절이가 분조모임을 열고 분조원들에게 암거를 만들어 랭습지를 개량하며 돼지를 모든 세대들에서 길러 두엄을 많이 내자고 호소했을때 반응은 미미했다. 순절이를 미타하게 여기는것이였다.

순절이는 열정적으로 호소했다.

《여러분, 올해는 제가 일을 잘 못해서 수확고가 높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해 경험을 쌓았고 방도도 명백히 섰습니다. 저를 한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래년에는 우리 분조가 농장적으로 알곡수확고가 제일 높은 분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것을 맹세합니다.》

분조원들은 그의 호소에 응해나서긴 했지만 암거를 만드는 일은 생

각처럼 쉽지 않았다. 농장에서 뜨락또르를 한대 붙여주어 돌을 날라오고 작업반에서도 인원을 좀 보충해주었으나 가을이 끝난 논판에서의 도랑파기는 수월하지 않았다. 힘들게들 곡괭이질과 삽질을 했다. 작업능률이 나지 않았다. 저녁총화모임에서 리세호로인이 제기했다.
《분조장동무, 로력점수평가에 의견이 있소.》
《네. 기탄없이 말씀하십시오.》
《저 안종기동무는 혜옥이와 같은 한공수를 주었는데 난 그게 의견이요. 내 보기에는 혜옥이가 훨씬 일을 잘했소. 나는 안종기의 로력공수를 0.8로 삭감할것을 제기하오.》
안종기가 화끈해서 맞불질을 했다.
《아니, 내가 그래 처녀애보다 일을 적게 했단 말이요?》
《난 그렇게 보았소. 공동로동이니까 손이 시려서 어물어물했소. 혼자 하는 일을 시켰더라면 아마 밑구멍이 빠지게 삽질을 했을거요.》
《그래, 령감은 한공수 받을만큼 했소?》
《그건 글쎄 대중이 평가할 일이요.》
《내 로력공수도 대중이 평가했소. 너무 전체 하지 마오! 대체 령감이 뭐길래 중뿔나게 나서서 이 야단이요?》
《난 의견을 제기했소, 분조원으로서.》
분조성원들의 분위기가 침울해졌다. 리세호의 딸이 울상을 하며 아버지를 탓했다.
《아버지, 야참! 그만해요.》
순절이도 속상해하였다.
《의견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단합의 원칙에서 정정당당하게 점잖게 의견을 내야 하고 또 받는 사람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가요? 도랑을 파고 돌을 채워넣는 일이 농사일과는 달라서 손에 익지 못해 힘이 들고 능률이 나지 않으니 신경이 예민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꼭 해야 합니다.》
어느 녀인이 걱정했다.
《지금 같아선 백날해두 소용없을것 같애! 탈곡두 빨리 해야지요?》
순절이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하긴 지금 탈곡이 급선무이다. 탈곡을 집중해서 끝내고 다시 력량을 총동원해서 암거를 만들자. 탈곡도 하고 도랑도 파자니 력량이 분

산되였다. 탈곡이 끝났을 때는 모진 추위가 닥쳐와 암거작업을 할수 없었다. 래년봄에 땅이 녹는 때에 가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다.
류순절분조외에 다른 작업반과 분조들에서도 크건작건 문제거리들이 생겨났었고 지금도 해결짓지 못하는것이 적지 않다.
(올해를 비판적으로 총화짓고 래년에는 더욱 뛰고 뛰여야 해. 어버이수령님의 신임과 사랑을 받아안은 녀성관리위원장으로서 크나큰 신임에 보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획을 미달한 락오자가 되였으니 아, 정말이지 얼굴이 뜨거워 견딜수 없구나.)
이날 밤 명숙은 제대로 잘수 없었다. 지나간 영광스러웁고 자랑찼던 나날들이 눈앞으로 흘러지나가며 자책의 감정을 더욱 짙게 해주었다.

25

허명숙은 평양에서 열리는 전국농업대회에 매번 참가하였지만 1975년 1월에 있었던 일을 특히 잊지 못하고있었다.
수령님께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농업생산의 부진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해 몸소 농업전선의 사령관이 되시여 쉬임없이 온 나라 농촌을 현지지도하시며 농민들, 농업일군들과 의논도 하시던 그 잊을수 없는 해들은 참으로 농사에서 보기드문 성과를 이룩한 해들이였다. 1973년에 풍년을 이룩한 뒤 농업생산은 1974년에 다시 비약하였다. 이 성과가 이듬해 1월의 전국농업대회에서 총화되였다. 이 대회는 감동적인 일화가 많은것이 특징이였다. 대회에서는 태성할머니의 둘째며느리 리옥상이 토론하였는데 수령님께서는 20여년전에 만나시였던 할머니를 추억하시며 동무네 가정이 어데 있는가 했더니 고창에 있었구만, 이 동무의 시어머니는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힘을 주고 고무를 해준 잊을수 없는 할머니요 라고 말씀하시였다.
이 대회에 참가한 연백벌의 관리위원장 허명숙은 무거운 몸이였다. 회의에서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는 수령님을 뵈옵고 또 농사에서 큰 성과를 올린 관리위원장들과 작업반장들, 농업과학자들의 토론을 들

으며 몹시 격동된데다가 긴장한 일정을 보낸탓인지 해산예정일이 앞당겨져 집으로 돌아가려고 평양역에 나가 기차를 기다리는 사이에 진통이 시작되였다.

군당책임비서(이전의 군당위원장)가 녀성관리위원장 한명을 붙여주어 직접 역에서 가까이에 있는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명숙을 데리고 가도록 보살펴주었다.

《명숙동무, 좀 참소.》

군당책임비서는 진통을 이겨내느라 신음하는 명숙을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명숙은 진통이 올 때면 오만상을 찌프리고 신음하며 세상만사를 다 귀찮아 하였지만 진통만 멎으면 평온한 얼굴로 책임비서동지, 참 안됐습니다, 어서 가보십시오, 차시간이 됐습니다 하고 인사차림을 하기에 분주했다.

책임비서는 그를 산부인과에 입원시키고 같이 데리고온 관리위원장을 떨구어둔 다음에야 역으로 나가며 명숙을 고무해주었다.

《용감성을 발휘하오. 아들이 태여날거요. 옥동자를 보면 이 늙은 책임비서를 고맙게 생각해야 해.》

명숙은 웃으며 《그러지 않아도 고맙습니다. 잘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다가 다시 배를 그러쥐였다.

새벽에 딸을 낳았다. 명숙은 명옥이가 시집을 가자 《아, 이제는 2 대 2, 력량관계에서 균형이 보장됐소.》 했다가 두번째 자식으로 딸이 태여났을 때 《이 집은 녀자가 득세하는 집이구만.》 하고 롱을 하던 남편의 얼굴이 방불하게 떠올랐다. 이번에도 딸을 낳았으니 남편이 또 뭐라고 롱을 할가? 롱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서운해할거야. 딸만 해도 셋을 낳았다.

남편이 그리웠다. 아마 집이나 진료소에서 해산했다면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가시어머니에게 《저 어머니, 들어가봐도 됩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묻고는 《좀 있다 들어오게.》 하는 대답을 듣고 실망했을 사랑하는 남편, 밤에 들어와서는 얼굴에 주름진 애기를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해쓱해서 누워있는 안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갑자르다가 《수고했소.》 겨우 이 한마디를 할 남편. 하지만 그 짧은 말속에 얼마나 깊은 애정이 담겨져있는가.

순산을 했고 후탈이 없으니 옆에 떨어졌던 녀성관리위원장을 등을 밀어 보내였다. 보내며 집에 련락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동무마저 없으니 허전했다. 다른 산모들에게는 시어머니, 본가집어머니, 남편들이 련이어 찾아오는데 명숙이에게는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어머니와 남편생각이 더 간절했다.

남편은 딸이름을 뭐라고 지을가? 《재》자 돌림으로 딸들을 재련, 재옥이라 지었으니 《재》 뭐라고 지을테지. 군당책임비서동지는 아들을 낳을거라고 하며 자기를 고맙게 생각하라 했는데 이제 만나면 뭐라 할가? 《딸이 재산이야.》 할가? 하긴 군당책임비서동지가 할말을 못 찾을가… 온종일 이러루한 상념속에서 보냈다.

이튿날 아침, 느닷없이 과장선생이 간호원과 함께 신중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호실안을 쭉 훑어보았다.

《호실안을 빨리 정돈하시오.》

그는 간호원과 함께 산모들까지 껴들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호실안이 이게 뭐요. 기저귀, 식기… 5분내로 하시오.》

호실안이 소란해지는 속에서 과장이 명숙이에게로 다가와 방금전의 엄하던 표정을 싹 없애고 친절하게 물었다.

《일어설수 있겠습니까?》

《예.》 하고 명숙은 일어서려 하였다.

과장은 급히 손으로 제지했다.

《아니아니, 좀 있다. 이제 간부동지들이 옵니다. 그때 잠간 일어서면 됩니다.》

《무슨?…》

《곧 알게 됩니다. 머리카락이랑 좀 손질하시오.》 하며 과장은 자신이 직접 하불을 당겨 주름살이 펴지게 하고 베개도 바로 놔주었다.

과장이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사람들이 오는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무슨 일일가? 무슨 간부들이 올가?)

명숙은 기껏 자기가 녀성관리위원장이니 병원측에서 관심을 돌리는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정도로 추측하고있었다.

문이 열리고 과장이 먼저 들어와 명숙이에게로 다가왔다. 명숙이가 일어서려 하자 과장은 《가만있으시오.》 하고 조용히 일렀다. 뒤이

어 대학병원 당비서의 안내하에 몸가짐과 차림새가 세련된 중년의 키가 후리후리한 남자가 서류철같은것을 들고 들어왔으며 그다음으로 안경을 번뜩이며 원장이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명숙의 침대앞에 와 섰다.

과장이 신호하여 명숙이가 일어섰다.

중년의 키가 후리후리한 남자는 수령님의 서기였다. 그는 명숙이에게 건강이 어떤가고 물었다.

《좋습니다.》

명숙이 대답했다.

그는 머리를 끄덕이더니 서류철을 펼치고 정중하게 말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어제 허명숙관리위원장동무가 농업대회에 참가하고 돌아가려다가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해산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참 잘됐소. 농업대회에도 참가하고 아이도 낳고… 아주 좋은 일이요. 허명숙이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의 정을 모르고 자랐소. 우리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애기옷이랑 애기어머니보약이랑 보내줍시다.〉》

아, 수령님!

뜨거움이 가슴에 꽉 차오르는 순간 명숙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목이 메이였다.

놈들의 매질과 칼질에 얼굴이 알아볼수 없게 되였던 아버지의 주검, 어머니의 통곡소리, 어린 딸들의 애절한 울음소리, 폭격에 집마저 허물어져 집을 지을 재목을 찍으려고 언니와 함께 산에 갔다가 벼랑에서 딩굴어 허리를 상한 어머니, 이를 사려물고 눈물을 씹어삼키며 아버지의 원쑤를 갚기 위해 어머니와 딸들은 일어섰다. 대지에 두발을 딛고 일어서서 생활을 개척해나갔다.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며 전시식량생산과 전후 농업협동화운동에 자그마한 흔적들을 남기였다. … 이렇게 지나간 일들이 한순간에 머리에 번개처럼 스치였다.

이어 수령님의 모습이 환하게 떠올랐다.

《놈들이 아버지를 빼앗아갔구만. … 나는 피살자유자녀들을 만나본 날이면 가슴이 아파 잠이 오지 않소. …》

그이께서 하신 말씀…

명숙이는 격정의 파도에 휘말려들었다. 다른 산모들도 경건한 심정을 금치 못했다.

서기는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이 트렁크들과 지함들을 침대곁에 날라왔다.

《이것이 선물명세입니다.》

서기는 명세를 읽어주려 했으나 명숙이가 울고있기에 그만두고 말로 설명하였다.

《계절에 따르는 갖가지 갓난아이옷들, 포단, 애기보약과 산모보약입니다.》

명숙은 눈물에만 잠겨있어서는 안되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물기어린 눈으로 받아든 선물명세를 들여다보고 트렁크들과 지함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꿈속에 잠긴듯 하였다.

《허명숙동무, 수령님께서는 아이를 잘 키워서 이다음에 훌륭한 일군이 되게 하라고, 이 말을 명숙동무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애기어머니가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농사를 잘 지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명숙은 선물명세를 가슴에 꼭 안았다.

《할말이 없소, 관리위원장동무?》

당비서가 물었다.

명숙은 수령님께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농사를 더잘 짓겠다는 맹세를 올리고싶은 열망으로 가슴이 뻐근해났다. 하지만 숨이 차올라 말을 할수가 없었다. 보다는 꼿꼿하게 서서 공식적으로 말하고싶지 않았다. 수령님께서 아버지를 대신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결의를 다지는 자식이 어데 있겠는가.

《아, 됐습니다.》

서기가 입을 벌린채 말을 못하고있는 명숙의 심정이 리해되는듯 손을 가로저었다.

《천천히 얘기합시다. 힘들겠는데 앉으시오.》

흥분때문에 가슴이 떨고있을뿐아니라 다리도 후들거려 겨우 서있던 명숙은 서기를 고맙게 여기며 침대에 걸터앉았다. 과장이 옆에서 친절하게 거들어주었다.

의자에 앉은 서기가 다시 산모와 아이의 건강상태를 물어보고 언제

쯤이면 퇴원하는가, 집에는 련락을 했는가, 산모를 데리러 남편이 오는가 하는 생활적인 이야기로부터 농장에서 작년에 농사를 어떻게 지었는가, 애로는 없는가 등등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에로 넘어가며 한동안 담화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기가 물었다.

《수령님께 전해드릴 말이 없습니까?》

명숙은 고개를 들고 어딘가 수령님께서 계실듯 한 곳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뜨거운것이 가슴속에서 끓고있었다.

《서기동지, 어버이수령님께 이 딸이 일을 많이 못했다고, 은혜에 꼭 보답할 결심을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려주십시오.》

침대옆에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한 사람들은 유감스러운 표정을 짓는가 하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유감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고맙다는 인사는 없고 결의도 좀더 길고 격동적으로 했으면 하는 심정이였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이 딸》이라고 한 말에서 녀인의 깊은 진정을 들여다보았던것이다. 서기는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말했다.

《알겠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의 그 진심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가 떠나갔고 같이 왔던 사람들이 다 갔다. 그러자 침묵을 지키고있던 산모들이 달려와 명숙을 축하해주었다.

《아니예요. 저는 이렇게 귀중한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못됩니다. 저는 연백벌에서 아직 벼정당수확고를 높은 수준으로 올리지 못했고 농장원들의 분배몫도 많지 못합니다. 신임은 큰데 일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농업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충격을 그대로 말한 진심이였다. 이 진심을 그는 서기에게도 말했었다.

다음날 신호석이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들어왔다. 그는 왜 그런지 좀 성난것 같았다. 남편을 보자 명숙은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 고이였다. 눈물어린 눈에는 웃음이 담겨져있었다. 그 눈을 피하며 호석이 말했다.

《건강이 어떻소?》

남자답게 무뚝뚝하면서도 정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아주 좋아요. 애기를 보겠어요? 애기방에 있는데…》

《좀 있다.》

《미안해요. 딸을 낳았어요. 성났어요?》

《딸이 무슨 상관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당신에게 성을 내겠소? 우리 집안에 대경사가 나지 않았소! 내 다 들었소. 과장선생한테서… 다 들었소. 그리고 여기로 걸어오며 집에서 지어가지고온 아이이름도 고쳐지었소. 〈보은〉이라고 말이요. 이 크나큰 은혜를 우리 집안모두가 잊지 않고 보답해야 한다는 의미요. 반대없겠지?》

격정이 끓어오른 명숙은 남편을 쳐다보며 겨우 머리를 끄덕이기만 했다. …

어버이수령님의 대해같은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 계속 성과를 올리는데서 특출하게 공헌한 허명숙의 위훈이 평가되여 보은이를 낳은지 3년후 가을에 그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26

설날에 류순절은 새해에는 분조원들의 단합을 실현하고 분조농사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할 결심을 품고 우선 나이 많은 분조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분조원세대를 찾았다.

먼저 안종기네 집에 들리였다.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는데 털이 부르르 일어서고 대가리가 엄청나게 크며 상판대기가 괴상하게 생긴 수개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순절이가 처음 이 집에 찾아왔을 때 이발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였던 이 늙은 수개는 어느새 면목을 익혔는지 반갑게 마중나오는것이였다. 그래도 순절이는 경계심을 품고 《주인 계시나요?》 하고 찾으며 조심스럽게 마당을 걸어들어갔다.

안종기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아버님, 새해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순절은 머리숙여 인사를 했다.

《어, 분조장두 새해에 건강하구 복 많이 받으라구.》

《고맙습니다.》

《추운데 어서 들어오라구.》

순절은 방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안종기네 터밭을 돌아보았다. 이 추운 날에도 터밭에 비닐박막으로 온실을 만들어놓고 남새들을 재배하고있는것이 희한했다. 개인리기주의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있지만 바로 이처럼 겨울날에도 쉬지 않고 오륙을 놀려 각종 남새를 가꿔 생활보탬을 하고있으니 안종기네가 다른 농장원세대보다 수입이 높은것은 응당한 귀결이다.

방안으로 들어간 순절은 목도리를 벗으며 안종기네 식솔들과 새해인사를 나누고 그들이 권하는대로 따뜻한 아래목에 앉았다. 나이 어리지만 분조장이라고 대우하는것이였다.

순절은 터밭의 온실에 관심이 컸다.

《아버님네는 저 온실에서 어떤 작물들을 재배합니까?》

순절의 물음에 안종기는 대머리를 쓰다듬으며 좀 어색해하였다.

《그건 알아서 뭘하겠니?》

《신기해서 그래요.》

《신기하기까지야 무슨… 난 여기다가 심을수 있는건 다 심는다. 올감자, 완두, 무우, 배추, 오이… 이런것 말이다. 네가 들어오면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운 겨울에는 잘 안된다. 그래 남새를 좀 심지.》

《여름에는 온실이 필요없겠지요?》

《필요없다. 그래서 올감자, 강냉이같은것을 심고 남새를 또 심는다.》

《그러니까 이 터밭에서 2모작을 하겠군요?》

《어떤것은 3모작까지 한다. 세벌농사지.》

순절은 입을 딱 벌리였다.

《그러니까 이 터밭수입이 대단하겠습니다.》

《어험, 뭐 그저 좀…》

순절은 눈을 깜빡이며 한동안 속궁냥을 하였다. 안종기는 그가 개인리기주의를 한다고 자기를 탓할 말을 고르는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순절은 관리위원장 명숙이가 해주었던 이야기를 상기하고있었다. 명숙은 안종기가 일하고있었던 남새반 3분조에 갔던 이야기를 했었다. 남새반 3분조는 비닐박막으로 온실을 지어놓고 겨울에도 값나가는 남새를 재배하고있었는데 그것은 안종기의 착상에 의한것이라고 하였다. 안종기는 이처럼 자기 집 터밭농사도 잘 지을

뿐아니라 분조의 남새생산에도 특기할 공헌을 하였으니 별로 미움을 받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남새반 3분조장은 안종기가 농산반으로 간것을 아쉬워하였다. 류순절이는 명숙의 권고대로 안종기의 터밭농사열성을 분조를 위한 열성으로 이끌어갈 생각으로 이렇게 물었다.

《아버님, 우리 분조에서 2모작하는 밭들을 보았지요?》

《보았지.》

안종기가 대답했다.

《어때요?》

안종기는 손으로 대머리를 쓰다듬었다.

《신통치 않아.》

《옳아요. 신통치 않아요. 그런데도 여태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했지요?》

순절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것인지 짐작이 되여 안종기는 좀 당황해했다. 그는 대답을 피했다.

《아버님은 응당 나한테나 분조원들한테 두벌농사를 이렇게 하면 쓰겠느냐고 말했어야 했고 아버님자신이 분조의 2모작을 여기 터밭에서처럼 알심있게 짓기 위해 노력했어야지요. 안 그런가요?…》

안종기는 바빠나서 어험어험 헛기침만 했다. 그는 순절이가 그것이 개인리기주의때문이 아닌가고 보다 심각하게 말할것 같았다.

그러나 순절이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우리 분조에서 생산량을 늘이기 위해서 2모작을 더 많이 하고 더 잘하자고 해요. 그러니 아버님이 터밭에서 하는 2모작의 경험을 살려서 분조에서 하는 2모작농사에서 앞장서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분조원들은 2모작이 힘들다면서 달가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님네 터밭을 보니 힘들어도 더 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굳어집니다.》

안종기가 드디여 입을 열었다.

《분조장말이 옳아. 2모작을 하면 힘이 그만큼 더 든다. 내가 터밭에서 2모작을 극성스럽게 하는게 그만큼 힘이 더 드는거야. 그래두 그렇게 하니 수입이 늘거던. 땅이 거저 주는 법은 없지. 분조장, 분조사람들이 모두 각오하고 달라붙으면 해낼수 있어.》

《해낼수 있지요? 아버님이 앞장서줄수 있지요?》

《허허…》

순절이는 안종기가 자기의 부탁을 받아들인것으로 인정했다. 안종기가 앞장서서 자기의 터밭농사경험을 살려 분조의 2모작농사를 추켜세우면 분조는 더 많은 생산물을 낼것이고 수입도 물론 늘어날것이다. 순절이는 기운이 났다.

물론 안종기가 실천단계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집단을 위해 노력하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당조직에서 일깨움을 주었고 관리위원장도 안종기의 결함만 보지 말고 우점을 살려 실농군으로서 집단을 위한 일에 발벗고나서도록 부단히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순절이는 농사경험으로 말하면 안종기에 대비도 안된다. 그러나 아무리 실농군이고 나이가 퍽 많다 해도 안종기에게 부족한것이 처녀에게는 있었다. 순절이자신이 그것을 느끼고있었기에 안종기를 당에서 바라는대로 옳게 이끌어갈 결심이 확고했다.

순절이는 집으로 가며 이제 봄이 오고 땅이 녹기 시작하면 랭습지를 개량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두벌농사를 착실하게 하며 분조성원 매 농가에서 돼지를 2마리씩 기르는 등 타산을 하느라 길까지 헛갈리였다. 돼지를 기르면 고기를 먹을수 있고 현금수입을 높일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퇴비를 많이 질적으로 생산하여 논밭에 낼수 있다.

지금 적지 않은 농가들에서 돼지들을 기르고있으며 2마리이상 기르는 농가들도 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농가들에서 다 2마리씩 기르고 있지 못했다. 류순절이네 분조만 보아도 그렇다. 그래서 순절이가 결심한것이였다. 새해에는 농사를 잘 지어 분배몫을 결정적으로 높이려는 결심에서 이런것, 저런것들을 타산해보니 좋은 방도들이 떠올랐다.

며칠후 저녁시간에 순절은 관리위원장을 찾아갔다. 목도리를 두르고 솜옷을 입은 순절은 키가 크고 어깨도 너부죽해서 웬만한 남자로력자보다 건강해보였다. 추위에 빨개진 뺨에서는 싱싱한 젊음이 넘치고있었다.

《순절분조장이 어떻게?》

년간총화보고서를 쓰고있던 명숙이가 반갑게 맞아들이였다.

순절이는 설날에 안종기네 집에 가보았던 일과 거기서 그와 한 약속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래, 응, 잘했어! 안종기동무가 실농군이고 경우도 밝은 사람이

니까 딸자식같은 처녀분조장이긴 해도 분조장에게서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기특히 여겨 감수했을거야. 참, 기쁜 일이구나. 글쎄 약속 하나로 다 해결되는것은 아니니까 부단히 자극을 주고 이끌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출발이 좋아요. 두벌농사를 잘해보자구.》

명숙은 순절을 치하하면서 자신도 기분이 뜨는것을 어쩌지 못했다.

《위원장동지, 저는 이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순절은 벗어든 목도리를 두손에 쥐고 앉아서 새로운 문제를 꺼냈다.

명숙은 이 처녀분조장이 또 어떤 계획을 내놓으려는지 흥미를 가지고 《어서 말해, 어떤 계획인지?》 하고 재촉했다.

《새해에 우리 분조는 랭습지를 개량하는 동시에 돼지들을 매 세대당 2마리씩 의무적으로 길러 고기도 생산하고 중요하게는 논밭에 낼 두엄을 해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돼지목장에 가서 돼지새끼들을 사다가 세대별로 나누어주려 합니다.》

(이 처녀의 지혜는 샘솟듯 하고 열정은 불길처럼 타오르는구나. 그 열정이면 당정책관철에서 두려울것이 무엇이랴!)

명숙은 감동되였다.

순절은 실농군들의 집에 가보면 돼지를 많이 먹이고있기때문에 늘 세대별 거름생산에서 앞서고있는것임을 절감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음, 아주 좋아. 달구지를 가지고가서 실어오라구, 돈은 부기실에 가서 타고.》

명숙이 적극 지지하고 고무해주자 류순절은 신이 나서 어쩔줄 몰라했다. 명숙은 순절이에게 돼지새끼들이 얼지 않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래일 떠나라고 일렀다.

순절이를 보낸 후 명숙은 장차로 이 모범을 일반화하여 모든 분조들에서 돼지새끼들을 가져다 기르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돼지새끼들을 모든 분조세대들에서 2마리이상 의무적으로 먹이도록 하려 한 류순절의 시도가 실천단계에서는 약간한 곡절을 겪게 되였다.

이튿날 순절은 관리위원장이 일깨워준대로 돼지새끼들이 수송도중에 얼거나 기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끝낸 다음 그것들을 얼른 달구지에 싣고 경섭이와 창길이를 목장에 보냈다.

그렇게 사온 돼지새끼들을 분조원들의 집집에 나누어주었다.

닷새쯤 지났다.

혜옥의 어머니가 괴롭게 소리지르는 새끼돼지가 든 자루를 둘러메고 류순절의 집을 찾아왔다. 새끼돼지들의 꿈틀거림이 뒤잔등에 심하게 느껴졌다.

《분조장 있나?》

순절이네 집앞에 이른 녀인이 소리를 쳤다. 아침밥을 먹던 순절이가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무슨 일이야요?》

《새끼돼지를 가져왔어.》

혜옥이 어머니는 돼지들이 꽥꽥거리며 꿈틀거리는 자루를 마당에 내려놓았다.

《아니, 그건 왜요?》

순절이가 놀란다.

《우리 집엔 사료가 없어서 당장은 돼지를 기르지 못하겠다니까.》

《매 분조원세대들에서 2마리씩 기르기로 하지 않았어요?》

마당으로 나온 순절이가 울상을 했다.

《그런데 글쎄 먹일게 없다니까.》

《그럼?…》

《사료가 장만되는 차제로 기르겠다니까. 이 돼지는 분조장이 처리하라구. 어디다 꺼내놓을가?》

혜옥이 어머니의 눈길은 순절이네 돼지우리로 돌아갔다.

《혜옥이 어머니, 이러면 안되지요.》

《그러면 새끼돼지를 굶겨죽이라나?》

한창 이러는데 순절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왔다. 순절이 어머니는 마음이 후한 녀자이지만 혜옥이 어머니의 처사가 괘씸해서 한바탕 해댔다. 하지만 저쪽은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당초에 결심을 단단히 하고 온 사람이라 《다른 분조사람은 상관마오.》 하며 새끼돼지가 든 자루를 들고 돼지우리로 가려 했다.

분조를 조직할 당시 순절의 아버지, 어머니는 4분조성원이였다.

《내가 4분조사람이지만 우리 딸애가 2분조장이니까 우리 집에서도 돼지새끼를 기르는데 왜 상관말아야 하우?》

순절이 어머니 옥화가 지려 하지 않았다.

《더구나 분조장이라구 세마리를 치는데 혜옥이네가 두마리를 가져다놓으면 다섯마리가 아니요? 그래, 자기네는 두마리도 못 치겠다면서 우리더러 다섯마리를 치라는건 도대체 무슨 심보요?》

《누가 당장 가져다달랬나? 그러니까 분조장이 책임져야지.》

《너무하구만.》

《뭐가 너무하우?》

이러는데 순절이 아버지가 꽥 소리쳤다.

《그만들 하라구.》

그는 새끼돼지들이 그냥 꽥꽥거리는 자루를 들고 돼지우리로 가서 자루안의 새끼들을 꺼내여 놓아주었다.

《자, 자루를 가지고 어서 가오.》

그는 빈 자루를 혜옥이 어머니에게 주었다.

혜옥이 어머니는 빈 자루를 나꿔채다싶이 하여 받아쥐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옥화가 마당에 아연하여 서있는 딸에게 화를 터뜨렸다.

《야, 너는 농사나 착실하게 지을게지 새끼돼지는 왜 서둘러 실어다가 나누어주며 부산을 피우니? 네가 우리 돼지우리에 가져다넣은것에다가 혜옥이네것까지 치자면 네 애비에미가 고생하지 네가 고생할것 같니?》

《엄마!》 순절이는 금시 울음을 터뜨릴것 같았다. 《내가 몇번 말했어요?》

《난 모르겠다. 안개틀논에는 왜 암거를 만들면서 분조원들이 불만을 품게 하는가 말이다. 네가 하는 일이 다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일이지 어디 칭찬받을 일이냐?》

순절이 아버지가 굵직한 저음으로 끼여들었다.

《그만하우. 고생이란 소리는 함부로 쓰는게 아니야. 농사군이 농사를 잘 짓자고 애쓰는게 고생인가. 애써 일하는것만큼 잘사는 세상인데 무슨 고생이야. 해방전에 지주놈한테서 학대받던걸 잊었소? 그게 고생이요, 남에게 다 빼앗겼으니까. 저를 위하는건 고생이 아니지.》

남편에게 꼼짝 못하는 옥화는 입을 다물고 방안으로 들어가버렸다. 아버지가 딸을 보고 들어가서 아침밥을 마저 먹자고 해서 순절이도 뒤따라 들어갔다.

어성버성한 분위기속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순절은 이날 저기압상태였다.
또 다른 집에서 당장은 새끼돼지를 못 치겠다고 가져올수 있었다. 어머니에게 미안했다. 어머니가 말한것처럼 돼지를 먹이는것은 부모들이 했다. 순절은 분조사업때문에 언제 집안일에 정신을 돌릴 겨를이 없었다.
순절이네 집에서는 원래 치던 돼지까지 해서 모두 일곱마리를 먹여야 할판이다. 하지만 부모들이야 딸을 리해하고 도와주려 하지 욕으로 그치지는 않는다. 어머니가 순절이를 욕한것도 따져놓고보면 딸이 벌려놓은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한것이였다.

27

탈곡이 끝나자 벼실수확고가 확정되였다. 역시 국가알곡생산계획 미달이였다. 농장에서 명숙관리위원장의 엄격한 통제하에 예상수확고판정을 정확히 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군적인 총화에서 잠정리농장은 계획을 미달한 농장들중의 하나로 평가되였다. 로정만은 언제나 자세를 낮추지 않는 성미여서 머리를 숙이고있지는 않았지만 총화회의에서 눈길을 들지 못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총화회의에는 군당책임비서가 참가했는데 원래 로정만은 군적으로도 기사장사업을 잘하고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여 참가자들중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인물이였다. 그래서 그는 군당책임비서의 눈길을 피하고있었다.
회의에서 잠정리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했다. 어쨌든 작년에 비해 알곡생산이 장성했던것이다. 만일 계획을 높이 세우지 않았더라면 올해는 계획수행의 평가를 받는것인데!…
회의가 끝난것은 저녁무렵이였는데 경영위원장 한광훈이 로정만을 별도로 찾았다. 회의도중에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대중앞에서 할말을 삼가했다가 개별적으로 하려는것일가? 이렇게 생각하며 로정만은 경영위원장방으로 들어갔다. 회의뒤끝이라 그 방안은 한동안 분주했다. 로정만은 캄캄해진 창밖을 내다보며 걸상에 앉아서 기다렸다.

마침내 둘이 남게 되자 한광훈이 그에게 눈길을 돌리였다.
《기다리게 해서 안됐소.》
키가 크고 훌쭉하지만 뼈마디 굵은 한광훈이 솜옷을 입으며 말했다.
《오래간만에 저녁식사나 같이하자구 남으라고 했소.》
(뭐, 저녁식사?!)
로정만은 어처구니없어했지만 한창 바쁜 때에 한광훈이 그저 저녁식사나 같이하자는 단순한 목적만으로 남으라고 하지는 않았을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일어섰다.
한광훈이는 송수화기를 들고 식당을 찾았다.
《자, 가자구.》
그는 서있는 로정만의 등을 떠밀었다.
그들은 승용차를 타고 《봉호식당》이라는 곳에 이르러 조용한 식탁에 가서 앉았다. 룡성맥주와 마른 안주가 먼저 들어왔다. 한광훈이는 맥주를 고뿌에 부으며 사담부터 시작했다. 한광훈이 어떻게 아는지 경애의 혼사문제를 꺼내였다.
《아니, 난 경애를 당장 시집보내려 하지 않소. 그 애자체가 싫다고 하지. 그런데다가 녀편네가 당신네 경영위원회 지도원과 붙여주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좀 복잡했댔소. 그래서 본인에게도 녀편네에게도 다시는 혼사문제를 입에 올리지 못하게 단단히 신칙했소. 딸년은 워낙 농사를 더 짓고 시집가겠다고 했으니 두말 없고 녀편네가 앙탈을 부렸지만 눌러놓았소.》
로정만이가 처한테 꼼짝 못한다는것을 알고있는 한광훈은 벙긋이 웃었다. 눌러놓았다고 하는 말을 믿을수 없었던것이다.
하면서도 말은 정당하게 했다.
《그런가. 명숙관리위원장이 뭐 어쨌다는 소리도 있는데 기사장동무야 다르게 생각하지 않겠지.》
《관리위원장은 경솔한 녀자가 아니요.》
《그럴테지.》 한광훈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자, 마시오. 내야 주류를 못하는 사람이니 혼자서 마시오, 미안한대로.》
그는 로정만에게 맥주를 또 부어주며 자기는 안주만을 집었다. 그는 주류는 못하지만 식성이 좋아서 식사를 많이 하는데 영양물이 뼈

로 다 가는지 이상하게 뼈대만 굵고 몸이 여위였다.
《그러면 국수를 들여오게 할걸.》
로정만이 념려하는 소리에 그는 손을 내저었다.
《아, 천천히 같이합시다, 이야기나 좀 하다가… 이것 보오, 로동무. 나를 원망했겠지? 동무가 지꿎게 제기한대로 작년계획을 좀 낮추정했더라면 계획을 했을게 아니요?》
《글쎄 그랬을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만일 허명숙이 아닌 다른 관리위원장이 왔더라면 낮추 정한 계획도 못했을수 있었을지 어떻게 알겠소.》
한광훈이는 새삼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허명숙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가? 하긴 군에서도 허명숙관리위원장을 평가하고있었다. 그보다 앞서 잠정리에 들린 도당책임비서 석영진이도 농장이 계획을 미달했지만 전진했다고 허명숙을 고무해주었었다. 허명숙에 대한 락관적인 이러한 평가에 로정만이 편승하는지, 실지 좋게 보는지? 로정만이 오랜 농업일군이고 대범한 사람이니 그도 달리 보게 되지는 않을것이다.
《로동무가 계획을 낮추는 문제를 가지고 허명숙이와 언쟁을 좀 했다던데?》
한광훈이 각도를 달리하여 물었다.
《그렇지만 경영위원장동무도 한 말이 있지 않소? 잠정리는 잠재력이 있다고 도당책임비서에게 말했지요.》
《허허… 그건 사실 옳은 소리였지.》
《아니, 허명숙이는 당신의 말을 듣고 맹목적으로 군경영위원회가 떨군 수자를 받아문게 아니요.》
《그럼?…》
《명숙관리위원장은 오자마자 단독으로 작업반들을 분조들에까지 들어가 료해하였고 현존하는 농장의 결함들을 장악하였소. 이에 토대하여 우리 농장은 잠재력이 있으며 군에서 시달한 계획을 수행할수 있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렸소.》
로정만은 그러한 관리위원장을 긍정하고 지지하는지 또는 부정하는지 알수 없는 거의 무표정한 얼굴로 딱딱하게 말했다. 맥주기운이 얼굴에 뻗쳤지만 그는 워낙 주류를 마시여도 얼굴색이 불깃해지지 않는

사람이였다.

《그것은 좋은 일인데, 그런데 왜 계획을 못했소?》

한광훈이 눈을 쪼프렸다.

《경영위원장동무 생각에는 우리 농장의 실정을 다년간 거기서 기사장을 하고있는 내가 잘 알것 같소, 아니면 며칠간을 료해한 새 사람이 더잘 알것 같소?》

《그거야 당신이 더잘 알겠지. 그러나 새 사람이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보면 당신이 만성화되여 느끼고 보지 못하는 중요한것들을 발견해낼수 있다는것을 부인할수 없을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관리위원장이 이 기사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참작했어야 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단 말이요. 나는 허명숙에게 오자마자 너무 목표를 높이 걸지 말라고 권고했소. 허명숙동무는 녀성으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담이 크고 진취성이 강하오. 거기다가 도당책임비서가 직접 데리고왔으니 첫해부터 실적을 올려야 하겠다는 주관적욕망이 보태여졌을것은 뻔하오. 허명숙동무는 물론 녀성으로서 사람들, 특히 나이가 이상되는 사람들에 대한 례절이 밝고 씨원씨원하고 명랑한 성품을 지니고있소. 그러나 사업에 들어가서는 지내 주견이 강하고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요. 그래도 잠정리에서 기사장을 십년 가까이 한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문제들이 있을게 아니겠소. 도당책임비서도 그에게 우리한테서 배울것은 배우라고 했단 말이요.》

《동시에 그 무엇에 구애되지 말고 생신한 새로운 눈으로 수령님의 교시를 자막대기로 하여 농사실정을 들여다보라고 했소. 기억나오?》

한광훈의 충고를 인정해야 하는 로정만은 이마살을 알릴듯말듯 찡그리였다.

《기억이 나오. 그러나 주관이 강했소. 허명숙동무는 여러가지로 새로운 착상들을 내놓았는데 그에 대한 기사장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소.》

《가령?…》

《가령 자체로 농사를 짓는 문제를 들수 있소. 나와 농산지도원은 우리 농장이 아직 거기에 준비되여있지 못하다고 설복하고 또 설복했지만 허명숙동무는 한개 작업반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끝까지 우기였소. 오자마자 모험을 하다가는 가뜩이나 높이 세워진 계획을 수행 못할수

도 있기때문에 나는 걱정이 되여 잠을 제대로 못 자기까지 했소. 허명숙동무가 그냥 우기게 된데는 5반기술원 강현의 작용이 컸단 말이요. 내가 강현이로 말하면 머리가 좋고 탐구심이 있으나 소총명이 강하고 실천에서는 작업반규모이상을 맡아할 능력이 없다는것을 깨우쳐주었지만 허명숙동무는 나의 충고는 듣지도 않았소. 강현은 3대혁명소조기간 일을 잘해서 아마 도농촌경리위원회에 배치까지 받았지만 현장으로 진출한 유능한 전문가로 인정받고있는것 같은데 그 사람 역시 주관이 강하고 책에서 배운대로 현실을 대하는, 아직 대학생티를 벗지 못한 젊은이요. 그 젊은이의 말은 절대시하고 기사장을 오래 한 나의 말은 듣지 않는데 대해 나는 노엽게 생각하고 허명숙동무에게 내놓고 말하기까지 했소. …》

한광훈이 손을 살짝 쳐들어보이였다.

《자, 이젠 알겠소. 됐소. 그래서 두사람이 손발이 잘 맞지 않았겠지요. 로동무! 이제부터 내 말을 들으시오. 동무가 방금 한 말들은 내가 이미 알고있는 내용이요. 내가 정만동무를 여기 데리고온것은 그런 얘기나 듣자고 해서가 아니요.》

(기껏 듣고나서 한다는 소리가?)

로정만은 노엽게 한광훈이를 건너다보았다. 그리고 제 손으로 맥주병을 쥐고 자기 고뿌에 부어가지고 단숨에 쭉 냈다.

《그렇다면 내 이야기를 막아치우든가 듣지 말았어야지요. 다 듣고나서는 이미 알고있는 내용이라니 싱겁지 않소?》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안하오. 하지만 기사장동무의 립장을 들어보는것이 무익하지는 않았소.》

《그래, 무엇때문에 나를 여기 데리고왔소?》

한광훈이는 잠시 마른 낙지만 씹었다.

《로정만동무.》

이윽하여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알게 된지도 어언 20년이 넘었지.》

이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하면서도 비장한 감정이 담겨져있는듯 하였다.

《우리는 경영위원회에서 같이 일했고, 그때 나는 부장, 기사장을 했고 당신은 지도원, 부장을 했지. 그리고 그후 당신은 잠정리 기사

장으로, 나는 군경영위원장으로 한청사안은 아니지만 같은 군안에서 일하고있소. 싸움도 여러번 했고 회의도 같이 다녔소.》
로정만은 까딱하지 않고 딱딱한 얼굴로 앉아 들었다.
《나는 로동무를 잘 아오. 붙임성은 적지만 솔직하고 책임적이요. 잠정리가 알곡생산계획을 하는데 공로가 컸소. 이전 관리위원장도 잘했지만 기사장 로정만이도 패기있게 일했소. 나는 당신같은 사람, 농장에서 다년간 일하며 경험을 쌓았고 실적을 올린 사람을 군경영위원회에 다시 끌어올려 같이 손잡고 일하면 우리 군이 10만톤군으로 되는데 유익하리라고 생각했고 당신에게 그것을 말했댔소. 유감스럽게도 이전 관리위원장의 병이 심해지고 본인이 제기하기도 해서 해임시키지 않을수 없었고 새 관리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소.》
까딱 움직이지 않고 듣고있던 로정만이 신경질적으로 그의 말허리를 잘랐다.
《당신이 무얼 말하자는건지 알만 하오. 그래서 나를 군에 소환하려 했던것이 보류됐다는 소리겠지요. 나도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다 짐작하고있었소. 그래 미안하게 됐다는 소리를 하자는거겠지.》
로정만의 눈이 차겁게 번뜩이였다.
《아닌게아니라 참 안됐소. 로동무가 리해하여주오.》
《여기에 무슨 리해하고 안하고 할게 있소? 군경영위원회에 소환하겠다고 한것은 당신이 말한것이지 내가 자청한건 아니지 않소?》
《그러기 미안하게 됐다지 않소.》
로정만이는 벗어놓았던 모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가시돋힌 말을 던지며 일어섰다.
《올해계획을 못했으니 새 관리위원장을 도와 일을 더 잘하라는 고무적인 말도 하려 했겠지요.》
한광훈의 얼굴이 벌겋게 되였다.
《아, 앉소. 그렇게 일어서면 내가 속이 편안하겠소? 국수를 하며 좀더 이야기하자구.》
《고맙소. 국수는 먹은것으로 칩시다.》
한광훈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 어떻게나 손아귀가 센지 로정만이는 빠져나갈수 없었다.
《이러지 마오, 앉소!》

《난 할말이 더 없소.》

로정만은 선채로 저력있는 어조로 말했다.

《군경영위원회소환문제는 더 론의하지 말기요. 나는 생각을 달리 했소.》

《아니요. 내 꼭 당신을 소환하겠소. 시간문제요.》

《고맙구려. 하지만 그만두오. 나는 잠정리를 뜨지 않겠소. 나는 영원히 내 고향이나 다름없는 잠정리에서 살겠소. 잠정리에서 나는 잔뼈가 굵어졌고 여기서 부모님들을 따라 농사일을 시작했소. 잠정리의 산과 들, 자그마한 개울에도 모두 나의 추억이 깃들어있소. 내가 군경영위원회에서 잠정리에 기사장으로 내려온것도 자청해서 그렇게 한거요.》

로정만이가 흥분하니 말마디들에 감정이 깔려 박력이 있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속이 뒤틀렸군. 사실말이지 불시에 변화된 잠정리의 실정을 리해하면 이처럼 노하지는 않겠는데…)

한광훈이는 로정만이의 언행을 보아 그가 군경영위원회로 소환되기를 몹시 기대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 기대가 허물어졌으니 노할수밖에 없는것이다.

공연히 앞질러서 소환문제를 꺼내여 로정만을 들뜨게 한것 같다. 하지만 이전 관리위원장의 병이 심해지리라고 어떻게 알수 있었겠는가!

(리해하고 안착하면 되는데… 리해하려 하지 않는군, 허참!)

한광훈이는 식당문을 나서는 로정만이를 따라가서 붙잡으려 했지만 생각을 달리했다. 지금은 아무리 리해시키려 해도 안될것이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리해시키자.

28

농산지도원이 다른 자리로 옮겨앉고 강현이 그 자리에 임명되였다. 허명숙이 리당비서와 토론하고 군당위원회에 직접 제기했었다. 기사장 로정만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얼굴로 강현을 맞이했다. 강현이가 소총명이 있고 소조시기의 기개를 살려서 기사장도 서슴없이 비판하는 그러한것들이 마음에 없었고 집행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지만 현대농업과학기술에 밝고 정확하고 머리가 좋으며 이전 농산지도원에 비해 우월한것은 사실이였다. 다시말해서 우점도 있고 결점도 있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강현이 기사장사업을 직접 보좌하는 자리에 들어오는것이 반갑지 않았으나 관리위원장이 주동적으로 한 일이니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다.

허명숙은 강현이 관리위원회에 들어오자 좋아하며 거의 매일 저녁 사무실에 불러들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두 잠정리에 온지 벌써 한해가 되였으니 사업에서 결함들이 눈에 띌거예요. 강현동무는 농산지도원으로서 의견들을 기탄없이 제기하세요.》

《제가 뭐… 저는 맡겨진 일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사업을 시작한 어느날 강현은 명숙과의 담화과정에 농장에 규률과 질서가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말하면서 휘발유출고정형을 검열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다시 긴장한 연유문제가 제기되고있었다. 한해전 도당책임비서 석영진이 명숙이와 함께 잠정리에 와서 애로를 물었을 때 로정만이 제기했던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연유가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러자 군경영위원장이 잠정리에 연유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며 년초에는 농촌에 연유가 잘 공급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었다.

원인이 그때문만이겠는가? 강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기계화작업반에 찾아간 명숙은 연유창고를 겸해서 보는 작업반통계원을 만났다. 연유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했던 통계원, 어째서 그런가라는 물음에 대답을 피했던 통계원이였다.

《연유공급대장을 보자요, 재작년것과 작년것을.》

통계원이 대장들을 가득 들고왔다. 그것들은 여러권이였고 란잡하였으나 명숙은 인내성있게 앉아서 깐깐하게 검토하였다.

작년 11월 어느날에 기록된 내용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부위원장의 지시로 휘발유 20키로그람 출고.》

명숙은 통계원에게 그 기록을 손가락으로 짚어보이였다.

《여기는 왜 작업내용, 다시말해서 용도가 적혀있지 않아요?》

통계원이 딱해하였다.
《저… 간부동지들이 요구하는것은…》
통계원은 뒤더수기를 긁적거리였다.
명숙은 대장을 덮으며 일어섰다.
《동무가 머리아프다고 한 뜻을 이젠 알았어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작업용이 아닌 개인용이나 소위 사업용으로 휘발유를 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어요. 간부든 누구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만일 간부동지가 사업용으로 요구하면 딱하지 않습니까?》
명숙은 그가 옳게 의견을 냈다고 보았다. 한갖 작업반통계원으로서 딱할수 있었다. 규정대로 해야 한다. 통계원은 철저히 그 규정을 가지고 질서를 세우도록 해야 할것이다.
《알겠어요. 제도와 질서는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휘발유가 영농작업이 아닌 다른 용무로 랑비되는데서 농장의 지도일군들에게 우선 책임이 있었다.
연유출고에서의 무질서는 농장에 조성되고있는 원칙에서의 양보와 리탈현상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물론 명숙이가 오늘에 와서야 이러한 분위기를 느낀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원칙적인 선을 세우고 투쟁해야 하겠는지 방도가 잘 떠오르지 않았고 농사일에 분주히 뛰다보니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 오늘 기계화반의 휘발유출고정형을 검열하며 충격을 크게 받았다. 관리위원장도 모르게 부위원장이 휘발유를 마음대로 다른 용무에 썼다. 이러한 무질서가 휘발유출고에만 있었겠는가?
(아니, 이대로 지속될수 없어. 이제부터는 제도와 질서를 강하게 세워야겠어. 강현동무가 참 옳은 의견을 냈어. 곽기춘아바이도 말했지. 무슨 일이나 원칙을 세우고 바로 지켜야만 잘 풀려나갈수 있어. 자체로 농사를 짓는 문제가 잘되지 않고 반대에 부닥치고있는것도 다 이와 관련되여있어.)
한해사업을 총화하는 농장원총회에 앞서 리당위원들과 관리일군들의 모임이 있었다. 여기서 총회보고서의 기본내용을 심의하였다. 모임에서는 관리위원장 허명숙이 작성하여 제출한 한해농사정형에 대한 총화내용이 기본적으로 옳게 분석되였다고 인정하였다. 명숙은 몇

가지 문제를 보충적으로 강조하였다.

《올해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위원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장원총회에서 총화되겠지만 우선 퇴비생산과 반출에서 주먹구구식의 장악과 허위보고를 근절하지 못했고 따라서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원만히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로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주인답지 못한 관점, 모내기가 늦어지고 이로 인하여 빈자리보식과 김매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지 못한것 등 우리 농장이 안고있는 고질적인 결함들이 반복되였습니다. 이러한 결함들은 다 관리위원장인 저자신과 관리일군들의 사업태도와 관점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저로 말하면 주관적욕망만을 앞세우고 실천을 따라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농장원총회에서 심각히 론의되여야 할것입니다.

기사장동무도 자기의 사업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보고서에 넣지는 않았지만 나는 기사장동무가 본인의 토론에서 자기의 결함을 허심하게 내놓기를 바랍니다.》

로정만은 명숙을 한번 피뜩 쳐다보았을뿐 거의 무표정한 상태로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내가 년초에 어느 분조장에게 퇴비생산과 반출량에 대해 물으니 적당히 대답하면서 그는 그것을 자로 재보겠는가, 저울에 달아보겠는가 하였습니다.》

명숙이가 계속하였다.

《물론 자로 재기도 힘들고 저울에 달아보기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분조장이나 나아가서 작업반장들이 짐작으로 과장하여 낸 수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종합하여 실적을 기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위보고는 이렇게 작성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사장동무는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기사장동무는 또한 아래사람들을 뜨겁게 대하고 옳게 평가할 대신에 자기를 비판했다고 해서, 자기의 위선적인 행동에 엇선다 해서 한작업반 기술원을 감정을 품고 대하며 그의 의견은 덮어놓고 거부하였으며 그의 발전을 억누르기까지 했습니다. 농장원들과 농장초급일군들속에서 기사장동무의 관료주의적인 작풍에 눌리워 제대로 의견을 내지도 못하고있으며 기사장동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사장동무는 대중들로의 비판을 거의나 받아보지 못

하다보니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있었습니다. 사업적권위는 아래사람들을 거칠게 대하고 욕설을 하는것으로 세워져서는 안될것입니다.》

허명숙은 이처럼 로정만을 드러내놓고 비판하기가 헐치 않았다. 관리위원장이 기사장을 비판하는것은 응당한것이지만 로정만의 경우는 나이가 많고 자존심이 강하며 또 이 잠정농장의 오랜 일군으로서 이랬든저랬든 사업적권위가 서있었다. 그리고 일을 제끼는 기사장으로 알려져있었고 실지 지난날 공적이 있는 일군인것이다. 그러한 일군을 새로 온 관리위원장이 이제 겨우 한해 일해보고 비판한다는것이 경솔하고 도리에 어긋난다고 비난받을수도 있다. 더구나 녀성이 아닌가!

그렇다고 마장석을 비롯하여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로정만에게 의견을 가지고있으며 허명숙자신이 그 의견이 정당하다는것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로정만의 사고방식과 사업태도와 작풍이 잘못되고있는것을 보고 느끼고있는데 그냥 덮어두고 지나쳐야 하겠는가. 명숙은 그럴수 없었다. 결함을 보았으면 제때에 깨우쳐주어야 할것이다. 로정만기사장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수 있으며 녀자가 지내 모질다고 말할수도 있을것이다. 명숙은 이것도 각오했다.

명숙이가 로정만의 결함들을 꺼내놓자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숨소리를 죽이고 조용해졌으며 생각에 잠겼다. 아직 로정만을 누구도 이처럼 비판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렇지만 명숙은 거의 모든 리당위원들과 관리일군들이 자기를 지지하고있다는것을 그들의 눈길과 얼굴표정과 몸가짐을 통해 느낄수 있었다. 그들이 고마왔다.

《나는》 하고 허명숙은 힘을 얻고 계속했다. 《잠정농장에 온 날부터 로정만기사장동무와 손발을 맞추고 합심하여 농사를 짓게 되기를 기대했고 희망했으며 또 실지 한해동안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 애썼고 기사장동무의 방조를 받아 생소한 고장에서의 한해였지만 사업을 전개해나갈수 있었습니다. 기사장동무에 대한 저의 기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쳐야 하겠다고 생각되는바를 말한것입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녀성이였다. 그러므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기사장에 대한 비판을 결속하였다. 그의 진정으로 되는 따뜻한 충고에 공감하지 않고 감심되지 않을수 있겠는가.

《저는… 관리위원장동무의 비판을 전적으로 접수합니다.》

로정만의 지어 태연해보이기까지 한 이러한 대답에 사람들은 좀 놀라긴 했으나 다행스러워하였다. 긴장했던 나머지 후—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사람도 있었다. 차성재는 기사장에게 비판을 접수한다니 반갑다, 응당 접수해야 하며 총회에서 스스로 총화짓는것이 좋을것이다라고 했다.

《총회에서 자기의 결함을 내놓고 비판하겠습니다.》

로정만은 이번에도 시원스럽게 대답하였다. 진속을 잘 꺼내지 않으며 항상 표정이 모호한 그가 이처럼 성근하게 나오는것이 좀 이례적이였지만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로정만이 그렇게 나오는것이 진심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로정만이 진심으로 접수한것은 아니였다. 접수한다고 말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기때문이였다. 군경영위원장 한광훈을 만나고온 이후부터 그는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었으며 만사를 무심하게 대하는것을 어쩌지 못했다. 그는 한광훈에게 다시는 소환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 자기는 영원히 잠정리를 뜨지 않겠다 하고 격하여 말했지만 분김에 한 소리였지 본심은 아니였다. 그는 한광훈이 어느때든 자기를 군에 끌어올려가리라고 믿고있었으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있었다. 이러한 로정만이에게 오늘 허명숙의 뜻밖의 비판은 대단히 불리한것이였다. 자칫하면 농장이 계획을 못한 책임이 자기에게 들씌워질수 있었다. 그는 허명숙의 비판에 대해 반박할수 있었지만 그러면 더욱 불리해진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비판을 접수한다고 시원스럽고 석연한 태도로 나가야 한다, 총회에서도 그렇게 자기비판을 해야 할것이다, 그러면 허명숙이는 감동될것이다. 지금 그의 심리는 이러하였다.

허명숙은 그의 허심한 태도에 마음이 더워났다. 역시 대범한 남자고 큰사람이라고 기뻐하며 다음문제로 넘어갔다.

《다음으로 우리 농장에서 규률과 질서가 바로 서있지 않고 원칙이 고수되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보고서에 간단히 지적했습니다.》

명숙은 부기실을 검열하면서 집어냈던 무원칙한 인심쓰기와 부정출고에 대하여 다시 말하고 휘발유출고정형을 알아보는 과정에 나타난

비생산적인 용무에 망탕 출고한 내용을 까밝혔다. 특히 농장의 책임일군들이 무원칙하게 휘발유를 부정출고하였다.

《관리위원회는 연유에 대한 강한 통제로부터 시작하여 농장안에서 무규률, 무질서와의 투쟁을 벌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올해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지 못한데는 이러한 무질서와 원칙에서의 리탈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농장원총회는 비판적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먼저 허명숙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한해동안 영농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관리위원장과 관리일군들, 초급일군들의 사상적관점, 사업지도능력, 조직력, 현대농업과학기술에 대한 지식 등의 부족에서 찾았다. 회의에 참가한 농장원들은 그가 한해동안 영농사업과 농장관리운영에서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진취성있게 일했는가 하는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에 그리고 그가 이제 겨우 한해를 일했기때문에 그의 비판을 자기들의것으로 받아들이였다.

이런 큰 회의에서 기사장이 토론을 하지 않을수 없다. 기사장은 년간총화에서는 매번 토론을 하기마련이다. 관리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그가 연단에 나섰다. 그는 보고서에 제기된 자료들을 다 인정한다고 하였다. 이때까지 군중의 우에서 훈시만을 하고 회의에서 자기비판같은것은 일반적으로 스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엄하게 비판하군하던 로정만이 자기비판을 내용있게 하였고 올농사에서는 반드시 계획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결의도 잘 다지였다. 그는 이렇게 하여 이 고비를 넘겨버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의 생각처럼 일이 그렇게 무난하게 지나가버리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속에 오래 묻어두지 않는 개방적인 성격인 마장석때문이였다. 토론에 참가한 마장석반장이 농산제5작업반 영농사업에서의 결함을 자신의 조직사업능력의 부족과 주체농법의 요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데서 찾고 자기비판을 한 다음 기사장 로정만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던것이다.

《…기사장동무는 올해는 별로 욕설과 관료주의로 초급일군들을 들볶아댔습니다. 기사장이면 자체로 농사지으려는 지향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적극 밀어주어야 하겠는데 우리 작업반 기술원동무를 편견

을 가지고 대하면서 모험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무엇이 모험이란 말입니까?》

마장석은 담배연기에 끄슬려 피가 진것 같은 눈을 뒤룩거리며 거칠게 말했다.

《나는 왜 그런지 기사장동무가 진짜 우리 농장의 농사가 잘되여 국가계획도 하고 농장원들의 수입을 높이려는 진심에서 출발한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군에 잘 보이기 위해 분주히 뛰여다닌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회의장이 웅성웅성했다.

《조용하시오.》

차성재가 군중을 자제시켰다.

《마장석동무, 비판을 과학적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느낌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 느낌이 잘못됐으면 이 자리에서 시정하겠습니다. 저의 토론은 이상입니다.》

마장석이 성급히 말하고 연단에서 물러서자 농장원들이 웃어댔다.

허명숙은 마장석이가 언젠가 자기에게 했던 말을 꺼내는 바람에 좀 심중해졌다. 그때는 좀 막연하게 로정만기사장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것 같다고 조용히 말했었다. 느낌으로 하는 소리겠거니 하고 스쳐지나버리긴 했으나 가슴속에 새겨두고있었다. 그랬는데 마장석이 오늘은 대중앞에서 그것도 《자기 이름을 내고 군에 잘 보이기 위해》 열성을 내는것 같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가. 이상한 충격이 머리를 쳤다. 마장석이 로정만을 좋게 보지 않지만 꼭 그런 예리한 말을 해야 하겠는가, 과연 로정만이 그런 사람이겠는가.

마침 리당비서가 바로잡아주었다.

주석단에 앉아있는 로정만은 마치 차거운 대리석처럼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어딘가 앞을 꼿꼿이 바라보며 눈동자조차 돌리지 않는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속이 떠끔했으며 당황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더 무표정해지려고 애썼다.

회의휴식시간에 로정만이는 회의집행자들이 모여앉아 휴식하는 문화회관의 대기실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밖으로 나왔으나 일반농장원들속에 끼이지도 않았다.

그는 문화회관 옆 마당의 한쪽구석에 혼자 서서 침침한 얼굴로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대중들앞에서 큰 망신을 당할번 했다. 다행하게도 리당비서가 수습해주었다.

어디서 그를 살펴보고있었는지 마장석이 다가오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내 담배를 피우시오, 기사장. 이게 독초요. 기사장이 피우는 물주리 달린 가치담배도 담배요? 난 그런건 심심해서 당초에 입에 대지도 않소.》 하며 그는 독초를 말아 내밀었다.

《싫소!》

로정만은 이렇게 쏘아붙이고 돌아섰다.

마장석은 속으로 중얼댔다.

(허, 단단히 노했군. 하기야 《정코대》가 아닌가.)

농장원총회는 어두워져서야 끝났다. 오랜 시간 회의를 했지만 회의집행자들도 군중도 앙양된 회의분위기에 편승하여 피로감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 리당비서사무실에 가앉은 명숙은 거기에 로정만이 보이지 않고 시간이 많이 지나간 후에도 그가 나타나지 않자 자연히 낯빛이 흐려졌다. 이런 큰 회의전이나 후에는 반드시 그들 세사람이 모여앉군 했다.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더라도 관리위원장, 리당비서, 기사장이 모여앉았다가 회의장에 들어가든가 또는 헤여져가군 하였다. 왜 나타나지 않을가?

회의를 지도하러 군에서 내려온 일군은 차성재와 허명숙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농장원총회가 잘되였습니다. 성과와 결함을 옳게 분석했고 비판과 결의들이 다 좋았습니다. 올해에는 잠정리에서 다시 높이 세워진 계획을 수행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리당비서는 즐거운 기분이였다. 물론 명숙이도 회의성과가 기뻤다. 그러나 지금 마음 한구석이 어두웠다.

《참, 기사장동무는 어디 갔소?》

군일군이 의아해하였다. 명숙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어느날 명숙은 5작업반에 갔다가 마장석을 만나 농장원총회에서 로정만기사장에게 왜 근거도 없는 말을 했는가, 그러면 되겠는가고 충

고했다. 마장석은 《흥.》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관리위원장은 모르는것 같은데 군경영위원회에서 로정만기사장을 끌어올려가자는 론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장이 그걸 알고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빨리 군에 올라가려고 열성을 내는게 아니겠소?》

그는 담배진에 누래진 이발을 드러내며 웃기까지 했다.

명숙은 그가 하는 소리 역시 소문이 아닌지 미타해했다.

《기사장동무가 군경영위원회에 올라간다면 좋은 일이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어디서 들었어요?》

명숙이가 따지고들자 마장석은 손을 내저었다.

《아, 더 따지지 마시오. 나도 정식으로 들은 소리는 아니지요.》

《반장동무, 다시는 어디 가서든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요.》

명숙이가 못을 박았다.

《내 관리위원장한테 처음 그 말을 했수다. 그런데 사실일수도 있구요.》

명숙이는 생각에 잠겼다. 그래, 사실일수 있다,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 나랴? 그렇지만 그때문에 기사장이 일에 더 열성이겠는가. 하긴 기사장이 군으로부터 말을 듣지 않으려고 왼심을 쓰고있긴 했다. 명숙은 생각이 착잡해졌다.

제 4 장

생활은 앞으로

29

차성재가 관리위원장방으로 들어왔다. 명숙은 그를 미소로써 반갑게 맞이했다.

《6작업반 금옥이 말입니다. 내가 그 애를 군기동예술선동대에도 도예술단에도 못 간다고 눌러앉힌걸 알고있지요?》

차성재가 앉으며 하는 말이였다.

《알고있습니다. 군당 부장동지가 나한테까지 화풀이를 했습니다.》

《오늘 내가 6작업반 부락당비서를 만나서 금옥이가 그새 어떻게 일했고 분배는 얼마나 탔는가 알아보았지요. 내가 약간 암시를 주었기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옥이가 착실하게 일하고 예술소조활동도 잘한것 같습니다. 부락당비서도 평가하더군. 그래서 나는 금옥이의 심장에 향토의 넋이 깃들었다고 인정하고 그 애를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에 추천할 생각입니다.》

명숙은 차성재를 이윽히 쳐다보았다.

《왜, 반대요?》

《아닙니다. 나는 비서동무의 속이 그렇게 깊은줄 몰랐군요. 나는 사실 그 애를 군기동예술선동대에 보내자는 제기를 리당에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비서동무는 금옥이를 대학에 보내려고 준비시켰군요. 향토의 넋을 간직해야 노래를 불러도 우리 인민의 감정에 맞게 부를것이고 그래야 장차 훌륭한 가수가 될게 아닙니까. 느끼는바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성재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나는 우리의 예술발전을 위해 로고를 기울이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뜻을 따랐을뿐입니다. 금옥이가 훌륭한 가수로 자라

그이께 기쁨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잠정리의 크나큰 자랑이 아니겠습니까. 잠정리에는 좋은 싹이 많습니다. 기사장동무의 딸 경애도 자기를 공부시켜준 조국에 보답해야 한다며 농촌에 뿌리내리기로 결심한 기특한 처녀입니다. 나는 경애와 철수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관리위원장동무에게서도 느껴지는것이 많습니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아이참, 무슨…》

명숙은 얼굴이 확 붉어졌고 머리가 숙어졌다.

당조직은 얼마나 다심한가.

차성재는 밝은 눈으로 명숙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 ― 금옥이 말입니다. 관리위원장동무가 만나주면 좋겠습니다.》

《그거야…》

《내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관리위원장동무가 만나서 대학입학준비를 시키고 평양에 가서 실무적인 절차를 밟는 문제도 잘 알으켜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모저모로 관리위원장동무가 나서면 더 좋을겁니다. 내가 짐을 떠민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명숙은 왜 리당비서가 그 좋은 일을, 한 예술적재능을 추천하여 대학에 보내는 일을 자기에게 맡기려 할가, 생각이 있어서 그런다는것은 무엇일가 하고 머리를 기웃거리였지만 대답은 명백히 했다.

《당조직의 분공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분공이라기보다 인간적인 부탁입니다.》 하고 차성재는 우선우선한 얼굴로 말했다.

인간적인 부탁… 이 말속에 많은 의미가 있을것이다. 차성재는 금옥이를 한해 착실히 농사일을 시키고서야 대학에 추천하려 한다. 이것이 한 처녀의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 기울인 그의 원칙적이고 인간적인 노력인것이다. 금옥이네 집으로부터도, 군당부장으로부터도 오해를 사면서 꾹 참았다. 그처럼 그는 속이 깊은 사람이다. 지금 자기가 공들인 노력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데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것이다. 그러나 그 행복한 결말을 관리위원장 명숙이에게 맡기였다. 어떻게 해서든 행정일군을 내세워주려는 당일군의 도량과 인간미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명숙은 생각했다.

차성재는 관리위원회가 연유에 대한 강한 통제로부터 제도와 질서를 세우겠다고 한 명숙을 지지하면서 어떤 실무적인 대책을 세우려 하

는가고 물었다.
《기계화작업반에서 연유를 겸해서 보는 통계원을 아주 원칙적이고 엄격한 사람으로 앉혔으면 합니다. 지금동무는 다른 업무량도 있고 아무래도…》
명숙이 대답하였다. 차성재는 두말없이 지지했다.
《그렇게 합시다. 원칙적선에서 양보를 모르는 그런 사람을 골라 토론해봅시다.》
《예, 탐문하겠습니다.》
그후 명숙은 그 사업에 적합한 사람을 물색하였다.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 하겠는가, 누가 적합하겠는가 하고 아무리 머리를 짜도 신통한 대상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던차에 하루는 로동지도원이 찾아들어왔다.
《위원장동무.》
술만 마시지 않으면 조용하고 말이 적으며 사업에 충실한 그가 말했다.
《2작업반 곽기춘령감을 압니까?》
《곽기춘?》
《〈꽉쇠〉령감 말입니다.》
《예— 알구말구요. 언젠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했는데요.》
명숙은 곽기춘이를 생각하자 저절로 웃음이 나갔다.
《그 령감이 환갑만 되면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한답니다.》
《그래요? 내 보기에는 원기왕성하고 건강한것 같던데요? 령감소리를 듣기엔 아직…》
《그런데 글쎄 그 령감이 반장 윤구와 잔뜩 틀렸습니다. 윤구는 곽령감이 쩍하면 잔소리를 한다고 싫어하고 곽령감은 윤구가 일을 되는대로 하고 깐깐하지 못하며 인간성이 없다고 비난하지요. 게다가 작업반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원칙적인 소리만을 한다며 곽령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령감이 나이가 되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것입니다.》
명숙은 심중해졌다.
어째서 작업반장이나 일부 반원들이 그를 싫어하겠는가? 곽기춘이

는 전후에 애젊은 나이에 농사일을 시작하였고 농업협동화운동에서도 선진적이였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주의원칙으로 교양된 선배들이다.

작년 모내기현장에서 보았던 곽기춘이가 떠올랐다. 좁고 긴 얼굴에서 작은 눈에 명랑하고 능청스러운 웃음을 짓고있던 그는 관리위원장을 빈 소달구지에 타라고 했었다. 그는 여러가지 유익한 말을 많이 했다. 그는 가축들이 줄어들고 연유가 랑비되고 질서와 규률이 해이된데 대하여 말했고 농장이 자체로 농사를 지을수 있다고도 말했다. 한번 견해를 세우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 고집이 센 성격이라 한다.

명숙은 곽기춘이와의 그날의 담화에서 충격을 받은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소를 잘 먹이지 않아 엉치뼈가 솟는다고 개탄한 그의 목소리였다. 그래서 명숙은 작업반장들의 모임에서 부림소를 잘 관리할데 대한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공동우사에 책임적인 로인들을 배치하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였다. 연유도 긴장한데 부림소가 할 몫이 많았다. 그러므로 부림소를 경시하는 현상을 없애며 관리를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했다. …

《윤구반장이나 일부 반원들이 곽기춘아바이를 싫어하는것은 그가 부정적현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원칙을 지키기때문이겠지요?》

명숙이가 물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곽령감이 너무 원칙만 주장하고 꼬장꼬장하고 융통성이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고집은 하늘소 뒤발통같구요. 공연히 〈꽉쇠〉라 하겠습니까?》

로동지도원이 하는 대답이다.

《마장석반장이 나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요? 로당원들이 나이가 되여 하나, 둘 집에 들어가면 농장이 참 허전해질것이다, 농장에서 오래 일하며 사회주의가 몸에 밴 그런 로인들이 있어야 새로 일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랬어요.》

명숙이가 하는 말이 심금을 울리였는지 로동지도원은 감동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명숙이는 그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곽기춘이야말로 자기가 찾아내려 했던 연유관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발견을 하게 되였다.

《준식동무, 래일 아침 첫시간에 곽기춘아바이를 내가 만나겠어요.》

《좀 자중하도록 설복하려고요?》
《하여튼 내가 찾는다고 하세요.》
《예, 그러지요.》
로동지도원은 의문을 품고 물러갔다. 그는 곧 2작업반에 전화를 걸었다.
경비서는 로인이 전화를 받았다.
《령감님.》 로동지도원이 말했다.
《곽기춘네 집에 얼른 뛰여가서 래일 아침 일찌기 관리위원장한테 오라고 전하시오. 알았소?》
《늙은게 뛰여가긴 어떻게 뛰여가.》
곽기춘이 이튿날 아침 일찌기 관리위원회에 출두하였다. 추운 날씨여서 털모자를 쓰고 솜덧저고리를 입고 솜신을 신었다. 추위에 얼굴이 퍼렇게 되고 코물이 코끝에 매달려 데룽거리였다. 그는 코물을 손수건으로 훔치고 숨을 좀 들이킨 다음 문을 두드렸다.
《예, 들어오십시오.》
녀성관리위원장의 힘찬 대답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그는 털모자를 벗었다. 온돌에 불을 땐 사무실이 덥기도 하거니와 관리위원회에 올라왔으니 관리위원장에게 응당한 례의를 표시하는것이였다. 관리위원장이 젊은 녀자이지만 농장의 호주가 아닌가. 또 작업반이나 길바닥에서 만난 경우와도 다르다. 여기는 관리위원장사무실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무실로 불렀을가?
명숙은 그의 깨끗한 옷차림을 보고 늙은이가 유식할뿐아니라 인격을 일정하게 갖추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녀성관리위원장은 일어서며 환하게 웃었다.
《아버님, 어서 오십시오. 추운 날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일이 있어서 불렀겠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미안할게 없습니다, 관리위원장이 사업상으로 농장원을 부른거니까.》
명숙은 참 재미난 아바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두 년세가 있지 않습니까.》
《령감이래두 농장원이지요. 관리위원회에서 부르는데 싫어하거

나 나이 많아서 가지 못한다면 일을 그만두어야지요.》
《자, 이쪽 더운데로 오십시오.》
명숙이가 관리위원장이 쓰는 앉은뱅이책상쪽으로 그를 이끌어가려 하였다.
《아니, 난 여기가 좋쉐다. 그러지 않아두 더워서 솜옷을 벗어야 할 형편이요.》
곽기춘이 사양했다.
명숙은 그가 솜옷을 벗게 하여 털모자와 함께 말코지에 건 다음 기어이 책상가까이로 이끌어갔다.
(대체 무엇때문에 불렀담? 누구에게나 이렇듯 친절한가.)
그는 관리위원장이 빨리 용건을 말했으면 하는 심정이였다.
그런데 관리위원장은 그의 집안일부터 묻는것이였다. 하기야 간부들이 누구와 담화를 하는 경우 의례히 가정형편이라든가 건강상태 등을 묻는 법이다. 기본용건을 꺼내기 전의 예비담화인것이다.
《집에 누구누구 있습니까?》
《나하구 로친네, 맏아들내외와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구 뜨락또르운전수를 하는 둘째가 있고 셋째놈은 군사복무중이외다.》
《둘째도 군사복무를 했지요?》
《예, 땅크병이였습네다.》
명숙은 철수를 생각하니 가슴이 쓰려왔다. 경애와 철수를 둘러싼 파동은 잦아들었고 아직은 무슨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있지만 두 청춘남녀가 받은 심리적타격은 결코 쉽게 아물지 않을것이며 그들의 뜨거운 사랑은 언젠가는 활화산처럼 분출할것이라고 생각하고있는 명숙이였다. 지금은 철수도 경애도 조용했고 양옥실이도 조용했다. 철수는 일체 그와 관련하여 입을 꾹 다물고있었으므로 그가 처녀를 단념했는지 어쨌는지 누구도 알수 없다고 한다. 부모들이 딸을 다른 좋은데 시집보내려고 하는데 뿌득뿌득 다가들며 나한테 주시오 하고 자존심없이 말하겠는가?
그러나 만약 서로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면 부모가 설사 반대한들 상관이겠는가, 그렇지도 않아, 남의 일이니 말하기야 쉽지.… 이렇게 옆에서들 떠들었으나 철수 당자는 마치 벙어리 한가지였다.
경애는 어떤가? 경애는 아예 집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휴식일때도

태평농장에 박혀있다. 처녀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두사람이 그후 만났는가? 아니다. 그들은 서로 피하고있는것 같다.
경영위원회 지도원은 사람들앞에서 한바탕 웃는것으로 끝을 보였다.
로정만의 처는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있는것 같았다. 양옥실은 군경영위원회 지도원과 성사되지 못한것이 명숙이탓인듯 가슴에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있었지만 그것을 더 터뜨리며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는 귀신이나 알노릇이다.
《아버님.》
명숙이가 입을 열었다.
《철수동무에게서 별다른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까?》
곽기춘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도 아들때문에 마음을 쓰고있는중이였다.
《버버리 한가지웨다. 통 말이 없지요. 차라리 잘됐습니다. 늦도록 책을 읽고 공부를 하니까, 난 철수한테 기사장의 딸을 단념하라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은 저으기 놀랐다.
《아니, 왜요? 경애가 싫습니까?》
《경애야 착하고 똑똑한 애지요. 하지만 기사장의 딸이 아니요? 기사장네가 우리같은 농사군집에 딸을 주려 할리 있습니까? 내 그래서 철수보고 머저리짓을 하지 말라,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 다시 경애와 상종해서 또 말썽이 생기는 날에는 집에서 내쫓겠다 하구 강경하게 말해주었지요.》
명숙은 한숨이 저절로 나갔다.
《아닙니다. 사랑을 억지로 막을수는 없지요. 그들의 사랑은 깨끗하고 뜨거울거예요.》
《아니요!》 곽기춘이 자기의 성미를 드러냈다.
《관리위원장, 그 애를 부추기지 마시오, 나한테도 설복하려 하지 말고. 그 일때문에 불렀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할말이 없소. 가겠소.》
《아, 아니 아니예요!》
명숙은 황급히 일어서려 하는 곽기춘을 붙들었다.
《그 얘긴 그저 꺼냈을따름입니다. 아버님을 대하니 철수생각이 간

절해서요. 나는 물론 그후 철수를 더러 만나긴 했지만 사업상이야기외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담배를 태워도 되갔소?》

《네, 어서 태워요.》 하며 명숙은 남자손님들을 위해 늘 준비해놓고있는 담배곽과 라이타를 밀어주었다.

곽기춘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난 이 잎담배를 대통에 다져넣어 피우는게 제일 좋소.》

그는 말리워 썬 잎담배를 대통에 다져넣었다. 그리고 성냥을 켜 불을 붙인 다음 한동안 연기를 내뿜었다.

명숙이가 철수를 생각하면 가슴아프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말없는 괴로움에 어찌 비기랴! 명숙이는 어쩐지 철수이야기를 꺼낸것이 공연한 일이 아니였겠는가 하는 후회가 들었다.

《저— 용서하세요. 제가 공연히…》

《아니웨다, 관리위원장! 고맙소. 그 마음이 고맙소.》

곽기춘이 시원스럽게 말했다.

《너무 마음쓸것 없쉐다. 철수가 장가 못 갈가봐 걱정해본적은 한번도 없으니까, 허허. …》

《그건 그렇습니다. 철수같은 청년은 우리 농장의 자랑입니다. 인물도 그 어디 내놔도 짝지지 않습니다.》

명숙이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30

이제는 곽기춘이를 관리위원회로 부른 기본용건을 꺼내야 할것이다. 곽기춘의 얼굴에 궁금해하는 빛이 짙어갔다.

《나는 아버님과 매우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자고 합니다.》

명숙은 정색하며 자세를 바로하였다.

《나는 지난해 모내기철에 아버님이 나와 만난 기회에 우리 농장이 가지고있는 일부 결함을 말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집단적으로 경리를 관리운영하며 공동재산을 가지고있다고 해

서 평균주의를 하고 망탕 랑비하는 현상은 사회주의협동경리에 대한 도전으로 되며 위법행위에 속합니다. 수령님께서 청산리지도에서 사회주의농촌경리운영과 관련하여 주신 교시를 되새겨보면 협동농장들에 법질서와 규률을 세우며 일한것만큼 분배하는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지키는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법질서와 규률이 해이되여있습니다.

우선 연유문제를 놓고봅시다. 국가에서 공급하는 연유를 규정대로 쓰지 않고 랑비하기때문에 뜨락또르와 자동차들의 작업과 운행에 지장을 주며 모내는기계도 휘발유가 떨어져 서군 합니다. 기름이 어디로 빠집니까? 개별적인 사람들이 사사용무로 쓰는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있습니다. 특히 농장일군들이 연유를 제멋대로 사적용무로 썼습니다.》

곽기춘이는 도중에 명숙의 말을 꺾어보려고 엉치를 들었다놨다하며 조급해하였다.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였다. 드디여 더 참아내지 못하고 손을 후들후들 떨며 웨치듯 말했다.

《그게요, 바로 그게요! 그렇게 모두 힘들여 벌어놓은 공동재산을 제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쥐 소금녹이듯 하니 농장이 잘살수 있는가. 연유문제도 옳게 말했소. 사사일에 망탕 뽑아쓰고 랑비를 하고… 그런다고 말하면 말한다고 싫어하고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명숙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말입니다. 관리위원회는 이제부터라도 질서를 철저히 세우자는것입니다. 우리는 기계화작업반에 연유를 겸하여 다루는 통계원을 원칙이 강하고 책임적인 사람으로 두려고 합니다.》

명숙은 잠시 입을 다물고 상대방을 응시하다가 계속했다.

《새 통계원에 누구를 앉히겠는가 하는건데 나는 곽기춘아버님이 적임자라고 봅니다.》

곽기춘은 마치 불시에 머리우에서 우뢰라도 운듯 놀라며 얼굴을 들었다.

《내가?…》

《그렇습니다.》

곽기춘은 손을 내저었다.

《나는 평생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요. 땅에서 떠나본적이 없소. 나는 농사짓는것밖에 모르오. 다른 일을 해보지 못했소. 더구나 연유취급에서 원칙을 지킨다는것이 어떤건지 짐작이 되는데 나는 그런 일을 못하겠소. 그러지 않아두 일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뒤에서 별별 욕을 다한다는걸 나는 아오. 나보구 〈골동품〉이라 하지 않나, 〈꽉쇠〉라 하지 않나. 빨리 나이가 되여 들어갔으면 하는 사람도 있소. 나를 싫어하는데 연유를 통제하는 일을 한다구 생각해보우. 아니요. 관리위원장, 나는 나이가 되자마자 이내 집에 들어가겠소. 로동지도원한테 미리 말했소.》

명숙은 침묵하였다. 다른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것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것은 곽기춘이 옳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명숙은 그가 방금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한 말을 들으며 곽기춘을 연유다루는 일을 시키려 한 결심을 더 굳혀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곽기춘이 너무 완강하게 나오니 난처했다. 어쩌면 좋은가?

명숙이가 오래동안 말이 없으니 곽기춘은 어찌된 일인가 하여 눈길을 들었다. 그는 의혹과 실망, 유감스러움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녀인의 눈을 보았다. 그는 차마 그 눈을 마주 볼수 없어 고개를 떨구었다. 이것 즉 량심을 속이지 못하는것이 그의 《약점》이였다. 명숙은 그것을 간파했다.

명숙은 갈린 목소리로 조용하나 무게있게 그를 향해 말했다.

《아버님이 나이되면 쉬겠다고 하시니 할말이 없습니다. 로동년한이 지나면 년로보장을 받는것은 공민의 권리이고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아직 년한도 되지 않았고 정정합니다. 나는 우리 농촌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했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땀을 바쳤으며 시련의 가시덤불길을 헤쳐온 전세대의 로당원들에게서 방조를 받고싶습니다. 로당원들은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는데서 본보기로 되고있습니다. 그 유산을 저희들, 후대들이 넘겨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바로 곽기춘아버님께 부탁하는것입니다.》

곽기춘이는 담배연기를 뿜어댔다.

언제인가 맏아들이 하던 권고가 생각났다.

《아버지, 더는 작업반일에 삐치지 말구 의견도 일체 내지 마세요. 조용히 뒤전에 물러가계시라요.》

모가 진 의견들을 내군 해서 분조장이나 반장이 싫어한다는것을 알고 하는 말이였다. 늙은 아버지가 말밥에 오르는것이 싫어서 권고겸 충고를 한것이였다.

곽기춘은 번민에 잠겼다. 그는 무엇이든 시작하면 허술하게 해치우지 않는다. 심혈을 다 쏟아 해낸다. 고집이 여간 세지 않다.

명숙은 그가 매우 난처해하는것 같아 늙은이에게 무리한 제의를 했다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님이 정 못하시겠다면 할수 없습니다. 사실 통계원을 하기에는 년세가 많지요. 하지만 통계원의 중요한 임무로는 연유를 원칙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려는것이니까 적임자라고 보았습니다.》

《…》

곽기춘은 입을 그냥 다물고있었다.

《그러면 돌아가보십시오.》

곽기춘은 우물쭈물했다. 속이 알찌근했던것이다. 관리위원장의 절절한 호소가 다 옳았다. 정의를 외면할수 없지 않느냐. 량심앞에서 고지식한 곽기춘은 번민에 빠진것이다. 그리고 또 있다. 누구든 그 중요한 일을 맡아야 한다. 이것도 량심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곽기춘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을 다잡았다. 그는 일어섰다. 관리위원장이 털모자와 솜덧저고리를 내주었다. 그는 그것들을 쓰고 입었다. 관리위원장이 방문에까지 나와 바래워주었다. 그는 꾸물거리며 솜신을 신었다. 신을 다 신자 명숙이 인사를 했다.

《미끄러운데 조심해 다녀가십시오.》

곽기춘은 명숙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응대만 하고는 복도를 스적스적 걸어갔다. 그는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듯 한 심정이였다. 관리위원회로 올 때는 씩씩하게 걸었지만 내려갈 때는 어깨까지 축 처져 십드렁하니 걸었다.

명숙이가 그후 듣자니 곽기춘이 집안에 들어박혀 일체 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분조에도 나가지 않았다. 분조에서는 분조장이하 모두 그가 감기에 걸려 앓는것으로 알고있었다. 그 소식이 우연히 명숙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감기를 앓는것이 무슨 큰것이랴만 다름아닌 곽기춘이 앓는다니 명숙은 그저 스쳐보낼수 없었다.

시간을 내여 그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앓는다던 곽기춘이 굴뚝

을 손질하고있었다. 굴뚝을 안고 돌아가던 그가 자기 집 뜨락에 들어서는 관리위원장을 보고 황황히 마중나갔다.

《안녕하십니까? 앓으신다더니 좀 나은가보지요, 굴뚝을 다 손질하고있으니?》

명숙이 시원스레 웃음을 지으며 따뜻하게 물었다.

《예, 래일부터는 분조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는 연기그을음이 묻은 손을 탁탁 털었다.

《다행입니다.》

《집안이 루추하지만 들어갑시다, 모처럼 오셨는데!》

《들어갑시다.》

명숙은 선선히 응했다.

그들은 웃방에 들어갔다. 로친이 사과를 들고들어와 깎기 시작했고 곽기춘은 대통에 잎담배를 다져넣었다.

《사실 감기를 심하게 앓지는 않았소. 다른 병을 더 심하게 앓았소.》

명숙은 무슨 뜻밖의 심한 병이 아닌가 하여 놀랐다.

《다른 병이라니요?》

곽기춘은 찌뿌둥해서 심중하게 말하였다.

《가슴을 앓았소. 량심이 아팠소.》

《예…》

명숙은 그가 하는 말의 뜻을 리해하였다.

《요전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젊은 녀자가 사무실에 떡 앉아서 추운 날 늙은이를 오라가라했으니 이게 바로된 작풍입니까?》

곽기춘이 대답했다.

《관리위원장이 틀이 있어야지. 지내 사근사근하면 우습게 보우.》

《아닙니다. 그런 틀은 필요없습니다. 실속이 있어야지요.》

곽기춘은 더 좁아진듯 한 얼굴을 쳐들고 명숙을 신뢰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점점 이 젊은 녀성관리위원장이 나이보다 더 원숙해보이고 마음이 끌리는것이였다.

(우리 잠정리가 참 운이 텄군.)

그는 머리를 끄덕끄덕하였다. 그리고는 《관리위원장, 연유를 책임질 적임자를 구했소?》 하고 좀 어색해하며 물었다.

명숙은 웃는 얼굴로 머리를 가로저었다.

《적임자를 아직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곽기춘은 담배연기에 싸여 묵묵히 앉아있었다.
명숙이가 사과를 잘 먹었다고 하며 일어섰다. 곽기춘내외가 그를 바래워주었다.
《건강에 주의하십시오.》
《살펴가시오.》
며칠후 곽기춘이 역시 깨끗한 겨울옷차림을 하고 명숙을 찾아왔다.
《그 일을 내가 하겠소.》
그는 간단히 말했다.
명숙은 어째서인지 곽기춘이 스스로 찾아올것 같은 예감이 들어 기다리던중이였다.
《저는 아버님이 그렇게 나오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버님, 원칙을 세우면 싫어하고 지어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겁니다. 말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종당에는 아버님을 리해하고 존경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단의 리익속에 개인의 리익이 있고 집단의 질서와 규률이 강해야 그 집단과 개인의 리익이 주어지기때문입니다.》
곽기춘은 잠자코 있었다. 더 보탤 말이 떠오르지 않았던것이다.
《언제부터 일에 착수하시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기계화반에 가보겠쉐다. 인계인수를 해야지요.》
《고맙습니다.》
며칠후에 허리를 구붓해가지고 곽기춘이 작업복차림으로 명숙을 찾아왔다.
늦은 저녁이였다. 명숙은 로동지도원과 하던 이야기를 잠시 중지하고 그를 반갑게 맞아들이였다. 명숙은 기계화반 연유창고에 나타난 그가 반장과 특히 전 통계원과 인계인수를 하며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사업에 착수했습니까?》
곽기춘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는 침울하게 말했다.
《내 공연히 이 일에 손을 댔소. 관리위원장이 로당원이요, 규률이요 하며 나를 설복하면서 애타하기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장부를 보니 망태기요. 주인이 없소. 기름을 주는 사람두 쓰는 사람두 그 기름이 나라의것이니 제것처럼 아끼지 않소.》

《그래서 령감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로동지도원이 말했다.
《나는 나이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할가요?》
명숙이 난처해하였다.
《작업반으로 도루 가겠소.》
관리위원장은 그가 완전한 포기상태에 들어간것이 아니라는것을 간파했다. 투정질을 하는것이다. 책임감이 그로 하여금 투정질을 하게 하고있다.
《안됩니다.》 명숙이가 단호하게 잘랐다.
《아버님은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을 회피할 도덕적권리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연유를 통제하는데만 의의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농장안에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 사업의 돌파구를 여는 중요하고도 큰 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곽기춘이 눈을 찌프리였다. 《나같이 허약하고 작은사람은 못하겠다는거웨다.》
명숙은 짐짓 놀란듯 허리를 쭉 폈다.
《허약하구 작은사람이라구요? 아버님은 대바르고 자존심이 강하며 인격이 높은 큰사람입니다.》
명숙은 자기를 바로 알아주고 높이 쳐주는데 대해 부끄러워하면서도 긍지감을 느끼는 곽기춘에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아버님이 왜 왔는지 압니다. 대책을 토론하러 오셨지요.》
곽기춘은 로동지도원의 웃는 얼굴을 보며 화를 벌컥 냈다.
《웃음이 나가나? 남은 속이 타서 죽겠는데 웃고있어?》
로동지도원은 정색하며 사죄하였다.
《잘못했습니다. 사실 웃을 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구. 나는 실없이 벙글거리는걸 좋아하지 않아, 어험.》
그는 명숙에게로 돌아앉았다.
《한가지 비준받을게 있소. 지금은 기름을 작업반장들이 타가는데 그러지 말고 통계원이 뜨락또르와 자동차운전사들, 모내는기계운전공들과 직접 일일이 대상하여 연유를 출고하도록 질서를 세웠으면 합니다. 그러되 운행증과 작업증을 가지고와서 확인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중간에서 롱간질을 못하고 운전사들의 책임성도 높아집니다. 다음 관리일군들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리유없이 기름출고를 지시하거나 사사용무로 빼쓰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자는것입니다.》

관리위원장은 두말없이 동의했다. 곽기춘은 작업복 웃주머니에서 네모지게 접은 종이를 꺼내여 내밀었다.

《내가 방금 말한것을 문건으로 작성한것이외다. 말로 하는건 인정할수 없지요. 읽어보시고 수표를 해주시오.》

명숙은 신뢰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옳으며 정확하다. 책임일군이 비준한 문서라야 법적성격을 띤다. 명숙은 가슴속이 훈훈해났다. 훌륭한 방조자를 또 한사람 만난것이다.

명숙은 문서의 상단 오른쪽에 수표를 한 다음 그에게 담배나 한대 태우고 가시라고 권고하였다. 곽기춘은 고개를 끄덕이고 대통을 꺼내여 거기다 말리워 썬 잎담배를 다져넣었다.

명숙은 생각했다.

(저 입에 문 대통과 련결시키며 아바이를 《골동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를 곧 깨닫게 될것이다.)

《아버님!》 명숙이 말했다.

《원칙은 하나입니다. 그 어떤 경우든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일이 헝클어집니다. 그러니 어련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치의 양보도 하면 안됩니다. 사업의 실패는 원칙에서의 리탈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맙소. 좋은 말을 했소. 그럼 난 이만…》

곽기춘이 대통을 입에서 뽑아 손에 쥐고 일어섰다.

《용기를 내십시오.》

명숙이 바래워주며 힘을 북돋아주려고 말했다.

《내지 않구. 내 별명이 〈꽉쇠〉야.》

그는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에게 붙은 별명을 자랑스러워하는것 같았다.

로동지도원이 벙글벙글 웃었다.

《과연 잠정의 명물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제 온 농장이 들썩할겝니다.》

그가 말한대로 과연 온 농장이 곽기춘에 대한 이야기로 끓었다.

《신통한 인물을 골랐어.》

《〈꽉쇠령감〉이 우쭐해지겠구나.》

《기계화반 반장과 벌써 다투었대.》

《바루됐지.》

《우리 농장에 〈꽉쇠령감〉말고 사람이 없는가?》

반장들은 입이 쓰거운듯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 운전수들은 툴툴거렸다. 곽기춘과 쌈싸우듯 해서 타온, 한방울의 여유도 있을것 같지 않는 기름때문에 운전수들과 운전공들이 별안간 깍쟁이가 되였다.

칭찬해야 할지, 욕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수 없는 일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번은 곽기춘의 큰손자가 유리병을 들고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곽기춘은 큰손자를 제일 귀여워했고 그 애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할아버지.》 소학교 높은 학년에 다니는 손자가 유리병을 내밀며 말했다. 뺨이 능금같이 싱싱한 귀여운 애였다.

《엄마가 휘발유를 한병 달래오래요.》

《엄마가?》

《응.》

《어디 쓰겠다던?》

《창틀에 뼁끼칠한대.》

곽기춘은 당황해졌다. 생각지 못했던 정황에 부닥쳤다. 시아버지가 휘발유를 다루니까 며느리는 조건이 유리하다고 타산한것 같다. 그래서 집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손자를 보낸것을 보면 시아버지의 꼬장꼬장한 성미를 잘 알고있기때문일것이다. 그래 시아버지가 꼼짝 못하는 손자를 리용하려 했을것이다.

사실 곽기춘은 손자놈의 청을 거절하기가 힘들었다. 그놈이 떼질을 쓰면 야단이다. 그러나… 이것은 규정에 없는 출고다. 규정은 사사용무로 휘발유를 내지 못하게 되여있다. 꼭 써야 할 일이면 관리위원회의 출고증이 있어야 한다. 휘발유 한병이 뭐 큰건가? 휘발유탕크 발브꼭지를 쥐고있는 창고장이 아닌가? 손자가 와서 조르는데 간단히 꼭지를 비틀어줄수 있다. 아니다. 문제는 휘발유 한병에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량심에 있고 규정과 질서에 있다.

《너 엄마한테 가서 말해라, 농장재산을 제것처럼 뽑아쓰면 안된다구.》

그는 손자에게 말했다.

《도제 한병 쓰는것두 안되나?》

《안된다.》
《누가 욕하나?》
《욕하는 사람이야 있겠느냐만 이 휘발유가 너의 할아버지것이 아니고 농장재산이기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못 주지.》
손자는 고개를 까딱까딱했다.
그는 손자가 떼를 쓰지 않고 그냥 돌아가니 오히려 더 속이 알알해났다.
(내가 무엇때문에 팔자에 없는 이 일을 해!)
그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못하겠다구 관리위원장한테 제기하자.)
그러나 그는 관리위원장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는 관리위원장이 《아, 휘발유 한병이 뭔데 손자한테 주지 못하고 가슴을 앓아요?》 하고 말할가봐 겁이 났다. 자기의 하소연을 듣고 관리위원장이 원칙에서 리탈하는 소리를 할수도 있는것이다. 관리위원장은 원칙은 하나라고 하였다. 그것을 자기가 지켜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사건은 온 농장에 퍼졌다. 곽기춘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 곽기춘자신은 며칠간 우울해있었다. 며느리는 그의 눈치를 보며 속이 한줌만 해있었다. 하지만 그는 며느리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휘발유 한병 사건》이 관리위원장 명숙이의 귀에도 전해졌다.
명숙은 생각에 잠겼다. 자기가 너무 엄격한 규정을 요구했는가. 그래서 저 고지식한 늙은이가 손자에게 휘발유 한병도 주지 못했는가.…
하지만 그는 도리머리를 하였다.
아니다, 그래서 곽기춘아바이를 앓힌것이 아닌가, 아바이도 그의 며느리도 모든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다. …

31

땅이 녹기 시작하자 류순절은 분조의 청년들로 암거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좀처럼 능률이 나지 않았다. 아프다고 나오지 않는 사람도 생겼다. 순절은 동요가 일어났다. 어머니가 말한것처럼 정말 자기

가 하는 일이 다 분조원들을 고생시키는 일일가?
순절은 안종기와 같이 두벌농사를 지을 밭들을 선정하러 다니면서도 늘 암거작업에 대한 걱정이였다. 순절은 암거작업에는 늙은이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안종기에게는 소 두마리를 맡겨 밭을 갈게 하였다.
순절은 올해는 알곡과 남새로만 2모작을 하고 래년에는 알곡 두벌농사를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세웠다. 요즘에 와서 알곡과 남새 2모작을 잘하지 않았는데 알곡 두벌농사는 더욱 하지 않았다. 품이 많이 들었던것이다. 그러나 안종기가 터밭에 쏟아붓듯이 품을 두배, 세배 들인다면 분조농사도 얼마든지 잘될것이다.
두벌농사를 지을 밭들을 새로 더 선정하고 암거만드는 들에 나간 순절은 거기서 한동안 일했다. 일을 하며 타산을 해보니 모내기전으로 끝낼것 같지 않았다.
분조원들은 맥빠진 소리를 하면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냈다. 처녀 혜옥이가 그랬고 나이가 좀 든 경섭이도 《분조장동무는 일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반장한테 가서 좀 토론을 하오.》 하며 순절의 삽을 빼앗았다.
순절이는 하는수없이 작업반장 마장석을 만나려고 논을 떠나 달구지길에 들어섰다. 하지만 한참 걷다가 주춤하고 멈추어섰다.
(그렇지 않아두 작업반에서 이미 각 분조에서 한명씩 세명의 로력자를 지원해주었는데 이제 무슨 청을 또 한담? 아니야, 그럼 관리위원회에 제기해? 그렇게 계속 손을 내밀어야 할가?)
그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차거운 들바람에 중발머리를 날리며 결심을 못하고 서있었다.
문득 등뒤에서 말소리가 나는것 같더니 누군가 반갑게 찾는다.
《아, 순절동무 아니요?》
순절이 돌아섰다. 인민군군관 두사람이 서있는데 그들은 순절이가 알고있는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였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중대의 지휘관들이였다. 이 중대의 군인들은 모내기철에 태평리와 잠정리에 여러번 지원나왔었고 농장에서도 건군절에 중대에 대한 원호사업을 했었다. 작년에 순절이는 인민대표단으로 뽑혔댔으므로 그들을 잘 알았다.
《아이, 중대장동지! 정치지도원동지! 그새 안녕하셨습니까?》

두뺨이 익은 사과같은 처녀는 반가웁게 손벽을 치며 떠들었다.
《허허… 잘있었소?》 중대장이 싱글벙글 웃었다.
《언제 봐도 혈기왕성하거던! 그런데 길복판에 서서 무슨 궁리를 하고있었소?》
순절은 얼굴을 확 붉혔다.
《아니, 그저 좀…》 하며 순절은 어물어물했다.
《얼굴에 무슨 근심이 낀것 같다—》
키가 크고 얼굴이 철색인 중대장과는 달리 크지 않은 키에 몸매가 다부진 정치지도원이 하는 소리였다.
《저기선 뭘하오?》
중대장이 암거만드는 작업을 하고있는 분조원들을 손으로 가리켰다. 처녀들이 쓰고있는 머리수건들이 들바람에 팔랑팔랑 날리고있는데 빨갛고 파란 진한 색갈들이 눈을 끌었다.
순절이는 암거를 만들게 된 사연을 쭉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가 매우 절절하였다.
《저는 올해 열아홉살입니다. 사회경험이 얼마 안돼요. 그러니 농사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무슨 농사군입니까. 그런데도 농장에서는 제가 남달리 나이에 비해 숙성해보이고 체격도 좋으니까 학교시절 사로청간부를 한 경력도 참작해서 분조장을 시켰지 뭡니까. 신임은 큰데 일을 할줄 몰라서 작년에 우리 분조는 농장적인 분조분배몫순위에서 뒤로부터 다섯번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분조를 새로 조직할 당시 내가 철부지라고 우리 분조에 오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작업반농사에 대한 파악이 없다보니 서로 밀퉁질하던 안개틀같은 랭습지논도 우리한테 차례졌습니다. 그래서보다 제가 분조장사업을 잘못해 지금에 와서 분조원들의 사기는 말이 아니예요.
아니다, 기운을 내서 새해에는 꼭 앞선 순위권내에 들자,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작업반장동지도 저에게 신심을 주었고 특히 우리 농장 허명숙관리위원장은 우리 분조에 여러차례 내려와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땅을 개량하여 분조관리제가 은을 낼수 있도록 깨우쳐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땅을 개량하는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랭습지에 암거를 만들어 찬물을 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관리위원장동지는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자고 저

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을걷이가 끝난 다음 탈곡도 하면서 안개틀논에 도랑을 째고 돌을 채워넣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군요. 겨울이 지나 올해 초봄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힘이 들어서 결근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안타까와 이렇게 서서 궁리하고있었습니다.》

처녀는 목이 갈리였다.

《하지만 기어이 해내고야말것입니다.》

순절은 이야기하다보니 안타까운 심정까지 내비치였는데 스스로 그것에 반발하는것이였다.

두 군관은 아무 내색도 없이 처녀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심중하게 들어주었다.

《참 기특하오. 처녀분조장이 수고하누만.》 하는 중대장의 말에 정치지도원이 《일하는 잡도리가 마음에 드오. 진짜 농장의 주인답소.》 하고 응수하였다. 그 순간 그들의 눈길이 마주쳤다.

《한 닷새동안에 해치울수 있지 않을가요?》

중대장이 묻는 말이였다.

《예.》

정치지도원이 대답했다.

《처녀동무.》 중대장이 순절이에게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오. 우리가 도와주겠소. 래일부터 우리가 와서 와닥닥 해치우겠소. 돌을 실어나르는 뜨락또르를 한대만 동원시켜주시오.》

순절은 깜짝 놀랐다. 너무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며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뜨락또르는 농장에서 내주었습니다. 야! 이제는 다 풀렸습니다!》

군관들은 껄껄 웃었다.

《그럼 그렇게 알고있소. 자, 우린 가겠소.》

중대장은 처녀분조장을 도와주게 된것이 기쁜듯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어주며 떠나갔다.

그때 처녀는 펄쩍 정신이 들었다.

《아니, 중대장동지! 제가 정말 철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나 망탕하면서… 일없습니다. 훈련에 바쁜 군대동무들에게 부담을 끼치면 어

쩝니까.》 하고 울상을 했다.

《래일 다시 오겠소.》

군관들은 활기있게 걸어갔다.

순절은 몇걸음 따라가다가 멈추어섰다. 이제는 별수 없다. 아버지가 해준 말에 의하면 자기가 아직 학교에 다니던 어느해인가 폭우가 내려 경사지의 강냉이밭이 패워나가는것을 군대들이 달려와 피해를 막아주었다고 한다. 그때도 그들은 바로 저들처럼 긴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을것이다.

인민군대가 다음날 약속대로 행렬을 짓고 노래를 부르며 안개들논에 나타났다. 그들은 그 어려운 공사를 닷새동안에 어김없이 끝냈다. 2분조원들은 너무 감격하여 군인들을 붙잡고 환성을 올렸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하였다.

(우리 군대가 제일이야.)

순절은 속으로 몇번이고 외웠다. 하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방도가 생기고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는것일가.

기쁜 일이 련달았다. 군인들이 협조해서 암거작업을 해준 사실에서 느끼는바가 컸던지 혜옥이 어머니가 순절이네 집으로 와서 기르지 못하겠다고 하며 두고갔던 돼지새끼들을 도로 가져갔다. 혜옥이 어머니는 순절이 어머니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노력하면 얼마든지 돼지를 먹일수 있는데… 분조장네는 다섯마리나 먹이지 않나요. 내 머리통이 그렇게 좁다우. 분조장한테 미안해요. 말 잘해주우.》 이렇게 사죄하였다. 녀인이 집단의 노력과 힘에 대해 생각을 많이한것 같았다. 힘있게 전진하며 약동하는 분조의 모습에서 그것을 느꼈으리라.

안종기도 점점 달라져가고있었다.

순절은 어느날 자기 집에서 키운 돼지와 마장석반장이 작업반돼지우리에서 내준 돼지를 합해서 두마리를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고 인사를 전하였다.

순절은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길에 태평농장을 지나치다가 불시에 기사장의 딸 로경애를 만났다. 소달구지를 떠나보내고 자기는 돌아가는 길을 단축하려고 태평농장을 가로지른 수로로 향했기때문에 경애를 만날수 있었다. 태평농장을 지나고 논벌을 꿰지르면 잠정농장과의 경계선을 이루며 흐르는 수로에 이른다. 대수로를 건너

다시 논벌을 지나면 잠정마을에 닿는다. 아직 수로에 물이 흐르지 않아서 쉽게 건늘수 있었다.

하늘색머리수건을 쓰고 파란 솜옷을 입고 까만 바지를 입고 솜신을 신은 몸매 자그마한 로경애가 어떤 나이들어보이는 농장원과 같이 마주오고있었다.

《아이, 경애언니!》

순절이가 먼저 이야기에 열중하고있는 경애를 알아보고 소리쳤다.

《너 순절이구나.》 경애는 반기며 같이 오던 사람더러 먼저 가보라고 했다.

《몰라보게 숙성했구나!》

경애는 순절이와 손을 맞잡았다. 순절이는 경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야, 정말 오래간만이야요! 농산작업반 기술원을 한다지요. 일이 바쁘나요? 입술이 다 트구.》

건강하고 성미가 시원시원한 순절이는 왜 그런지 연약해보이고 살이 빠진것 같은 경애의 얼굴을 보며 동정을 금치 못했다.

경애는 서글프게 웃었다.

《내가 많이 상했지?》

《말이 아니야요. 너무 무리하는것 같아요.》

순절은 속에 없는 말을 했다. 그는 경애가 왜 얼굴이 상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았다. 지금은 기술원이 바쁜 시기가 아니였다. 그러니 무리하게 일할것이 없었다. 경애의 얼굴에서 살이 빠지고 연약해보이는 진짜리유는 뻔했다.

참으로 모를 일이다. 왜 경애의 어머니는 딸의 혼사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는것일가. 철수와 좋아한다면 그와 결혼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순진한 순절에게는 도저히 리해되지 않는 일이였다.

스무살도 되지 않는 순절이는 이성문제에 참견할수가 없어 속으로만 경애를 동정할뿐이였다.

《뭐 무리하는것도 없어.》

경애가 대답했다. 그는 어린 처녀에게 속을 터놓을수도 없어 그 이상 더 말하지 않고 어떻게 여기 나타났느냐고 물었다.

순절은 중대에 원호물자를 보내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다.
《너 참 쉽지 않는 처녀분조장이구나. 너의 소식을 좀 들었다. 학교때 소년단위원장, 사로청위원장을 하던 그 본때로 농산분조장일을 한다구 칭찬이 자자하더라.》
《아이 언니두, 난 아직 서툴어요. 정말 분조장사업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보람이 있어요. 하나하나 일이 펴나가요.》
순절이는 군대들이 암거작업을 도와 끝낸 후 분조의 분위기가 앙양되였고 혜옥이 어머니도 돼지새끼들을 다시 가져간 사실을 말했다.
《안종기아버님은 분조 두벌농사일에 앞장섰어요. 정말 그 아버님은 일을 요령있게 잘하는 실농군이예요. 난 많이 배워요.》
순절은 이어서 안개틀논 암거공사를 끝냈으니 이제 돼지들을 길러 얻은 두엄을 논밭에 내면 수확고가 쑥 올라갈것이고 그러면 애쓰고 고생한 보람이 나타날것이라고 말했다.
《하여튼 나는 너한테 머리숙어진다.》
경애는 이어 명숙관리위원장이 잘있느냐고 물었다. 벌써 몇달째 잠정리에 가지 않는 경애로서 고향이 몹시 그리웠다.
《잘있어요. 명숙관리위원장을 두고 농장원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6작업반 금옥이를 알지요? 그 애 노래소리가 색갈이 독특해서 군에서뿐아니라 도에서도 데려가려 했는데 리당비서동지가 꾹 눌러놓아 울기까지 했어요. 농촌에서 로력자가 빠져나가는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생각했었지요.》
순절은 경애언니가 농촌을 뜨지 않겠다고 하는데 다른쪽에서 뽑아가면 영향이 나쁘지요 하고 말하고싶었으나 그냥 넘기고 계속했다.
《그랬는데 알고보니 금옥이가 들뜨지 않게 교양하려고 그랬다더군요. 관리위원장동지가 금옥이를 불러 평양음악무용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자 금옥이는 막 춤을 추었대요. 관리위원장동지가 관심해주어서 입학시험도 잘 치게 됐대요. 정말 쉽지 않는 관리위원장이지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경애 어머니 양옥실이 심장병이 더해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순절이는 말할수 없었다. 양옥실은 관리위원장이 경애가 군으로 시집가는것을 반대하더니 금옥이 대학가는 일에는 그

토록 관심이 크다며 남편에게 화를 터뜨리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로정만은 안해의 지청구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일만 하는데 갑자기 늙어지는것이 눈에 뜨이였다.
이런 사정을 순절이가 어떻게 경애에게 얘기해주랴.
《언니, 한번 집에 가봐요.》
순절은 이렇게 말했을뿐이였다.
《응, 가봐야지…》
가볍게 한숨짓는 경애는 곽철수가 요새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무척 알고싶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철수에 대해서는 끝내 묻지 않았다. 철수생각을 하면 그리고 철수를 포기하도록 꾸준히 진절머리나게 설복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쓰려왔기때문이였다.
이것이 순절이로 하여금 섭섭함을 금치 못하게 했고 의협심이 분출하도록 했다. 왜 철수동무에 대해 묻지 않아요, 철수동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빠져있는지 알기나 해요… 끝내 순절은 의분을 터쳐 경애의 가슴을 허비였다.
《경애언니, 그런데 왜 철수동무를 묻지 않나요?!…》
수척해진탓에 더 커진 경애의 눈이 순간 컴컴해지면서 순절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철수동무를 잊었나요?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나요?》
순절이는 그냥 경애를 아프게 했다.
이성문제에 감히 참견하지 못하고있던 순절이의 이 돌발적인 질책을 받은 경애는 너무 불의적이고 뜻밖이여서 또 대답을 주기에는 상대가 너무 어리기때문에 꼼짝하지 않고 여전히 쳐다보기만 했다.
《내가 이런것을 알려고 하기에는 아직 어리지요?》
순절은 경애의 눈을 피해 옆으로 돌아섰다. 기분이 나빠 시쁘둥해졌다.
순절의 귀에 뜻밖의 소리가 들려왔다.
《순절이, 고맙다.》 하며 경애는 눈길을 떨구었다.
순절은 순간 환희에 넘쳐 웨쳤다.
《언니, 이제 뭐라고 했어? 고맙다구 했어요?》
경애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순절은 그의 작은 손을 자기의 넙적한 손으로 와락 붙잡고 흔들었다.

《그렇지요, 언니? 이 순절이가 괜찮지요?》
순절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알았어, 난 알았어. 언니, 난 가겠어요. 잘있어요.》
순절은 머리수건을 펄펄 날리며 아직은 황량하지만 이제 곧 벼모가 꽂혀 주단을 펼친듯 푸르러질 들판을 달리다싶이했다. 어느덧 겨울이 물러가고 훈훈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대지였다.

32

그날 밤.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렸다. 소설을 읽고있던 경애는 와뜰 놀랐다.
리합숙의 이 자그마한 4호실로 태평농장의 젊은이들이 자주 찾아왔다. 처녀들도 있었고 나이지긋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경애에게서 책을 빌리기도 했고 농업과학지식을 배우기도 했으며 그저 이야기나 하자고 찾아오기도 했다. 인정이 있고 사람들을 잘 따르며 따뜻이 대해주는 경애에게는 동무들이 많았다. 경애는 이야기를 재미나게 잘했다. 그래서 특별한 리유없이 경애를 찾아와 한담이나 하자고 찾아오는축들이 적지 않았다. 4호실에서는 자주 웃음소리가 터지군 했다.
하지만 경애의 어머니가 찾아와 딸과 언쟁을 하고 요새는 목소리는 높지 않지만 늦도록 앉아서 무슨 얘기인지 끝없이 해대군 했고 그것이 무슨 일때문인지를 모두가 알게 되면서 젊은이들의 발걸음은 차차 떠졌다. 경애자신도 그전같이 명랑하고 사근사근하지 못했으며 늘 수심에 잠겨있었고 누구와 이야기를 하다가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숨을 쉬군 했다. 왕청같은 대답을 하군 해서 상대방을 당황케 하고 옹색하게도 하여 4호실은 차츰 고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경애는 외롭고 쓸쓸해지는 심정을 이겨내려고 소설책들을 닥치는대로 빌려다가 읽었다.
이제는 조용하고 고적한 분위기에 습관되여갔다. 어머니가 때없이 찾아오군 하여 그러한 날이면 몹시 괴로왔다. 어머니는 경애가 마음

을 돌리도록 끊임없이 설복하였다. 네가 마음만 돌려세우면 당장이라도 읍이 아니라 해주나 평양에 가서 살수 있다, 이러루한 소리를 지칠줄 모르고 반복했다. 경애는 눈을 반쯤 감고 앉아서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동정이 갔다.

어머니의 끈덕진 설복은 오히려 경애로 하여금 정의감으로 가슴을 끓게 하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경애가 와뜰 놀란것은 어머니가 오지 않았는가 해서였다. 어머니가 올가봐 늘 신경이 팽팽해있는 경애였다. 어머니가 왔다간 날 밤이면 한잠도 못 자고 뜬눈으로 밝히군 했다.

《있나요?》

뜻밖에도 사내아이의 목소리였다. 사내아이가 문을 두드렸다.

경애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문께로 가서 걸쇠를 벗기고 문을 열었다. 경애가 아는 3반장의 아들이였다.

《너 용인이구나. 어떻게 왔니?》

《누가 찾아요.》

《나를?》

《예.》

《누군데?》

《모르겠어요, 처음 봐요. 키가 크구 눈이 번쩍거려요.》

키가 크구 눈이 번쩍거린다… 밤이니까 소년이 얼굴을 잘 보지 못했을것이다.

《그런데 나를 만나겠으면 여기로 올게지 밤에 밖으로 왜 불러낸다던?》

《꼭 나와서 만나야 한대요. 나보구 데려다달랬어요. 어떻게 할가요? 같이 갈래요?》

《너 가서 싫다구 한다구 전해라, 어서.》

《예, 그러지요.》

소년이 자박자박 걸어갔다.

경애는 문을 닫아걸고 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은밀하게 만나자고 하는지 알수 없어 방안을 서성거리였다.

도대체 누굴가, 어머니가 보냈을가, 그렇다면 왜 밖으로 불러낸담? 남이 볼가봐? 혹시 철수?… 갑자기 심장이 활랑거리였다. 큰 소동이

일어났댔으니까 호실에서 만나면 다시 소문이 퍼지면서 소요가 일어날가봐 불러낼수 있다.
(아니, 그 동무가 아니야. 그 동무가 올탁이 없어.)
경애는 서글퍼지면서 심장이 쑤셔났다.
(아니야… 만일 그 동무라면 더욱 만나면 안돼, 안돼…)
그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설음이 북받쳐올랐다. 만나면 안된다는것이 바로 비극이 아닌가.
(그 동무일수 있어. 오전에 순절이를 만났댔지. 순절이가 내 얘기를 했겠지. 내가 고맙다고 하자 그리도 기뻐하며 달려간 순절이가 철수동무한테 말을 안할수 없어. 그러니까…)
경애는 벽에 붙어서서 눈을 감고 머리뒤통수가 딱딱한 벽에 닿도록 얼굴을 쳐들었다.
(내가 실수했구나. 고맙다는 말을 왜 했을가.… 정말 순절이가 고마웠어. 그래 고맙다고 한거야. 그게 실수였어.)
소년은 다시 오지 않았다.
(다행이구나. 만약 그 동무라면 다행이야, 다행이야.…)
그러자 다리맥이 탁 풀려 경애는 벽을 따라 미끄러져내려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갔구나, 영영… 다시는 못 보겠구나.)
서글픔이 온몸을 휩쌌다.
바로 그 순간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경애는 눈을 번쩍 떴다. 눈에서 불이 황황 일었다.
《누나, 나야요. 또 왔어요.》
경애는 뛰쳐일어나 헛손질을 해가며 걸쇠를 벗기고 문을 열었다.
《꼭 만나야 한대요. 좋은 사람이예요. 이름까지 대줬어요, 철수라구.》
경애는 문설주에 부딪쳤다. 눈을 감았다. 쿵쿵 심장이 울리였다. 그다음은 모든 행동이 리성을 떠나 진행되였다.
처녀는 솜옷을 찾아입고 머리수건을 두른 다음 신장에서 신발을 꺼내여신고 사내아이를 따라나섰다.
밖은 달이 밝았다. 해가 저물면서 날씨는 추워졌으나 달빛이 비단필처럼 흘러내리고있어 아늑한감을 주는 밤이였다. 길이 하얗게 보였

고 마치 꿈속을 걷는듯 했다.
돌부리에 걸치여 비칠거리자 소년이 그의 손을 잡았다. 경애는 소년의 손을 꽉 잡고 그 자그마한 애에게 의탁하여 흘러내리는 달빛속에 걸었다. 마을을 벗어나자 과수원이 펼쳐졌다. 잎사귀가 떨어진 앙상한 가지들이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것이 마치 눈물에 젖어있는것 같았다. 과수원안과 마른 풀덤불속은 컴컴했다. 그 어둠은 엄숙한 침묵속에 잠긴듯 하였다.
마른 풀덤불 저쪽, 과수원에서 무엇이 얼씬하더니 체격이 큰 사람이 나왔다.
《저 사람이예요. 나는 가겠어요, 일없지요? 좋은 사람이예요. 무서워말아요.》
소년은 이렇게 말하며 뒤에 떨어졌다. 그러나 경애는 소년의 말을 듣고있을새가 없었다. 그는 소년을 떨구어두고 급히 마른 풀덤불을 헤가르며 철수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먼발치에서도 철수를 눈으로가 아니라 륙감으로 알아보았던것이다.
경애는 철수에게 가기 바쁘게 그의 품에 안길듯이 바싹 다가섰다. 처녀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그들은 그런 상태로 몽롱한 달빛속에 한동안 서있었다. 너무도 숨이 차서 헐떡이면서도 떨어지고싶지 않아 마치 녹아붙은듯 그렇게 서있었다.
《경애.》
마침내 철수가 입을 열었다.
《예.》
경애는 공손히 대답했다.
《여기 좀 앉자구.》
《네.》
둘은 컴컴한 과수원기슭의 마른 풀우에 어깨를 붙이고앉았다. 행길도 보이지 않았고 달빛속에 희미한 들판도 불빛이 반짝이는 마을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 세상에 둘만이 존재하는것 같이 느껴졌다. 몽롱한 달빛속에서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철수는 달빛을 받아 별로 창백해진 경애의 갸름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고민의 시련을 겪으며 여윈 얼굴에서 눈만이 커지였다. 눈물에 젖은 그 눈에 달빛이 어려 마치 등불처럼 황황 불타는듯 했다. 철수

는 심장이 터질것만 같았다. 그는 처녀의 눈길을 피하며 속을 터치였다.

《경애동무, 나는 내가 찾아온것이 잘한것인지 잘못한것인지 모르겠소. 어쨌든 심장이 가리키기에 찾아왔소. 이렇게 찾아온것이 경애동무의 아픈 가슴을 더 아프게 할런지도 모르겠소. 하지만 나는 오지 않을수 없었소. 순절이가 나에게 말했소, 경애언니는 철수동무를 생각하며 고민속에서 얼굴이 훌쭉해져가는데 남자가 뭐예요 하지 않겠소. 성이 나서 나를 몰아댔소. 나를 용서하우. 나는 이제 다시 소동이 일어나면 경애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가, 차라리 나를 잊어버리도록 내버려두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더랬소.》

활활 불타는 눈으로 철수를 지꿎게 쳐다보며 듣고있던 경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철수는 머리카락을 움켜쥐였다.

《난 순절이한테서 경애의 정상을 듣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인정했소. 그리고 어서 끝을 보아야 한다고 결심했소.》

《어떻게요? 어떻게 끝을 봐요?》

경애가 초조하게 다우쳐물었다.

《…》

《어서 말해요.》

《경애, 모든것이 내탓이요. 나때문에 경애도 이 모양이 됐고 경애의 어머니가 군병원에 입원한것도 마치 나때문인것처럼 느껴지오.》

《언제요?!》

경애가 소스라치듯 놀랬다.

《그제.》

경애는 심장이 띠끔했다. 또 한번 띠끔했다. 침묵이 흘렀다. 들바람에 마른 새초들이 설렁이였다.

불시에 경애는 철수의 가슴에 얼굴을 콱 묻었다. 그리고 흐느껴울기 시작했다.

철수는 흐느낌에 떠는 처녀의 가냘픈 어깨를 잡고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그는 괴로움에 미칠것만 같았다. 그래, 이 소동과 비극의 장본인은 나다, 경애와 그의 가정에 평온이 깃들게 하자면 내가 아무리 괴

롭더라도 물러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게 되였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불시에 경애가 얼굴을 들고 말했다.

《철수동무, 우리 결혼하자요.》

뜨겁게 열렬히, 애타게 간절히 말했다.

철수는 흠칫했다. 자기가 품고온 결심을 내비친 상태에서 그와는 정반대되는 호소를 하는것이 아닌가. 그는 얼결에 대답했다.

《부모들의 승인이 없이?…》

《부모들이 승인할거예요. 어머니도 병이 나을거예요. 어머니도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더 노력하지 않게 될거예요, 예? 철수동무.》

처녀가 불같이 뜨겁게 달아올라 열렬히 호소하는 바람에 철수는 미궁에 빠진듯 했다.

《왜 가만있어요? 왜 시원하게 대답 못해요?》

《…》

철수는 대답을 할수 없어 경애가 흔들어대는데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기만 했다.

《철수동무는 내가 싫어요?》

《무슨 소릴 하오? 내가 왜 이렇게…》

그의 말을 경애가 막았다.

《그럼 됐어요. 나를 버리지는 않겠지요? 나를 배반하지는 않겠지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세요. 나는 각오가 되여있어요. 깨끗이 갈라지면 되는거 안예요?》

철수는 갑자기 가슴이 서늘해졌다. 자기를 잊어달라는 말을 꺼내려했지만 정작 경애가 이렇게 말하니 손에 잡은 황금새를 잃어버릴것 같은 아쉬움이 치밀었다. 그는 이 섬찍해지는 순간을 이겨내야 했다.

《갈라지면 되는거지.》 하고 그는 뚝해서 대답했다.

《그렇지만 철수동무, 나는 동무가 농촌에서 일하고있다는 한가지 리유때문에 어머니가 그토록 반대하는것이 가슴아파요. 그래서 나는 더욱 어머니와 엇서는거예요. 나에게는 다른 남자가 필요없어요. 나와 함께 이 향촌에서 일생을 꽃피울 사람이 필요해요. …이제는 동무가 대답할 차례예요.》

철수는 뜨거운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랐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한 처녀인가! 처녀야, 너의 깨끗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처녀의 사랑을 받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구나! 나는 너를 다 몰랐었다, 너는 높이 서있구나.

불처럼 뜨거운것이 그들을 하나로 융합시켰다. …

휴식일에 경애는 군병원으로 가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한호실에 다른 환자가 있기때문인지 경애의 혼사문제를 입밖에 꺼내지 않았다. 경애는 다행으로 여겼다.

33

형식상 곽기춘이의 상급인 기계화작업반장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마침 그곳에 나타난 기사장 로정만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기사장동지, 연유취급자는 누구에게 종속된 사람입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로정만은 그의 애타하는 얼굴을 피하여 다른 곳을 보며 오히려 반문했다.

《왜 그러나?》

《복잡해서 그럽니다. 뜨락또르와 자동차가 다 기계화반에 배속되여있으니까 반장인 나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데 연유는 나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곽령감이 개별적인 운전수들을 대상합니다.》

《그럼 반장은 뭘해?》

《작업증과 운행증을 떼주고 그걸 보고 곽령감이 기름을 직접 내줍니다. 기름의 대부분을 기계화반이 쓰는데 문서놀음을 하니까 기동성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어제 화물자동차가 사리원에 갔다오던중 휘발유가 떨어져 도중에서 섰습니다.》

로정만이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운행증을 잘못 떼주었구만.》

《곽령감이 지내 깍쟁이를 부렸지요.》

《아바이를 불러오게.》

봄갈이를 앞두고 일체 정비에 들어간 뜨락또르들의 상태를 직접 알아보려고 로정만이는 기술원과 함께 기계화반구내를 돌고있었다. 곽기춘이가 왔다.

《불렀습네까?》

《군에서 기름을 제대로 타오우?》

로정만이 철수의 뜨락또르기관부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물었다.

《기름은 3월달에 가서나 제대루 줄것 같소. 지금은 쥐오줌만큼밖에 주지 않소.》

로정만이 머리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어제 사리원에 갔던 화물자동차가 도중에서 왜 섰소?》

《그야 내가 모르지요.》

《휘발유를 제대로 줬소?》

《줬지요.》 곽기춘이 대답했다. 《반장이 뗀 지령대루 주었소. 한데 아마 자유주의를 했겠지요.》

《그건 무슨 소리요?》

《지령에 없는 무슨 개인용무를 보았든가 했겠지요.》

그러자 옆에서 반장이 곽기춘의 메마르고 좁은 얼굴과 구붓하고 꽛꽛한 어깨를 밉살스럽게 쏘아보며 화를 냈다.

《운전수가 개인용무도 좀 볼수 있지 않습니까?》

곽기춘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볼수 있지. 그러나 개인용무를 보라고 휘발유를 출고할수는 없소. 그런걸 막으라구 반장이 있지 않겠나?》

반장이 화끈했다.

《이거야 어디! 난 반장 못해먹겠소!》

로정만이는 아무 소리없이 다시 뜨락또르의 기관부에로 눈길을 돌렸다.

《이건 누구의 뜨락또르요?》

그가 물었다.

《곽철수와 태호의 뜨락또르입니다.》

기술원이 대답했다.

로정만은 아무 소리없이 다음뜨락또르로 향했다. 기술원은 잔소리 한마디없는 그를 의아해서 쳐다보았다.

로정만은 머리가 어질어질해났다. 경애와 관련되여있는 철수의 뜨락또르, 그 철수의 아버지인 인정사정이라고는 전혀 통할것 같지 않는 곽기춘이 한꺼번에 겹쳐들었다. 가뜩이나 한해총화를 지으며 한광훈이한테서 불쾌한 소리를 들었고 농장원총회에서 마장석의 비판으로 해서 머리가 무거워진데다가 경애문제로 처까지 입원하여 골머리를 앓는 상태였다. 그러므로 기계화반장이 제기한 의견따위에까지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 연유취급자를 불러 알아보는것으로 그쳤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질서를 세운 관리위원장이나 그 질서대로 일하는 곽기춘이가 옳다. 그래 더욱 아무말없이 자리를 뜬것이다.

철수의 뜨락또르에 대한 정비정형검열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인 곽기춘이앞에서 정비를 제대로 못했다느니 어쨌다느니 하고 말하면 경애문제와 결부시켜 곡해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로정만이로 말하면 딸의 장래문제는 자기가 장차 해결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는 포기상태였다. 그런데 경애 어머니가 자꾸 들고다니였고 지금은 입원한 상태이니 더 복잡해져서 그도 머리가 아파난것이다.

그렇다고 사업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될것이다. 로정만은 철수와 태호의 뜨락또르는 그냥 지나쳤지만 다른 뜨락또르와 농기계들의 정비상태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검열하며 잔소리를 하였다.

저녁총화모임에서 벼모판씨뿌리기가 박두한데 맞게 그 준비사업을 다그칠데 대하여 명숙이가 기사장, 농산지도원에게 강조하고 다른 지도원들도 담당한 작업반들에 내려가 장악통제를 잘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할말을 기본적으로 다 한것 같은데 로정만이 불쑥 입을 열었다.

《작년에 바람막이바자를 형식적으로 해서 바람피해를 본 분조의 모판들에서 올해는 특별히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명숙이가 기사장의 말을 받았다.

《분조장들과 모판관리공들의 책임성이 중요해요. 작년에 바람이 심할 때 5반 2분조장 류순절동무는 모판관리공들을 데리고 나가 장밤 책임적으로 모판을 보호했어요.》

로정만이 실농군과 교체하자고 제기했던 처녀분조장이래서 허명숙이 의도적으로 칭찬하는것은 아니였다. 류순절이 처녀분조장으로서 사업을 시작하여 첫해는 말할것도 없고 작년에도 존재감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못했다. 미숙한것은 사실이였다.

하지만 류순절은 심각한 교훈을 찾았다. 분조관리제를 옳게 실시하여 자기 분조를 추켜세울 방도를 찾았으며 실천에 옮기고있었다. 그가 하는 일들이 볼수록 기특했다. 로정만이가 지금에 와서 순절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물론 알수 없었다. 명숙은 로정만에 대해서는 그가 농장원총회가 있은 후 될수록 자신을 자제하면서 기사장사업을 알심있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좋게 보고있었다.

기사장은 관리위원장과도 사업토의를 진지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정만에 대해서 대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속심을 얼굴에 표현하지 않는 그를 이전보다 더 어렵게 대하였다. 로정만이 왜 속이 편안하겠는가. 그렇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는다는것은 그만큼 당원으로서 수양되였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 아닐가.

농장원총회후에 리당비서방에 로정만이 나타나지 않고 집으로 가버린 일이 있지만 그것은 리해된다.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듯 태연하게 나타나면 위선적인 행동으로 보일수도 있었다.

한해총화이후의 로정만이를 명숙은 더 믿으려 했고 좋게 평가하였다. 딸 경애문제로 집안이 좀 복잡했지만 그것도 일체 입밖에 내지 않는것을 보면서 명숙은 생각이 많았다. 단지 새 농산지도원 강현과의 관계에서 지내 공식적인감이 나는데 이것은 두사람이 인간적으로 호흡이 잘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질것이다.

《이것은 다른 얘긴데, 올해에는 5작업반에서 자체로 농사짓도록 하는것은 물론이고 다른 2개 작업반도 동시에 자체로 모내기를 하게 하려는 생각인데 어떻겠어요?》

명숙이가 이렇게 문제를 꺼냈다.

모두들 생각하느라고 입들을 다물었다. 작년에 5작업반에서 곡절을 좀 겪었으니 심사숙고하는것이다. 이윽하여 강현이 먼저 말을 했다.

《나는 농산 5작업반과 함께 2개의 작업반에서 동시에 자체로 모내기를 하게 하자는 위원장동지의 제기를 지지합니다. 5작업반은 작년도에 경험을 쌓았으니 금년에는 틀림없이 됩니다. 5반에는 1분조장이나 4분조장이 능력이 좀 딸리는데 도와주면 될것입니다. 처

녀분조장이 이끄는 2분조는 작년에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해냈습니다. 안개들논의 랭기를 뽑는 공사를 인민군대의 지원을 받아 끝내고 지금 기세가 충천해있습니다. 순절분조장에게 돼지를 기르지 못하겠다고 그의 집에 가져갔던 혜옥이 어머니는 잘못을 깨닫고 돼지새끼를 다시 가져다 먹이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5작업반은 한해동안에 큰 전진을 했습니다. 다른 작업반들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현의 말이 끝나자 로동지도원이 우스개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강현동무가 작업반을 떴으니 마장석반장이 혼자 해낼수 있을가.》

대답은 명숙이가 했다.

《새 작업반기술원동무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계획지도원이 《한개 작업반만 더 해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조절안을 냈다.

《아니, 2개 작업반을 더 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온 농장이 하고.》

명숙은 이미 결심되여있었다. 그가 일단 결심하면 양보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는 모임참가자들은 그이상 더 의견을 내려 하지 않았다. 명숙이가 내놓은대로 모두 3개 작업반이 자체로 모내기와 김매기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렀다. 로정만은 처음부터 침묵을 지키고있는데 바로 자체로 농사짓는 문제를 두고 마장석이 비판했기때문이였다.

《기사장동무는 다른 의견이 없어요?》

명숙이가 마지막으로 로정만에게 물었다.

《없습니다.》

로정만은 단마디로 대답했다. 그는 명숙이가 이에 앞서 리당비서와 합의했을것이라고 짐작하고있었기때문에 다른 의견을 내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강현동무, 그러면 그 2개 작업반을 어느 작업반으로 하는것이 좋겠어요?》

명숙이 물었다. 그는 벌써 실무적인데서 강현이에게 의거하고싶어지는것이였다.

《그건 관리위원장동지가 더잘 알수 있습니다.》

강현은 역시 령리한 사람이였다. 한개 작업반에 파묻혀있던 그는 아

직 농장전반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다. 작업반장들에 대해 대체로는 알고있었으나 농산지도원의 눈으로 재평가하고 파악해야 하는데 그는 농산지도원사업을 방금 시작했다.

《나는 농산1반과 2반에서 시도해봤으면 하는데요.》

이때 비로소 로정만이가 입을 열었다.

《2반장 윤구는 덜렁거리는 성격에 조직력이 약하고 타산이 세밀하지 못하지요. 2반대신 다른 작업반을 선정하는것이 어떻겠는지.》

로정만이가 가만 앉아있었다 하여 농장일을 무관하게 대하고있은것은 아니였다. 두개의 작업반을 더 자체로 모내기를 하도록 하자는 명숙의 제기에는 어차피 명숙이가 결심대로 할것이기때문에 잠자코 있었지만 구체적인 작업반을 선정하는데서는 자기 생각을 말했다. 그가 편협한 사람은 아니였다.

명숙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건 옳습니다. 그러나 바로 윤구반장이 그런 결함이 있고 또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느냐 하는 낡은 관념에 깊이 빠져있기때문에 그를 우리가 잘 도와주어 5반에서처럼 성공하면 다른 작업반장들과 전체 농장원들에게 주는 영향이 좋을것입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강현이까지 우려를 나타냈다.

《윤구반장이 좀 미타한것은 사실입니다.》

그 어떤 편견이나 개인감정에 빠지지 않고 실무적으로 사업을 대하는 강현이였다. 그는 로정만이 윤구반장을 우려한것이 정확하다고 보았던것이다.

강현이까지 머리를 기웃거리였지만 명숙은 동요하지 않았다.

《내가 2작업반을 전적으로 맡겠어요.》

고맙게도 모임에 참가한 3대혁명소조책임자가 명숙을 도와주었다.

《그렇게 하는것이 공격정신입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에 듭니다. 우리 소조에서 1반과 2반을 분조에까지 내려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명숙은 그의 말에서 힘을 얻었다.

《소조원동무들의 특징은 이신작칙하는것인데 그렇게 분조에까지 내려가 이끌어주면 문제없을것입니다.》

날과 달이 가면서 명숙은 더욱 자신심있게 주동적으로 사업을 구상

하고 내밀었으며 잠정농장은 그에 따라 전진해갈것이다. 로정만이 농장일을 좌지우지하던 시기는 지나갔다. 로정만자신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 작업반이 올해에 자체로 모내기와 김매기를 하기로 결정했다는것을 알게 된 윤구가 기사장 로정만을 찾아와 다시 토론해달라고 제기했다.

《나는 자신없습니다.》

《동무가 자신없어한다 해서 이미 결정된것이 달라질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오? 관리위원장의 성미를 모르오? 정 못하겠으면 내게가 아니라 관리위원장한테 직접 제기하오.》 하고 로정만이 딱딱한 얼굴로 퉁을 놓았다.

윤구는 두덜대며 물러갔다. 그는 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제기할 용기가 없었다. 그런데 관리위원장이 그를 찾아 작업반으로 왔다.

34

최윤구는 침울한 얼굴로 관리위원장을 맞이했다. 명숙이가 관리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설명하는데 윤구는 등을 구부정하고 서서 줄곧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들었다. 다 듣고나서는 한숨을 쉬였다. 기사장을 만나고온 후 더는 자기를 옹호해줄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한 윤구였기에 관리위원회의 지시를 흥정할 배심이 없어졌다.

《왜 그래요?》

명숙이가 그에게 왜 한숨을 쉬는가라는 뜻으로 물었다.

《작년에 5작업반에서 시범적으로 하면서 애를 먹었지요?》

그래도 윤구는 윤구여서 이와 같이 조심스럽긴 해도 속을 터놓았다.

《첫걸음떼기가 항상 힘든 법이예요.》

명숙은 5반의 경험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위원장이 1반과 2반에 자주 나와볼것이며 3대혁명소조원들도 도와주겠다고 하니 신심을 가지고 해보자고 한동안 그를 설복하였다.

《왜 시원한 대답을 못해요?》

《나는 미리 장담하는 성미가 아닙니다.》
윤구의 이 대답은 마음에 들었다. 작년에 지원로력이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고 펄쩍 뛰며 놀랍게 반문하던것에 비해서는 한걸음 전진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날 저녁 그는 마장석을 찾아갔다.
《이 꺽다리가 웬일이야?》
《여보게 〈마대장〉, 당신네 금년에는 지원로력을 아주 안 받고 할 수 있소?》
《왜 〈마대장〉이 또 마지막에 손을 내미는걸 보고싶어 그러나? 아마 코웃음을 쳤겠지?》
《코웃음을 쳤네. 한데 그 불똥이 우리한테 튀여왔단 말이야.》
마장석이 하하 웃었다.
《그거 잘됐다. 그래서 나한테 왔구만? 내 최윤구가 나처럼 지원자 없이 한다면 손에다 장을 지지겠네.》
윤구는 찌뿌둥해서 이렇게 대꾸했다.
《너무 전체 하지 말라구. 담배나 한대 주게.》
그들은 같이 담배를 피우며 오래 이야기했다. 윤구가 주로 묻고 마장석이 기본적으로 대답을 하였다. …
모내기가 시작되였다.
이른새벽 명숙은 2반으로 나갔다. 이미 소조원들이 준비사업을 도와주었고 명숙이도 나서서 농장원들을 교양하고 궐기시켰으며 5반의 경험을 이야기했었다. 이런 준비사업에 기초해서 모내기전투가 2반에서 조용히 시작되였다. 지원자는 한사람도 없었다. 날이 희붐하게 밝아오는 속에서 작업복바지를 걷어올리고 1분조의 모판에 들어갔다. 분조장과 몇명의 분조원들이 인사했다.
왜 사람이 적어보이는가 하는 명숙의 물음에 분조장은 좀 늦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작년에 5반에서 본 결함이 반복되고있었다.
명숙은 계속하여 2분조, 3분조, 4분조 모판을 돌아보았다. 4분조 모판에서 강현의 안해 리신옥을 만났다. 강현이가 5작업반에서 기술원을 하였으므로 안해는 2작업반에 배치했었다.
리신옥은 화송리에서 작업반기술원을 했는데 강현을 따라 잠정리로 온 후로는 평농장원으로 일했다. 그랬다가 얼마후 4분조장이 되였다.

신옥은 복스럽게 생긴 녀자였다. 강현이로부터 그들의 관계를 들어 알고있으므로 명숙은 각별히 친근감을 가지고 신옥이와 만났다.

《밥도 지을래 아이들도 돌볼래 분조장사업도 할래 힘이 들지요?》

명숙이가 따뜻하게 물었다.

통통한 손으로 솜씨있게 모를 뜨고있던 신옥은 명숙을 쳐다보며 방긋 웃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다 한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도 짓고 아이들을 탁아소에도 데려다주고. 그러지 않구야 누구보다 먼저 모판에 나와야 하고 저녁에도 늦게야 집에 들어가야 하는 분조장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옥의 동실한 얼굴이 려명의 엷은 빛이 어리여 무척 곱게 보였다. 명숙은 신옥이옆에 나란히 앉아서 모를 떴다.

어느덧 동녘하늘이 불그레해졌다. 날이 밝으면서 작업반원모두가 나와 모를 뜨는데 유독 반장 윤구만이 보이지 않았다.

윤구를 작업반사무실앞에서 만났다.

《반장동무는 여기서 뭘해요?》

키큰 윤구는 무슨 작은 쪽걸상들을 달구지에 싣고있었다.

《그건 뭔가요?》

《모뜰 때 앉는 걸상입니다. 모판에 내가려구요.》

명숙은 온몸의 피가 얼굴에 쏠리는것 같았다.

《그건 어제 벌써 내다놨어야지요 예, 반장동무? 작업반원들은 다 모판에 붙었는데 동무는 여기서 우물거려요?》

윤구는 침울하게 대답했다.

《내야 반장인데 조직사업두 하구 보장사업두 해야 하잖겠습니까?》

《조직사업, 보장사업?》 어처구니가 없어 명숙은 숨이 차기까지 했다. 《전투조직은 사전에 했구 분조별로 경쟁이 붙었는데 동무가 무슨 조직사업을 해요? 반장은 모를 안 떠요? 어서 모판에 가서 모를 떠요. 먼저 일을 나가 하고 제일 늦게 들어오는 이신작칙이 바로 조직사업입니다! 2작업반이 늘 영농공정이 늦어지는 원인을 오늘 찾았어요. 반장동무의 건달풍, 말공부에 있어요.》

명숙의 눈에서 불이 이는듯 했다.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녀인의 매력을 더해주고있었지만 윤구는 가슴속이 서늘해났다.

《나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내가 느꼈는데 반장동무는 지원자들의 보장사업이요, 무슨 조직사업이요 하면서 논에는 들어가지 않고 뒤전에 서있었어요. 제1선이 아니라 제2선에 있었단 말입니다.》

명숙은 2작업반의 실태를 바로잡고 모내기전투를 옳게 결속지으려는 확고한 립장에서 드팀이 없었다.

작업조직에서 세밀하지 못하고 분조장들에게 욕은 잘하지만 실속있게 그들을 틀어쥐지 못하는 윤구를 3대혁명소조원들이 많이 도와주었다. 윤구자신도 관리위원장이 모내기현장을 자주 찾아오고 저녁총화에도 참가하여 떠밀어주고 소조원들이 방조를 주니 각성이 되였다.

한번은 모내는기계운전공이 휘발유때문에 기계를 세운적이 있었다. 윤구의 먼 친척 된다는 사람의 막내아들인 모내는기계운전공이 그랬다.

언젠가 오만수로인이 윤구의 그 륙촌형벌 되는 사람보고 자네 아들이 모내는기계운전공이니까 라이타에 쓰는것을 비롯하여 휘발유를 푼푼하게 쓰겠지 하고 빈정대듯 말한적이 있었는데 과연 그는 아들에게서 휘발유를 잘 얻어썼다.

그런데 곽기춘이가 연유를 취급하면서부터는 휘발유통제가 어찌도 심한지 아들은 아버지에게 휘발유 한방울도 없노라고 딱 잘랐다.

《너 그게 진짜냐? 라이타에 쓸 휘발유도 못 줘?》

《못 줍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판인가? 곽기춘이가 그렇게 나와? 흠!… 그러고보면 관리위원장이 사람을 쓸줄을 안다. 빌어먹을, 점점 인심이 박해져가는군.》

그의 아들인 모내는기계운전공이 창고에 휘발유를 타러 갔다. 곽기춘이 운전수들과 운전공들을 개별대상을 하니까 별수 없다. 빨리 휘발유를 타와야 일을 계속 하겠는데 분조장에게서 작업증을 떼가지고 가느라니 시끄러웠다.

《빨리 주시오. 모내는기계를 세워놓았어요.》 하고 그는 급해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곽기춘은 꾸물거리며 장부를 뒤적여보고 차겁게 물었다.

《닷새분을 타갔는데 나흘만에 왔구나. 하루분 휘발유는 어디 갔어?》
《닷새할 모내기를 나흘에 했지요. 지금 우리 2작업반이 지원로력없이 전투하느라 모두 뛰고있는걸 몰라요?》
곽기춘이는 그 말에 아무런 긍정적인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휘발유를 타가며 별수단을 다 쓰는 축들이 있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작업증.》
《여기 있습니다.》
작업증을 받아든 곽기춘은 계산하고 확인하느라고 꾸물거리였다. 조급해난 운전공청년이 화를 냈다.
《그저 작업증밖에 모르누만요. 작업량을 초과수행하는 운전공들의 정신을 따라서 휘발유공급도 해야지요. 시간이 바쁩니다.》
들었는지 말았는지 곽기춘은 장부에 기입할것들을 다 기입한 뒤에야 발브꼭지를 틀었다. 휘발유를 주며 말했다.
《너 봉구령감의 아들이지. 작업증에 너의 사상정신이 다 반영되여있다. 설명은 필요없어.》
《어쨌든 절차가 복잡해요. 시끄럽지 않습니까?》
《복잡해야 해, 시끄러워야 하구. 바쁘다는 녀석이 무슨 사설질이야, 어서 가봐.》
《난 아바이때문에 깍쟁이가 됐어요. 아버지한테 라이타에 쓸 휘발유도 못 드립니다.》
《거 잘됐군.》
청년이 휘발유를 타가지고 모내는기계가 서있는데로 오니 거기에 윤구반장이 얼굴이 시퍼래져가지고 지켜서있다가 꽥꽥 소리쳤다.
《너 기계를 세우고 어딜 갔댔어? 한시가 새로운 때에 기계를 세워?》
관리위원장으로부터 되게 추궁을 받고 그후에도 작업반에 자주 내려오는 명숙이로부터 이것저것 지적을 받으며 정신이 든 윤구는 모판과 논판을 그 긴 다리로 성큼성큼 쉬임없이 오가며 현장지휘를 하느라 분주했다.
《우리 반장의 왁새다리에 자개바람이 일겠군.》
《마장석반장을 닮아가는것 같소.》
《〈마대장〉을 닮는거야 좋은거지.》
작업반원들이 뒤에서 이렇게들 수군거리였다.

모내는기계운전공청년이 기름을 타러 갔다온 사정을 이야기했다.
《알았다. 빨리 발동을 걸어라.》
윤구는 곽기춘의 잔소리를 싫어하던 사람이여서 그가 기계화작업반으로 가게 되자 잘 되였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그의 휘발유통제를 받게 되니 부아가 치밀었다. 그래서 저녁총화시간에 명숙에게 운전공들이 휘발유를 타러 다니느라 시간을 랑비하여 작업실적에 지장을 주는데 종전처럼 분조장이 타다가 현장공급을 하게 하자고 의견을 냈다.
《분조장은 시간을 랑비해도 일없어요?》 명숙의 대답이였다.
《그리고 운전공만큼 바빠할가요? 운전공들도 그렇습니다. 여유시간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하루일을 끝내고 저녁에 다음날 기름을 미리 타다놓으면 됩니다. 곽기춘아바이는 거기서 자면서 24시간 대기상태에 있어요. 모내기철에는 온갖 가능성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윤구는 그만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명숙은 세워놓은 질서를 옹호하고 유지하면서 불합리한것을 바로잡기 위한 방도를 제때에 찾아냈다.
2작업반은 보름동안에 자체의 로력으로 모내기를 끝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숱한 지원로력을 받으면서도 한달동안 걸렸던 모내기였다. 보름동안에 발휘된 고도의 정신적앙양과 째인 조직사업이 은을 냈다. 농장원들은 자기들이 해놓은 성과에 오히려 놀라와하고 신기해하며 입이 귀밑까지 벌어지게 좋아했다.
5작업반은 물론 1작업반도 지원로력없이 보름어간에 결속했다.
그 다음공정인 빈자리보식과 김매기는 식은죽먹기였다.
《이렇게 하면 되는걸! 윤구반장이 체통은 큰데 심장은 작아. 하긴 키가 작아야 똑똑하다구 하더군. 키가 크면 좀 싱거워.》
농장원들이 기뻐서들 하는 소리였다.
래년부터 농장전체가 자체로 농사짓는 방향으로 넘어갈수 있을것 같았다.

여름 장마철이 왔다. 들에서 개구리들이 요란스러운 대합창을 하는 밤이다.
명숙은 그 합창을 듣지 못하고 저녁밥술을 놓기 바쁘게 잠자리에 누워 곯아떨어졌다. 자체로 모내기를 하여 빨리 끝낸 몇개 작업반들에

서는 김매기도 쉽게 하고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김매기실적이 높지 못했다. 한편 비료주기와 논물관리, 병해충피해막이, 공예 및 기름작물가꾸기, 비바람피해대책세우기, 남새가꾸기와 가을남새씨뿌리기, 풀거름생산 등 영농공정이 동시에 또는 잇달아 계속 제기되여 농산지도원, 기사장은 여전히 바쁘고 명숙은 농장을 매일같이 돌면서 작업반들을 지도하여야 했다. 그러느라니 밤이면 피곤이 몰려들어 꼼짝 못했다. 누우면 이내 깊이 잠드는 젊고 건강한 체질인데다가 어쨌든 땅에 심을것들은 다 심었다는 안도감으로 마음의 탕개가 좀 풀린것도 작용했을것이다.

깊은 밤에 누군가 명숙의 집대문을 두드리였다. 명숙은 미처 듣지 못하고 옆에서 자고있던 남편 신호석이 깨여났다. 개들이 짖어댔다.

대문을 두드리며 《관리위원장동지.》 하고 큰소리로 찾는데 남자였다.

신호석은 될수록이면 안해를 깨우지 않고 자기가 대신해보려고 옷을 입고 전실을 지나 밖으로 향한 문을 열었다. 밖에서는 비가 구질구질 내리고있었다.

《누구요?》

신호석은 터밭에서 자라고있는 강냉이들너머로 보이는 대문쪽에 대고 소리쳤다. 방안에서 내비치는 불빛을 받아 강냉이잎사귀들이 번들거리였다.

《관리위원회 로동지도원입니다.》

그는 오늘 밤 관리위원회에서 전화도 받고 제기된 정황을 처리하는 직일근무를 서고있었다.

《무슨 일이요?》

《관리위원장을 좀 깨워주시우.》

개가 그냥 짖어대서 시끄러워난 신호석은 개를 꾸짖는 한편 우산을 펴들고 대문께로 갔다.

바깥공기는 서늘했다. 새벽이니 그럴수 있었다. 초저녁부터 흐려가지고 내렸다멎었다하던 비가 아직도 후둑후둑하고 떨어지고있다.

호석은 대문을 열었다. 우산을 든 로동지도원이 서있었다. 그의 손에는 손전지도 쥐여져있었다.

《깨워보았는데 일어나기 힘들어하는구만.》 호석은 거짓말을 했다.

《하여간 집으로 들어갑시다.》
신호석은 로동지도원을 데리고 전실로 들어갔다.
《꼭 깨워야 합니다.》 로동지도원이 말했다.
《내가 오늘 밤 직일인데 윤구반장이 찾아왔더구만요. 윤구반장의 집이 길가에 있지 않습니까? 마침 새벽소피를 보려고 일어났는데 큰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바라보니 군대차가 서있고 군대들이 떠들고있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밤도 깊었는데 한지에서 군대들이 비를 맞는것이 안되여서 윤구반장이 나가보았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 다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관리위원회에서 전화를 걸수 없는가고 하더랍니다. 자기들은 이 지구 발전소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인데 과제를 수행하고 돌아가던중 어느 리마을앞에서 지나가는 차를 기다리는 조산원과 해산하게 된 녀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군대차라고 미안해하는것을 태우고 도병원에까지 갔다왔답니다. 그러다나니 휘발유가 떨어져 이곳 잠정리에서 부대에 련락하여 기름을 가지고오도록 대책하려 한다는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윤구반장이 가만있겠습니까? 우리 농장의 휘발유를 넣고 가라고, 좀 기다리라고 하고는 군인들이 말리는것을 뿌리치고 왔더군요. 사정이 이러하니 관리위원장동무를 깨워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난 호석이가 그를 나무람하였다.
《그렇다면 연유창고로 곧장 갈것이지 관리위원장을 깨워서 뭘하오? 인민군대를 위한 일인데.》
《말도 마시오. 곽기춘령감이 관리위원장이나 기사장, 부위원장의 출고전표가 없으면 천하없는 일이라도 휘발유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운 질섭니다.》
《그렇다면 할수 없군.》 하고 호석이가 살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어깨에 솜옷을 걸친 명숙이가 손에 출고전표를 들고나왔다. 그는 이미 잠을 깼었고 이야기를 다 들었던것이다.
명숙은 출고증을 로동지도원에게 주며 말했다.
《군대동무들의 차를 연유창고로 안내해요. 곽기춘아바이는 창고옆에 잠자리를 마련해놓고 거기서 잡니다. 밤중에라도 기름을 급히 내야 할 경우에 대처해서 그럽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수고해주세요. 윤구반장은 어디 있어요?》
《군대차가 있는데로 갔습니다.》
《2반장동무가 참 옳게 행동했어요.》
《군대를 돕는 일인데 누군들 이런 경우에 가만있겠습니까?》
《그래두요.》
《하긴 최윤구가 올해 모내기를 자체로 하면서 좀 달라지는것 같습니다.》
로동지도원은 출고증을 품에 넣고 비가 내리는 캄캄한 밖으로 나갔다.
명숙은 책상에 있는 송수화기를 들고 교환대에 지시했다.
《기계화반 경비실을 찾아요.》
신호석은 옆에서 안해를 지켜보았다. 경비원이 나온것 같다.
《관리위원장입니다.》 명숙이가 지시했다. 《곽기춘아바이를 깨워서 휘발유탕크앞에 대기하라고 하십시오. 군대차가 곧 갈것입니다. 서두르십시오.》
굼뜬 경비원을 알고있는 명숙이가 독촉했다.
송수화기를 내려놓자 호석이가 의견을 냈다.
《당신과 곽아바이가 세워놓은 질서엔 빈틈이 있는것 같소. 특수한 경우를 예상하지 않았거던. 군대야 기동성이 기본인데 그 질서때문에 당신을 찾아오고 설명하고 쓰고 하느라 얼마나 지체했소?》
명숙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아바이, 고맙습니다. 훌륭한 아바입니다.》
이것은 연유창고를 떠나가며 군인들이 곽기춘에게 남긴 인사였다.
곽기춘은 꼭 전연에 있는 제 셋째아들이 왔다간것만 같아 오래동안 창고앞에 서서 어둠속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그 녀석두 이 비를 맞고있지나 않는지? 아들만 셋을 보아 늘 남의 딸자식을 부러워하는 곽기춘이였으나 그렇다고 아들자식을 한번도 탓해본적이 없었다.
잠자리로 돌아온 곽기춘은 장부책을 펼치고 적어넣으면서 관리위원장이 보낸 출고증을 구멍이라도 내듯 들여다보면서 거듭 읽느라고 등을 굽히고 입술을 우물거리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군인동무들에게 휘발유 30키로를 내주십시오, 즉시.》
그리고는 날자를 쓰고 수표를 했었다.
곽기춘의 입술에 흐뭇한 미소가 어리였다.
새날에 잡힌 밝은 더 어둡고 비는 계속 내리는데 개구리들의 합창소리가 즘즘해지는듯싶었다.

35

하루는 5작업반장 마장석이 오만수로인을 작업반으로 불렀다.
《마장석반장이 나를 찾을 까닭이 없겠는데?》
데리러 온 작업반 통계원녀인을 의심쩍게 바라보며 오만수가 물었다. 하긴 한마을에 같이 살기는 해도 오만수는 로력자가 아니고 어느 작업반에도 속해있지 않으니 5반장이 오라가라할 까닭이 없다.
《난 모르겠어요. 관리위원회 갔다오는 길로 나더러 할아버지를 모셔오라더군요.》
《마반장네 집에서 무슨 대사를 치르나?》
《호호… 아니예요.》
《좋다, 하여튼 가자.》
어두웠지만 마을의 골목골목을 손금보듯 알고있는 오만수는 앞장서서 씽씽 걸었다. 원체 건강하기도 했거니와 마장석이 왜 찾는지 무척 궁금했던것이다.
바깥바람을 맞으며 오느라 눈가장자리가 불기우리하고 눈물이 질척해진 오만수는 작업반사무실에 들어서기 바쁘게 기다리고있는 마장석에게 가느다란 고음으로 소리치듯 하였다.
《마반장이 무슨 권한으루 나를 부르나?》
롱을 잘하는 로인의 성미를 알고있는 마장석은 웃지도 않고 되물었다.
《저녁진지를 잡수셨습니까?》
《아직 식전이야.》
《좌우간 좀 앉으시우.》

《그래, 앉지.》
오만수는 어험어험하며 마장석의 앞에 올방자를 틀고앉았다.
《한대 피우시오.》
《그러지.》
《령감님, 일감이 생겼어요.》
《일감? 내게 무슨 일감이 생겨?》
담배를 받아든 오만수는 마장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관리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관리위원장이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작업반들에서 소를 책임적으로 먹이지 않아 소들이 여윈것이 적지 않는데 이건 소먹이는것을 중시하지 않고 로력공수를 적게 주며 농사일도 하면서 겸해서 소도 먹이게 하도록 하고있기때문이라고 관리위원장이 말합데다. 옳은 소리지요. 그래서 소를 전문 맡아 먹이고 로력공수도 잘 먹이는데 따라 높이 주자는건데 농장원을 떼낼수는 없으니까 령감님처럼 나이는 들어 집에서 놀고있지만 오륙이 성성한 늙은이들한테 소들을 맡기자는겁니다. 잘 생각했지요. 만수령감님이 집에서 빈들거리지는 않고 집짐승들을 먹이고있긴 하지만 그 열성을 농장일에 바치면 좋지 않겠습니까? 소도 살이 지고 령감님이 로력공수도 벌고, 어떻습니까?》
오만수는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걸 관리위원장이 제안했나?》
《예, 벌써 수첩에다가 만수령감님 같은 늙은이들의 이름까지 적어넣어가지고있습니다. 어느 작업반엔 누구누구하고 말이요. 만수령감이야 5작업반마을에 사니까 응당 우리 작업반 소를 맡아야지요. 관리위원장의 수첩에도 그렇게 올라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위원장이 나더러 5작업반의 소를 먹이도록 했겠군?》
《예, 그런데 의무적으로 동원시키지 말고 본인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좋다고 하면 맡기라고 했습니다.》
오만수가 무릎을 툭툭 쳤다.
《그 참!》
《왜 그러십니까?》
《관리위원장이 참 좋은 궁냥을 했어! 일을 하자는 사람이니까 좋

은 궁냥이 자꾸 생기지. 난 그 내인을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나누어 보면서 장차 큰일을 할 재목이구나, 우리 잠정리에 운이 틀게야 하고 앞을 내다보았댔네.》

마장석이 허허 웃었다.

《왜 웃나?》

《그건 방금 지어낸 얘기지요? 령감님이 그처럼 선견지명이 있다면야 관리위원장은 몰라두 작업반장쯤은 했을거요. 한데 평생 분조장두 못해봤지요?》

오만수는 얼굴이 벌겋게 되였다.

《늙은이를 놀려대면 못쓰네. 임잔 젊은 사람이 늘 봐야 버릇이 없어.》

《하! 내가 몇살인지 압니까? 쉰고개를 훨씬 넘었어요.》

《나보다 20년 아래군.》

《좋수다. 젊은 사람이라니 듣기 싫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얼?》

《소 먹이는것 말입니다.》

《이 사람아, 관리위원장이 내 이름을 수첩에 올렸는데 무슨 군소리 있겠나? 이 오만수가 늙었으니 아주 줴버린줄 알았는데 불러주구 써주지 않나!》

《예, 좋습니다.》

그후 오만수 같은 로인들이 관리위원회로 불리워왔다. 오만수로인이 나이가 그중 많지만 제일 건강하고 좌상다운 체모가 있어 이들의 책임자로 선정되였다. 그는 큰 벼슬이나 하게 된것처럼 틀을 차리며 연방 어험어험 소리를 냈다.

관리위원회가 취한 조치는 뜨락또르에만 매달리면서 소를 홀시하는 경향을 없애고 소를 적극 작업에 인입하게 한 정당한 조치로서 농장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오만수는 외양간을 정비하고 마치 자식을 돌보듯 황소를 다루었다. 새벽잠이 없기도 했지만 갑자기 부지런해져서 늘 일찌기 일어나 물을 떠다가 황소한테 먹인다. 그리고 소여물을 끓인다. 부엌에 여물냄새가 꽉 찬다. 로인은 흰 김이 문문 나는 여물을 바께쯔에 퍼담아가지

고 외양간으로 향한다. 황소는 목에 매단 방울을 절렁거리며 여물통에 주둥이를 들이민다. 로인은 구수한 소냄새와 여물냄새에 취한듯 소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래 서있는다.

날이 밝았다. 청명한 가을날씨다. 하늘은 깨끗하게 개이였다. 방금 떠오르는 해볕에 동녘이 불그레하게 물들었다. 날씨는 쌀쌀하고 대기는 투명했다. 터밭에서 자라고있는 배추와 무우잎사귀들이 이슬에 축축하게 젖었다. 대기속에 습습한 물냄새와 이슬에 젖은 백일홍과 코스모스의 향기, 외양간과 풀적재장에서 나는 두엄냄새가 짙게 풍기였다.

오만수로인은 싸리비자루로 황소의 등과 옆구리, 배를 쓸어주고 물로 씻어줄데는 물로 씻어준 다음 닭장으로 가서 닭들을 내놓아주었다. 울긋불긋한 토종닭들이 꼬꼬댁거리며 마당에 가득 널리였다.

손자가 방문을 열고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래요.》 하고 찾을 때까지 그는 마당에서 서성거리였다.

로인은 아침식사를 한 후 작업반에서 황소를 가지러 오지 않기때문에 오늘은 소달구지를 쓰지 않는것으로 알고 외양간에서 황소를 끌어내여 들판으로 몰고나갔다. 거기에 아직 마르지 않은 풀들이 있었다.

오만수앞에 익은 벼들이 꽉 들어찬 대지가 아득하게 펼쳐져있었다. 사람의 힘이 무섭긴 무섭다. 이 넓은 논을 봄, 여름내 다루어 올해농사가 보기 드물게 잘되였다. 올해는 알곡계획을 수행했다.

아침바람이 일면서 벌판을 휩쓸고 지나가자 이슬에 축축하게 젖은 누런 벼이삭들이 고개를 무겁게 숙인채 흔들리며 물결치듯 했다. 물방울들이 후둑후둑 떨어졌다.

《할아버지, 나오셨습니까?》

인사를 하는 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관리위원장 명숙이다.

《예, 논들을 돌아보우?》

이 아침처럼 청신하고 싱싱한 명숙을 보며 오만수는 뜻밖에도 새롭게 느껴지는것이 있어 얼떨떨해졌다. 키가 늘씬하며 검은 눈에 정기가 넘치는 젊은 녀인이 별로 더 돋보이고 믿음직해보였다. 아득히 펼쳐진 논벌이 이 녀인의 지도밑에 무르익는 벼로 꽉 들어찼다는 충동

이 밀려왔다.
《할아버지, 어때요? 작황이 좋지요?》
명숙이 시원하게 웃으며 물었다.
《작황이 좋다마다! 더 말할게 없어.》
명숙은 흐뭇해서 물결치는 벼이삭들을 바라보며 오만수에게로 다시 눈길을 돌렸다.
《황소를 맡으셨군요?》
《관리위원장이 맡겨줬지.》
《저 엉치뼈가 언제면 둥그래질가요?》
《봄갈이때 이 오만수가 먹이는 황소를 다시 와서 봐주슈.》
명숙은 명랑하게 웃었다.
(언제보나 인물이 참 잘났어.)
오만수는 어험어험 어색해하며 명숙의 웃는 눈길을 피했다.

제 5 장

각이한 운명들

36

벼가을을 앞둔 시기의 어느날 저녁, 관리위원회의 생산부에서는 지도원들이 퇴근하고 강현이와 로정만 두사람이 남아 벼정당평균예상수확고 판정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현재까지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즉 허명숙이 새 관리위원장으로 부임한지 두번째 해에는 최고수확년도였던 1979년에 비해서 105프로 장성했다는것을 확고히 예상할수 있었다. 작년에 수행 못한것을 올해에는 수행하였다.

원인이 어디 있겠는가? 허명숙이 말한것처럼 잠재력이 발휘되였기때문이겠는가? 다시말해서 잠정농장이 안고있는 결함들이 퇴치되여가고있기때문이겠는가? 자체로 농사짓는 작업반들이 늘어나고있기때문이겠는가? 금년도총화가 래년초에 있게 될것이니 그때까지 원인을 분석해보아야 할것이다.

강현이는 젊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이 반짝이였으며 농산지도원으로 한해동안 일한 경험에 토대하여 새해에는 본때있게 일해볼 열의로 피가 끓고있었을뿐아니라 먼 앞날까지도 내다보며 가슴을 울렁이고있었다. 젊었으니 앞날이 길다.

나이가 지숙한 로정만이는 여전히 위신있게 속심을 알수 없는 모호한 얼굴로 묵묵히 앉아있었다. 물론 그도 농장이 올해의 높이 설정된 계획을 수행한데 대해 궁지감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은 또한 어차피 자기의 장래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져가지 않을수 없었다.

실지로 군경영위원회를 바라보고있었던 로정만이는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처신했고 올농사에 전심전력했다. 한광훈이한테 잠정리를 영원히 뜨지 않겠다고 격해서 선언했던 자신이 아닌가. 하지만 군경영위원회로 쏠리고있는 자신의 심정을 그자신은 속일수 없

었다. 그래서 강현이와 같이 올해의 성과를 집계해보면서 문득 그 성과에 대한 긍지감이 자기의 장래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져가고있는것을 발견하면서 아직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있는 자신에게 화가 났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기사장동지, 나는 우리 농장의 전망을 머리속에 그려보게 됩니다.》 랑만적인 기분에 잠긴 강현이가 말했다.

《우리 농장은 알곡생산을 계속 늘일수 있는 예비를 많이 가지고있습니다. 우선 우리 농장 논의 특성에 맞는 벼종자를 옳게 선택하며 나아가서 더 좋게 연구해내는것입니다. 기사장동지도 알고계시겠지만 농산 5작업반과 6작업반의 토지는 해하성충적토로서 벼들의 초기생육은 좋으나 결실이 나쁩니다. 이러한 추락논에는 아지를 적게 치고 알수가 많이 달리는 벼종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로정만이 딱딱하게 대꾸했다.

《아지를 많이 치고 알수가 적게 달리는 벼종자를 선택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소.》

농업과학기술적문제에 관심이 깊고 탐구심이 많은 강현이가 리해되였으나 벼종자연구에까지 파고드는것이 한 농장의 농산지도원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는 로정만이 훈시조로 말을 이었다.

《아직은 추락논에 알맞는 리상적인 벼종자를 연구해내지 못했소. 농학자들이 앞으로야 연구해내겠지. 그러니 그런데까지 농산지도원이 머리쓸거야 있겠소?》

《저는 5작업반 기술원을 하면서 추락논에 적합한 벼종자를 연구해낼수 없겠는가 늘 생각했고 실험도 해보느라고 했습니다.》

《그런 연구는 과학원에 있는 연구사들도 쉽게 성취할수 없는 과제요. 10년, 20년이 걸릴수도 있지.》

강현은 미소를 지었다.

《옳습니다. 제가 벼생산자로서 주관적욕망과 희망을 말했을뿐입니다. 그렇지만 기사장동지, 논깊이갈이를 해야 하지 않을가요?》

이것도 현실성이 희박한것이여서 로정만은 흥심없이 대답하였다.

《깊이갈이를 하면 좋지. 그런데 우리 농장의 기계수단으로서는 어려워. 뜨락또르대수가 부족하단 말이요. 그러니 논갈이기일을 보장할수 없지.》

그는 훈시하듯 계속하였다.

《깊이갈이도 깊이갈이지만 근본 토지를 개량해야 하는데 그것이 간단치 않아.》

강현은 로정만이가 벼종자문제도, 깊이갈이와 토지개량문제도 다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으로 밀어치우는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토지개량은 본질상 흙깔이인데 이 작업은 할수 있으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정만은 잠자코 있었다. 그는 강현이 무리한 일감을 자꾸 꺼내는것에 정신적부담을 느꼈으며 피곤해하였다. 농산지도원으로서 시키는 일이나 착실하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전 농산지도원이라면 시끄럽게 자꾸 그러지 말라고 말했을것이다. 그에게는 말하기가 쉬웠고 마음대로 일을 시킬수 있었다. 그런데 관리위원장이 교체한 새 농산지도원 강현은 지향이 뚜렷하고 대바른 소리를 하기때문에 로정만은 그를 함부로 하대하지 못했다. 그는 과학지식면에서나 실천행동면에서 강현이의 우점을 인정하고있었으며 그로 하여 은근히 강현을 두려워하기까지 하였던것이다. 이것은 작업반기술원 강현을 눈아래로 굽어보며 그가 의견을 내고 지어 자기를 비판한데 대해 못마땅해하고 노하여 욕을 했던 로정만이 기존관념에서 양보하지 않을수 없게 한것으로서 속이 울컥해났으나 어쩌지 못했다.

흙깔이를 하면 좋은것이고 또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름찬 과제이며 앞날이 창창한 강현이로서는 멀리 내다보고 결심하고 장차로 해볼수 있겠지만 자기 로정만이로서는 당면한 문제가 급하다.

《강현이.》 이윽하여 로정만이 유연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 농장은 최고수확년도에 비해 105프로 장성한 올해계획을 수행했다고 말할수 있고(아직 예상수확고니까) 따라서 새해에는 그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해. 관리위원장은 래년부터는 온 농장이 자체로 농사짓는데로 결정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소. 이것만 해도 래년에 우리 농장이 힘겨운 전투를 해야 한다는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흙깔이는 전망적으로는 해야지.》

강현이는 실망한듯 눈길을 힘없이 떨구었다.

이러한 때에 관리위원장 허명숙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여적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무엇들 하세요?》

요새 얼굴이 별로 환해져있는 명숙이였다. 하긴 잠정리사람들모두가 싱글벙글 좋아하고있었다.

로정만이는 잠자코 있고 강현이가 앞질러 대답했다.

《올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알곡생산을 더 늘이겠는가 하는것을 이야기하던중이였습니다.》

명숙은 방긋이 웃었다.

《어쩌면!… 저도 방금 그 생각에 고심하고있다가 옆방에서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들려 나와보는데 생각들이 같군요.》

로정만이는 강현이가 내놓은 제기가 전망적인것으로 인정하고있었으므로 별로 흥미가 없었고 또 어디까지나 관리위원회 지도원이지만 관리위원장의 구상은 구상으로 머무르는것이 아니기때문에 호기심이 갔고 긴장감을 느끼였다. 새해부터는 온 농장이 자체로 농사를 짓자고 선포한 관리위원장이 또 무슨 생각을 했을것인가?

《위원장동무의 구상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야기한것들은 장기적인것이여서…》 하고 로정만이 요청했다.

《새땅을 찾아내여 알곡생산면적을 늘이자는것입니다. 올해 벼가을이 끝나면 착수하자고 해요.》 하고 명숙이는 주저없이 자기의 구상을 전개하였다. 《다시말하여 마을과 잇닿아있는 뙈기논들과 밭들을 토지정리하여 규격포전으로 넓히면 뜨락또르들과 모내는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이게 되며 중요하게는 새땅을 더 얻어내게 됩니다. 당제6차대회에서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에는 나라의 알곡생산면적을 높일 과업이 제기되여있지요. 새땅을 얻어내는 문제는 현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아닙니까.》

잠정리는 넓은 대지에 속해있었으나 마을과 잇닿아있는 새로 푼 논들은 뙈기논이였다. 또 논으로 정리할 땅들도 있었다. 기사장과 강현이 커다란 흥미와 놀라움속에서 명숙이의 설명을 들었다. …

그들과 토론한 후 허명숙은 즉시 실천으로 넘어갔고 10일지령총화모임에서 그 계획을 통과시켰다.

《올해 벼가을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하여 한 2～3년어간에 끝내려합니다. 벼가을이 끝난 후 땅이 얼기 전까지 그리고 땅이 녹으면 모내기전까지의 공간을 리용해서 하려 합니다. 군토지건설사업소와 토론이 있었고 그 사업소에서 기술자들이 왔다갔습니다. 불도젤 한대

와 교대로 일할 운전수 2명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농장에 있는 불도젤까지 두대가 작업하게 됩니다. 책임은 부위원장동무가 맡고 우리 농장의 뜨락또르운전수 곽철수동무 외 1명이 동원됩니다. 이상 토지정리작업과 관련한 계획과 작업조직에 대해 말했는데 물어볼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특별히 물어볼것이 없는지 다들 입을 다물고있었는데 눈빛들은 좌우간 관리위원장의 일욕심이 끝이 없군 하고 감탄하는것 같았다.

《물을것이 없으면 다음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래년 봄부터 정확히는 3월 초하루부터 분조를 단위로 하는 사회주의경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올해에도 경쟁을 했고 모든 분조들을 알곡생산고와 분배몫을 기준으로 하여 1등부터 마감까지 순위를 매기였습니다. 그런데 래년봄부터는 분조원전원이 년중 만가동을 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경쟁대상에 참가시키려고 합니다. 다시말하여 분조가 만가동분조로 되여야 경쟁에서 순위권에 들어갈수 있다는것입니다. 만가동하여 순위권에 드는 분조는 정치적평가와 함께 분조원전원에게 상을 주게 됩니다.》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싱글벙글했다. …

분배하는 마당에서 류순절분조가 농장적으로 3등을 했다. 큰 성과였고 발전이였다. 분조원들은 흥이 나서 둥 떠있었다.

알곡을 분배받고 현금봉투를 손에 쥐고 벙글거리는 분조원들앞에서 순절은 호소했다.

《래년에는 꼭 1등을 합시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만가동분조가 되여야 경쟁대상이 되니 각오를 단단히 가져야 할것입니다. 꼭 1등을 합시다.》

《해야지!》

《자신이 있네. 안종기령감이 앞장섰으니 됐다니.》

《젠장, 좀더 힘을 넣었더라면 올해에 1등을 했을건데. 아쉽게 됐군.》

《래년에는 만가동도 하고 1등도 하세. 가을에 심은 밀보리를 래년 봄에 내여 알곡을 얻고 거기다 벼와 강냉이를 심으면 또 알곡을 얻지 않나. 그러니 두벌농사가 은을 낼걸세.》

《그뿐인가. 강냉이밭고랑에 남새를 심었으니 세벌농사를 한셈이야.》

분조원들이 떠들어댔다.

번대머리 안종기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는 사람이 아주 달라졌다. 개인터밭에 만들었던 비닐박막을 들어내고 분조에다가 온실을 만들었고 두벌농사, 세벌농사를 하는데 앞장섰다. 첫째가는 농사군으로서 동네에서 존경받았던 그가 지금 그 존경을 다시 회복했다.

《순절아, 너 시집을 천천히 가렴. 우리 분조가 더 잘사는 분조로 된 다음에 말이다.》

리세호가 눈이 맞붙게 웃으며 하는 소리다.

《아니, 순절이가 이자 열아홉살인데!》

《벌써 눈독을 들이는 녀석들이 있어서 그러는거야.》

《아 이제는 분조장보구 순절아, 순절아 하지 맙시다.》

순절이가 뿜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있는데 입에 담배를 물고 쿨럭쿨럭 기침을 하며 마장석반장이 다가왔다.

《여기선 왜들 법석 끓소?》

그가 물었다.

《래년에는 1등을 하자는 토론을 하구있수다.》

나이지숙한 녀인의 대답이였다.

《그런가. 그럼 내가 공연히 왔군, 내가 그걸 말하자구 왔는데.》

마장석은 기분이 좋았다. 류순절처녀분조장이 래년에는 1등을 하겠다니 얼마나 좋은가.

로정만은 자기가 신통치 않아했던 처녀분조장이 한해동안 이루어놓은 성과를 두고 생각에 잠겼다. 허명숙관리위원장이 옳았다. 류순절분조를 하나 놓고보아도 잠정농장의 새로운 변화가 뚜렷이 안겨오지 않는가.

37

가을걷이가 끝난 후 시작했던 토지정리작업은 추위가 닥쳐오고 땅이 얼면서 중지했다. 얼핏 보기에는 땅을 헤집어놓은것처럼 보여 농장원들이 별로 신통해하지 않았지만 허명숙은 토지정리와 새땅찾기가 시작된것만으로도 기뻐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이제 새봄이 와 땅이

녹으면 그 작업은 계속될것이고 그러면 인구의 장성에 비례한 경작지의 확보가 진행되고 알곡생산은 늘어날것이다.

새해에 접어들어 추운 어느날 밤, 사업일지를 들여다보며 토지정리작업에 대해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차성재리당비서가 찾아들어왔다. 차성재는 대체로 관리위원장을 부르지 않았으며 자기쪽에서 관리위원장을 찾아오군 했다. 그는 행정일군들, 특히 관리위원장을 존중했으며 사업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였다.

두사람이 앉아서 새해 영농준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동안 하는데 관리위원회앞마당에 승용차가 들어와 멈추어서는 소리가 났다. 이어 누군가 복도를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방문을 두드렸다. 그리고는 대답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데 군경영위원장 한광훈이였다.

인사를 하며 그는 리당비서 차성재에게 《마침 비서동무도 있군.》 하는데 무슨 요긴한 용건을 가지고 내려온듯싶었다.

《이번 총화에서는 잠정리관리위원장이 주석단에 앉게 됐소.》

자리에 앉기 바쁘게 한광훈이 말했다. 그는 군소리를 적게 하는 사람이였다. 그런데도 명숙을 한동안 칭찬했다.

《명숙동무가 잠정리에 온지 두해밖에 안되는데 계획을 수행했고 올해 세번째해부터는 온 농장이 자체로 농사를 짓겠다고 결의해나섰으니 대단하오. 도당책임비서동지도 여간 만족해하지 않소. 그래서…》 하다가 그는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만일 여기 기사장을 데려가면 대신할 사람이 있소?》

《있습니다.》

마장석이에게서 들은 소리도 있기에 로정만기사장을 정말 군에 소환해가려 하는가 하고 생각하며 명숙이가 대답했다.

《누구요?》

《농산지도원을 하는 강현동뭅니다. 그 동무는 현대농업과학기술에 정통하고 조직사업과 전개력이 있는 젊고 전망성있는 일군입니다.》

한광훈이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좋소, 그래서 말이요. 군적인 범위에서 사업하도록 잠정리기사장 로정만동무를 군경영위원회에 소환하자는 나의 의견인데, 물론 군당위원회와도 토론이 있었소. 동무들의 의견을 들읍시다.》

명숙은 로정만이 작년도에 농장이 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역

할을 했다는것과 그를 내놓는것이 아깝지만 군적인 범위의 농사일을 위해서는 어차피 내놓아야 할것이라고, 그러한 발전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구 새 사람도 키워야지.》

한광훈이는 로정만을 대신할 강현을 념두에 두고 말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있는 차성재에게로 눈길을 주었다.

《비서동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성재는 눈길을 떨구고있었다. 반대인가? 불시에 방안에 불안하고 답답한 기운이 돌았다.

《왜, 의견이 좀 다르오?》

《아니, 나는 로정만동무가 군에 올라가 사업하는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일을 제끼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공로가 컸습니다.》 차성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내 솔직히 말하는데 작년초 년간사업을 총화하는 농장원총회에서 마장석이 로정만동무에 대해 비판하면서 느껴지는바를 말했는데 내가 근거없이 말한다고 눌러놓긴 했지만 사실상 나는 마장석동무가 근거가 있건없건, 또 막연한 느낌에서였건 옳게 말했다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대중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차성재가 입을 다물자 침묵은 더 무거워졌다. 작년 농장원총회에서 있은 일을 알고있는 한광훈이여서 리당비서의 의견을 심중히 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내가 너무 직선적으로 대비하는것 같은데.》 하고 차성재가 계속했다. 《허명숙관리위원장은 연백에서 군경영위원장으로 소환하겠다고 도당책임비서가 직접 만나 제기했지만 정든 농장을 뜨지 못하겠다며 반대했고 나이들고 병을 앓는 관리위원장을 대신하여 잠정리에 와서도 이곳에 정을 붙이고 진심의 땀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나 로정만동무는 언제부터인지는 딱히 알수 없으나 이 잠정리에서 정이 멀어져가고있습니다. 그가 진심의 땀을 흘렸는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허명숙관리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무들은 땅의 주인이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어떻게 일하는것이 땅의 주인이 된 일군의 자세인가 하는데 대해서 깊이 생각했고 아버지가 되여 훌륭한 일군으로 키워주시겠다고 하신 수령님의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참

된 딸이 되기 위해 일해오고있습니다. 내가 본인앞에서 이런 말을 하니 본인은 몹시 옹색하겠지만 군경영위원장동무의 제기에 정확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차성재였으나 오늘 밤에는 별로 이야기가 길었다. 그는 노래를 잘 부르긴 하지만 늘 도에 뽑혀올라갈 생각만 하면서 농사일을 건성건성 대했던 금옥이에게 향토의 넋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로정만기사장의 소환문제는 좀더 두고보자는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다.

역시 당일군이 보는 눈이 다르구나 하고 명숙은 저으기 놀라는 표정이였고 한광훈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차성재가 속깊은 당일군이라는것을 명숙이나 한광훈은 새삼스럽게 느꼈다. 그가 로정만이를 진정으로 참다운 농업일군으로 키우기 위해 그런 의견을 냈다는것이 납득이 되였다.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내린 뒤 합토가 되자 모판만들기와 논밭갈이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동시에 포전정리작업도 다시 시작되였다.

불도젤은 밤낮 교대로 일했다. 모두 잠이 든 깊은 밤이면 불도젤이 흙을 밀어내느라 용을 쓰는 소리가 들렸다. 명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군 했으며 간혹 밤중에 잠을 깨는 때에도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안정이 깃드는것이였다. 그런데 어느날 밤 막내딸 보은이가 끙끙거리며 잠꼬대를 하는 바람에 깨여난 명숙은 다시 잠을 청하며 불도젤소리에 귀를 기울이였지만 웬일인지 조용했다. 어찌된 일일가.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있었다.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이는것일가. 운전수가 피곤할수 있었다.

두루 궁리하던 명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솜옷을 입고 머리수건을 썼다. 그리고 식구들이 깰세라 조심하며 부엌으로 나가 늪그릇에 먹을것들과 우유가 든 병을 담았다. 그 우유는 불도젤운전수들에게 주려고 축산반에서 가져온것이였다. 불도젤운전수들은 명숙의 관심속에서 특별대우를 받으며 일하고있었다.

명숙은 집을 나섰다. 새벽날씨는 쌀쌀했다. 초봄의 검푸른 밤하늘에는 구름장들이 떠가고있었으며 구름들사이로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

들이 보이였다.

선잠을 깬 명숙은 하품을 하며 걸었으나 점차 정신이 또릿또릿해졌다. 저기 마을과 논벌이 접한 포전정리작업장에서 한가닥의 모닥불이 타고있는것이 바라보였다.

명숙은 모닥불을 향해 다그쳐갔다. 무슨 일인지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불도젤은 숨을 죽이고 서있는데 쇠붙이로 된 차체가 불빛을 받아 번들거리였으며 기름냄새가 풍기였다.

《운전수동무, 어디 있어요?》

명숙이 소리쳤다. 그 소리가 캄캄한 들판으로 울려갔다.

《관리위원장동지십니까?》

불도젤기관부의 반대쪽에서 아래우가 맞붙은 퍼런 작업복을 입은 체격이 우람찬 철수가 손에 공구를 들고 나타났다. 삐딱하게 쓴 기름묻은 모자밑으로 고수머리가 한줌 삐여져나와있었다.

《왜 불도젤이 섰어요?》

불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철색의 얼굴을 바라보며 명숙이 물었다.

《고장났습니다. 그래 수리하느라고…》

《그래서 발동소리가 멎었댔구만요.》

《발동소리가 들리지 않아 나왔습니까?》 철수는 저으기 놀라는 표정이다. 《위원장동지두 참!》

《다른 한대는 어디 갔어요? 토지건설사업소 불도젤 말이예요.》

《저 과수원너머에서 일합니다. 들리지 않습니까?》

명숙은 귀를 강구었다.

《들리는구만요.》

《여기는 좁아져서 그쪽으로 먼저 옮겨갔습니다. 우리 불도젤도 며칠후에는 거기에 가야 합니다.》

《빨리 해제꼈군요. 자, 여기 우등불곁에 앉아서 좀 쉽시다.》 명숙이는 들고온 꾸레미를 놓아둔 우등불곁으로 갔다. 《어서 오라니까.》

철수는 모자채양을 올리고 숱많은 고수머리를 긁었다.

《지금껏 쉬였는데요. 빨리 발동을 걸고 일을 해야지요.》

《글쎄 좀 앉으라니까.》

철수가 앉자 명숙은 보자기를 풀었다.

《허, 이거 관리위원장동지가 자꾸 이렇게 지원을 하니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고장이 나서 일을 못하는것만 해두 그런데…》

《다 고쳤어요?》

《예, 큰 고장은 아닙니다.》

《우리 불도젤이 낡았지. 그래두 기계화반동무들이 용케 살려냈어요. 확실히 기계화반이 내가 처음 와서 보았을 때와는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곽철수동무를 비롯해서 모두 애를 써요.》

《저야 뭐…》

《자, 들어요.》 명숙은 우유를 고뿌에 부어주고 떡도 내밀었다. 《여기 닭고기두 있어요.》

철수는 선뜻 받아들었다.

《예, 먹겠습니다.》

명숙은 우유고뿌가 밑창이 나자 또 부어주었다. 그리고 닭다리를 쥐여주었다.

《밤이 되면 출출하지요?》

철수는 괜찮다고 겸손하게 대답하였다.

명숙은 닭고기를 뜯는 철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해가 바뀌도록 철수와 경애의 관계는 해결을 짓지 못하고있다. 명숙이가 알건대 양옥실의 입원을 계기로 두 청춘남녀는 주춤해졌다. 양옥실의 입원기간은 물론 퇴원한 후에도 서로 찾아다니기를 삼가했고 그러한 어정쩡한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있는것 같다. 지금 철수를 보면서 명숙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지내 무관심했다는 가책이 들었다.

남의 가정일에 끼여들어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만 물러난것이 옳았을가, 어떻게 단순히 남의 가정일이라고만 보겠는가, 우리에게서는 가정일도 사회적성격을 띠게 되는것이 아닐가? 향토를 가꾸려는 경애의 아름다운 지향이 꺾이고 그러한 처녀를 사랑하는 청년이 그로 하여 고민에 빠진다면 잘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관리위원장으로서 외면하고 무관심한것이 옳지 않은것이다.

명숙은 금옥이를 음악무용대학에 공부보냈고 로정만의 소환을 잠시 보류하자고 한 차성재의 노력과 제기가 상기되였다. 바로 그렇게 사람문제는 신중하게, 중도반단함이 없이 정확하게 뜨거운 인간애를 지니고 해결해야 할것이다. 대학에 간 금옥은 잠정리를 못 잊고 고향사

람들이 그리워 벌써 몇번이나 편지를 보내왔다. 금옥은 쓰기를 자기는 대학에서 노래를 숙련하고있지만 잠정의 딸이고 대지의 딸이라고 하였다.

금옥이의 일은 잘되였는데 그것이 양옥실이에게 더 감정을 사는 일로 된것 같고 따라서 경애와 철수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것 같아 명숙은 안타까왔다.

(철수와 경애를 도와주자. 리당비서동무와 진지하게 토론해보자.)

명숙은 이렇게 마음다졌으나 그러자면 양옥실의 마음의 변화를 알아야 하는데 그를 만난다는것부터가 우선 난감한 과제였다.

《철수동무, 내 좀 묻겠는데 솔직히 대답해줘요. 경애를 변함없이 마음에 두고있겠지요?》

철수는 눈을 내리깔고 우유를 한모금 마시였다.

《솔직히 대답하겠습니다. 그런들 무슨 소용있습니까? 나는 어떤 날은 경애가 마음을 돌렸으면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불쌍해서 못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생각은 여전한지. 지금도 신경이 쇠약해진 상태지, 경애는 어머니를 더 괴롭힐수 있습니까. 나와 결혼하자고까지 열렬하게 호소한 처녀가 다른 선택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난 차라리 괴롭더라도 경애가 생각을 돌렸으면 하는 모진 마음까지 먹었드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을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가슴속에는 경애에 대한 애정이 끓고있을뿐입니다. 나자신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일이나 짱짱 하면 되는거지요.》

(경애를 깊이 사랑하고있구나.)

명숙은 철수의 진심을 들여다볼수 있었다. 이제 경애 어머니의 마음이 돌아서서 이들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된다면 얼마나 좋으랴.

《관리위원장동지, 저희들 일에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강물은 제 곬으로 흘러갈것입니다.》

철수가 오히려 명숙이를 위안하였다. 명숙은 그의 인간됨이 기특했고 신심이 굳은것이 좋았다.

모닥불이 꺼져가고있었다. 철수가 불을 쑤셔놓자 불찌들이 사방으로 튀여나며 마지막불길이 타올랐다.

철수가 일어섰다.

《위원장동지, 들어가보십시오.》

모닥불이 꺼지자 사위는 더욱 어둠이 짙어진듯 하였다. 어디를 둘러보나 캄캄하다. 하늘에서는 은하수가 기울었다.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얼마나 청청하고 아름다우냐.

철수가 발동을 걸자 불도젤이 몸체를 부들부들 떨었다. 기관소리에 귀가 멍멍해졌다.

《철수동무, 내가 좀 해볼가요?》 하며 명숙은 운전칸으로 따라올라갔다.

《운전할줄 압니까?》

《알지 않구. 처녀로 관리위원장을 하던 옛날에 벌써 뜨락또르운전법을 배웠구 논갈이도 해봤어요.》

《대단한데요. 그렇지만 불도젤은 뜨락또르와 좀 다릅니다.》

《그러기 배우겠다니까요.》

《웃사람이 우기니 어쩔수 없군요. 그럼 우선 옆에 앉아서 내가 하는 동작을 눈에 익히십시오. 자, 전진합니다.》

얼마후 명숙은 벌써 불도젤로 흙을 밀기 시작했다. 불도젤이 용을 쓰면 자기도 몸을 앞으로 숙이며 힘을 썼다.

어느덧 동녘하늘이 희붐히 밝아오고있었다.

38

농장의 전체 농산작업반들이 자체로 모내기를 하기 위한 준비로 끓었다. 보름이라는 모내기날자에 맞추어 벼모를 길러내기 위해 락종을 일별로 정확히 했고 모판관리공들의 책임성을 각별히 높이게 했다. 작답과 써레질을 선행시키였다. 포전정리는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5월초에 일단 시작했던 논들을 마무리하고 가을에 가서 계속하기로 했다. 그런데 마지막포전에서의 마무리작업을 며칠 앞두고 뜻밖에도 먹장구름이 밀려오더니 비를 퍼붓기 시작하였다. 불도젤이 한 이틀은 더 흙을 밀어내야 하겠는데 포전에 물이 차면서 가동을 할수 없었다.

《아니, 무슨 놈의 비가 이렇게 쏟아져내리는가. 꼭 장마철같군.》
《포전정리를 마무리 못했는데 야단났어.》
관리일군들이 모두 근심에 잠겼다.
모내기에 지장이 되지 않게 포전정리를 일단 마무리하려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대로 방치해두면 상당한 면적의 논이 물에 잠기고 흙이 흘러내려 류실될수 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흙이 흘러가지 않게 뚝을 마저 쌓고 포전정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 모내기도 보장할수 있다. 무슨 수가 없겠는가.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창가에 우두커니 서있던 명숙이 마침내 무엇을 생각해낸듯 복도로 향한 출입문을 열고 마침 생산부에서 나오는 강현이를 찾았다.
《기사장동무 그 방에 있어요?》
《있습니다.》
《나한테 보내줘요.》
로정만이 인차 나타났다.
《기사장동무, 전투를 벌립시다.》 하며 명숙은 자기가 생각하고 결심한바를 말했다.
《그 흙탕속에서 비를 맞으며 해내자는겁니까?》
《그 길밖에 방법이 없어요.》
로정만은 명숙관리위원장이 이미 결심했으며 그랬으면 그것을 변경시킬수 없다는것을 그간의 체험을 통해 잘 알게 되였으므로 더 의혹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다. 또 사실 관리위원장이 내놓은 전투적인 방법밖에 해결대책이 없었던것이다.
《총지휘를 기사장동무가 맡아주세요. 그리고 계획지도원에게 전화로 전체 작업반장들과 직속분조장들이 빠짐없이 긴급히 관리위원회에 모이도록 지시하게 하고 리인민위원회 서기장도 부르도록 하세요. 난 리당비서동무를 만나겠어요.》
《예.》
대답하고 나오며 로정만은 속으로 중얼거리였다.
(불같은 녀자야!)
로정만은 계획지도원에게 관리위원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리서기장은 자기가 직접 만났다.

관리일군들도 례외로 될수 없었다.
비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농산이건 축산이건 남새건 직속분조건 관계없이 전체 단위책임자들과 관리일군들이 관리위원장방이 비좁게 모여들었다. 늘 리내 인민반장들과 사업하느라 분주한 리인민위원회 서기장도 어디선가 나타났다. 비옷들을 입긴 했으나 비발이 세고 바람이 불어 후줄근하게 젖은 사람들이 모이니 사무실안은 습기가 꽉 차서 숨쉬기 바쁠 정도였다.
관리위원장사무탁앞에 명숙과 차성재, 로정만이가 앉아서 사람들이 다 모이기를 기다렸다.
《지령원동무, 다 모였나요?》
명숙이가 지령원을 겸하고있는 계획지도원에게 물었다.
《다 왔습니다.》
명숙이가 초급일군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이렇게 급히 모이라고 한것은 긴급대책을 토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귀를 강구었다. 명숙은 토지정리장에 조성된 긴급정황을 설명하고 계속하였다.
《전체 농장원들과 잠정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마니, 삽들을 가지고 토지정리작업장에 모여야 하겠습니다. 서기장동무는 현재 집에 있는 주민들을 다 불러내도록 포치해주십시오. 우리모두가 육탄이 되여 물탕에 빠진 불도젤을 대신하여 가마니로 흙을 날라 논뚝을 마저 만들고 논판을 고루는 작업을 결속해야 하겠습니다.》
모두는 비를 맞으며 흙탕물속에서 흙가마니를 끌어야 하는 작업모습을 상상해보며 비장한 감정에 잠겨있는것 같았다. 난감해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다.
명숙은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 이렇게 말을 이었다.
《포전이 흙탕물에 잠겼으니 흙가마니를 끌기가 그리 어렵지 않을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바람을 맞으며 차거운 물속에 몸을 잠그고 작업을 해야 하니 쉽지 않은 전투를 벌려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동무들, 이 방법밖에 없으니 각오를 굳게 다지고 대중을 궐기시킵시다. 나는 지난달에 평양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하여 토론들을 들으며 참으로 격

동적인 소식들을 알게 되였고 많이 배웠습니다. 공장, 기업소, 광산, 건설장 어디서나 80년대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습니다. 해마다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일떠서는 평양의 변모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농업부문에서도 이에 발을 맞추어 올해의 모내기전투에 진입하고있습니다. 우리 잠정농장도 자체로 모내기를 하고 김매기도 하려는 앙양된 분위기에서 곧 모내기에 착수합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약간의 장애를 조성하고있습니다. 새로 넓히다가 중단된 포전이 비물에 류실될수 있고 모내기를 제대로 못할수 있는데 이것을 허용할수 있습니까? 나는 우리 당원들, 농장원들도 같은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합시다!》

하나와 같이 힘차게 울리는 대답소리에 명숙은 가슴이 뭉클해났다. 그새 농장원들의 정신상태에서도 일솜씨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했고 분배몫이 늘어났다. 집단경리의 우월성이 더욱 확증되였다.

이러한 변화가 농장원들의 정신상태에 반영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누구보다도 명숙의 옆에 앉아있는 기사장 로정만이 그것을 느끼고있었다.

초급일군들이 자기 단위로 흩어져갔다. 그들은 작업반단위로 농장원들을 준비시켜가지고 포전정리전투장으로 모여들것이다.

총지휘를 맡은 로정만은 관리일군들을 생산부에 모이게 한 다음 지도원들에게 작업분담을 주었다.

농산지도원은 곡괭이와 삽을 준비하여가지고 가마니들에 흙을 퍼서 담아주는 책임을 맡으라, 로동지도원은 작업반들에서 끌끌한 장정들을 뽑아 논뚝을 쌓는 작업을 맡으라. … 또 누구는 모닥불을 피울 대책을 세우라. … 옷이 흠뻑 젖어 추워하는 사람들을 그시그시 몸을 덥히도록 하려는 조치였다.

벌써 작업반들에서 농장원들이 가마니와 삽들을 들고 포전정리작업장으로 가기 시작했다. 리인민위원회 서기장이 리내 가정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나왔다.

그리 찬 날씨는 아니였지만 비는 여전히 내렸고 흙탕물은 밑으로 가

면서 허리까지 쳤다. 거기서는 청장년들이 흙가마니를 끌었다. 옷이 속속들이 젖었다.
허명숙이는 2작업반원들과 같이 일했고 차성재는 6작업반원들속에서 우스개소리를 해가며 농장원들을 고무하였다.
로정만이는 흙을 퍼담아주는 작업장과 뚝을 쌓는 작업장을 오가며 잔소리를 했고 흙가마니를 끌기 힘들어하는 아주머니들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제일 분주스럽게 돌아다녔고 정력도 그만큼 소비하였다. 그는 불시에 진흙에 미끄러지면서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그 순간에 땅을 짚은 손바닥이 벗겨지면서 쓰려나고 허리가 시큰했다. 강현이가 달려와 부축여 일으켜주며 《어디 상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근심스럽게 물었다.
《허, 괜찮아.》
로정만은 이렇게 대답하면서 한 아주머니를 도와 흙가마니를 끄는 일에 협력하였다. 손바닥이 쓰리고 허리가 아팠으나 참았다. 허명숙이 흙가마니를 끌고 씽— 하고 지나가며 기세를 올렸다.
불도젤운전수로서는 할일이 없는 철수도 흙가마니끌기를 했는데 억대우같은 그가 지내 속도있게 나가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흙탕물속에 잠겼다가 솟구쳐오른 그는 고수머리얼굴, 어깨 할것없이 온통 흙탕매질이다.
《하—하—하—》
그 모양을 보며 비속에서 모두 웃어댔다.
《철수동무, 빨리 얼굴을 씻어요.》
명숙이도 웃다가 소리쳤다.
《이제 비가 다 씻어줄텐데요.》
《불도젤에서 내리니까 땅크병두 그저 그렇구만.》
《불도젤이 감탕에 잠겨 일을 못하니 임자는 다른 사람의 세곱은 해야 해.》
《그러지 않아도 하고있지 않나.》
농장원들이 떠들었다.
철수는 넘어졌다가 뛰쳐일어났는데 오히려 더 힘을 쓰는것 같았다. 로정만은 자기 힘이 진했다는것을 아프게 자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 아픔은 손바닥이 쓰린것이나 허리가 아픈것보다 더 괴로운것이

였다.
마침내 그는 주저앉았다. 허리를 쓸수 없었고 입술이 덜덜 떨리였다. 젊은이 몇이 그를 부축여가지고 모닥불이 타고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은 합석으로 지붕을 만들어놓고 작업중 상한 사람들을 데려다 비도 긋고 불도 쪼이게 한 장소였다. 로정만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만든것인데 그자신이 그곳에 이끌려왔다. 한 늙은 농장원이 이미 와있었다.
로정만은 불을 쪼이니 살것 같았다. 그러나 비와 흙탕물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흙가마니를 나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수치심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 머리를 숙였다.
허명숙의 웨침소리가 울리였다.
《모두들 노래를 부르자요!》
그리고 선창을 떼는것이였다.
젊은이들이 먼저 따라불렀다.
로정만은 머리를 들고 법석 끓는 작업장을 바라보았다. 노래를 부르며 가마니에 흙을 담느라 삽질을 하는 녀인들, 흙가마니를 흙탕물우로 끌고가는 청장년들, 처녀들… 류순절의 모습이 두드러져보였다. 로정만은 그 어떤 커다란 충격에 떠밀린듯 벌떡 일어섰다. 불을 쪼이고있던 나이든 농장원이 《기사장동무, 앉아있소. 젊은 사람들한테 부담이 된다니까.》 하고 만류했으나 로정만은 그대로 다시 논판에 들어섰다. …
그들은 기어이 논뚝을 쌓았고 논바닥을 고르게 정리하여 모내기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비도 멎고 따뜻한 해빛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렸다. …
이 포전정리전투이후 로정만은 며칠동안 정신없이 앓았다. 열이 몹시 났고 온몸이 쑤시였다. 리병원 의사와 간호원이 거의 붙어있다시피 했고 관리일군들이 련이어 찾아왔다.
늦은 밤에 명숙이가 왔다. 로정만은 열이 심한 속에서도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명숙은 얼른 그를 눕히고 불덩이같이 뜨거운 손을 잡아주며 위로의 말을 했다.

《의사선생이 그러는데 독감에 걸렸대요. 인차 회복될거라고 합니다.》

로정만이 까실까실 타드는 입술을 놀려 대답하였다.

《미안합니다. 모내기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니… 올해는 류다른 봄이지요.》

《아무 걱정 말고 치료를 하세요.》

로정만은 명숙의 볕에 탄 둥실한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포전정리전투를 하는 날 노래를 부르며 농장원들을 이끌어나가던 그 정열에 넘친 모습이 방불히 되살아났다. 지금 온 농장이 모내기에 진입했으니 관리위원장이 얼마나 바쁘겠는가.

그러기에 밤늦게 시간을 내여 병문안을 왔다.

《위원장동무, 내 걱정은 말고 오늘 밤은 늦기는 했어도 집에 들어가 푹 쉬시오.》

로정만이 하는 말에 명숙은 웃음으로 대답했다.

모내기가 예정대로 시작되여 그 바쁜 속에서도 일부 농장원들, 작업반장들과 기술원들이 밤에 병문안을 왔다. 로정만은 가슴이 후더워나는 한편 몹시 송구스러워 찾아오는 사람들을 빨리 집에 가서 쉬라고 권고했으며 제발 찾아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리당비서에게 부탁하기까지 했다.

마반장이 늦은 밤에 찾아왔다. 그때는 병세가 좀 숙어들고있었다.

《이 바쁜 때 뭣하러 왔소? 어서 가보오.》

로정만이 이렇게 말하자 마장석은 오히려 엉치를 든든히 붙이고 앉으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기사장동무, 아직도 나한테 감정을 품고있는건 아니겠지요? 찾아온 사람을 쫓으니 섭섭하구만. 담배라도 한대 태우고 가게 해주우.》

로정만의 눈귀에 물기가 돌았다.

《마반장!》

그는 아직 뜨거운 손으로 마장석의 무릎을 건드렸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오. 내 이 며칠동안 생각이 많소. 우리 농장사람들의 인정이 이렇게 후한지 몰랐댔소. 내가 지금 이 중요하고 바쁜 시기에 집에 누워있으니 독감보다 정신적인 괴로움으로 몸살이 더 심해지는것 같소.》

《아, 아픈거야 어찌겠소. 강현이가 대신 일을 다 처리하고있으니 마음놓소.》

《강현이가!… 마반장, 내 이제 털고일어나겠소. 올초에 흙깔이두 시작했다지요. 강현이가… 그 젊은이가 나한테 말했댔지. … 5반은 모내기를 며칠내로 끝낼것 같소?》

《작년보다 닷새 단축해서 열흘동안에 끝내려고 모두 와와하오, 허…》

《마반장이 그때 한 비판이 옳았소.》

《뭘 자꾸 그러오? 기사장, 내 얘기를 하나 하리다. 사실 내 성은 마가가 아니요.》

로정만이 자꾸 농장원총회에서 비판된 일을 꺼내면서 자신을 심심히 뉘우치고있으니 인정이 헤픈 마장석이 딱해하며 슬쩍 이야기를 돌리는것이였다. 로정만은 그의 성이 마가가 아니라니 저으기 의아쩍어 했다.

《그래요?》

《이보우, 이자 기사장이 인정을 말했는데 이 마장석이도 사실 정에 주린 사람이요. 우리 관리위원장에게 내가 첫 순간부터 마음이 끌린게 인정미가 느껴졌기때문이였소. 기사장하구는 달랐소. 성내지 마우.》

《아니, 아니요. 어서 말하오.》

마장석은 뻣뻣하게 일어선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그렇지만 머리카락은 다시 일어섰다.

《내 이름이 좀 우습지 않소, 마장석이라구… 나는 사실 성이 둘이나 붙어있소. 〈마〉와 〈장〉이요. 원래 이름은 장석이였소. 우리 아버지의 성이 장씨였지요. 그런데 일찍 사망했소. 해방전에야 사람의 목숨이 개목숨이나 같앴지요. 지주놈의 땅을 소작했는데 일이 힘든데다가 열병에 걸려 사망했소. 어머니 혼자 나를 키우며 고생했소. 그러다가 해방을 맞아 생활이 활 피여나면서 어머니의 곱게 생긴 본바탕이 살아났소. 그래 마가 성을 가진 사람이 후처루 맞아들였소. 그 사람이 이붓아들인 나한테 장가 성이 붙어있는게 싫었던지 장석이한테다가 마가 성을 앞에 붙이였소. 그래서 내가 마장석이가 됐소. 후아버지와는 정이 통하지 않았소. 이제는 그 사람도 어머니도 다 세상

을 떠났는데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소. 그렇지만 나는 진짜사랑을 알게 되였소. 여기 오기 전에 일하던 농장에서 있은 일이요. 당시 나는 분조장이였소. 그래 분조원들과 같이 논에서 줄을 띄우고 엎드려 모를 꽂고있었소. 이때 논머리에 오신 수령님께서 논판에서 나와 인사를 올리는 우리들에게 수고를 한다고 하시며 분조장인 저와 담화를 하시였소. 〈언제부터 농사일을 합니까?〉 따뜻한 물으심에 저는 〈열일곱살때부터 농사일을 합니다.〉 하고 대답을 올리였소. 수령님께서는 저의 손을 만져보시며 〈손이 험하구만. 열일곱살때부터 땅을 다루어온 손이니…〉 하고 가슴아파하시였소. 수령님께서는 모내는기계가 나왔는데 그걸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며 〈농사일을 기계화하여 농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해 로동계급의 국가가 새로운 농기계들을 계속 생산해서 농촌에 보내주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였소. 나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였소.》

마장석은 목이 꺽 막혀 더 말을 못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정에 주려있던 투박한 사나이의 눈물겨운 이야기는 로정만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얼마나 뜨거운 이야기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인가.

로정만은 이튿날 쇠약해진 몸이였지만 관리위원회로 나갔고 작업반들도 돌아보았다. 보름동안에 모내기를 와닥닥 끝내겠다고 경쟁적으로 일하는 농장원들은 헛눈한번 팔지 않고 모를 꽂고있었다. 논판에 들어선 작업반장, 부락당비서, 분조장들도 농장원들과 같이 모를 꽂으며 이 바쁜 때에 무슨 일로든 찾아오는 사람들을 시끄러워하였다. 관리위원장, 리당비서도 공연히 작업반들을 빙빙 돌아다니는것이 아니라 어느 한 작업반에 속해 모를 꽂았다. 기타 관리일군들은 더 말할것이 없었다. 모두가 논에 들어가있었다.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하니 로력자 한명이 귀했고 또 건들거리는 사람이 없었을뿐만아니라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졌는데도 논판에서 나오지 않았다.

관리위원장 허명숙은 모내기전투기간 일찍 모판에 나와 모를 뜨고 모내기에 착수하여 마력을 다 내여 일하도록 엄격한 규률을 세웠으나 밤작업은 절대로 못하게 했다. 밤에는 푹 쉬여야 다음날작업에 지장

이 없는것이다.
로정만이는 명숙이가 발기한 분조들에서의 만가동운동이 어떻게 벌어지고있는가 하는것도 보았다.
5작업반 류순절분조의 경섭이는 널판자에 박힌 못을 밟고 발이 퉁퉁 부었댔는데 자기가 결근하면 만가동이 되지 못하므로 상처에 약을 발라 싸맨 다음 발을 바가지에 넣고 모판에 들어가 종일 모를 떴다.
어느 분조의 한 녀인은 생손앓이로 모를 뜨지 못하게 되자 남보다 일찍 나와 성한 손으로 모판의 돌피잡이를 하며 가동을 보장했다.
이렇게 하여 잠정리는 농장이 생긴이래 처음으로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 기일을 훨씬 단축하여 보름동안에 모내기를 끝내였다. 이어 빈자리보식과 김매기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았다.
어느 휴식일날 명숙이가 관리위원회에 나와 앉아있는데 로정만이 찾아들어왔다.
《위원장동무, 시간이 있습니까?》
별로 심각해진듯 한 로정만이였다.
《오늘이야 쉬는 날이니 시간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앉으세요.》
밝은 표정으로 명숙이가 그를 맞이했다.
《아니요. 그저 이야기나 좀 나눌가 해서…》
《기사장동무두, 우리야 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사업이야기가 아닙니다.》
《호… 그래두 기사장과 관리위원장의 대화겠지요?》
로정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명숙은 일부러 롱조로 말했다.
로정만은 눈길을 떨구고 긴 앞탁을 마주하여 앉아 그우에 두손을 올려놓았다.
원래 웬만해서는 웃지 않는 로정만인데 지금은 더욱 심중해있었다. 무엇때문일가?
명숙은 그를 피뜩 쳐다보았다. 앓고난 후 인차 일에 부대끼며 돌아가느라 몸이 아직 추선것 같지 않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일부러 나오셨어요? 푹 쉬며 몸보신이나 할

것이지…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회복되겠지요. 관리위원장동무, 내가 어제 군경영위원회에 갔었지요?》
그것은 명숙이도 알고있는 사실이다. 어제 그는 명숙이에게 읍에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하고 갔다온것이다.
《그래서요?》
《사실은 농장일때문이 아니라 나 개인문제로 갔댔습니다. 군경영위원장을 만났지요. 그리고 군당에도 들렸습니다.》
《예…》
무엇인가 심상치 않는 일이 예감되였다.
《나를 총화지었습니다.》
명숙은 흠칫했다.
(총화지었다는것은 무슨 의미일가?)
로정만은 거의 표정없는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일도 많이 했고 잠정리에서 농사를 배우기 시작해서 기사장으로까지 발전한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보다 잠정리를 잘 알고 농사에 밝다고 자부해왔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긍지감, 우월감,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기사장이 무엇때문에 이런 말을 할가?)
명숙은 의혹이 짙어가며 더욱 심중해졌다.
로정만은 딱딱하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는 허명숙이 잠정리에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무리 이름난 관리위원장이라 해도 이 로정만이에게 의거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하는 자기 우월감에 잠겨있었다고 하였다.
《내가 우리 농장을 잘 알고있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잘 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것은 어떻게 아는가 하는것이였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는 짧은 기간에 도당책임비서가 말한것처럼 때묻지 않은 생신한 눈으로 잠정농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안들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놀랐으며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고집했습니다. 105프로 장성이 힘들다, 자체로 농사짓는것은 더 그렇다, 아직 농사경험이 별반 없고 입만 까진 젊은이 강현이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하지만 관리위원장동무는 자기의

신념과 결심대로 내밀었습니다. 첫해 총화는 교훈적이였습니다. 우리 농장이 알곡생산에서 전진한것은 틀림없으나 높이 세운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5작업반은 자체로 모내기를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지원로력을 받지 않았는가, 이 로정만이 우려하고 충고한것이 옳지 않았는가, 나는 이렇게 자신심에 넘쳐있었습니다. …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말한것은 다 기본이 아닙니다. 우리 농장이 계획을 못하게 되자 나는 관리위원장동무처럼 농장원들의 분배몫이 줄어들게 되고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아니라 군경영위원회에 올라가기는 다 틀렸다는 자기 문제에 더 신경을 썼고 나를 약속대로 군에 소환하지 못했다고 량해를 구하는 한광훈위원장에게 짜증을 내면서 잠정리를 영원히 뜨지 않겠다고, 다시는 소환문제를 꺼내지 말라고 화를 터뜨렸댔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105프로 장성을 우려하고 자체로 농사짓는 문제를 반대한것도 자기의 소위 발전이 걱정되였기때문이였고 그것이 결정이 된 후 열성을 낸것도 진심으로 농사를 잘 지으려는 마음보다 어떻게든 계획을 해서 자랑스럽게 군에 올라가기 위한데로부터 출발한것이였습니다. 마장석반장의 비판이 아주 정당했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 이것이 기본입니다. 나는 이런 인간이였습니다.》

명숙이는 눈길을 떨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있다가 머리를 번쩍 들었다. 그러니 마장석이 한 말이 사실이였구나. 지금은 로정만이 스스로가 그것을 발가놓고있다. 로정만이 이처럼 자신을 허심하게 뉘우치고 속심을 털어놓으니 얼마나 그의 인격과 인간적면모가 고상하게 안겨오는가.

《올해 우리 농장은 자체로 모내기를 짧은 기일안에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나는 푸른 논벌을 바라보며 봄날에 있었던 시련과 그 시련을 이겨낸 우리 농장원들의 앙양된 정신상태, 단합된 힘을 생각했습니다. 농장원들은 관리위원장동무의 호소에 하나같이 따라나서서 비속에서 전투를 벌려 포전정리를 했고 모내기를 보름동안에 끝냈습니다. 그간 이 락오자는 쓰러져 앓고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기사장이라고 그 바쁜 모내기전투기간이였으나 병문안을 온 우리 농장 사람들을 대할 낯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기 일을 좀 했다고 그리고 자기이상 없는듯이 잔뜩 코를 쳐들고 다니던 나였지만 앓아누워도 버리

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
로정만은 뜨거운것을 삼키고 계속하였다.
《나는 군경영위원장과 군당에 제기했습니다. 나는 군경영위원회에 올라가 일할 자격은커녕 잠정리 기사장자격도 없다, 나는 물러나야 한다, 강현과 같은 새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관리위원장동무, 내가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는 심적고충이 많았습니다. 하루이틀사이에 결심한것이 아닙니다. 부탁합니다. 나는 잠정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알맞는 일감을 주시오. 우리 농장의 양어장관리공도 좋고 축산반에 가서 염소를 먹이는 일도 좋습니다.》
언제나 자세가 도고하고 자존심이 강하던 로정만의 고백은 그가 다시 진실하고 성실한 인간으로 돌아왔다는것을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명숙은 가슴이 뜨거워났다.
로정만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이 북받쳤다.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진심을 터놓을 때 오히려 그가 쳐다보이는 법이다.
《기사장동무, 나는 지금 가슴이 후더워납니다. 내가 잠정리에 와서 기사장동무에게서 좋게 받았던 첫 인상이 되살아납니다. 기사장동무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사사로운 개인감정을 누르고 폭넓게 사고했고 사업을 우선시했습니다. 결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탁하고싶은것은 너무 심각하게 자기를 반성하면서 자기를 지내 몉구지 말며 기사장자리를 내놓을 생각을 거두라는것입니다. 이제부터 더욱 합심해서 알곡증산에 헌신합시다. 저는 처녀로 관리위원장사업을 시작하여 몇달 되지 않은 때 영광스럽게도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고 평생 잊을수 없는 가르치심을 받았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에 쌀이 많아야 인민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모든 일이 펴인다고 하시면서 농업일군들이 일을 잘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명숙은 로정만이가 물러간 후 리당비서 차성재를 찾아가 만났다. 차성재는 명숙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로정만이가 농장에서 일하든 군에 가서 일하든 땅에 뿌리를 내린 진실한 농업일군의 자격을 갖춘것 같다며 기뻐하였다.

39

허명숙은 군경영위원회에 들려 볼일도 있고 특히는 경애의 어머니 양옥실을 만나 문안도 하고 철수와 경애의 결혼문제도 락착을 보자는 의도에서 읍으로 갔다.

그간 로정만이 군경영위원회 기사장으로 소환되여 그들부부는 읍에 있는 아빠트로 이사를 갔다. 로정만은 떠나기에 앞서 경애를 철수와 결혼시키고 태평리에서 잠정리로 옮겨다가 일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명숙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군경영위원회에서, 딸은 자기가 기사장을 하던 농장에서 일하게 되였으니 잘되였다고 하며 로정만이는 미소를 짓는것이였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도 철수네는 결혼을 하지 않고있고 양옥실이 아직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다는 들리는 소문도 있어 그를 만나러 일찍 떠나온 길이였지만 명숙은 만날수 없었다. 집이 비여있었다.

그래 로정만이를 만나 그간 소식을 들으려고 경영위원회에서 일을 본 다음 그의 방을 찾아가니 역시 쇠가 잠겨있어 만날수 없었다.

복도에서 서성대는데 군경영위원장 한광훈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다.

《여기서 뭘하오?》

《기사장동지를 좀 만날가 해서…》

《농장들에 나갔소. 무슨 용건인지 나한테 말하면 안되겠소?》

명숙은 그저 웃기만 했다.

《좌우간 우리 사무실에 들어갑시다. 만난김에 잠정농장형편도 듣고…》

한광훈이는 명숙을 데리고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명숙이에게 걸상을 권하고 새 농장기사장 강현이가 어떻게 일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묻는것으로부터 주동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그러다가 로정만 경영위원회기사장은 왜 만나자고 하는가고 다시 물었다.

《경영위원장동지는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숙의 대답을 듣고 한광훈이는 이마를 긁었다.
《그렇다… 하지만 경영위원장은 몰라도 한광훈이는 알아도 되지 않을가?》
명숙은 호호 웃었다.
《갈구 같지요.》
《아니, 그렇지 않소.》
《하긴 위원장동지와 기사장동지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깊으니까 알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우리 농장의 한 청년과 이웃 농장의 처녀와의 사랑을 둘러싼 문제인데 그 처녀란 로정만기사장의 딸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연이 깃들어있습니다.》
한광훈이 더 호기심을 나타내기에 명숙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했다. 자기가 끼여들어 문제가 더 복잡해진 사실, 그래 다시는 거기에 삐치지 않으려 했는데 경애와 철수가 아직 서로 사랑하면서도 경애 어머니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서 결혼하지 못하는것 같은 의혐심을 불러일으켜 기회를 얻어 오늘 양옥실을 만나러 왔던 사실 등을 말했다.
《그래, 경애 어머니를 만났습니까?》
한광훈이 다 듣고나서 물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집이 비였더군요. 그래서 경애 어머니의 생각을 알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빨리 결혼해야 합니다. 철수와 경애의 결혼은 농촌진지를 강화하는데서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지 않겠습니까.》
키가 꺽두룩한 한광훈이 흥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안을 왔다갔다하였다.
《옳은 말이요. 그들의 사랑은 아름답게 꽃피여나 열매를 맺어야 하며 이렇게 하는것은 농촌을 홀시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될것이요. 로정만기사장동무의 가정사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은줄 몰랐군!》
한광훈은 사랑하는 두 청춘남녀의 행복한 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그리고 사회적성격을 띠는 그 문제가 정당하게 해결되기를 바라서 애쓰고있는 명숙이의 그 마음과 노력이 무엇보다 귀중하고 아름다운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명숙동무를 도와주겠소.》

《아이, 경영위원장동지까지 무슨!…》

《경영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당원으로서 말하는것이요. 나는 명숙동무에게 머리가 숙어지오. 내 로정만동무를 만나 단단히 말하겠으니 마음놓고 내려가오.》

《아, 아닙니다.》 명숙이가 급히 손을 내저었다.

《로정만기사장은 딸을 철수와 결혼시키겠다고 나한테 말했습니다. 기사장동지를 책망할건 없습니다. 나도 기사장동지를 만나자고 하는건 경애 어머니가 오늘날 어떻게 나오는가 알자는것이였습니다. 무슨 의견이 있어서 만나려는것은 아닙니다.》

《알았소, 알았소. 하여튼 내게 맡기오.》

한광훈이는 밤에 농장들에서 돌아온 로정만을 사무실에 불러들여 담배를 같이 피우며 한동안 사업이야기를 하다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

《여보 로동무, 동무네 딸문제가 여전하더군.》

갑작스러운 말에 로정만이 놀랐지만 인차 짐작이 가는지 눈빛을 흐리였다.

《아닌게 아니라… 그렇게 되였소.》

《이 한광훈이 어떻게 되여 그 가정사를 들고나오는지 알고싶겠지요?… 허명숙관리위원장이 당신의 딸문제때문에 오늘 여기 읍에 왔댔소. 당신네 집에 가서 경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소. 하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하오. 허명숙동무가 어째서 동무의 딸 결혼문제때문에 찾아다니겠소? 관리위원장이면 얼마나 시간을 내기 힘든가 하는것을 로동무도 잘 알지. 하지만 왜 시간을 내여 경애문제를 풀려고 애쓰는것이겠소?

관리위원장으로서 자기 농장의 농장원 한사람이라도 귀중하기에 또 그들의 사랑이 정의로운것이기에 발벗고나선것이요. 의무감에 앞서 인간적인 감정이 분출한것이란 말이요. 명숙동무가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가. 여기에 나도 머리를 숙이게 되오. 당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보기요. 당신이 자기를 깊이 뉘우치고 농장원으로서 잠정리에서 한생을 바치겠다고 했을 때 제일 기뻐한 사람이 허명숙동무였소. 그래 잠정리 리당비서는 당조직을 대표하고 허명숙동무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로정만이를 군경영위원회의 중

요한 직책에 등용해줄것을 제기했소. 물론 우리가 이미 제기한 문제에 대한 대답이긴 하지만 말이요. 허명숙동무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기 전에 우선 인간이고 선배들을 존경하고 아끼는 일군이요. 여기에 군당에서도 깊이 공감했소. 명숙동무는 경애와 철수의 사랑을 훌륭히 꽃피워줄것이요. 정의를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는 성격이요. 내가 명숙동무를 대신해서 당신에게 할 말을 다 했소. 안해를 교양해야 하겠소. 이제는 군경영위원회 기사장이 아닌가!》

로정만은 한숨을 길게 내쉬였다.

《지난 일이였지만 내 더 할말이 없소. 명숙동무에게 참으로 죄스럽소. 경영위원장동무가 나한테 한 말이 다 옳소. 이제 다 제대로 될거요.》

《그럼 됐소. 밤도 깊었는데 그만하자구.》

한광훈이 로정만이를 바래워주려고 출입문까지 따라왔는데 거기서 로정만이 멈추어서더니 이렇게 불쑥 물었다.

《그런데 위원장동무, 당신은 집에 들어가서 어떻소? 녀편네를 좌지우지하오?》

한광훈이 껄껄 웃으며 로정만의 어깨를 쳤다.

《사람두! 당신네 문제는 사사로운 가정사가 아니요. 사회적성격을 띠고있지 않소.》

로정만이는 가정문제에 대한 한광훈의 말을 긍정하며 위원장사무실을 나왔다.

그런데 일이 되려니까 대외사업을 하고있는 경애의 오빠가 오래간만에 집에 왔다.

그는 아버지의 간곡한 이야기를 새겨듣고 어머니에 대한 설복에 착수하였다.

그러자 양옥실이 아들을 향해 말했다.

《그건 다 지난 일이다. 네 아버진 내 마음을 다 알고있는데 무엇이 못미더워 잠자코있는지 모르겠구나!》

《야, 그래요!》

경애 오빠는 뜻밖의 어머니의 태도에 너무 반가와 덥석 손을 그러쥐였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벌써 그렇게 나왔어야지요.》

아들은 즉시로 잠정리에 와서 명숙이를 만났다.

《관리위원장동지, 관심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지난날의 저의 어머니를 용서해주십시오.》

《거기에 무슨 용서를 하고 안하고 하는것이 있겠어요. 오빠가 조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은지 긴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간에 아예 결혼식을 하는것이 어때요?》

《과연 관리위원장동지는 진취성이 강하다더니… 좋습니다.》

경애와 철수는 결혼하였다. 급작스럽게 하는 잔치였으나 잠정과 태평농장에서 주관하여 본인들과 가족친척들이 섭섭하지 않게 잘 차리였다. 결혼식은 이전 기사장 로정만이 살던 집에서 했으며 경애와 철수에게 그 집을 주었다.

가을에 가서 경사가 있었다. 년간총화모임에 군당책임비서까지 참가했는데 주석단에는 기계화반에서 통계원을 하며 연유취급을 원칙적이고 책임적으로 한 곽기춘이도 앉았다. 로력혁신자들에 대한 표창때에도 곽기춘의 이름이 먼저 불리워졌다. 군당책임비서가 권고해서 그는 연단에 나서서 답사를 하였는데 아는것이 많고 청산류수인 곽기춘이 더듬거리며 말을 제대로 못해 그것 또한 이야기거리가 되였다.

모임후에 모두들 그를 흉내내며 흐아흐아 웃었으나 속으로는 그를 칭찬했고 존경했으며 하나와 같이 부러워하였다.

경사가 또 있다. 소를 치는 로인들중에서 오만수도 높이 평가되여 표창을 받게 되였다.

《오만수동지, 나오십시오.》 했을 때 《동지》라는 부름이 너무 엄엄해서 오만수로인은 눈이 휘둥그래해졌다. 그는 조심조심 걸어나갔고 책임비서앞에 가섰을 때는 무릎이 약간 떨리였다. 했으나 자기자리로 들어갈 때는 가슴을 쭉 펴고 이쪽저쪽 회의실에 꽉 차있는 농장원들을 둘러보며 매우 위신있게 걸었다. 좀 우습긴 했으나 사람들은 웃지 않았다.

군당책임비서가 발언했다.

《우리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해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데서와 사회주의농촌건설에 헌신한 로당원들의 공로를 잊지 맙시다.》

박수소리가 폭풍처럼 터졌다. …

한해를 총화하며 류순절분조는 만가동을 보장한 분조로서 사회주의 경쟁에서 농장적으로 1등을 했다. 이것은 동시에 군적으로도 알곡생산고와 분배몫에서 가장 앞선 분조로 되였다는것을 의미했다.

류순절이와 분조원들인 리세호, 안종기, 경섭이, 혜옥이, 창길이 등은 더 말할것 없고 마장석반장도 입에 담배를 물고 만족해서 벙실거리였다.

강현기사장밑에서 그의 사업을 보좌하는 농산지도원이 된 로경애는 성일이라고 이름을 지은 아들을 낳았는데 양옥실은 외손자가 고와서 어쩔줄 몰라했다. 성일이가 젖을 떼고 밥을 먹게 되자 양옥실은 외손자를 자기가 데리고있겠으니 읍으로 보내라고 했다. 철수부부는 성일이를 외할머니에게 보냈다. 양옥실은 성일이를 옆에서 한시도 떼놓지 않고 보살폈다. 성일이는 외할머니손에서 자랐다.

영웅관리위원장

회의실의 뒤쪽에 단정한 옷차림을 한 중년녀성이 앉아있었다. 그는 협동농장의 처녀분조장, 처녀관리위원장을 거쳐 구역협동농장 경영위원장을 했고 지금은 농촌경리부문에서 과장사업을 하고있는 녀성일군이였다.

그의 앞쪽으로는 정무원총리, 부총리들, 당중앙위원회 비서, 부장들이 앉아있었다. 과장으로는 그 녀성이 이 중요한 농업일군협의회에 참가한 유일한 일군으로서 이를테면 홍일점이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이름을 찍어 참가하도록 말씀하시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것이였다.

협의회장은 긴장감이 흐르고있었다. 가끔 내는 기침소리가 그 긴장감을 더 강조하는듯 하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열렬한 박수소리로 회의장은 설레이였다. 그이께서 앉으라는 손세를 쓰시여서야 모두 앉았다.

분조장시절과 관리위원장시절에 수령님께서 참석하신 전국농업대회에서 토론을 하고 그이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후 그이를 직접 만나뵙고 가르치심을 받은 녀성과장은 다시 그이를 가까이에서 뵙게 되자 울렁이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들고나오신 문서를 한장 넘기시였다. 그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 어디서나 들릴만큼 정숙이 깃들고있었다.

그이께서 눈길을 드시여 협의회참가자들을 둘러보시였다. 녀성과장은 그 광채어린 눈길이 한순간 자기의 얼굴에 머무른듯 하여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수령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으나 녀성과장은 《음, 왔나?》 하고 그이께서 반가와하신듯 하여 얼굴이 화끈해졌다.

수령님께서 침묵을 깨며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순간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장내에 꽉 찼다.

《나는 오늘 동무들과 농업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최근에 일부 협동농장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농업생산에서 큰 전진이 없다고 하시면서 비료, 농약, 박막, 기름을 제대로 보장 못하고있는데 숱한 간부들이 있으면서 현실에 나가보지 않고 무엇이 걸려있는지도 모른다, 최근년간 농사에서 전진이 없는 리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농업위원회와 해당 부문 일군들이 지도를 잘 못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에서 농업부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것이라고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며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 농업담당 부총리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으시였다.

부총리가 일어섰다. 그는 매우 고지식하고 고집스럽고 주장이 강한 일군이였다. 그는 자기가 농장들을 돌아본 이야기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말씀드렸다.

《수령님, 상급단위에서 농업부문에 관심을 적게 돌리고 투자를 하지 않는 현상은 우선 연유를 년초에 농장들에 내주어야 논밭에 거름도 내고 선행해야 할 일들을 하겠는데 미리 연유를 내주면 다른데 다 쓴다고 하면서 농번기에 가서 단꺼번에 내주는데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겹쳐서 복잡하고 어느 한가지도 질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렇게 격해서 말하느라 얼굴이 벌겋게 되였다. 그 어떤 좌석에서든 할말은 하고야마는 성미때문에 더러 사람들로부터 불만을 사군 하는 일군이였다.

《농업부문을 담당한 부총리가 의견을 제기하는것은 총리와 해당 부서 일군에게 하는 비판인데 그렇다면 부총리는 왜 그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투쟁하느라고 했는데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긴장해졌다.

부총리는 자리에 앉으며 후들후들 떠는 손으로 앞탁을 연신 쓸어만지였다. 자신을 다잡고있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 이슥히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좌중을 둘러보시였다. 그이의 눈길이 녀성과장에게 와멎었다.

《과장동무.》

《예.》

녀성과장이 즉시 일어섰다.

《동무가 좀 말해보오.》

수령님께서는 농장에서 분조장으로부터 발전해온 그에게서 농민

들의 진짜목소리를 들으시군 하시였다. 녀성과장은 그이의 물으심에 언제나 사실그대로 말씀드리군 했었다.

녀성과장은 부총리가 말씀드릴 때 이미 견해가 서있었던것만큼 또박또박 명확하게 대답을 드렸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총리동지가 옳은 의견을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전에 잠정협동농장에 가보았습니다. 농장관리위원장 허명숙동무는 바로 그것때문에 애를 태우고있었습니다. 논밭에 거름을 내야 하겠는데 기름을 제대로 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년초부터 기름을 쓰리만큼 계획적으로 내려보내주어야 밑에서 일을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내 당돌하게 말하는것 같아 여기까지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회의장에 미세한 술렁거림이 지나갔다.

《이야기를 계속하오. 밑에서 오래 일한 경험자의 말을 듣자는것이니까 마음놓고 말하오.》

수령님께서 그를 고무해주시였다.

과장은 용기를 내여 농사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나갔다. 자급비료를 지금처럼 땅이 얼어있을 때 논밭에 내는것이 땅이 다 녹고 논밭갈이, 써레질을 할 때 내는것보다 경제적으로 2배나 리롭다는것, 때문에 기름을 빨리 보내주어야 한다는것, 모를 적기에 심지 못하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한것을 기계적으로 언제까지 논에 내라고 내리먹여 벼수확고에 영향을 미쳤다는것, 비닐박막을 제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것 등등…

수령님께서 깊은 주의를 돌려 들어주시니 과장은 더욱 용기가 나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협동농장들에 영농자재계획을 지금까지도 주지 않아 농장들에서 일을 실속있게 짜고들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선채로 머뭇거리였다.

《다 말했소?》

《예.》

《앉으시오, 동무들.》 그이께서 좌중을 향해 말씀하시였다. 《이동무처럼 솔직해야 합니다. 고지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책관철을 위한 옳은 방도를 찾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

이 동무가 제기한 문제들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디젤유, 휘발유를 농업부문에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시오. 그래서 부총리가 격했댔구만?!》

부총리는 불그레해진 얼굴을 숙이였다.

《과장동무의 말은 들을수록 들을 맛이 있소. 공업과 농업은 다같은 중요한 2대부문이지. 사실 먹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못하지 않는가. 연유공급체계를 바로잡도록 합시다.》

휴식시간에 수령님께서 녀성과장을 부르시였다.

《잠정농장에 나가보았다고 했지? 관리위원장 허명숙동무는 연백벌에서 처녀시절부터 농업일군으로 일해오고있소. 농사에서는 녀성들이 이악해, 솔직하고 고지식하단 말이요. 허명숙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있소?》

과장은 허명숙이 잠정농장에 온 이후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고 집단로동의 우월성을 발양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그리하여 자체로 농사를 짓고있는데 대하여,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켜 농장원들의 분배몫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하고있는데 대하여, 알곡생산을 늘이고 기계화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토지정리사업을 진행한데 대하여 모두 말씀드리였다.

《내가 그 동무를 잘 아오. 올해에 농사에서 다시금 혁신을 일으키고 가을에 가서 황해남도를 집중적으로 총화해봅시다. 허명숙동무가 해마다 국가계획을 넘쳐수행하는 관리위원장인데 올가을에 만나보겠소.》

수령님께서 말씀하시였다.

태양이 이글이글 불타며 떠오르고 볕이 전야에 퍼지자 황금빛논벌이 눈부시게 선명해졌다. 고개숙인 벼이삭들과 풀잎사귀들, 길가의 꽃들, 백양나무들, 농가의 지붕들에 맺혔던 이슬들이 령롱하게 반짝이였다.

해빛을 받은 대지는 큰숨을 쉬며 움씰거리였다. 솨— 바람이 불어왔다. 벼이삭들이 설레이기 시작했다.

허명숙은 들바람에 머리수건을 가볍게 날리고있다. 그는 지금 커다란 기쁨과 함께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로 하여 머리아픔을 체험하고있었다.

벼정당평균예상수확고판정이 진행되였다. 그에 의하면 올해는 계획을 넘쳐수행하였을뿐아니라 잠정농장이 생긴이래 최고수확을 기록

하였다.
예상수확고판정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사장 강현을 책임자로 하고 작업반 기술원들을 망라하여 벼가 썩 잘된 곳, 보통으로 잘된 곳, 잘되지 못한 곳, 아주 잘되지 못한 곳의 정당수확고를 판정하여 정확한 평균수치를 냈다. 이것은 과학이였다.
그런데 군경영위원회에서 내려온 판정성원들의 판정결과는 달랐다. 정당평균이 더 높다는것이다.
《대단한 결실입니다.》 판정성원을 책임지고 나왔던 과장이 환성을 올리였다. 《역시 잠정리가 잠정리요.》 그는 덤덤해서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는 관리위원장 명숙과 기사장 강현을 놀랍게 바라보았다. 《왜들 기뻐하지 않소? 왜 그러오? 잠정농장이 장훈을 불렀는데?》
강현이가 입을 열었다.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판정원들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상수확고를 낮추 잡는것도, 지나치게 높이 잡는것도 다 용인할수 없습니다.》
과장은 어이없다는듯 명숙을 돌아보았다. 명숙이 다른 대답을 할리 없다.
《우리 기사장동무는 농업전문가이고 실무일군이며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할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땅처럼 말입니다.》
과장은 손을 내젓고 돌아갔다.
이튿날 군경영위원장이 차를 타고 내려왔다. 한광훈의 뒤를 이은 사람이였다. 그는 익은 낟알냄새 풍기는 들판을 명숙이와 함께 걸었다.
《좋구만! 가을은 정말 좋은 계절이요. 이 넓으나넓은 대지에 낟알이 꽉 들어찼군! 허…》
그가 황금빛벼이삭 물결치는 가을에 대한 감상을 터뜨리였다. 자급비료를 장만하고 반출하느라 애쓴 추운 정초부터 시작하여 봄, 여름 한해를 땀흘린 보람에 대해 생각하는 명숙의 가슴도 부풀어올랐다.
《도당책임비서동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양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있으랍니다. 수령님께서 가을에 황해남도를 총화해보자고 하시며 그때 허명숙동무를 만나보겠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알고있겠지요?》
명숙은 그 사실을 알고있었다. 그래 올해는 더욱 알곡생산고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였었다. 하면서도 설마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을수 있으랴.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면서도 감히 바라지 못하고있었는

데 현실로 되는것 같다. 명숙은 심장이 세차게 뛰였다.
《정말 제가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것일가요?》
꿈같이만 생각되여 명숙은 숨을 크게 몰아쉬였다.
정작 수령님을 뵙게 된다고 생각하니 일을 적게 한것만 같아 아쉬움을 금할수 없었다.
경영위원장도 같은 심정인지 이렇게 말했다.
《관리위원장동무가 수령님께 올해농사정형을 자랑차게 보고드릴수 있게 예상수확고판정결과가 높이 나왔다고 보는데 이것은 잠정리뿐아니라 우리 군의 자랑이고 영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건대 잠정리사람들은 자기들의 성과를 지내 과소평가하는것 같습니다. 농장자체로 한 판정수치와 군판정원들이 낸 수치가 차이나는데 관리위원장동무, 풍년든 해에는 낟알이 털수록 나온다고 하였지요?》
명숙은 그를 의아해서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군판정원들이 낸 수자를 인정하라는 소린가? 군경영위원장이 그렇게 요구할 사람이 아닌데?
《그건 어떻게 하는 말씀인지…》
군경영위원장은 명숙을 등지고 돌아서서 말없이 들판을 바라보고있었다.
답답한 침묵이 흘렀다.
한동안 지나 그가 돌아서며 의미있게 명숙을 바라보았다.
《군판정원들이 낸 수자가 옳지 않을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정확히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영위원장은 좀 딱해하는 눈치였다.
《내가 그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그들대로 의견이 있습니다. 올해는 성과가 크다는것입니다.》
《예, 올해에 성과가 큰것만은 사실입니다. 최고수확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것만큼 했다고 해야지 더 했다고 어떻게 보고합니까?》
《너무 고집부리는건 아니요?》
아니다, 고집이 아니다. 나는 거짓말을 할수 없다. 그렇다면 군경영위원장은 어떤 립장인가? 순간 명숙은 가슴속에서 그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한광훈위원장이 은퇴한 후 등용된 군경영위원장은 성심성의를 다해 명숙을 도와주었다. 그러한 군경영위원장이 예상수확고를 높일것을 바라고있으니 참으로 놀랍고 섭섭했다.
명숙은 자기들의 사업상 련계가 깊고 군경영위원장이 상급이라 해

도 원칙앞에서는 양보할수 없었다.

《경영위원장동무, 내가 처녀로서 관리위원장사업을 시작하여 어떻게 할지 몰라 쩔쩔맬 때 나를 깨우쳐주고 이끌어준 로당원인 첫 리당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순돌이지만 사업과 원칙앞에서는 순돌이가 아니요.〉 잠정리 관리위원장을 했던분도 순결한 량심을 지닌 거짓을 모르는 로당원이였어요. 나도 그렇고 경영위원장동무도 다 이런 혁명선배들의 뒤를 이어 수령님을 받들고 당을 따르는 계승자들이 아닙니까. 용서하세요, 나는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해놓고보니 너무 직선적으로 모질게 하지 않았는가 후회가 들기도 했다. 허명숙이 농장자체의 판정수치가 옳다고 주장하듯이 군경영위원장도 그렇게 군판정원들의 판정수치를 옳다고 주장할수 있다. 아니다, 이 명숙이를 믿어야 하며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 명숙은 마음을 모질게 먹었다.

경영위원장은 뒤짐을 진채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들었다.

《내가 경영위원장으로서 군판정원들의 립장에서 말하다보니 명숙동무를 노엽힌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명숙동무를 믿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몇걸음 승용차쪽으로 걸어가던 경영위원장이 다시 돌아서왔다.

《확실히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예상수확고판정에 관심하는것이 우리 군이 국가계획을 했다는 보고를 하여 이 경영위원장이 평가나 받자고 그런것이 아니라는것을 믿어주기 바랍니다. 사실 예상수확고나 실수확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러한 경영위원장은 있을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것은 명숙동무의 드팀없는 신조, 변함없는 진심을 잠시나마 고려하지 못했다는것입니다.》 하면서 그는 시원스럽게 웃었다.

《사실 올해같이 농사가 잘된 해에 우리 군에서 영웅을 내고싶어서 그랬는데… 오히려, 허허…》

이것이 그의 속심이였다. 그 마음이 고마왔다. 하지만 영웅이 되겠다고 당을 속이랴! 받아들일수 없는 고마움이였다.

며칠후 석영진책임비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음, 평양 갈 준비는 다 했나? 기다리라구. 나하구 같이 가자구.》

오후에 도당책임비서가 왔다. 이전보다 더 뚱뚱해지고 얼굴이 불깃불깃했으나 세월의 흐름은 막지 못하는 법이다. 그는 퍽 늙었다. 올해 도의 농사일때문에 특히 정력을 많이 소비했다.

《녀성의 나이를 묻는건 실례가 되지만 묻자구. 명숙동무, 몇살이요?》

인사뒤끝에 석영진이 물었다.

《마흔아홉살입니다.》

《잠정리에 온지 벌써 10년이 되였군, 10년!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데서 많은 일을 해놓았소.》

그는 감회깊은 눈으로 녀성으로서의 미가 무르익은 명숙의 모습과 훌륭하게 변모된 잠정마을을 살펴보았다.

《자, 타오. 갑시다.》

승용차는 수도 평양을 향해 살같이 달렸다.

명숙은 온몸이 떠가는듯 경쾌했으며 이제 곧 언제나 그리운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게 된다는 생각으로 격동되여있었다.

평양에서 허명숙은 도당책임비서, 도농촌경리위원장,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들, 계획을 넘쳐수행한 관리위원장들 등과 함께 금수산의사당(당시)에서 진행되는 황해남도 농업부문 일군협의회에 참가하였다. 당과 국가 간부들, 농업부문 책임일군들이 함께 참가한 협의회를 수령님께서 지도하시였다.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회의들에 자주 참가한 허명숙이였지만 이번에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이를 이처럼 가까이에서 뵈옵게 되였다. 마음은 한없이 격동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뵙던 일이 떠올랐다. 수령님께서는 명숙이의 아버지가 원쑤놈들에게 학살되였다는 말을 들으시고 피살자유자녀들을 만나본 날이면 가슴이 아파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동무들의 친아버지가 되여 훌륭한 일군으로 키우려 한다고, 아버지의 몫까지 다해서 일을 잘하라고,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걸으며 이악하게 농사를 잘 지어보라고 당부하시였다. 수령님의 당부대로 오늘까지 이악하게 농사지어왔다.

하지만 만족할수 없었다. 오늘도 농사문제로 마음쓰시며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수령님의 머리가 희슥해진것을 보는 명숙은 눈굽이 뜨거워나며 송구스러워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과연 우리가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게 일했단 말인가. 올해 풍년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알곡수확고를 최상의 수준으로 올렸단 말인가.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리였다.

《년초에 올해농사를 잘 짓고 가을에 총화해보자고 했는데 동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도 자신있게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명숙이와 같은 심정인듯싶었다.

《올해에 가물이 들었지만 동무들이 노력한 보람이 있어 황해남도가 전반적으로는 농사가 괜찮게 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앞탁에 놓인 자료들을 보시며 알곡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한 협동농장들의 논벼 정당예상수확고를 다들 듣게 읽으시였다. 거기에는 잠정농장의 수확고도 들어있었다. 농장자체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판정한 수자였다. 만일 그가 군판정원들이 낸 수자에 수표했더라면 수확고가 더 높이 기록되였을것이지만 량심을 속이고 허위보고를 한것으로 되였을것이다. 량심적으로 정확히 판정한 수자로도 잠정농장은 국가계획을 수행했음을 인정받았다.

수령님께서 어느 한 관리위원장을 불러세우시고 가물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경험을 들으시고 다음 《잠정농장 관리위원장동무 왔소?》하고 명숙을 찾으시였다.

명숙은 어떻게 일어섰는지 알수 없었다. 《잠정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허명숙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하는 대답도 어떻게 그처럼 거침없이 탁 트인 목소리로 할수 있었는지 알수 없었다.

《음, 왔구만.》

수령님께서 반가와하시였다.

《올해농사를 잘 지었는데 물을 얼마나 썼소?》

《논 정보당 0.9정미 썼습니다.

어버이수령님, 우리 농장에서는 물걱정을 몰랐습니다. 수령님께서 서해갑문을 막아주신 덕에 물이 농장앞까지 들어옵니다. 그 물을 마음대로 퐝퐝 퍼올렸더니 가물든 올해에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들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수령님덕에 풍년을 마련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있습니다.》

관리위원장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그 시절에 해놓은 일이 아직 없어

수령님앞에서 농사경험을 말씀드리는 오랜 관리위원장들을 부러웁게 바라보았던 명숙이 오늘은 자신심을 가지고 보고드리는것이였다.

《동무들이 수고했소. 다 명숙동무처럼 이악하게 일했더라면 황해남도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었을것입니다. 황해남도가 올해에 농사를 괜찮게 지었지만 별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지역들에서는 작년보다 정당수확고가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알곡생산을 더 높일수 있는 예비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물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국가적인 계획을 세워 물길공사를 대대적으로 벌립시다.》

물길공사를 어떻게 벌릴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진지한 협의가 있었다.

《다음으로 논밭깊이갈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수확고를 높일 중요한 예비가 있습니다. 허명숙동무.》

말씀을 기록하던 사업수첩을 든채 명숙이 일어섰다.

《동무네 농장에 〈풍년〉호 뜨락또르를 몇대 주면 논밭깊이갈이를 다 할수 있겠소?》

명숙은 잠간 타산을 해보고 대답을 드리였다.

《〈풍년〉호 5대만 있으면 다 할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능력있고 세련된 농업일군으로 성장한 허명숙을 무척 대견하게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는 75마력 《풍년》호 뜨락또르의 작업능력을 따져보시고 그러면 5대를 보내줄테니 잘해보라고 하시였다.

이듬해 전국농업대회에 참가한 명숙은 다른 관리위원장과 함께 주석단에 나오시는 **김일성**동지께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를 드리며 그이께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하자 그이께서는 《고맙소.》하고 답례를 하시였다.

대회에서 허명숙이 토론하였다. 그는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잠정농장이 농사를 지은 과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물을 충분히 쓰고 《풍년》호 뜨락또르로 깊이갈이를 보장하여 또다시 벼 정당 평균 0.3톤의 장성을 이룩했다고 토론하였다.

《우리 잠정협동농장은 이처럼 련속 알곡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고있습니다. 우리 농장은 논벼정당수확고에서 해방전의 3배, 농업협동화가 끝난 해의 1.8배, 알곡총생산량은 각각 3.6배, 1.9배의

장성을 이룩하였습니다.》

허명숙이 전국농업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한 이 자랑찬 승리의 보고는 그 한사람뿐이 아닌 전체 잠정의 농장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있던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려는 충정으로 마련된것이였다.

수령님께서 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였다. 대회장은 우렁찬 박수소리로 꽉 찼다.

전국적으로 풍작을 마련하는데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농업근로자들을 표창하였다.

수령님께서 로력영웅칭호를 줄 대상자들을 한사람한사람 이름을 짚어가시다가 허명숙에 대하여 이 동무는 관리위원장으로 오래동안 사업하며 농사를 잘 지었소, 로력영웅이 될 자격이 충분하오라고 말씀하시였다.

명숙이 가슴에 금빛영웅메달을 번쩍이며 잠정농장으로 내려가자 농장원들이 모두 나와 진심으로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리당비서 차성재, 기사장 강현 그리고 마장석, 윤구, 경애, 철수, 곽기춘, 순절, 안종기… 그 숱한 이름들을 어떻게 다 꼽으랴.

차성재: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에 의하여 관리위원장동무가 로력영웅이 된것은 본인뿐아니라 우리 잠정협동농장의 자랑이며 전체 농장원들의 영광입니다. 축하합니다.

강 현: 방송을 듣고 관리위원회가 들썩하게 떠들며 기뻐했습니다. 위원장동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에 도달하기까지 위원장동지가 흘린 땀과 이 대지에 남긴 생의 흔적을 잊지 않을것입니다.

마장석: 내 아무때든 위원장이 영웅이 될줄 알았소. 민심이 천심이지.

곽기춘: 진실은 가리우지 못해. 보석은 빛이 나기마련이야.

류순절: 수령님께서 위원장동지의 토론을 들으시고 제일선참으로 박수를 쳐주시였다지요? 야! 나도 언제면… 꿈이지, 꿈이야.

로경애: 이 영웅메달에는 수십년간 쌀생산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 온 관리위원장동지의 영웅적위훈과 동시에 인간미도 빛나고있습니다.

명숙은 땅에 진심을 바쳐 농사를 잘 지음으로써 참된 땅의 주인이 되자고 호소했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명숙이를 기다리고있어 그의 기쁨은 더했다.
년로보장을 받은 로정만과 양옥실이 외손자 곽성일이를 데리고 잠정리로 아주 내려와서 딸네 집에서 산다는 소식이였다.
저녁에 명숙은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두 로인을 만났다.
《아빠트에서 살자니 당초에 심심해서 견딜수 있더라구요. 터발을 가꾸구 닭을 치고싶어 내려왔소.》 로정만이 하는 말이였다. 《농사짓던 사람은 늙어서 농촌에서 살아야 하겠습디다. 여기 오니 기운이 막 나는것 같소. 위원장, 영웅이 된걸 축하하오.》
명숙은 로인들을 위로해주고 웃으며 양옥실에게 물었다.
《그래, 사위가 어떻습니까?》
양옥실은 이렇게 대답했다.
《위원장, 내 사위가 제일이라우. … 우리 지나간 일은 더 이야기하지 말자구. 참, 내가 위원장한테 뭘 하나 가져왔소.》 양옥실은 하늘빛머리수건을 꺼내였다. 《위원장이 잠정리에 온 날부터 늘 쓰고다니는 그 머리수건은 낡았어. 그 허름한 수건을 쓰구 넓은 벌이 좁다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녔지. … 그게 가슴에 걸렸어. 아직 한창나인데 멋두 부리구 머리수건두 새걸 쓰라구, 응?》
양옥실은 눈물이 쏟아져내려 머리를 옆으로 돌리였다.
명숙은 양옥실이 준 밝은색의 새 머리수건을 쥐고 가슴에 꼭 눌러대였다.
인간은 본성적으로는 아름다운 존재인것이다.

×

황금의 벼이삭들이 무겁게 고개숙이고 물결치듯 설레이는 넓은 대지우에 머리희슥한 녀인이 서있다. 칠십에 가까운 할머니로 변함없이 농업전선의 한 지휘관으로 우리 당의 주체농법을 관철하는 대오에 꿋꿋이 서있는 허명숙이였다. 샘솟는 기쁨을 억누르지 못해 솨―솨― 설레이는듯 한 벼이삭들은 명숙이에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속삭이는것 같았다.
벼이삭들은 무엇을 속삭이며 또 넓은 대지는 묵묵히 무슨 생각에 잠겨있는지… 땅은 인간이 자기에게 바치는 진심과 쏟아붓는 땀의 진가이상의 낟알을 주지는 않는다.